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이코모스 질의 보완자료

등재결정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서

일러두기

이 책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로, 2018년 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등재신청서와 이코모스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의 국문 편집본이다.

0. 개요	009
1. 신청유산의 명시	025
1.a 신청국가	
1.b 소재 시, 도 또는 지역	
1.c 신청유산 명칭	
1.d 최인접 초 단위 지리좌표	
1.e 신청유산 및 완충구역 표기 지도와 도면	
1.f 신청유산 및 완충구역 면적	
2. 설명	049
2.a 신청유산에 대한 설명	
2.a. i 일반 정보	
2.a. ii 개별 신청유산의 설명	
2.b 역사 및 발전	
3. 등재신청의 정당성	119
3.1 간략한 진술	
3.1.a 간략한 진술	
3.1.b 등재신청 기준	
3.1.c 완전성에 대한 진술	
3.1.d 진정성에 대한 진술	
3.1.e 보존과 관리에 대한 요건	

3.2 비교연구	
3.2.a 유학 교육 시설이 갖는 세계유산적 가치	
3.2.b 국외유산과 비교한 신청유산의 가치	
3.2.c 국내유산과의 비교를 통한 신청유산의 가치	
3.3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문	

4. 보존현황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9
4.a 보존현황	
4.b 신청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b. i 개발압력	
4.b. ii 환경압력 및 기후변화	
4.b. iii 자연재해 및 화재압력	
4.b. iv 방문객 및 관광산업에 의한 압력	
4.b. v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내 거주민 수	

5. 유산의 보호 및 관리	177
5.a 소유권	
5.b 보호지정	
5.c 보호대책의 시행수단	
5.c. i 문화재보호법	
5.c. ii 기타 관련법	
5.c. iii 지방 조례	

5.d 유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현존계획

5.e 유산 관리계획 또는 기타 관리체계

5.e. i 관리계획

5.e. ii 관리체계

5.f 재원 및 재정규모

5.f. i 재원구조

5.f. ii 재정계획

5.g 보존·관리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기관

5.g. i 문화유산 전문 교육기관

5.g. ii 문화유산 전문 연구기관

5.h 방문객 시설과 기반시설

5.h. i 방문객을 위한 문화유산해설사

5.h. ii 방문객 현황 및 관련 시설

5.i 유산의 소개와 홍보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5.i. i 제향 프로그램

5.i. ii 강학 프로그램

5.i. iii 교류와 유식 프로그램

5.j 전담인력의 수준 및 전문지식

6. 모니터링

237

6.a 보존상태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주요지표

6.a. i 일반지표

6.a. ii 핵심지표

6.a. iii 특수지표

6.b 신청유산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조치

6.c 선행 보고 활동의 결과물

7. 기록물

247

7.a 사진, 슬라이드, 영상기록, 인가 서류 및 기타 시청각 자료

7.b 보호 지정에 관한 문건, 대상물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 기록 및 해당 대상물과 관련된 기록의 초록 사본

7.c 신청 대상물에 관한 최신 기록이나 목록의 작성 형식 및 작성 일자

7.d 목록, 기록 및 자료의 보관 장소

7.e 참고문헌 목록

8. 연락처 정보

261

8.a 준비담당자

8.b 해당 지역의 공식 기관

8.c 해당 지역의 기타 기관

8.d 공식 웹 주소

9. 신청 체약국을 대표한 서명

267

부록(신청유산 도면)

271

1차 보완자료

2차 보완자료

등재결정문(영문/국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서

0장

개요



0장

개요

• 신청국가

대한민국

• 유산지역

번호	유산명	소재 주, 도 또는 지역
1	소수서원	경상북도 영주시
2	남계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3	옥산서원	경상북도 경주시
4	도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5	필암서원	전라남도 장성군
6	도동서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7	병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8	무성서원	전라북도 정읍시
9	돈암서원	충청남도 논산시

• 신청유산의 명칭

한국의 서원

• 최인접 초 단위까지 표기한 지리좌표

번호	유산명	시 / 군	중심점의 지리좌표	유산구역 면적(ha)	완충구역 면적(ha)	그림 번호
1	소수서원	영주시	N 36° 55′ 31.46″ E 128° 34′ 48.39″	17.16	73.62	0-2
2	남계서원	함양군	N 35° 32′ 54.57″ E 127° 46′ 59.71″	4.11	78.67	0-3
3	옥산서원	경주시	N 36° 00′ 42.14″ E 129° 09′ 47.91″	6.44	80.83	0-4
4	도산서원	안동시	N 36° 43′ 38.27″ E 128° 50′ 36.34″	36.73	166.84	0-5
5.	필암서원	장성군	N 35° 18′ 38.82″ E 126° 45′ 10.28″	1.38	51.06	0-6
6	도동서원	달성군	N 35° 42′ 03.33″ E 128° 22′ 18.87″	2.32	81.23	0-7
7	병산서원	안동시	N 36° 32′ 27.66″ E 128° 33′ 11.16″	30.08	164.3	0-8
8	무성서원	정읍시	N 35° 36′ 06.61″ E 126° 59′ 01.45″	0.84	54.96	0-9
9	돈암서원	논산시	N 36° 12′ 33.21″ E 127° 10′ 50.75″	3.43	45.23	0-10
전체면적(ha)				102.49	796.74	

• 신청유산의 경계에 관한 설명

신청유산의 경계는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평지의 경우 주변 조망과 토지이용 상태를, 산지의 경우 가시권의 경계를 이루는 능선을 고려하였다. 완충구역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다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유산구역과 인접한 산, 강, 하천 등과 같은 자연지형 경계물, 마을 거주 지역, 마을의 농지 경계 등과 함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지역을 경계로 하였다.

• 신청유산 및 완충구역 면적과 표기 지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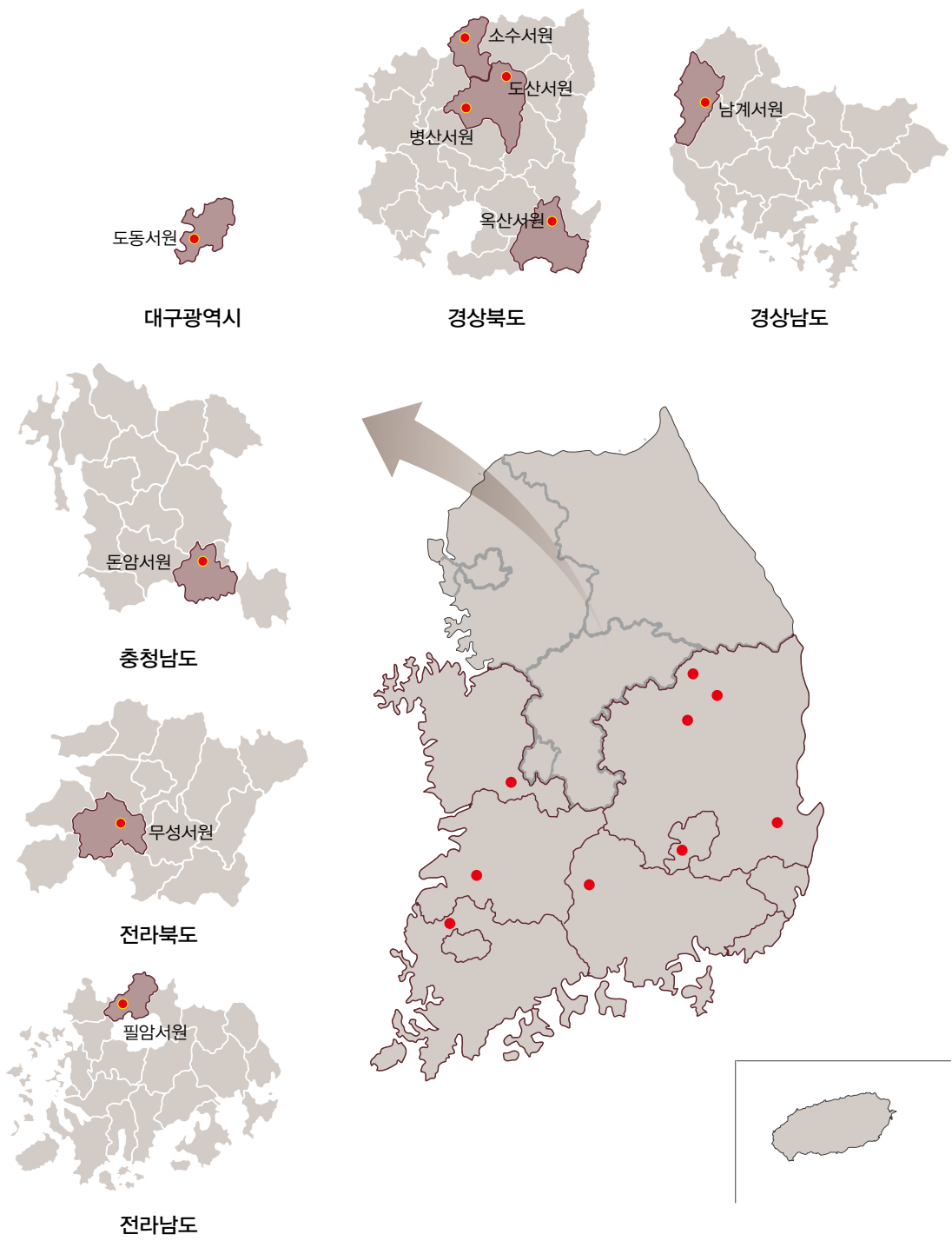


그림 0-1. 신청유산 9개 서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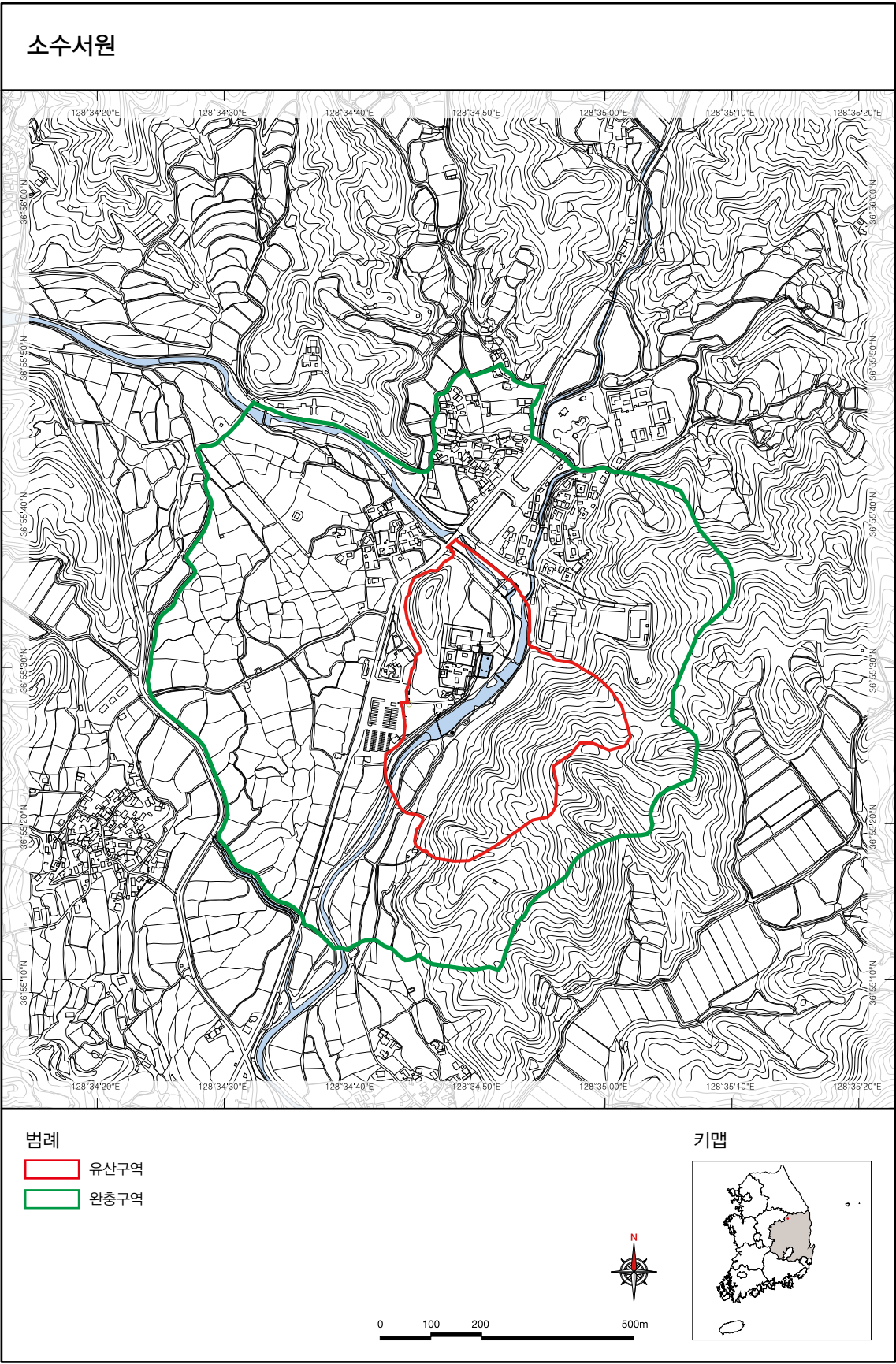


그림 0-2. 소수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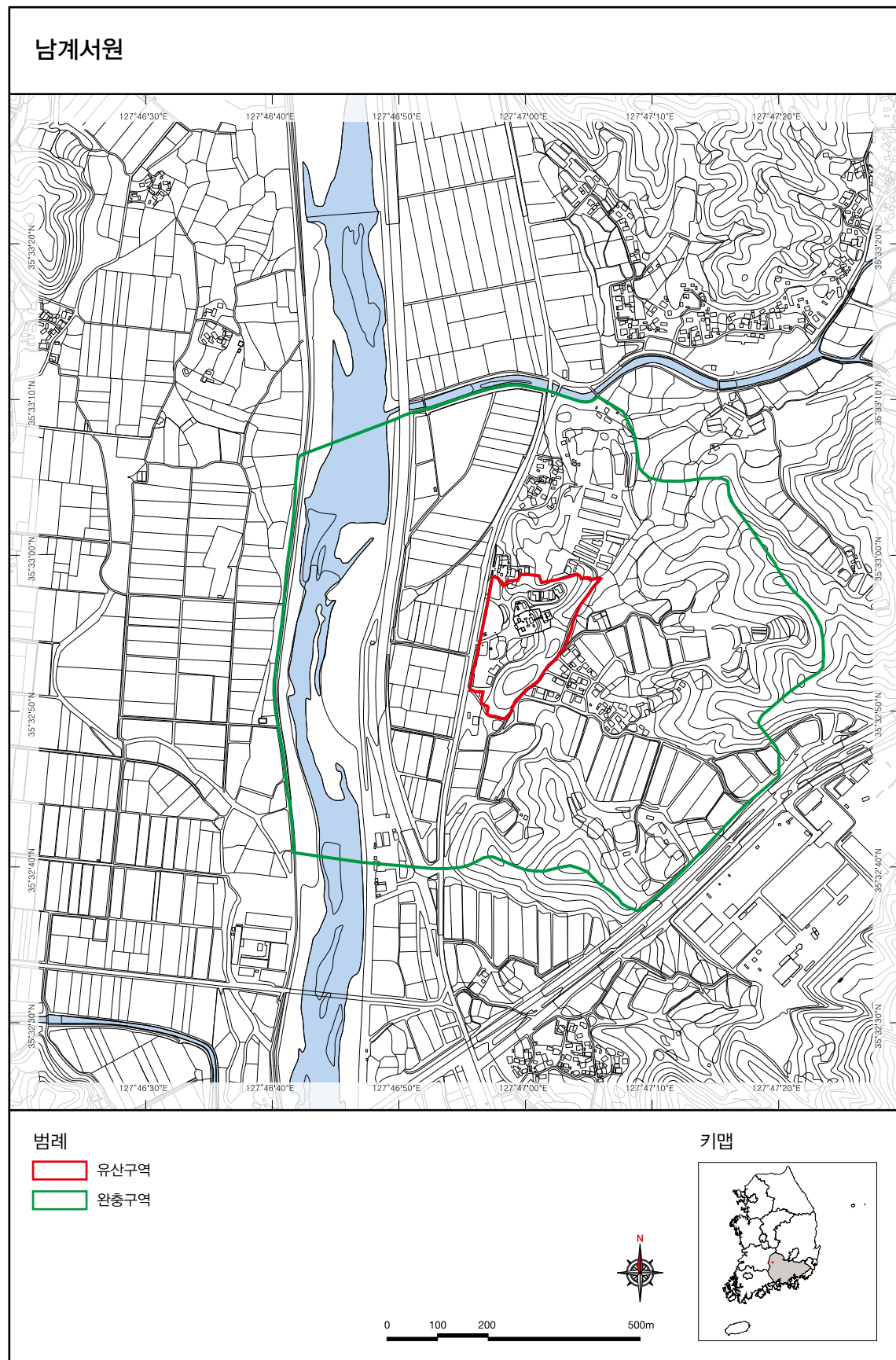


그림 0-3. 남계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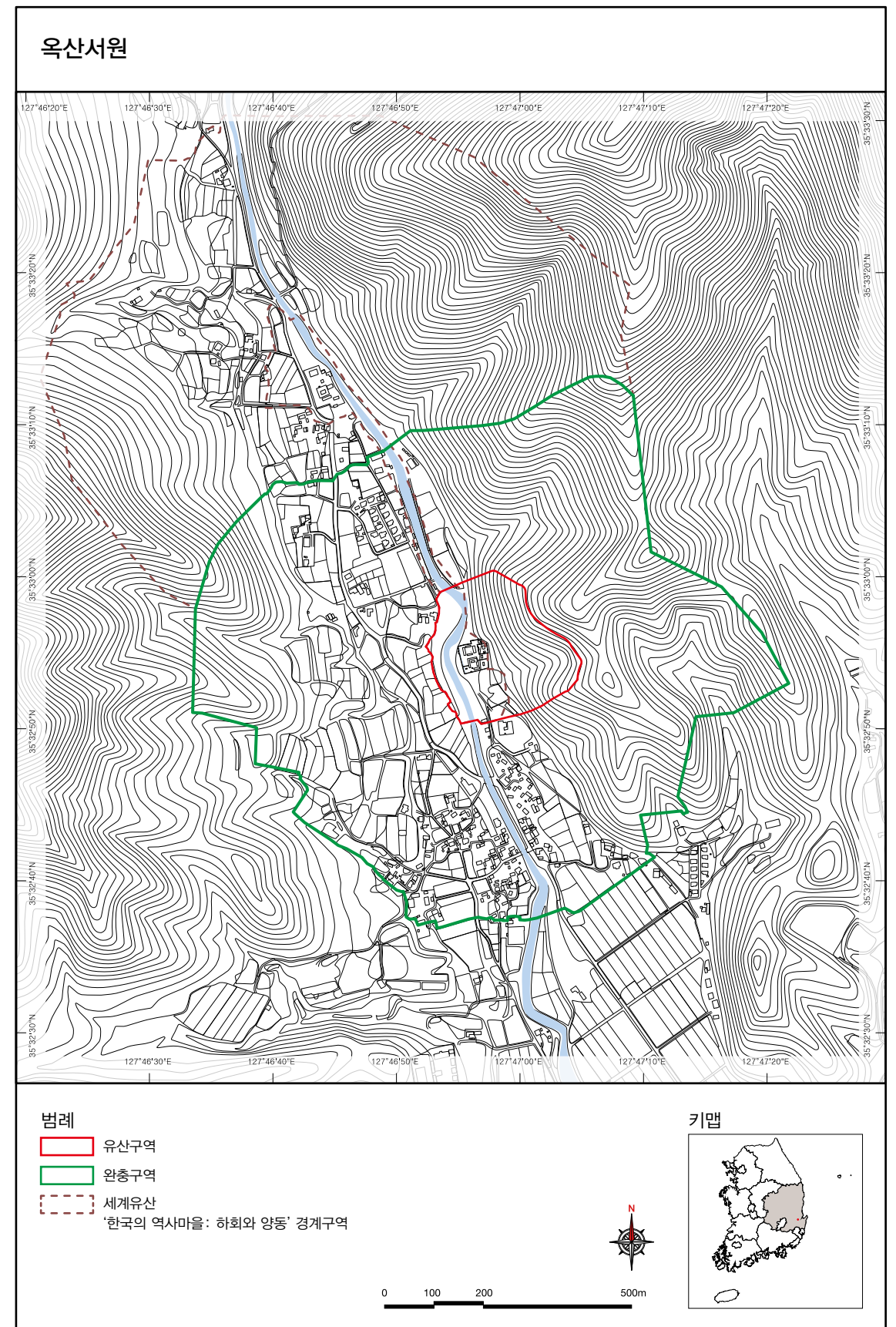


그림 0-4. 옥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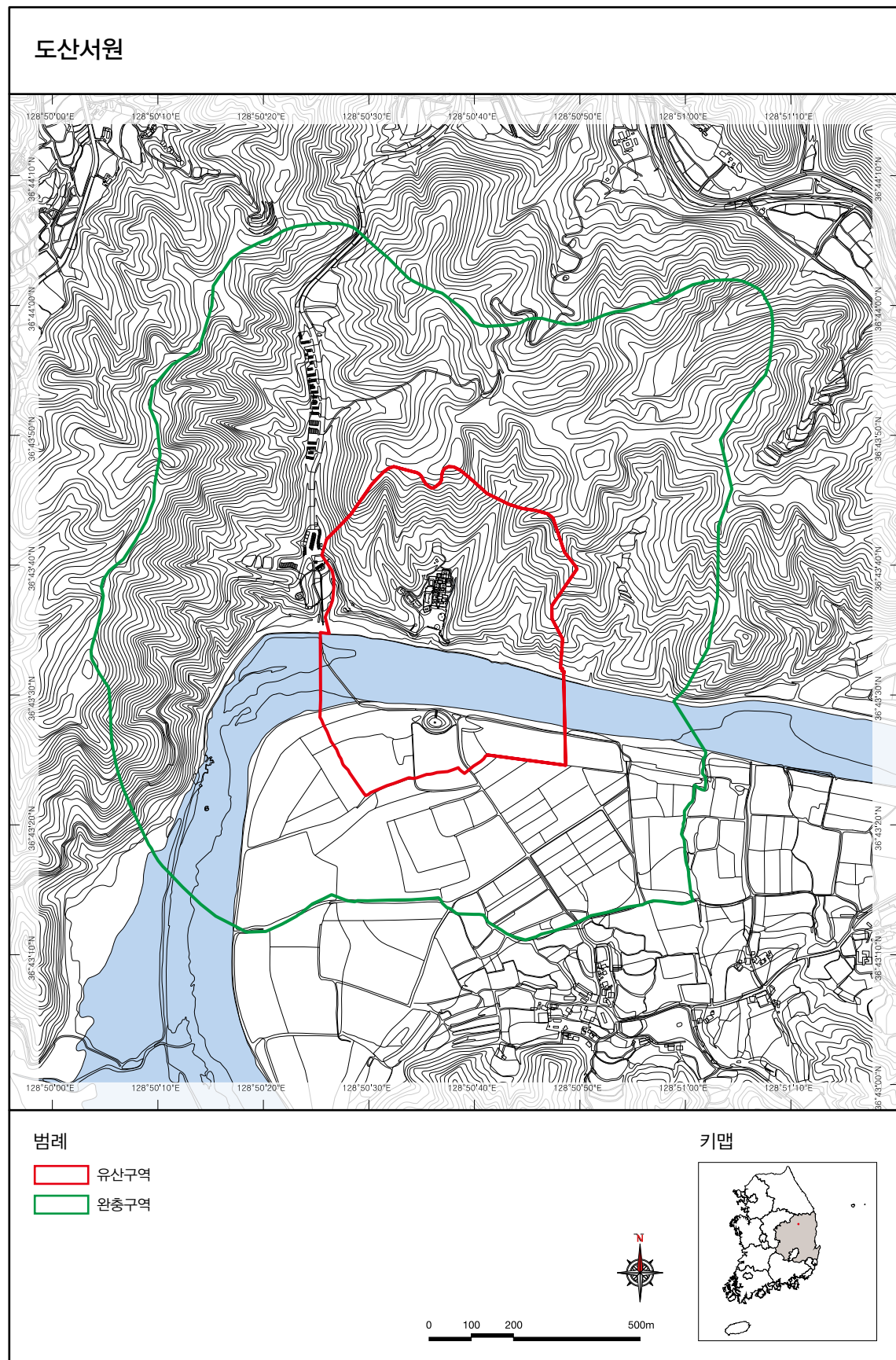


그림 0-5. 도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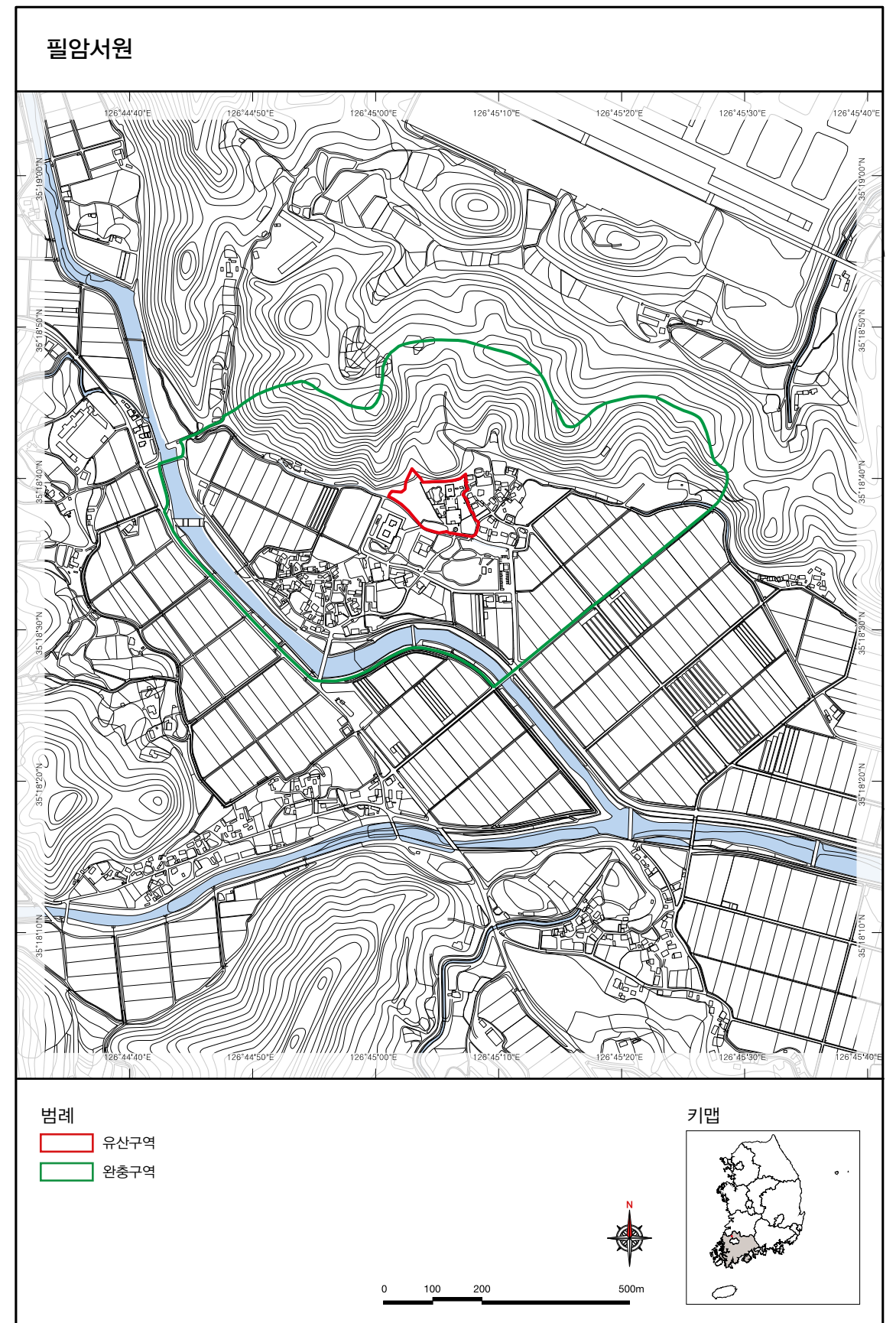


그림 0-6. 필암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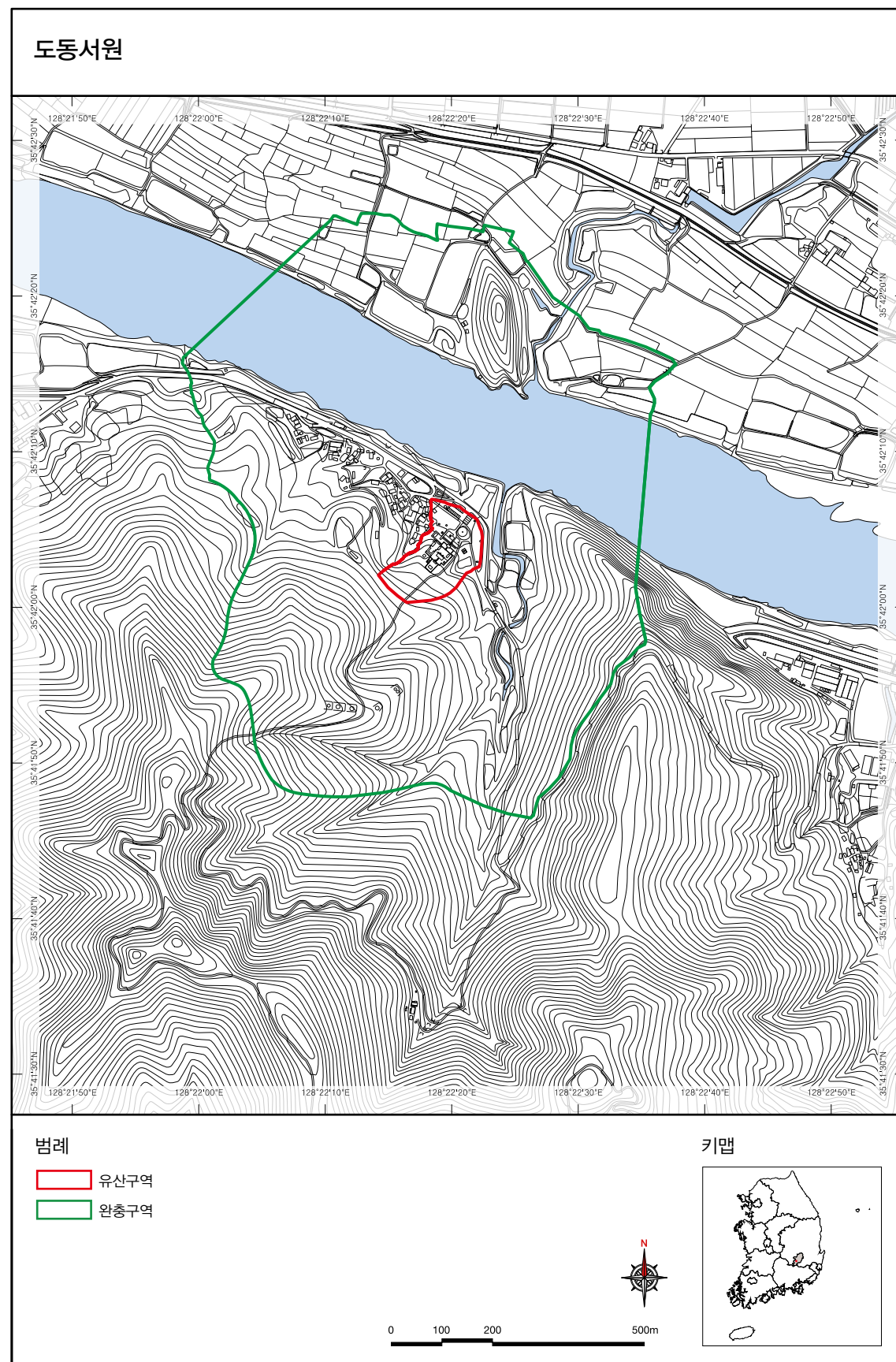


그림 0-7. 도동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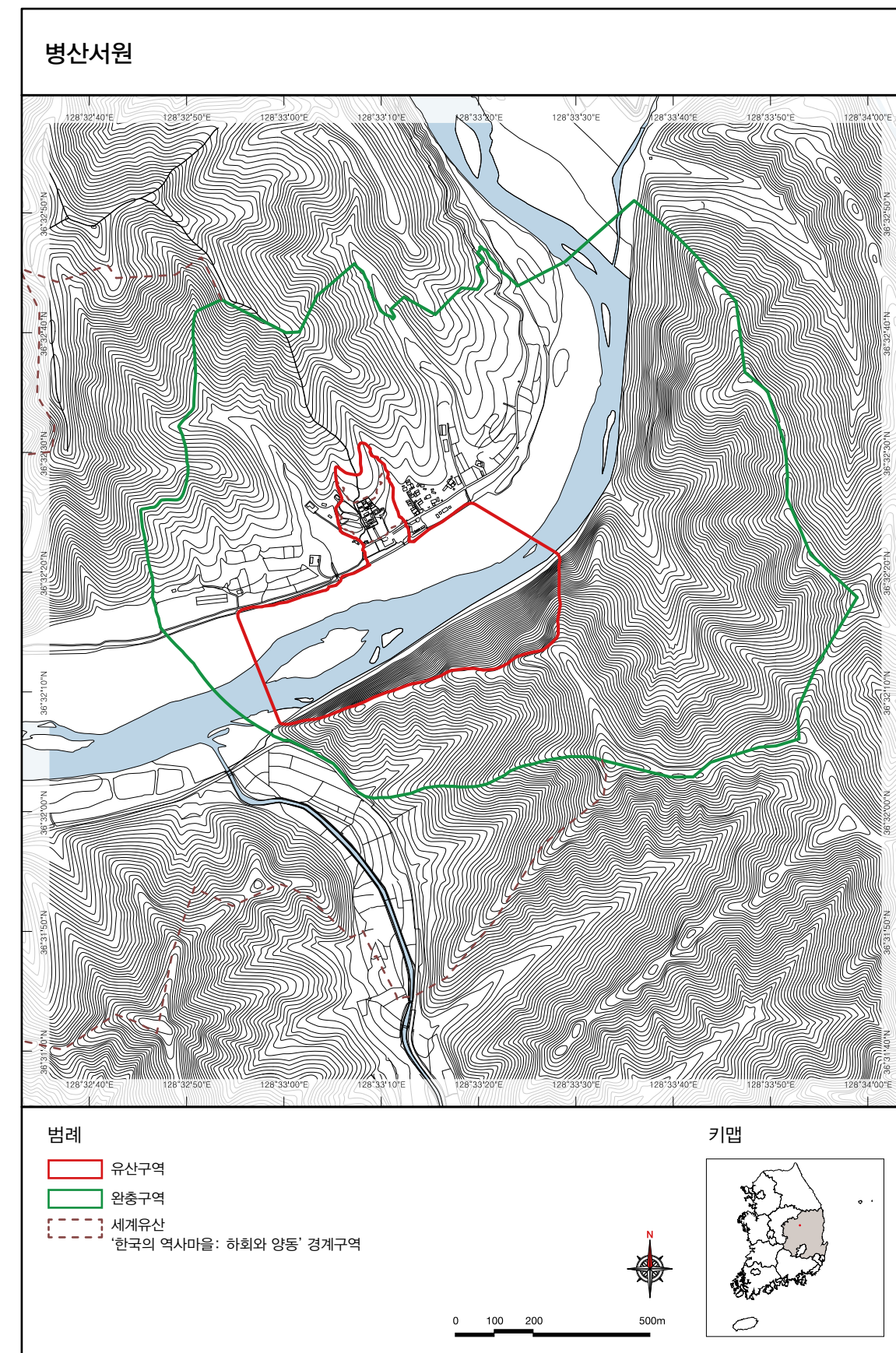


그림 0-8. 병산서원

무성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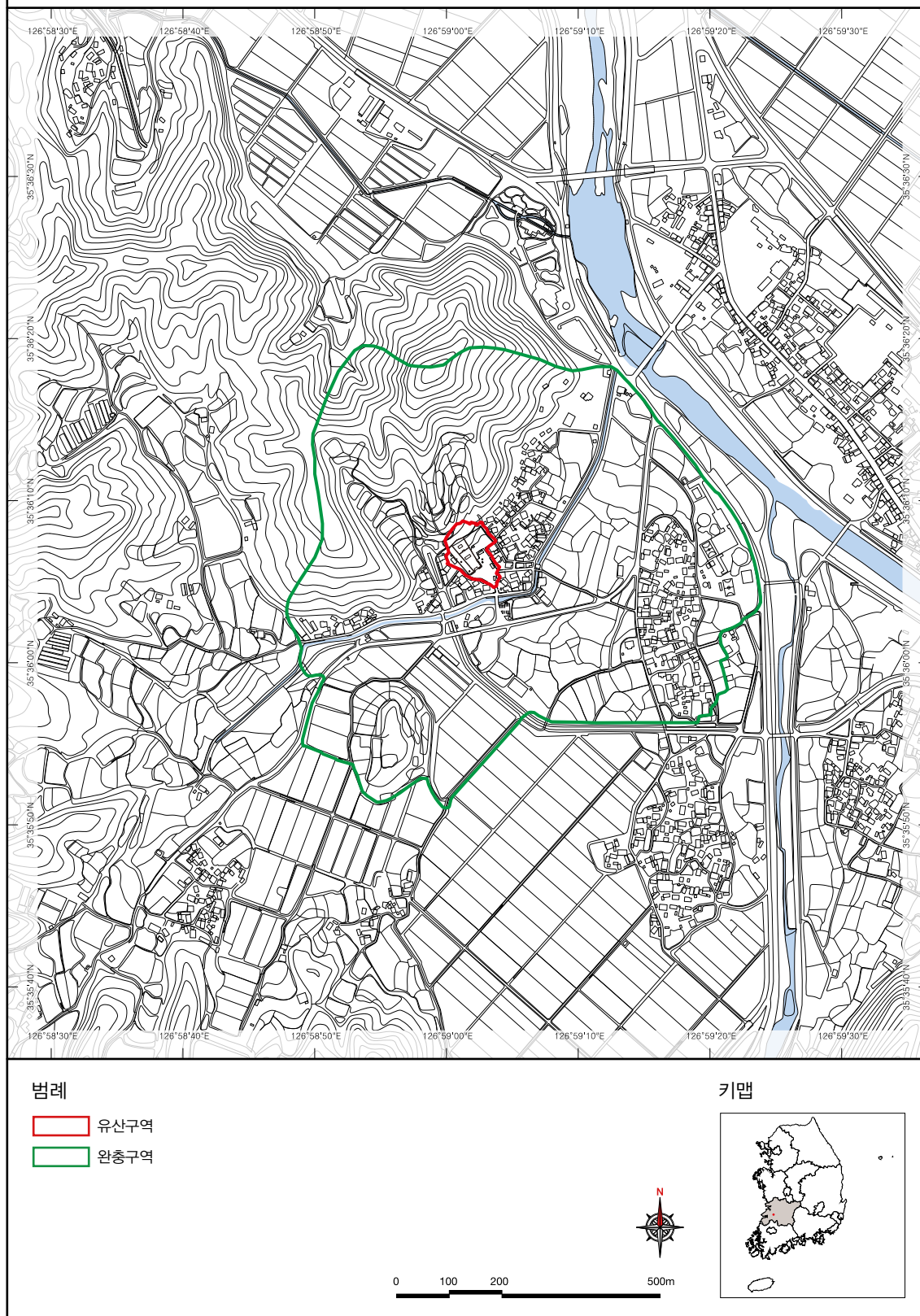


그림 0-9. 무성서원

돈암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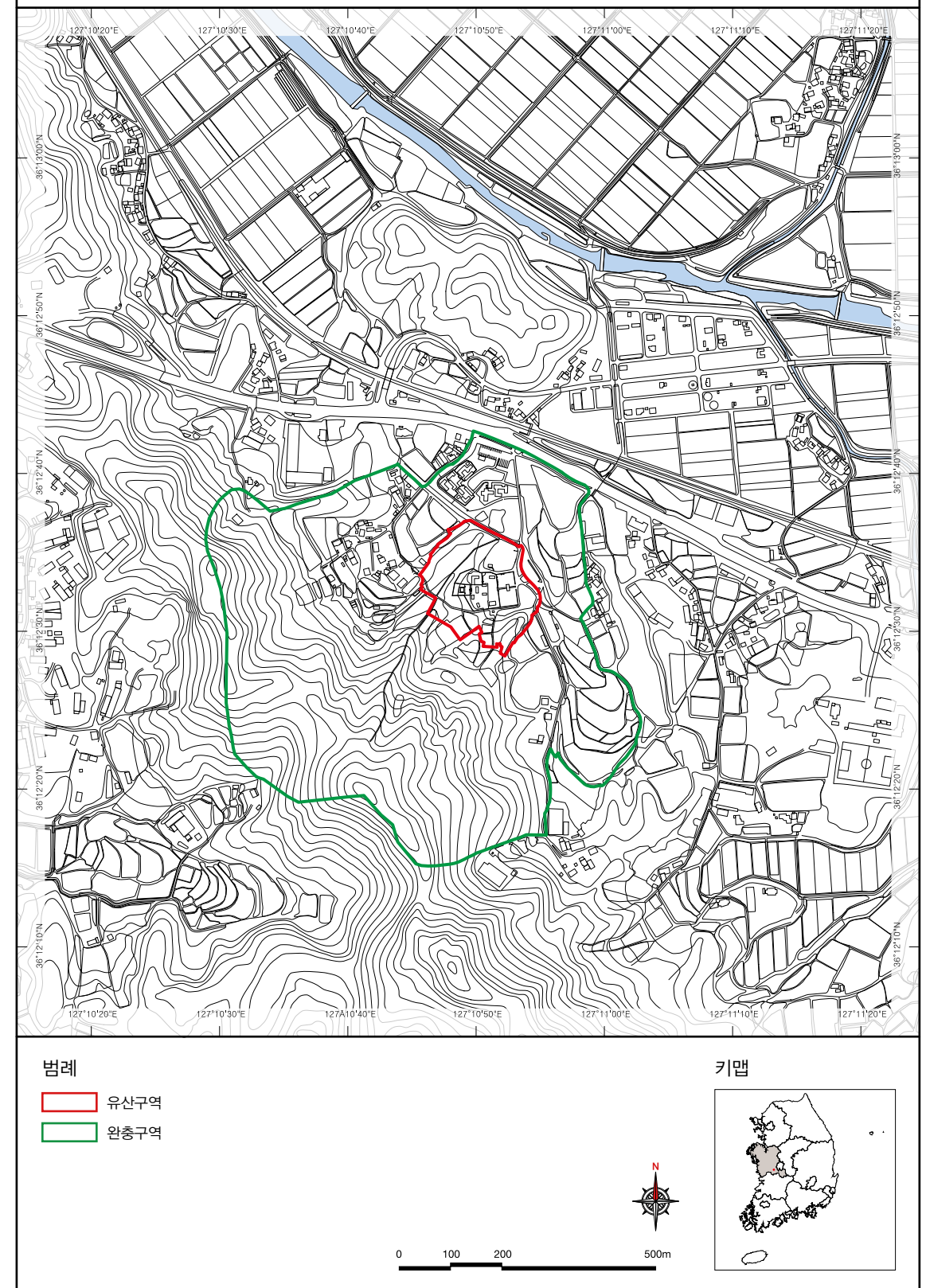


그림 0-10. 돈암서원

• 신청유산에 적용된 등재기준

(iii)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적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iv) 인류 역사의 주요 단계(들)를 보여주는 유형의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의 뛰어난 사례이어야 한다.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 건축 유형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서원 설립 운동의 초기단계에서 건축 유형을 정형화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끼쳤다. 이 유산은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을 수행하기 위한 강당, 사우, 누각 등의 건축물들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건축 배치는 지형, 경관, 기단, 담장과 문을 통해 구현하였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기술

신청유산은 향촌 지식인들에 의해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다. 이 유산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의 9개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 유산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기초가 되었던 성리학 교육을 증진한 교육기관의 탁월한 증거이다. 서원에서 향촌 지식인들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유형적 구조물들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성리학 경전연구를 수행하였고,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상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향촌사회의 선현들을 제향하였고, 제향인물을 통해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또한,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기초로 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활동들을 통해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신청유산은 성리학 교육기관 중 지역화를 달성한 하나의 뛰어난 사례이다. 서원은 건립 시 입지 선택에 있어서 제향인물과 주변 환경을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의 각 영역들은 서원 건축유형을 창조하였으며, 자연 지형과 경관을 활용하여 배치되었다. 서원 설립 운동의 초기단계인 1세기 간 완성된 정형화는 이후 건립되는 서원들의 전형이 되었으며 이는 건축 배치를 통해 구현되었다. 이 유산은 사우, 강당, 누마루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제향, 강학, 그리고 교류와 유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건축물의 위계는 지형, 경관, 기단, 담장, 문 등의 사용을 통해 구현하였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던 성리학이 지역화되고 변형된 독특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이 유산은 한국에서 서원 건축의 정형화에 의해 완성된 독특한 문화전통을 나타낸다. 9개로 구성된 이 유산은 한국 서원의 특성과 발전을 보여주며, 서원이 건축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는지 각각의 과정을 통해 보여준다.

이 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고 개별 유산들은 그 자체의 진정성을 함께 충족하고 있다.

이 유산은 강학, 제향, 교류공간과 관련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과 주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 사우는 제향공간에 보존되어 있다. 강당, 재사, 장서각은 강학공간에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누각은 교류공간에 보존되어 있다. 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관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은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유산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위치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과 환경과 관련된 위해가 경미하다.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예상 가능한 위해로부터 이 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게다가 일상 모니터링이 현장 담당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3년마다 정기 모니터링과 관련된 점검을 하고 있다.

이 유산은 형식과 디자인, 물질과 재료, 전통, 기술과 관리체계, 입지와 배치, 그리고 주변환경 등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유산은 입지와 주변 경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학, 제향, 교류활동과 관련된 건축 배치와 건축물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신청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전통 건축기법과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20세기 이래로 전통 건축 기술을 훈련한 공인된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9개 서원들은 국가 및 민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각 서원의 운영자들은 원회 등을 통해 서원 관리에 종사하고 있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범위의 문서들과 무형 유산은 잘 보존되고 있으며, 유산의 진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신청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적 기반이다. 국가 사적으로서 신청 유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보호 체계에 놓여 있다. 신청유산의 경계는 법적체계하에 놓여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토지이용과 개발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대한민국의 토지 계획과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청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발 및 환경압력과 관련한 가능성이 경미하다.

신청유산은 9개의 서원을 관할하는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보호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자연 재난, 화재, 기후 변화와 정기 모니터링과 관련된 문화 유산의 보호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교육을 수행 중에 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청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과 관련된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비록 현재 관광압력이 높지는 않지만, 신청유산의 관련 종사자들은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어떠한 부정적인 관광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식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

기관 : 문화재청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 042-481-3180

Fax : 042-481-3199

E-mail : koreasoc@korea.kr

홈페이지: <http://www.cha.go.kr>

1장

신청유산의 명시



신청유산의 명시

1.a 신청국가

대한민국



그림 1-1. 대한민국 위치도

1.b 소재 시, 도 또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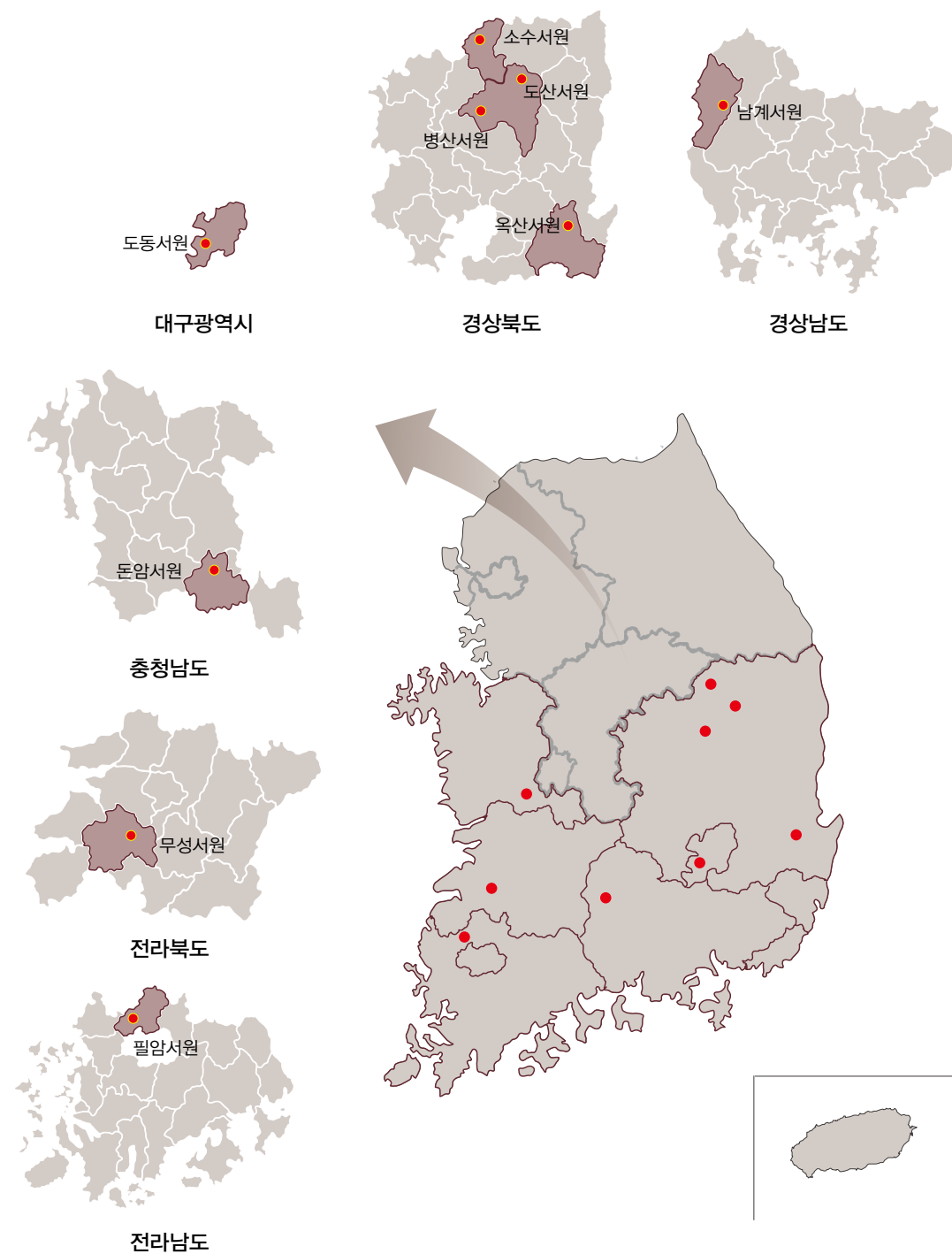


그림 1-2. 신청유산 9개 서원 위치도

1.c 신청유산 명칭

한국의 서원

1.d 최인접 초 단위 지리좌표

번호	유산명	지역	중심점의 지리좌표	유산구역 면적 (ha)	완충구역 면적 (ha)	그림
1	소수서원	경상북도 영주시	N 36° 55' 31.46" E 128° 34' 48.39"	17.16	73.62	1-3, 1-4
2	남계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N 35° 32' 54.57" E 127° 46' 59.71"	4.11	78.67	1-5, 1-6
3	옥산서원	경상북도 경주시	N 36° 00' 42.14" E 129° 09' 47.91"	6.44	80.83	1-7, 1-8
4	도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N 36° 43' 38.27" E 128° 50' 36.34"	36.73	166.84	1-9, 1-10
5	필암서원	전라남도 장성군	N 35° 18' 38.82" E 126° 45' 10.28"	1.38	51.06	1-11, 1-12
6	도동서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N 35° 42' 03.33" E 128° 22' 18.87"	2.32	81.23	1-13, 1-14
7	병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N 36° 32' 27.66" E 128° 33' 11.16"	30.08	164.3	1-15, 1-16
8	무성서원	전라북도 정읍시	N 35° 36' 06.61" E 126° 59' 01.45"	0.84	54.96	1-17, 1-18
9	돈암서원	충청남도 논산시	N 36° 12' 33.21" E 127° 10' 50.75"	3.43	45.23	1-19, 1-20
총 면적				102.49	796.74	

1.e 신청유산 및 완충구역 표기 지도와 도면

번호	유산명	지도 및 사진	축척	그림번호	페이지
1	소수서원	지형도	1:10,000	1-3	30
		위성사진		1-4	31
		유산구역 토지소유 현황	1:5,000	5-1	180
		경계구역 법적 규제	1:10,000	5-4	189
2	남계서원	지형도	1:10,000	1-5	32
		위성사진		1-6	33
		유산구역 토지소유 현황	1:3,500	5-1	180
		경계구역 법적 규제	1:10,000	5-5	190
3	옥산서원	지형도	1:10,000	1-7	34
		위성사진		1-8	35
		유산구역 토지소유 현황	1:3,300	5-2	181
		경계구역 법적 규제	1:15,000	5-6	191
4	도산서원	지형도	1:12,500	1-9	36
		위성사진		1-10	37
		유산구역 토지소유 현황	1:7,000	5-2	181
		경계구역 법적 규제	1:12,500	5-7	192
5	필암서원	지형도	1:10,000	1-11	38
		위성사진		1-12	39
		유산구역 토지소유 현황	1:2,300	5-2	181
		경계구역 법적 규제	1:12,500	5-8	193

번호	유산명	지도 및 사진	축척	그림번호	페이지
6	도동서원	지형도	1:10,000	1-13	40
		위성사진		1-14	41
		유산구역 토지소유 현황	1:2,300	5-2	181
		경계구역 법적 규제	1:8,000	5-9	194
7	병산서원	지형도	1:15,000	1-15	42
		위성사진		1-16	43
		유산구역 토지소유 현황	1:6,200	5-3	182
		경계구역 법적 규제	1:12,500	5-10	195
8	무성서원	지형도	1:10,000	1-17	44
		위성사진		1-18	45
		유산구역 토지소유 현황	1:1,300	5-3	182
		경계구역 법적 규제	1:9,000	5-11	196
9	돈암서원	지형도	1:10,000	1-19	46
		위성사진		1-20	47
		유산구역 토지소유 현황	1:2,300	5-3	182
		경계구역 법적 규제	1:7,600	5-12	197

1.f 신청유산 및 완충구역 면적

(단위 : ha)

번호	유산명	유산구역 면적	완충구역 면적	전체 면적
1	소수서원	17.16	73.62	90.78
2	남계서원	4.11	78.67	82.78
3	옥산서원	6.44	80.83	87.27
4	도산서원	36.73	166.84	203.57
5	필암서원	1.38	51.06	52.44
6	도동서원	2.32	81.23	83.55
7	병산서원	30.08	164.3	194.38
8	무성서원	0.84	54.96	55.80
9	돈암서원	3.43	45.23	48.66
전체 면적		102.49	796.74	89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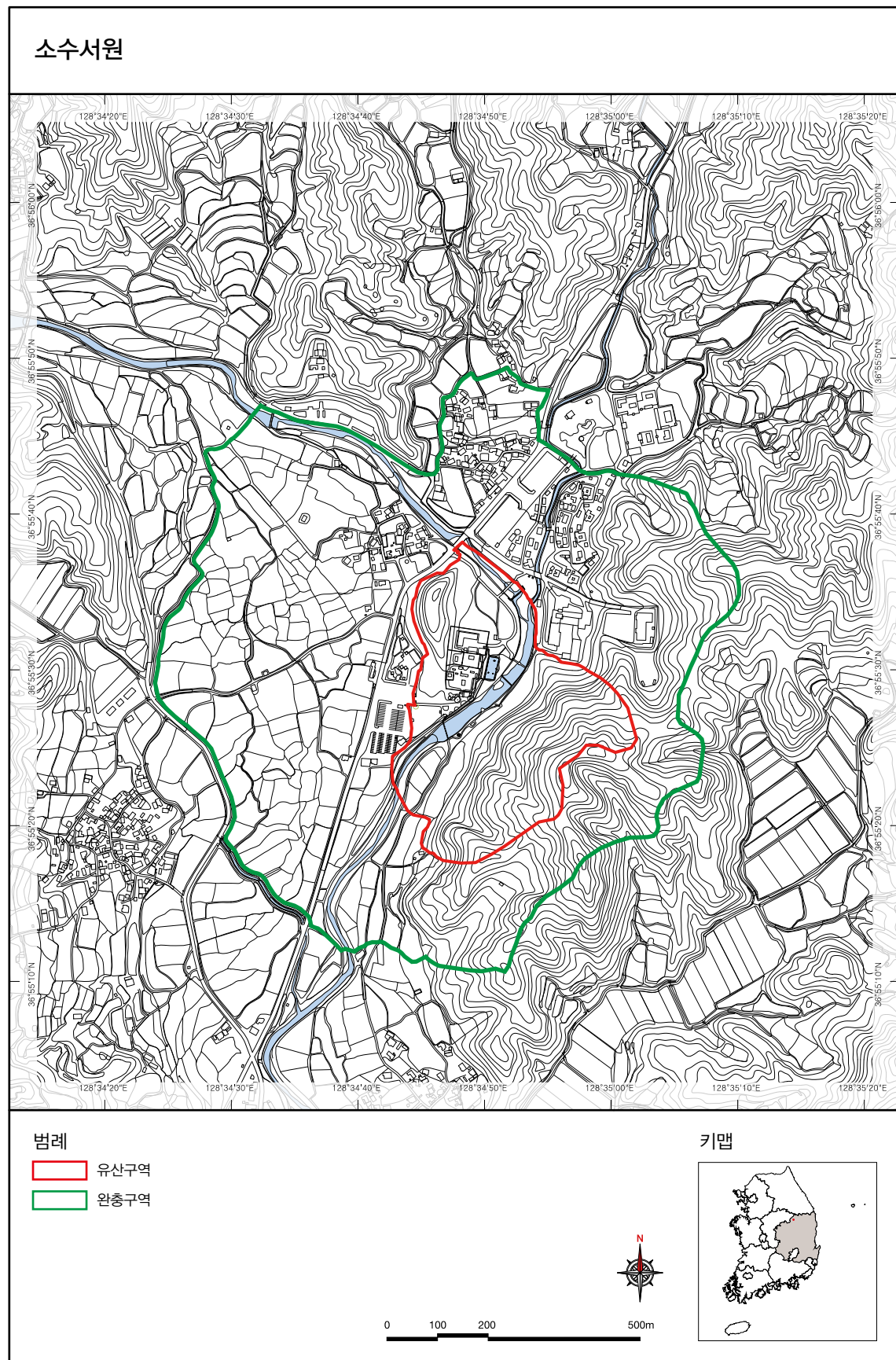


그림 1-3. 소수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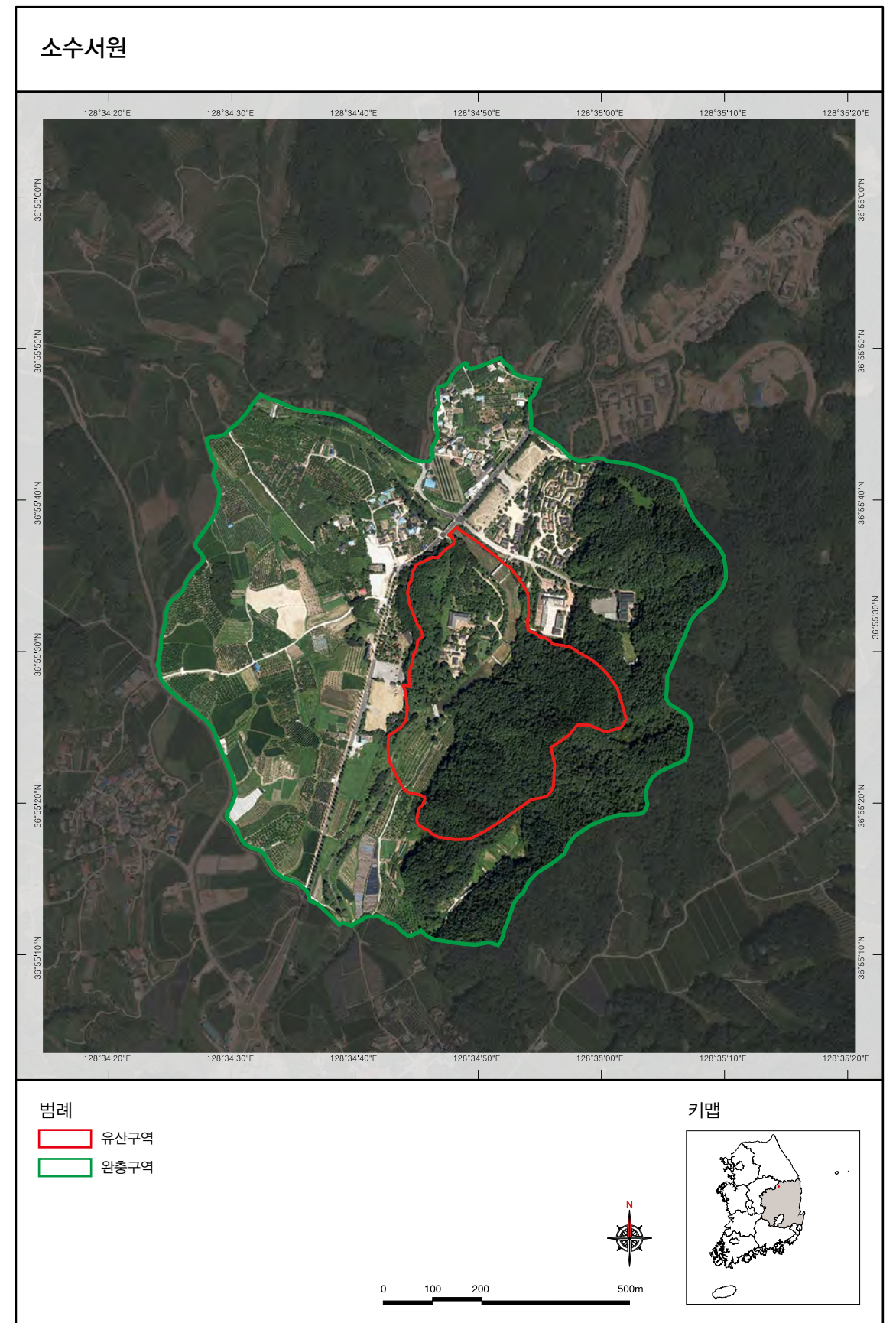


그림 1-4. 소수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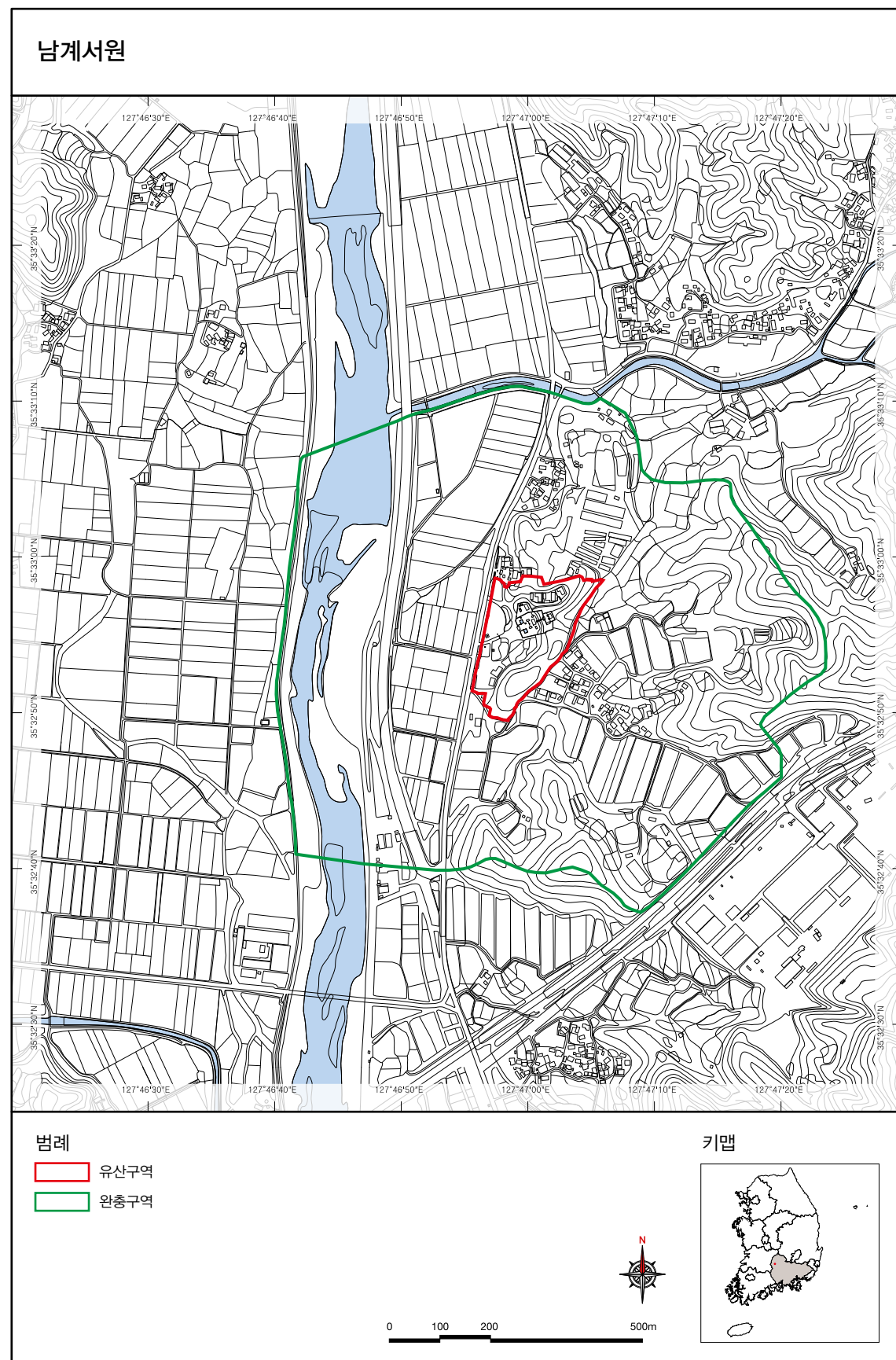


그림 1-5. 남계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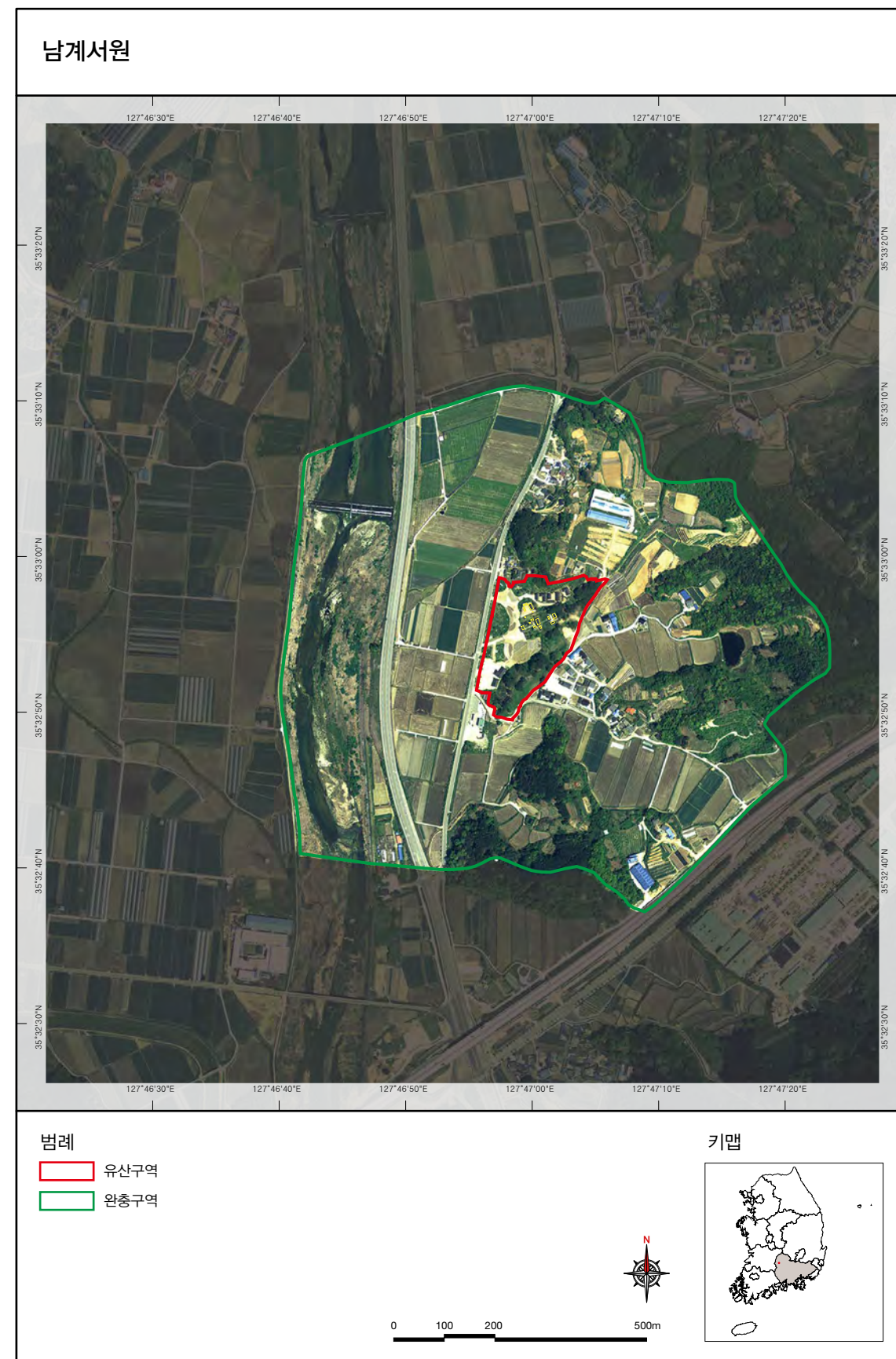


그림 1-6. 남계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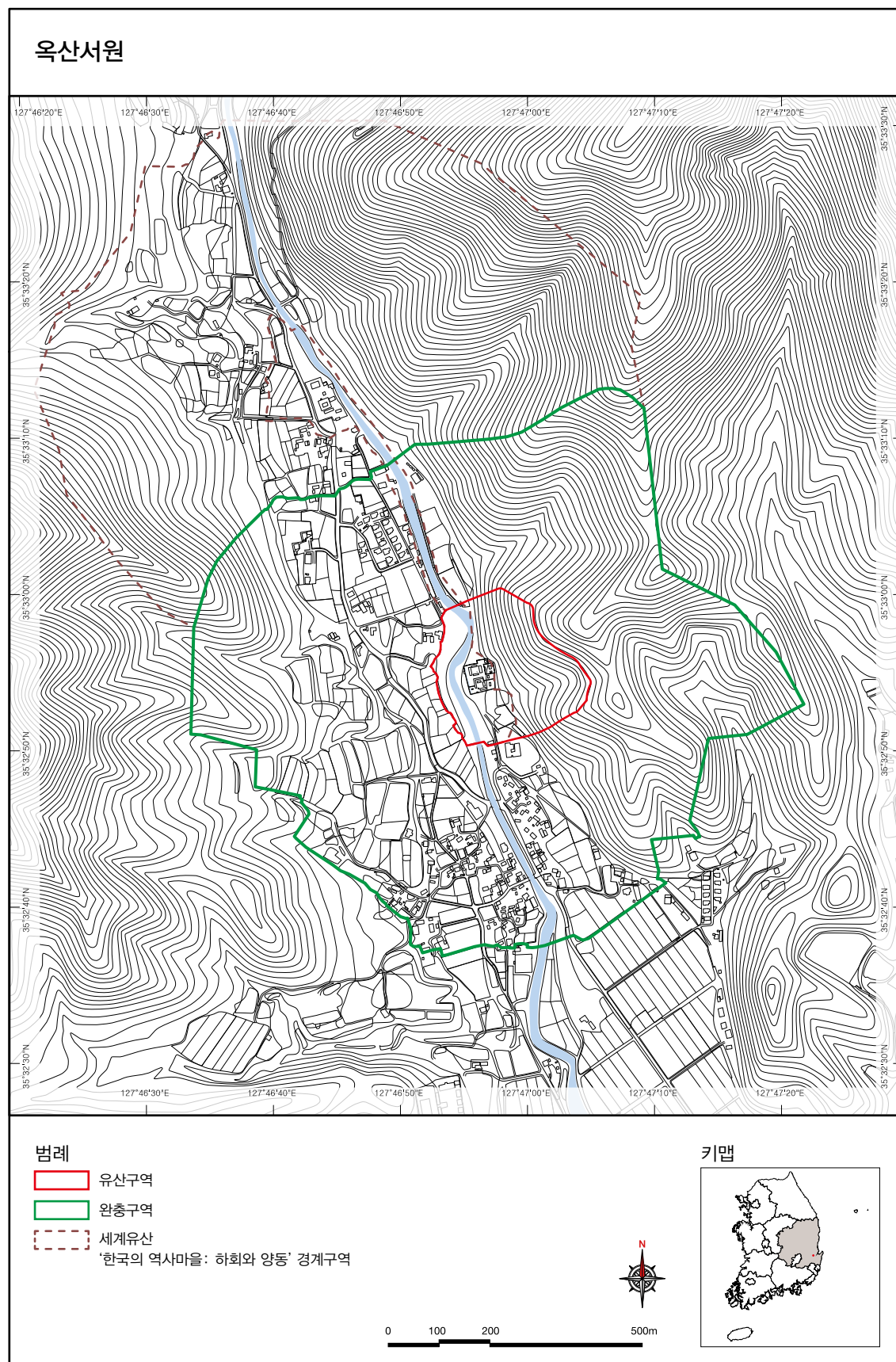


그림 1-7. 옥산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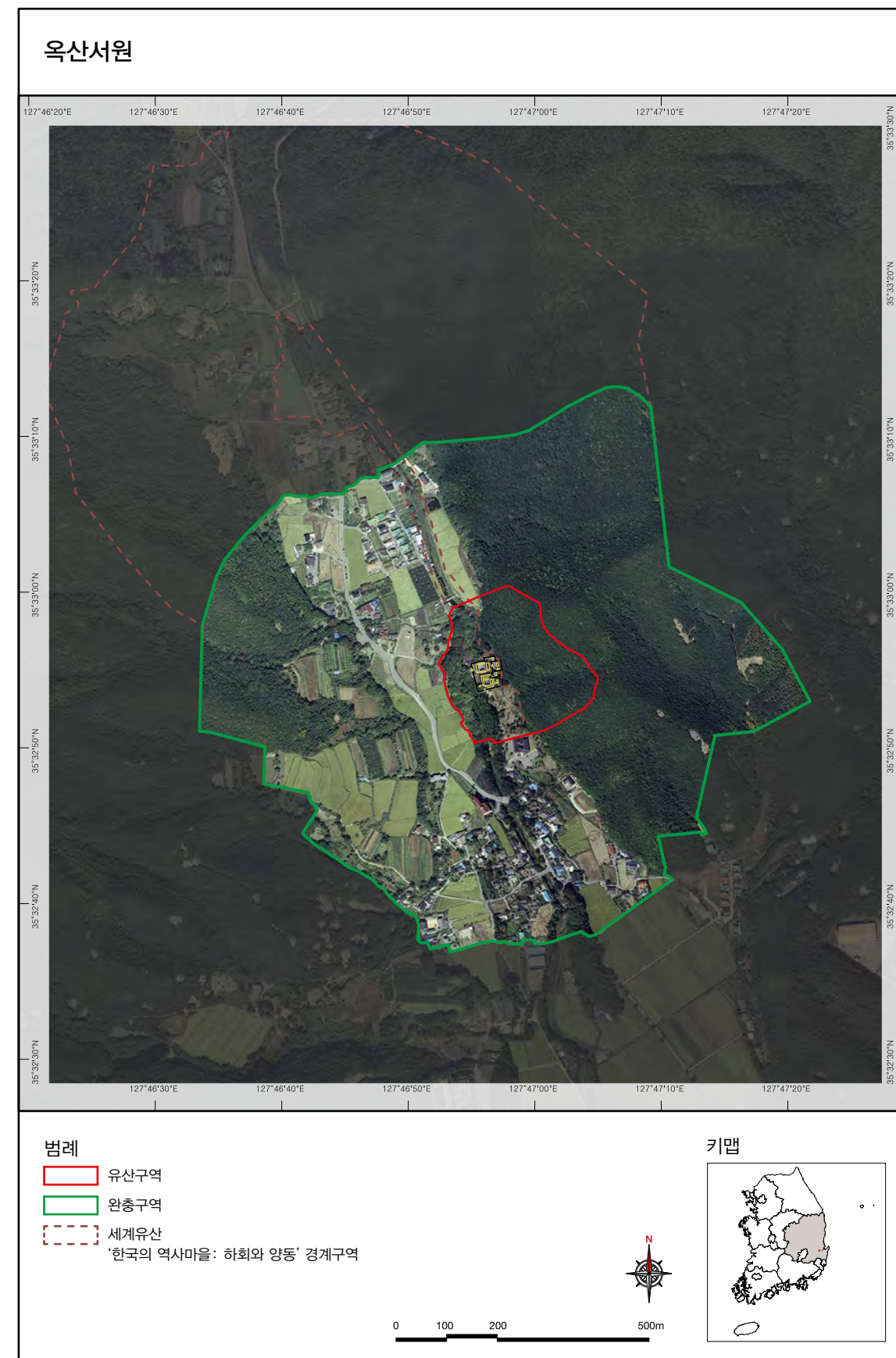


그림 1-8. 옥산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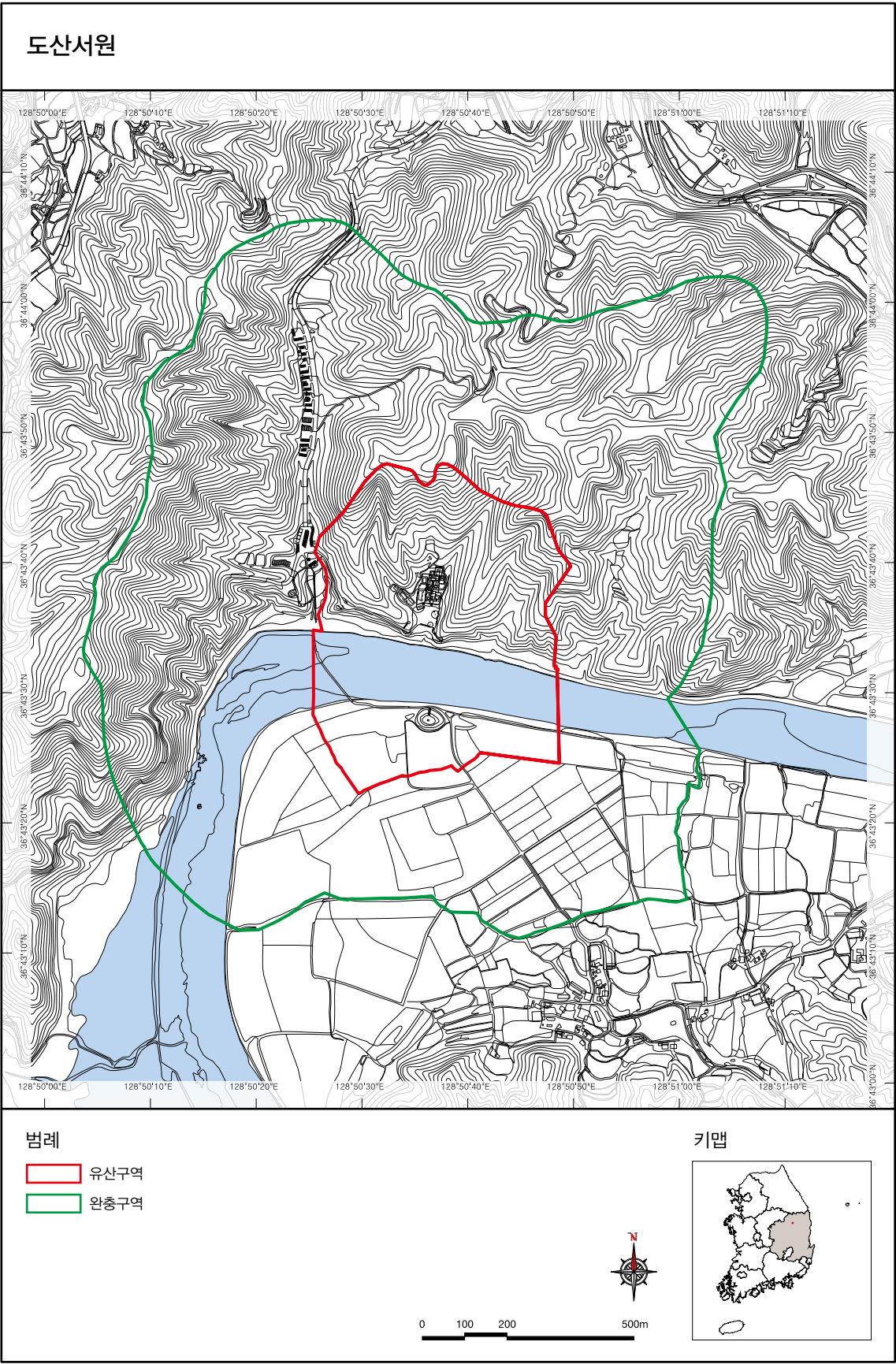


그림 1-9. 도산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형도



그림 1-10. 도산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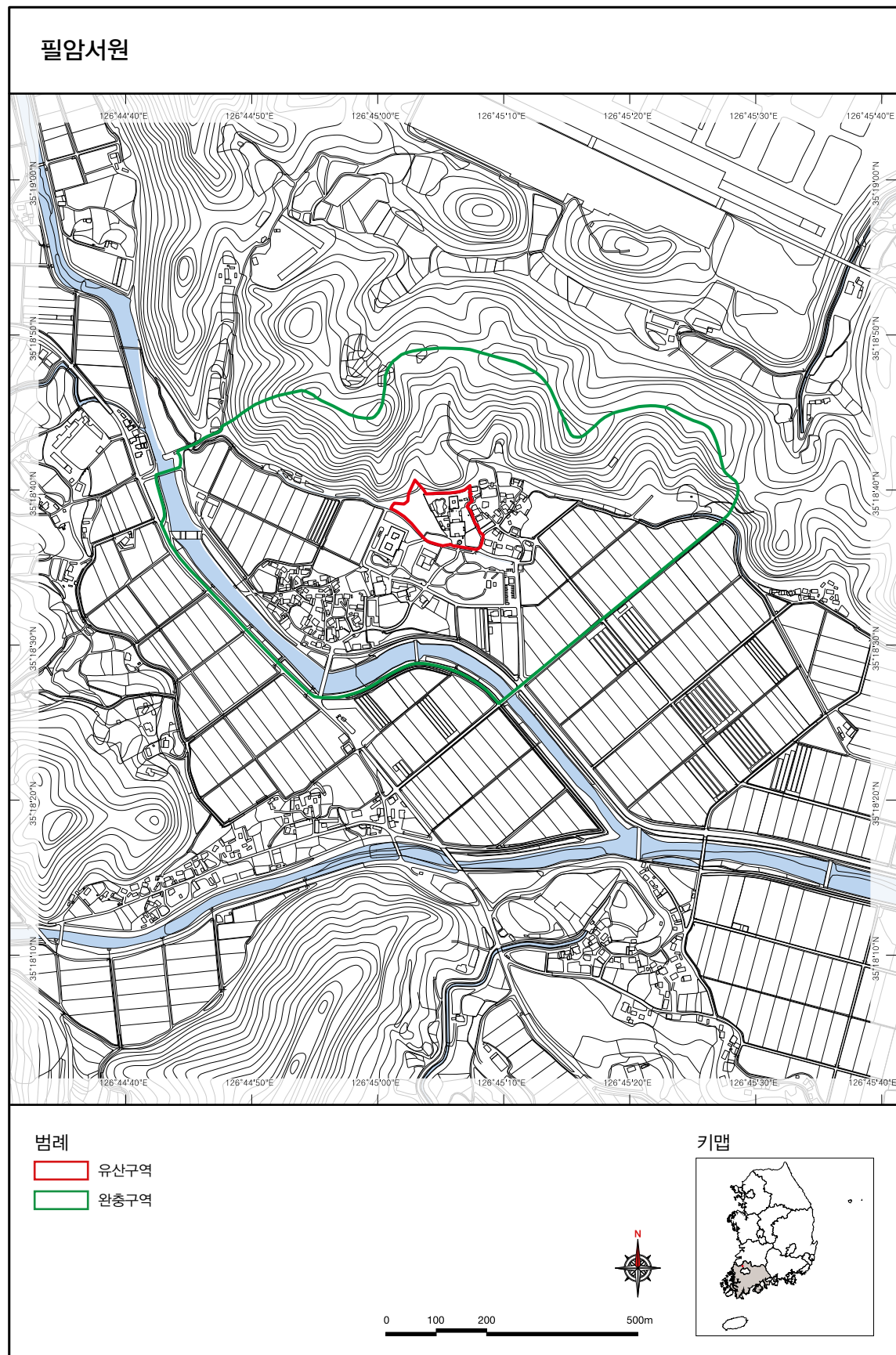


그림 1-11. 필암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형도



그림 1-12. 필암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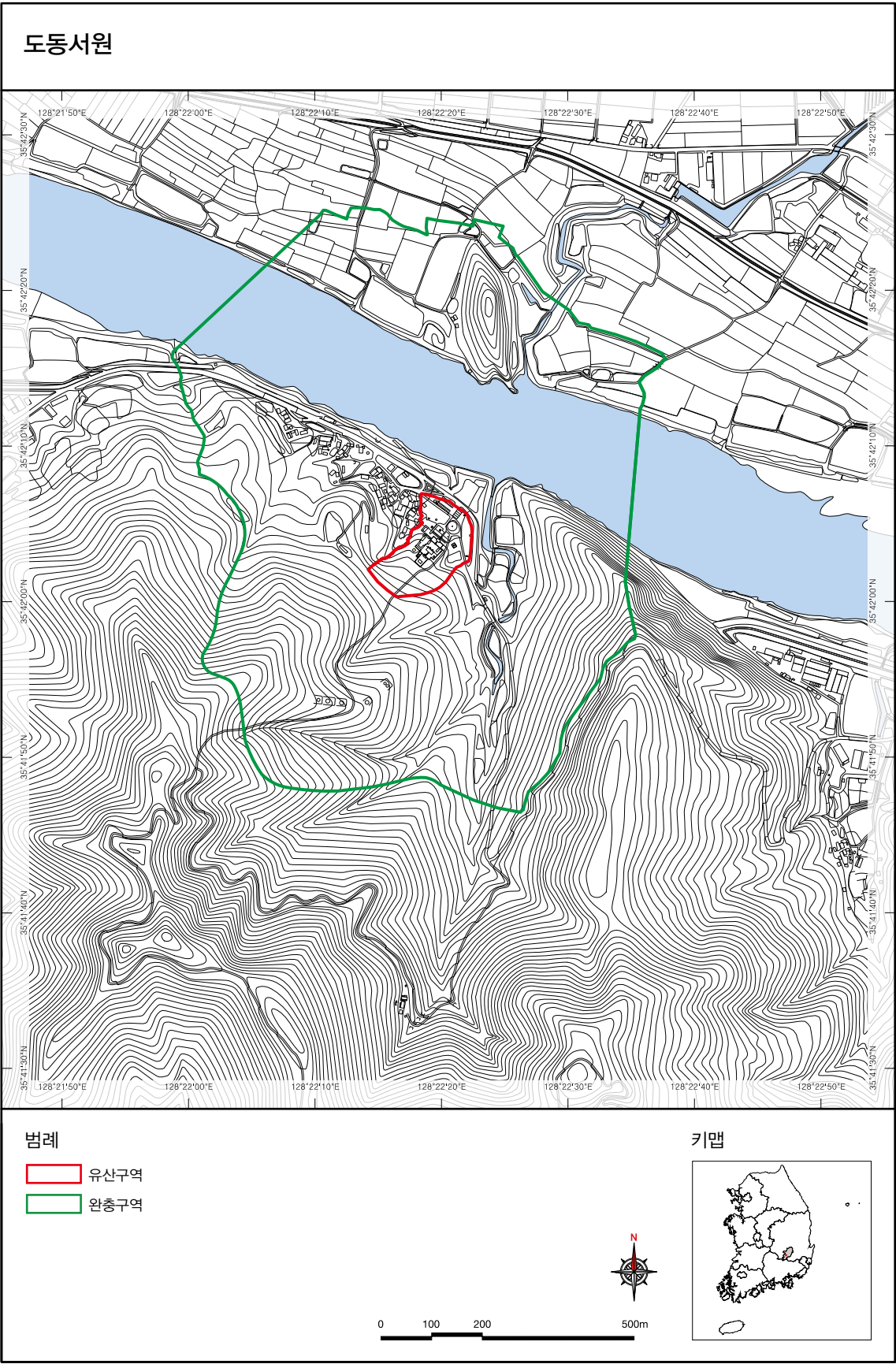


그림 1-13. 도동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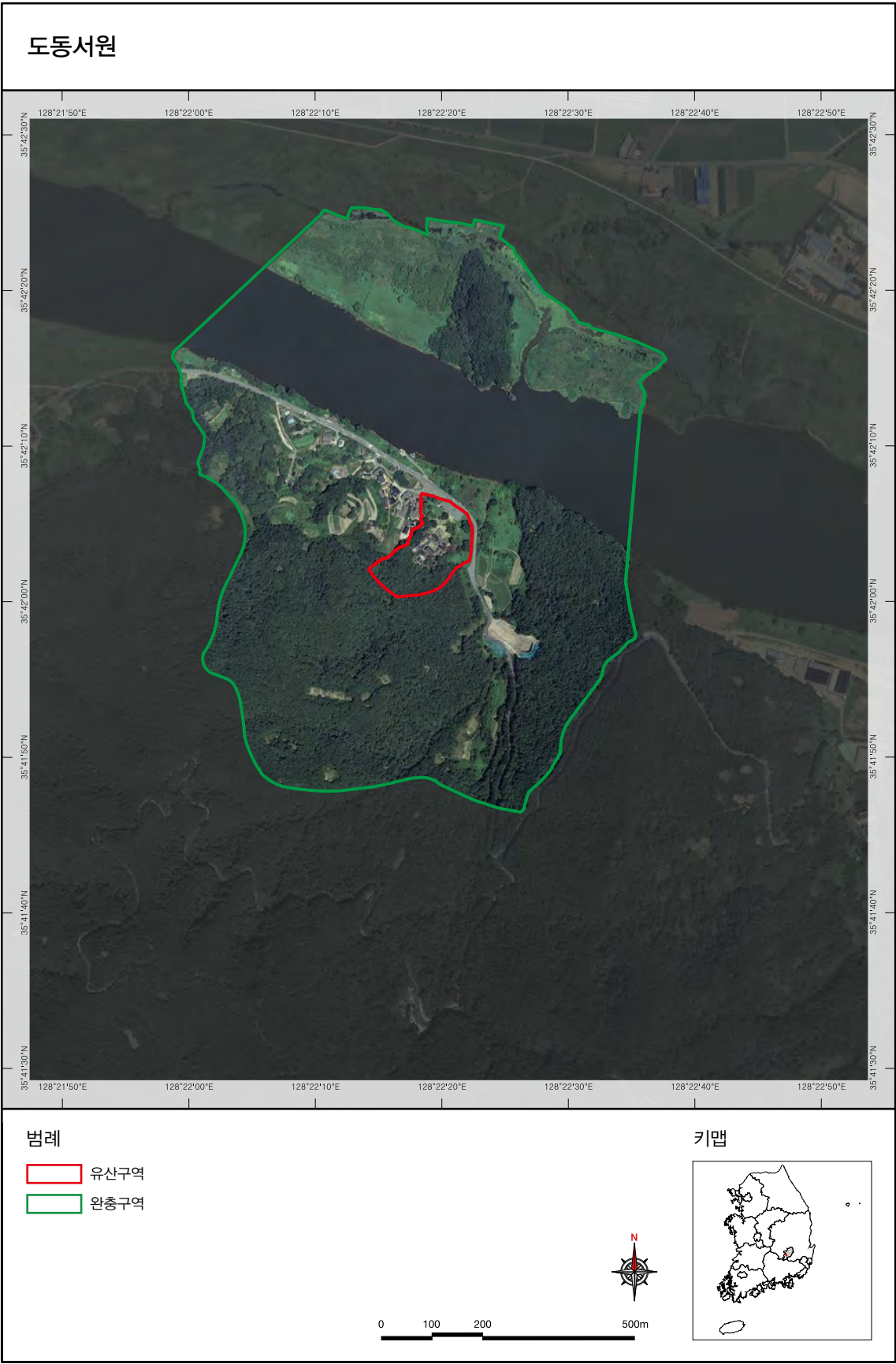


그림 1-14. 도동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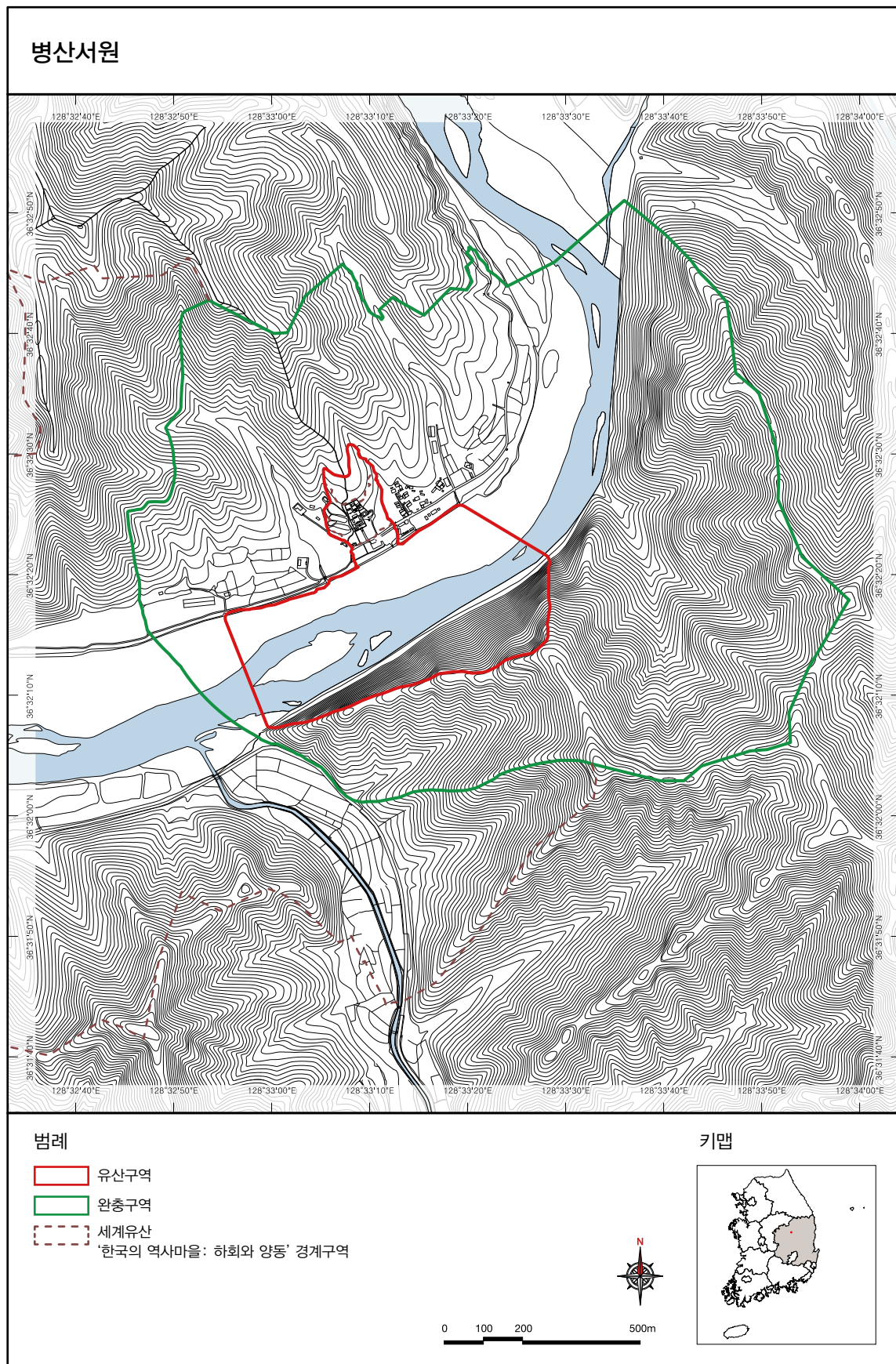


그림 1-15. 병산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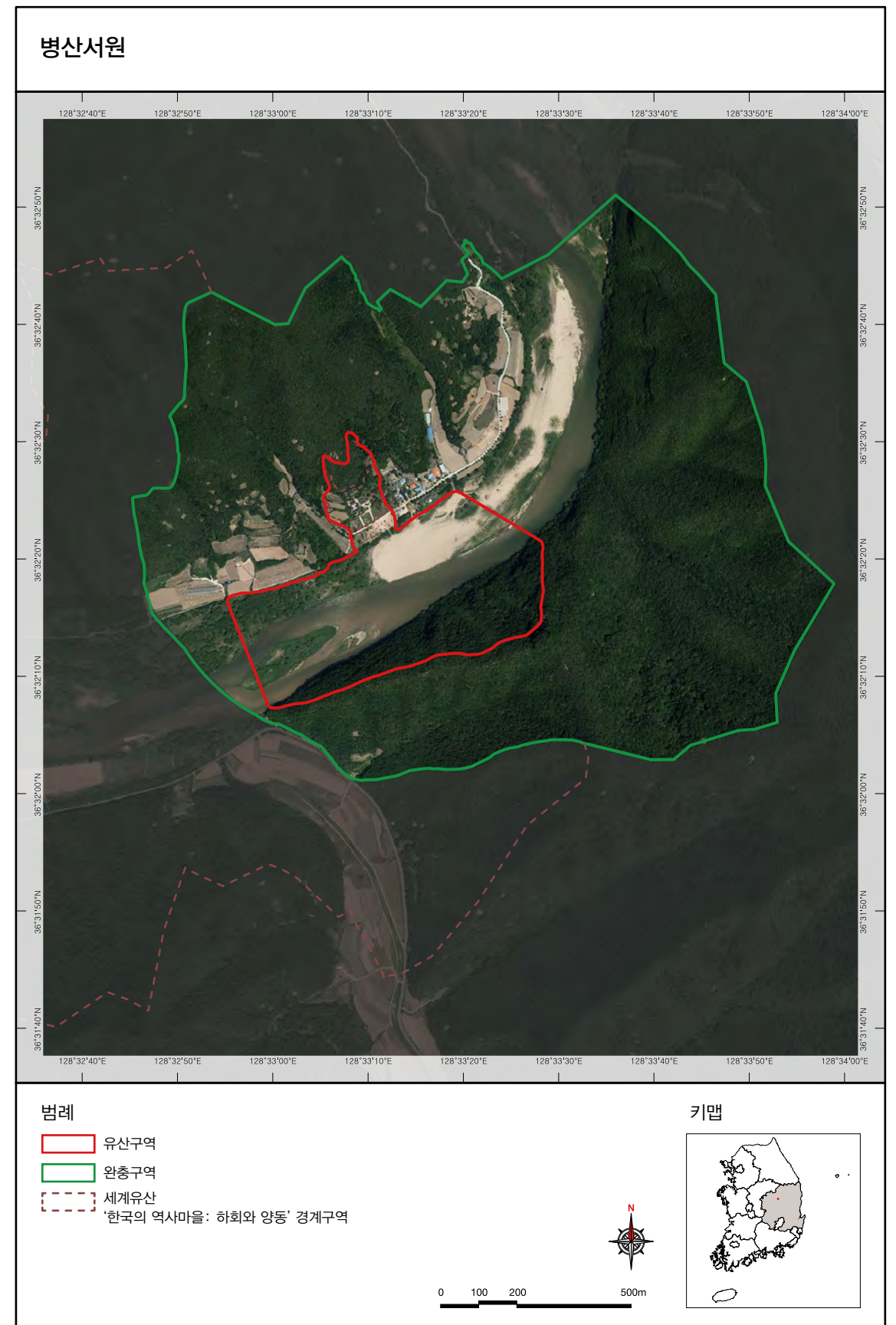


그림 1-16. 병산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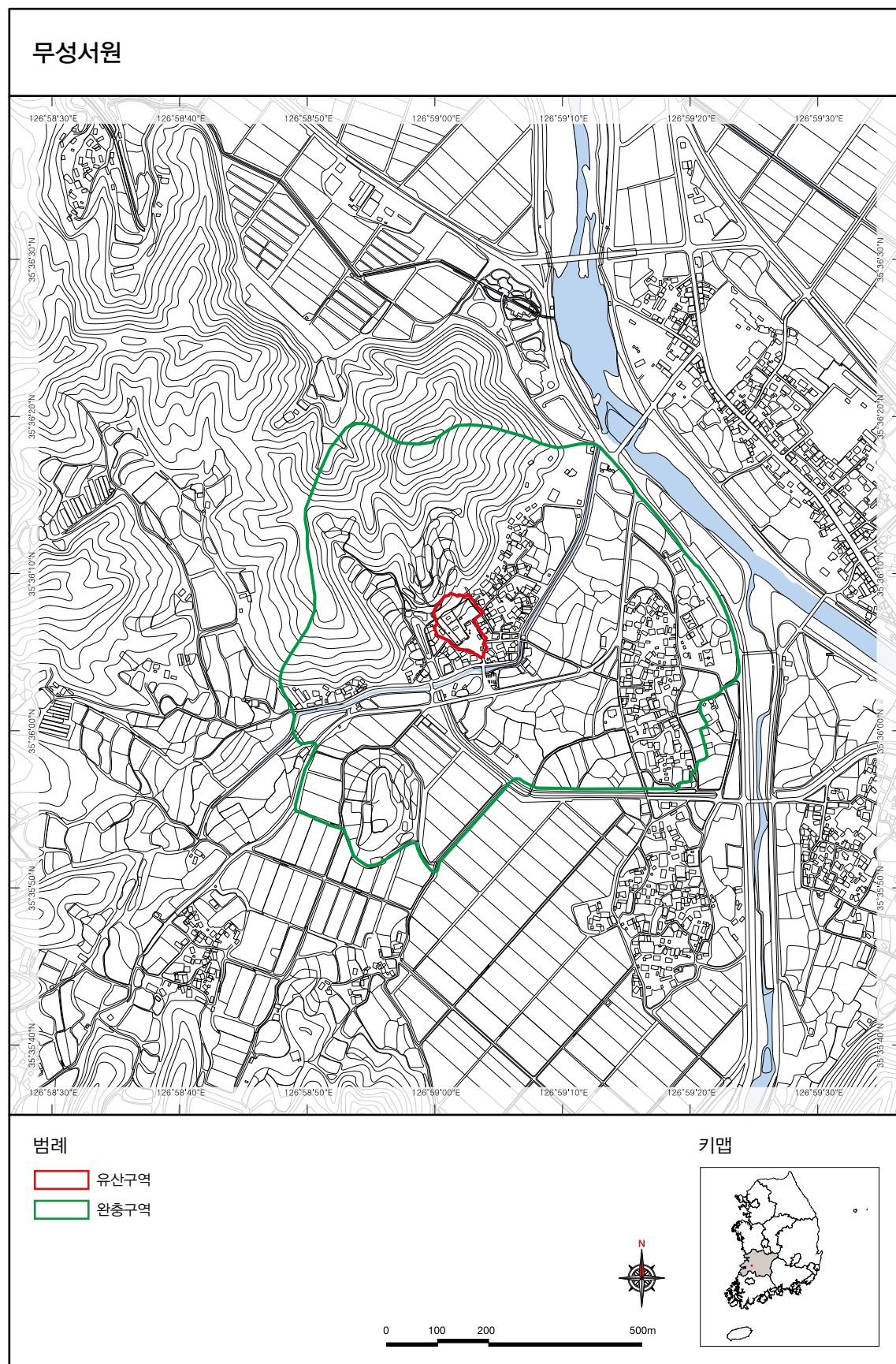


그림 1-17. 무성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형도



그림 1-18. 무성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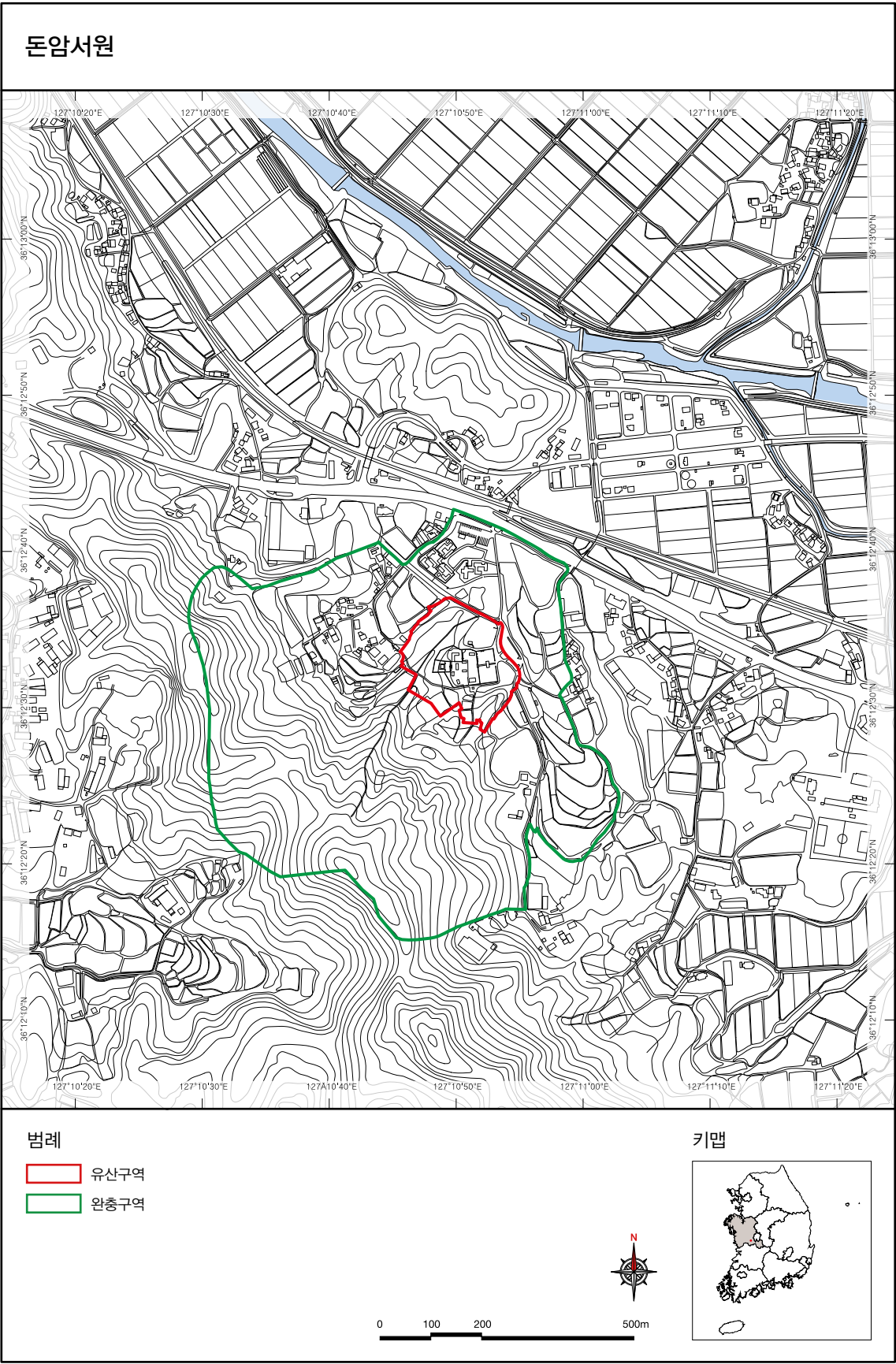


그림 1-19. 돈암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형도



그림 1-20. 돈암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서

2장

설명



2.a 신청유산에 대한 설명

2.a.i 일반정보

2.a.i.1 개요

신청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시설의 한 유형으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 유산은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성리학에 기반한 한국 사회 문화 전통의 특출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낸다.

유학은 공자(BCE 551-479)에 의해 중국에서 창시된 정치철학이다. 유학은 인간의 선한 본성과 이를 근거로 한 도덕주의를 바탕으로 이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성리학은 11세기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유학 사조의 하나이며, 12세기에 이르러 송나라에서 정립되었다. 성리학이 발전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은 주희(1130-1200)였다. 성리학은 유학을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존재론, 우주론까지 체계화하면서 한 단계 발전시켰다. 성리학은 합리주의적 인식론이나 근본주의적 도덕론과 같은 가치 체계를 규정하고 재평가하였으며, 이것이 공공 영역은 물론 사적 영역에까지도 영향을 끼쳤다.

성리학은 한국에 전래되어 13세기경부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성리학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인간 본성과 자연 및 우주에 대한 이해, 국가 및 사회 구성에 대한 관점,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지식인의 역할과 성리학적 이상사회로의 지향 등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기준으로 성리학이 정착되었다.

한국에서는 16세기부터 성리학을 토대로 한국 자체의 학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을 심화·발전시키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맥과 관련된 제향과 후속 세대의 재생산과 관련된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사림은 이를 서원이라는 사립학교를 통해 실현할 수 있었다.

신청유산은 한국에서 정착된 교육기관인 서원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9개의 서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한국 사회에 정착된 성리학의 발전과 이를 추동했던 서원의 정착과 관련된 특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한국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 사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립된 남계서원, 교육 내용과 장서의 관리가 탁월한 옥산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 제도 도입 과정을 증명한다. 학파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던 도산서원, 서원 경제 기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필암서원, 서원 규정을 상세하게 작성한 도동서원은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한 단계 체계화 되는 과정을 증명한다. 사림 공론활동의 장소로서 기능한 병산서원, 사림 향촌 교화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한 무성서원, 성리학에서 예학이라는 특정 분야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의 성리학사에 기여한 돈암서원은 한국 서원이 사림의 정치, 사회, 성리학 연구 중심지로서 발돋움하는 양상을 증명한다.

신청유산은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성리학의 가치가 한국의 문화전통이 된 특출한 증거이다. 정형화된 서원 건축은 유학문화권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공통된 요소와 동시에 이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신청유산을 통해 한국 서원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이 9개의 서원을 연속유산으로 신청한 이유이다.

2.a.i.2 구성원

신청유산은 사림이라는 향촌 지식인 집단에 의해 운영되었다. 사림은 지방사회를 주도하는 지배 계층으로, 도덕성·청렴함·사회모범적인 태도로써 사회 지배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근거의 기준은 성리학이었으며, 성리학을 토대로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사림의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재생산 활동인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을 기르는 제향은 중시되었고 이를 서원을 통해 구현하였다. 사림은 서원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 활동하였다. 사림 중의 일부는 후대 사림에 의해 제향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후대 사림은 사우에서 제향된 인물들을 기렸다.

서원의 구성원은 교육과 관리의 주체인 원장(院長)·원임(院任)과 피교육자인 원생(院生)으로 구분된다. 서원의 원장은 원사(院事)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관리

주체이다. 원장의 임기는 1~2년으로 서원의 형편에 따라 각기 달랐으나 대체로 연임이 허용되었다.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해 나가는 담당임원을 원임(院任)이라 한다. 원임은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며, 각 원임의 역할에 따라 세분화된다. 원임은 기본적으로 원내(院內) 규찰 및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구성은 각 서원의 제반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이들은 서원에 관련한 운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을 준비하고 원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임원의 자격·임기·직임은 서원마다 차이가 있다. 신청유산에는 원장과 원임의 임명과 제직, 그리고 활동과 관련한 『원장안』, 『원임안』 등의 자료들이 남아있다.

원생은 서원을 구성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구성원이다. 원생은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할 수 있었다. 서원의 운영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의 하나인 도동서원 원규에 의하면 원생은 20세 이상인 자로 선발하였고,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천거하였다. 선정된 원생들은 일종의 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생에 선발되었다. 입학 과목은 성리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시험이 이루어졌다. 신청유산에는 원생의 명단을 기록한 『입원록』이 존재한다. 『입원록』에 의하면, 16~19세기까지 신청유산에는 약 10여명 내외의 유생들이 매년 입원(入院)하였다. 선발 과정은 각 서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입원생의 숫자는 서원별·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2.ai.3 재정

신청유산의 경제적 기반은 주로 토지, 노비, 기부 등이다. 경제적 기반의 주요소는 토지와 노비이며, 이외의 요소들이 부수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일부 서원의 경우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림 2-1. 남계서원 전경

토지와 노비가 있었으나 대체로 지역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마련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관리하는 장부도 별도로 기록하였다.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일부 서원에 대해 특별히 편액을 하사하여 합법화한 사액 서원과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서원을 구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조선시대에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지만 모든 서원이 사액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사액은 서적, 토지, 노비의 제공도 함께 이루어졌다. 물론, 사액은 정부가 서원의 교육내용을 포함한 운영 전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제공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신청유산은 모두 사액서원에 해당하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서원의 토지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답안』은 전답의 규모와 위치, 토지 확보 방법 및 경작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있어 서원의 전답보유 현황과 변동 추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전답의 크기, 소출량, 경작자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서원 소유의 토지는 교육 활동의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면세의 혜택이 주어졌다. 서원 소유의 토지는 서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서원전과 함께 서원 경제의 주축이었던 노비와 관련된 자료는 『노비안』이 있다. 『노비안』에는 노비의 출처, 이름, 나이, 혼인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원에 소속된 노비는 서원과 관련된 업무에만 종사하고 이외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토지와 노비 이외에도 서원 경제 관련 자료로는 기부·부조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 해당 자료에는 명단 및 기부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벼, 콩, 서적, 노비, 어물, 소금, 종이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확인된다. 이 자료들은 서원 기부의 관행을 확인할 수 있다.

서원 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서원 경제력의 총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전장기』, 『도록』 등이 있다. 이들 문서는 서원의 수입, 지출 상황을 기록한 일종의 경리장부로서 원장 교체시 신구 원장과 유사가 인수인계의 절차로서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신청유산들은 서원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과거 서원의 재정 운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ai.4 서원의 주요 기능

서원은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서원은 강학과 제향이라는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보편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서원은 제향에서 공자가 아닌 동시기에 활동한 지역의 선현을 배향하였고, 사람의 정치·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서원이 기능함으로써 교류와 유식이 강조되어 다른 교육유산과의 보편성 속에서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건축적으로 배치와 정형을 통해서 구현됨으로써 서원의 기능과 건축 유형이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강학

서원은 사립 성리학 교육 기관으로서 후속 세대의 학문적 양성을 기본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각 서원에는 성리학 교육과 관련된 독자적인 운영과 교육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서원의 교육 규정은 각 서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국 서원의 교육 방법은 개별학습과 공동학습의 병행을 들 수 있다. 개별학습과 공동학습의 병행은 독서와 강회(講會)라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의 교육에 의해 시행되었다.

독서는 개인별 수준과 연령에 따라 교재와 진도, 평가방식까지 달리하며,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철저한 개별학습 과정이었다. 또한 개별 독서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월 1회 실시하여 해당 학습량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에 다시 평가하여 반드시 통과한 뒤에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였다.

강회는 서원의 다수의 인물들이 함께 모여 집단적인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스승과 제자가 강당에 모여 모두 정해진 책을 함께 강독하고 토론하는 공동학습의 형식을 취했으며, 특별한 이벤트로써 쟁점이 되는 성리학과 관련된 학설이나 학문적 주제에 대해 집단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강회는 10일에 한번, 15일에 한번, 1달에 한번으로 나뉘어서 시행되었다. 평가 후에는 이에 대한 성적을 기록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인 학습을 단계별로 하도록 하였다. 강회 후에는 강회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였다.

독서 및 강회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성리학 관련 서적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서적들은 주희와 그의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경전 주석서이다. 경우에 따라 제향인물이 작성한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이나 제향인물의 문집을 강독하기도 하였으며, 교재뿐만 아니라 당시에 성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설들을 토론하고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서원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원생은 서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학습을 해야 했다. 서원은 철저하게 성리학 이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간 본성에 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였고, 성리학 이론과 관련된 토론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서원에 따라 토론 내용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과 차이가 있다. 관립 교육기관들의 교육 내용과 교재는 과거시험의 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물론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채택하였기 때문에, 과거시험 과목이 성리학 교재이긴 했지만 학문적으로 심화한다기보다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암기와 같은 학습이 관립 교육기관들의 주요 학습방식이었다. 반면, 서원의 교육 과정은 과거시험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성리학 교재와 제향인물의 성리학 관련 저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제향 인물의 성리학 연구 주제에 따라 서원별 교육은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서원별로 교육내용에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도산서원은 제향인물 이황의 학문경향에 따라 심성과 우주론에 대한 내용들이 서원의 주요 학습 내용이었고, 돈암서원은 제향인물 김장생의 학문 경향에 따라 의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서원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서원들은 제향 인물과 관련된 저술들을 인쇄·출판하였고, 현재에도 많은 서원들에 목판과 문집들이 소장되어 있다.

신청유산들은 서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강학 규약, 강학 내용, 평가, 그리고 강학 의례와 관련된 자료들로서, 이들 자료를 통해 과거 서원에서 어떠한 교육들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청유산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기능을 보조하는 많은 고서와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지식의 보물 창고였다. 신청유산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와 책판은 당시의 서원 관리와 지적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으로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지식 확산과 문화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청유산에 소장된 많은 고서, 고문서, 그리고 목판들은 신청유산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서원에서는 장서와 함께 출판 기능도 수행하였다. 출판의 내용은 제향인물의 문집, 저작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각 서원에서는 출판을 위한 목판도 제작하였다.

도서관리와 관련해서는 장서목록과 관리대장으로 구분된다. 장서 목록은 신청유산에 소장된 도서와 관련된 사항이다. 구입, 기증 등과 같은 입수 경로와 장서의 권수 등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관리 대장은 정기적으로 포쇄하는 등의 작업 내용을 기록하였다. 관리대장에는 포쇄의 횟수, 장서의 보존 관리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신청유산에 소장된 서적, 고문서, 책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신청유산별 소장 자료 현황

구분\서원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전적	145책	147책	3,977책	4,605책	245책	23책	3,816책	8책	11책
고문서	110점	717점	1,156점	2,128점	64점	215점	5,906점	83점	76점
책판	428판	377판	1,123판	4,014판	616판	71판	1,914판	-	1,839판

※ 해당 서원 및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제향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향의 기능을 독보적으로 전승하고 존속하여 왔다. 특히 한국의 전통 관립 유학 교육시설인 성균관, 향교나 중국, 일본의 전통 유학 교육시설들과는 달리, 공자를 제향하지 않고 서원과 관련된 선현만을 제향하는 것은 한국 서원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자들이 스스로 학맥을 정립하고 계승하는 과정에서 서원의 제향을 통해 지역 지식인에 대한 존송을 표방하였기 때문이다. 제향 대상을 지역의 지식인들로 대체한 점은 전래된 문화가 정착되는 가시적인 증거이자 독자적 발전과정을 의미한다. 기복적 성격을 드러내는 제향시설들과 달리 민간신앙과 관련된 대상이나 자연 등을 제향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점도 서원 제향이 가진 순수성을 보여준다.

서원을 중심으로 향촌 지식인들은 지역 선현들을 제향하며 지역 학파를 정립하고 계승하였으며, 향촌 사회의 교육과 교화를 통하여 성리학적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신청유산은 성리학의 계보와 발전단계를 입증하는 주요한 인물들을 제향하며, 제향의례의 독특한 전통이 현재까지 지속 전승되고 있다. 서원에서 제향되고 있는 인물들은 한국 지성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로서, 이들은 한국 성리학의 역사와 발전을 상징한다. 지역의 사림은 성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자신들과의 연계성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대표·상징적인 학맥과, 그들의 거점과 근거지를 확보하여 지역과 학파에 따른 전통과 독특성을 유지하였고, 그들이 이상으로 삼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며 발전해갔다.

신청유산은 개별적으로 한국 서원의 독특한 제향의례를 존속해 왔다. 제향 의례는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중 하나로 신청유산은 창건부터 현재까지 독특한 제향 의례를 끊임없이 지속하여 왔다. 제향 의례를 통해 서원의 구성원들은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제향은 스승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을 함께 계승하는 고귀한 의식이자, 예를 중요시하는 성리학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제향의 지속성은 신청 유산이 가지는 진정성을 가장 탁월하게 나타내주는 사례이다.

서원에서 제향은 종교적 제향과 달리 기복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서원에서 제향의례는 선현 답기와 제향 참여자 간의 연대의식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각 서원에서 제향대상은 서원과 관련된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향대상은 서원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인물의 모범적인 업적 또한 다양하다. 해당 인물들을 정기적으로 제향함으로써 제향에 참여한 서원의 구성원들은 제향인물의 철학과 실천을 계승하고자 한다. 제향은 또한 제향의례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연대의식을 고취시켰다. 동일한 의례행위를 통해 참여자들은 연대의식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학문적·사회적 활동에 동일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었다.

신청유산의 제향 의례는 소수서원에서 기획한 절차를 기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신청유산은 제향인물이나 신청유산의 건립주체들의 제향 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향 의례를 제정하면서 서원마다 다른 제향의 절차와 내용을 보여준다. 제향 의례는 홀기(笏記)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는 소수서원에서 주세붕과 이황에 의해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각 서원마다 보유하고 있다.

서원의 제향은 정기적으로 매년 봄·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는 삭망례, 정월 초 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가 있다. 이러한 의례행위는 농경사회의 제향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기적인 제향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비정기적인 제향의례도 있었다. 비정기적 제향에는 서원에 일이 있어 위패를 임시로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모실 때 행하는 이안제와 환안제, 불시의 재난을 입었을 때 올리는 위안제,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의 예성제, 사액을 받았을 때 올리는 사액례,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지내는 치제 등이 있었다.

봄과 가을에 지내는 향사를 각 서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향 의례는 일반적으로 제향 행사 전날 준비하는 절차부터 진행되므로 총 2일이 소요된다. 대체로 제물 준비,

성생례, 집사분정, 사축을 첫째날 진행하고, 둘째날 향사의 진행순서를 적은 홀기를 낭독하면서 향사의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된다. 제관들은 홀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맡은 임무를 행하며 제향 의례를 수행한다.

신청유산은 한국 성리학의 발전단계를 입증하는 주요한 인물들을 제향한다. 또한 신청유산은 한국 사회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도 정형화된 서원의례의 원형적인 모습을 지속 전승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서원별로 특화된 제향의례의 전통도 지니고 있다.

제향 의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 서원의 제향 절차

• 교류(네트워크)와 유식

신청유산은 해당 지역의 지성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이들은 ‘수원(首院)’으로 일컬어지며 사회적 활동과 공론·여론을 결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창건 정착기인 16-17세기에 신청유산은 조선 성리학의 학파 형성과 이기론, 예론, 경세론 등에서 다양한 논리들을 마련하였고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였다. 이들 서원들은 지역별 거점을 이루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서, 지역의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청유산은 교육과 학문의 전수라는 기본 기능을 넘어서 교육의 효용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였다. 신청유산은 공론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성리학 이론의 특화, 나아가 사회 교화와 정치적 기능도 하였다.

지성활동의 기반은 공론과 이를 정치·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론의 영역은 정치적 쟁점에 대한 대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역에 산재해 있던 신청유산들은 이러한 지역 지성들의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취합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신청유산은 지식인들이 회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며 서원은 사람에게는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대부분의 신청유산이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람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자연과 함께하며 유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축은 누(樓) 형식의 건물이다. 누는 서원이 주변 경관과 접하는 위치인 서원 진입부에 배치되었으며, 사람이 긴장된 학문의 길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심신을 고양하는 건물로 사용되었다.

신청유산의 누는 사방으로 트인 건축으로서 주변 자연 속에 건축 공간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여 그 속에 자신을 투영해 세계를 관조하게 만든다. 이러한 건축은 건물 자체를 밖에서 바라보는 감상의 대상물이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자연을 흠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은 주변 자연경관을 이루는 나무, 돌, 물, 산 등에도 성리학적 사고로 전환케 하는 이름을 붙여 그 존재에 가치를 부여해 그들이 다양하게 자연과 조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신청유산의 구성원들과 신청유산을 방문한 명사들이 어울려 글을 짓고 시를 나누며 교류하였다.

신청유산에는 심원록이라 하는 방명록이 존재하는데, 방문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심원록을 통해 많은 인사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현존하는 서원의 심원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는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심원록에는 지역, 관직, 성명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청유산의 모든 서원들에는 심원록이 남아있다.

사람은 서원에서 시회(詩會)를 열어 지식을 교류하거나 서원과 관련된 인물과 혹은 방문에 대한 감회를 각종 시문(詩文)을 통해 밝혔다. 시문 주제는 모두 서원 혹은 제향인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앞선

세대가 남긴 시문을 바탕으로 이어서 작성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서원의 누정(樓亭)은 자연을 감상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공간이자 시문을 통해 문학적인 생각을 교환하는 곳이었다. 서원을 방문한 이들은 서원의 제향인물, 서원, 그리고 자연경관을 주제로 한 시를 지었다. 문학 활동의 증거들은 건물 내부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관련된 조선시대 학자들의 문집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혹은 소수서원이나 필암서원과 같이 건물에 성리학적 의미를 담은 시문(詩文)을 걸어두기도 한다.

서원의 문학 활동은 서원 구성원 뿐만 아니라 서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인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서원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판들은 성리학과 관련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현판의 작성자들도 당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나 관료인 경우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문화 활동은 서화와 같은 예술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신청유산들이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림들은 풍광을 즐겼고, 풍경의 아름다움을 담은 일련의 풍경화와 문필작품을 남겼다. 도산서원과 그 주변의 자연을 그린 도산서원도는 그 뛰어난 예이다.



그림 2-3. 병산서원 전경



그림 2-4. 옥산서원의 제향(집사분정) 모습

2.ai.5 건축과 입지

신청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간 건립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 서원 역사의 도입기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지역별로 다양하고 시험적인 건축 배치 및 기법들을 적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 전체의 역사와 동일한 시간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청유산의 건축 정형화는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등의 구분과 각 공간들이 특정한 축선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원들은 모두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의 건축 속성을 공유하면서도 개별적인 독자성을 갖고 있다. 즉,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각각의 환경과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독창성을 보여준다. 신청유산은 한국의 전통 목구조의 장점을 살려 개방과 폐쇄의 조화를 개성 있게 구현하였으며, 입지, 배치, 기단과 담장, 그리고 목조 부재의 장식 등 광범위한 건축요소를 독창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과 목재를 사용한 개방된 공간인 마루 등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반영하여 서원이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절제와 중용의 정신을 투영한 간소화된 건축적 표현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독창성을 드러냈다. 또한 각 서원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 기법을 적용해 사우(詞宇)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고대 동아시아의 예제 건축 이론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학술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누마루를 통해 조망되는 외부의 환경을 탁월하게 재해석하였다. 서원의 입지와 연관되는 유식 경관의 성취는 한국 서원의 큰 가치이다.

• 입지

신청유산의 건립 입지의 가장 큰 요소는 제향인물과의 관련성이다. 신청유산의 건립 입지는 제향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의 관련이 있다. 건립 입지의 두 번째 요소는 경관이다. 신청유산의 경관은 제향인물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신청유산은 제향인물의 자연관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적 요소가 중시된다.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하고 있다. 이는 제향인물들이 강학 혹은 수양을 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관적 요소들을 일차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무성서원과 같이 사림 활동의 중심지에 서원을 건립한 경우도 있다. 이는 서원의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제향인물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입지의 선정은 모두 제향인물과 관련되어 있다.

신청유산은 일반적으로 상하 축선이 기준이 되며, 도산서원, 병산서원과 같이 축선을 일부 변경하는 사례들도 있다. 지형적으로 경사지를 주로 선택하여 건축물 배치의 위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지형을 고려하면서 좌향(坐向)은 특정 원칙을 가지기 보다는 자유롭게 구성하였다. 신청유산은 제향공간을 서원의 가장 안쪽에 배치하였다. 대체로 경사지를 활용하여 위계상으로도 높은 곳에 제향공간을 배치하였다. 이는 신청유산이 제향을 가장 신성하고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향공간 다음에는 강학공간을 두어 제향공간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강학공간 아래에는 교류와 유식의 공간을 조성

하여 정자, 누각과 함께 자연경관을 배치함으로써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정자, 누각은 사림의 회합을 위한 시설물로 활용되어 자연경관에 대한 감상과 함께 서원 활동의 주체인 사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신청유산의 배치형식은 경관적으로 서원의 강당과 중앙 마당에서 누정을 통해 바라보는 외부의 경관을 하나의 액자처럼 연출하는 수단이 된다.

이를 신청유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신청유산의 입지 선정의 특성

서원 선정근거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제한인물	수양처	○	—	○	—	—	—	○	—	—
	강학처	—	—	—	○	—	—	—	○	○
	거주지	○	○	○	○	○	○	○	○	○
	묘소	—	—	—	—	—	○	—	—	—
경관	산	○	○	○	—	—	—	○	—	—
	강	—	○	—	○	—	○	○	—	—
	계곡	○	—	○	—	—	—	—	—	—
	들판	—	○	—	—	○	—	—	○	○
	마을	—	—	—	—	—	—	—	○	—



그림 2-5. 옥산서원 전경



그림 2-6. 소수서원 전경



그림 2-7. 도동서원 전경



그림 2-8. 필암서원 전경

• 건축물

신청유산은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사림이 해석한 건축 요소들을 서원을 통해 구현하였다. 신청유산을 구성하는 주요 전각인 사우, 강당, 재사, 누각 등은 사림이 성리학적 관념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완성한 독자적인 결과물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각의 평면형식과 주변 경관의 활용, 건축세부에서 드러난다.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의 공간은 해당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제향공간의 건물은 사우, 전사청, 제기고로 구분된다. 제향공간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사우는 3칸의 정면을 갖는 작은 건물로 제향을 위한 공간이므로 위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의 경계부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두었다. 문과 전각의 출입방식은 예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사우를 중심으로 좌측이나 우측에는 제향을 준비하는 전사청과 제기고가 있다. 전사청은 제물이나 제관들이 대기하는 장소이며, 제기고는 제향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대체로 사우와 동일한 영역안에 구성되는데, 제향의 규모에 따라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여 전사청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강학공간의 건물은 강당, 재사, 장서각, 장관각으로 구분된다. 강당은 대개 5칸의 정면 중 중앙부 3칸을 대청마루를 설치하고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전면부에는 대청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 및 유식공간



그림 2-9. 신청유산의 공간 구성

양단에 맞추어 2개의 계단을 동서로 설치하여 건물에 오르내리게 하였다. 강당은 대청마루 동쪽에 선생의 자리를, 서쪽에 학생의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강론하는 공간사용방식을 정형화하고 있다. 강당의 온돌방은 원장과 원입이 기거하는 공간으로서 강당건물 좌우에 구성되거나 한쪽에만 구성되어 있다. 강당의 마루는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강당 좌우의 동서재는 학생들의 기거공간으로 마루와 온돌방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다. 강당과 재사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교육을 보조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장서각과 장판각이 강학공간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제향인물의 강학처에 서원이 건립된 경우, 기존의 건물들을 강학공간 내에 보존하면서 강당과 재사를 건립하기도 한다.

교류와 유식공간의 건물은 누각, 정자로 구분된다. 누정, 누각 혹은 누마루로 불리는 서원 전면부의 시설은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이다. 누정은 좌식공간관습을 갖고 있는 한국의 건축적 전통과 한국 서원의 독특한 기능 중 하나인 교류와 유식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특출난 건축형식이다. 건축물 외부에 연못을 조성하거나, 석각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된 특정 수목들이 식재하기도 했다. 서원을 건립했던 사람에 따라 주변 경관을 중시하는 관점이 다르게 투영된다.

기타 건물로는 고직사, 교육시설 등이 있다. 고직사는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설물로서 서원의 중심축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일부 서원에는 현재까지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현대적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활용시설은 서원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장소로서 서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되어 있다. 교육시설들은 대체로 목재를 사용하고, 전통 건축기법을 토대로 건립되어 있다. 이외에 서원의 진입로에 하마비, 홍살문 등이 놓여있어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서원의 내외부에는 서원의 연혁과 관련된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다. 해당 기념비는 제향인물, 건축물의 연혁, 보수관련 사항, 서원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 배치와 유형

신청유산은 건축배치의 정형과 더불어 전각의 형식에서 뚜렷한 특징을 드러낸다. 또한 모든 건축물들이 목조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의 전통 건축기법의 하나의 성격을 보여준다.

신청유산의 배치형식은 유학건축에서 강조하는 예제에 기반한 것이며, 신청유산은 이를 교육기관으로서 충실히 수행한 사례에 속한다. 서원의 정형화된 배치형식은 남계서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향-강학-교류와 유식 공간을 단계적으로 배치한 건축기법과 형식은 매우 창의적이다. 또한 이러한 단계적 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향공간과 그 외의 공간 사이의 축선을 변형하여 제향공간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예제 이론은 배치 뿐만 아니라 개별 건축물에도 적용되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돈암서원의 응도당이다. 응도당의 건축형식은 제향자의 의도에 따라 성리학적 의례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건축물이다. 응도당은 예학을 중시한 한국서원의 경향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응도당을 건립

한 돈암서원은 신청유산 중에서 가장 늦게 건립되었다. 16세기부터 성리학의 세부 이론이 심화 발전되었다. 예학은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보다 심화되었다. 응도당은 예학의 이론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사례이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좌식형 생활 습관을 반영하여 건축물을 구성하였다. 신청유산 또한 이를 반영하여 건축물들이 구성되어 있다. 16세기 후반부터 좌식형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마루와 온돌의 건축양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화되는데, 신청유산은 교육기관으로서 마루와 온돌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사례에 속한다.

신청유산 건축물의 전각 건축형식은 평면과 지붕구성 등에서 성리학의 예법과 이상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돌, 마루 등 좌식관습을 활용하는 한국 건축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잘 융합되어 있다. 강당과 누각 등에서 보이는 주변의 경관은 좌식 공간에 앉았을 때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 좌식공간은 전각에 드나들 때 신발을 신고 벗는 문제로 인해 정면과 후면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강당의 후면이 판벽으로 설계된 것, 사우의 위치를 강당의 바로 뒤가 아니라 약간이라도 축을 달리하거나 서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은 이러한 관습에 기인한다. 또한 각 전각은 화려한 장식을 가급적 배제하면서 최소한의 구성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포 등의 장식적 부분이 거의 없고 특히 재사와 강당은 단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는 물질 가치보다 정신 가치를 중히 여긴 성리학의 이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강의가 이루어지는 강당과 교류와 유식의 기능을 하는 누각에는 마루를 설치했다. 강당은 마루와 온돌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형적인 강당구조는 5칸의 정면으로 구성되어 정면 중 중앙부 3칸에 대청마루를 설치하고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을 설치하는 형식이다. 대청마루는 교사와 학생의 강학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좌우 온돌방은 교사가 평소에 기거하는 공간으로 구획되었다. 물론 일부 차별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4칸의 정면으로 좌우 온돌방, 2칸의 대청마루로 구성된 남계서원과, 4칸의 정면으로 1칸의 온돌방과 3칸의 대청마루로 구성된 도산서원이 있다. 이는 보편성 속에 각 서원에서 보여준 다양한 건축 기법을 보여준다. 강당이 보편성을 지닌다면, 누각은 마루양식의 전형으로서 서원별로 다양한 창의성을 보여준다. 누마루의 초기 형태를 완성한 옥산서원과 누마루 건축물의 극대화를 이룬 병산서원의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누각은 서원의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여 구성하게 함으로써 좌식형 생활습관에 부합한 회합의 공간으로서 누각이 기능하도록 조성하였다.

강당 이외에도 마루와 온돌의 조합은 남계서원의 재사에서도 적용되었다. 최소 공간이지만 내부의 온돌방과 외부의 마루를 조성하여 강학과 교류와 유식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다. 마루의 활용은 장서 공간에까지 확장되었다. 도산서원에 있는 광명실은 강당의 전면에 좌우로 위치하여 외부로 조망하도록 구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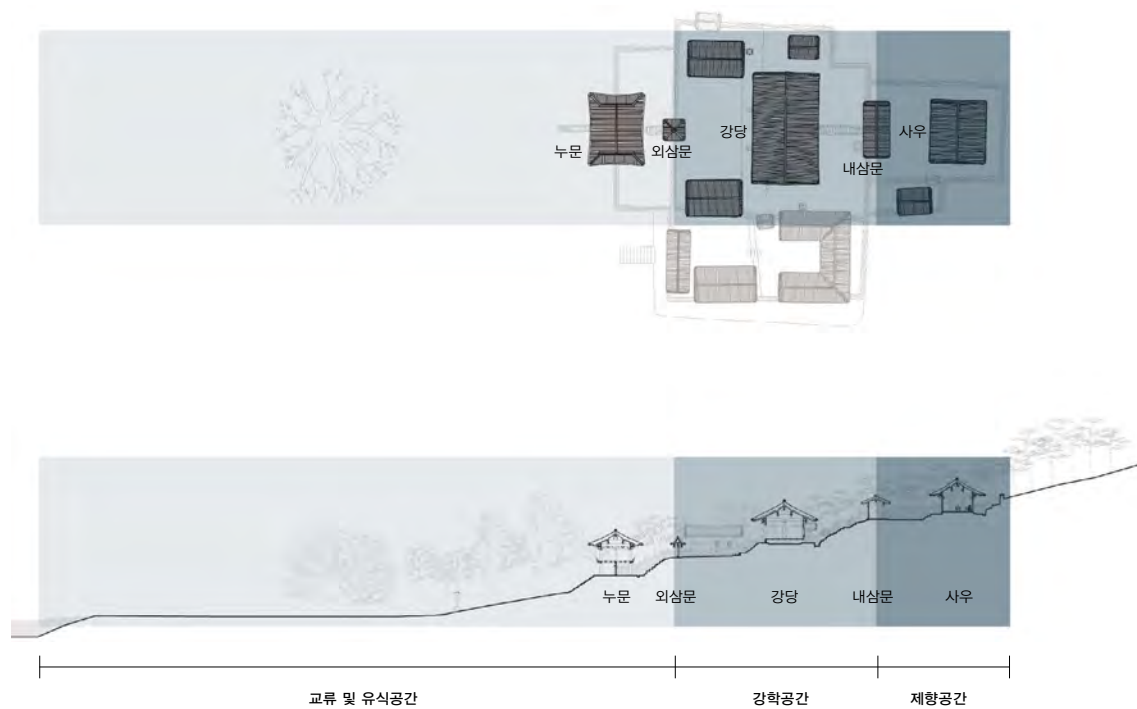


그림 2-10. 도동서원 공간구성 및 단면도



그림 2-11. 도동서원 전경

2.a.ii 개별 신청유산의 설명

2.a.ii.1 소수서원

소수서원은 1543년 한국 최초로 건립된 서원이다.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죽계천을 둘러싼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입지하고 있다. 소수서원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죽계천의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죽계천 건너편의 연화봉을 조망하며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소수서원의 위치는 본래 숙수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이다. 현재에도 소수서원 내에는 사찰의 진입로를 알려주는 당간지주가 남아있어 이곳이 과거에 사찰이었음을 보여준다.

소수서원은 주세붕(1495-1554)의 주도하에, 지역 사림이 함께 건립하였다. 소수서원은 서원 교육 및 제향과 관련된 운영 규정을 최초로 세웠다. 교육에 대한 운영 규정은 강의 횟수, 평가 방식, 그리고 입학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제향 관련 규정은 제향의 횟수, 절차, 참여자의 역할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소수서원에서 제정한 교육 관련 규정들은 이후 건립되는 서원들의 교육 규정들에 영향을 끼쳤다. 소수서원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향의례의 전통을 지니고 있고 서원제도의 정착과 발전과정을 상징하는 기록문화 자료들을 보존하고 있다.

소수서원의 주요 제향인물은 안향(1243-1306)이다. 안향은 13세기말 한국 사회에 최초로 성리학을 원나라(1260-1368)에서 도입한 인물로서 한국 성리학의 기원이 되는 인물이다. 안향은 이 지역



그림 2-12. 소수서원 전경

출신으로 현재의 소수서원의 입지는 안향이 생전에 공부했던 장소였다. 이후 안축(1287-1348), 안보(1302-1357), 주세붕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안축과 안보는 안향의 후손이자 지역 출신으로서 성리학 이해가 높은 성리학자였다. 주세붕은 풍기군수로 재임하면서 소수서원의 건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제향인물을 공자가 아닌 지역의 선현으로 선정하는 서원의 전통은 소수서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수서원의 제향의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인 제향절차에 더하여 제향에 도동곡이라는 가사를 부르는 것이다. 이는 제향인물인 주세붕이 소수서원 창건당시에 지은 노래로서 성리학을 최초로 한국에 도입한 안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작곡되었다. 노래의 형식은 경기체가이며, 성리학이 한국에 전래된 경위와 전래한 안향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향의례에 제향인물과 연관된 가사가 포함된 것은 한국에서도 유일한 사례이다.

소수서원에는 서원의 내·외부 인사들의 문화교류의 증거로 심원록이라 불리우는 방명록이 남아있다. 심원록에는 방문자들의 출신, 관직,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방문자들의 분포는 경상북도 인근의 지방관료, 사림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사들이 서원에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에 소수서원을 방문했던 인물들의 문집에는 소수서원을 주제로 한 수천개의 문학작품들이 남아있다. 교류 및 유식공간에 위치한 경험정에는 서원을 방문한 다양한 인물들의 문학작품들이 걸려있어 사림의 교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소수서원은 배치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원이 갖추어야 할 모든 건축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서원에도 필수적인 건축 요소로 작용하였다. 소수서원은 한국의 전통 건축기법을 적용한 검박한 건축미학을 바탕으로 강당, 사우, 제사(기숙사)의 초기적 건축형식을 수립한 사례에 속한다. 온돌, 마루, 퇴칸 등을 활용한 소수서원의 건축 기법은 16세기부터 유행한 한국 전통의 건축 기법으로서 좌식 생활습관을 반영한 것이다.

소수서원의 주요 건물은 다음과 같다. 제향시설은 사우 문성공묘, 전사청이 있다. 강학시설은 강당 강학당, 제사 직방제·일신제·학구제·지락제, 도서관 장서각이 있다. 교류와 유식 시설로는 정자 경험정·취한대, 경자바위가 있다. 소수서원은 계곡을 둘러싼 경관이 수려한 곳에 입지함으로써 자연을 서원 건축의 한 요소로 도입하였다. 설립을 주도한 주세붕은 정자 경험정 맞은편에 성리학 개념의 하나인 ‘경(敬)’을 석각하여 자연을 감상하면서도 성리학적 의미를 깨닫도록 조성하였다. 경험정에서 죽계전을 바라보면 경자바위와 함께 뒤편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자연경관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그림 2-13. 소수서원 경림정



그림 2-14. 백운동서원도 (소수서원)



그림 2-15. 소수서원 제향의례



그림 2-16. 소수서원 제향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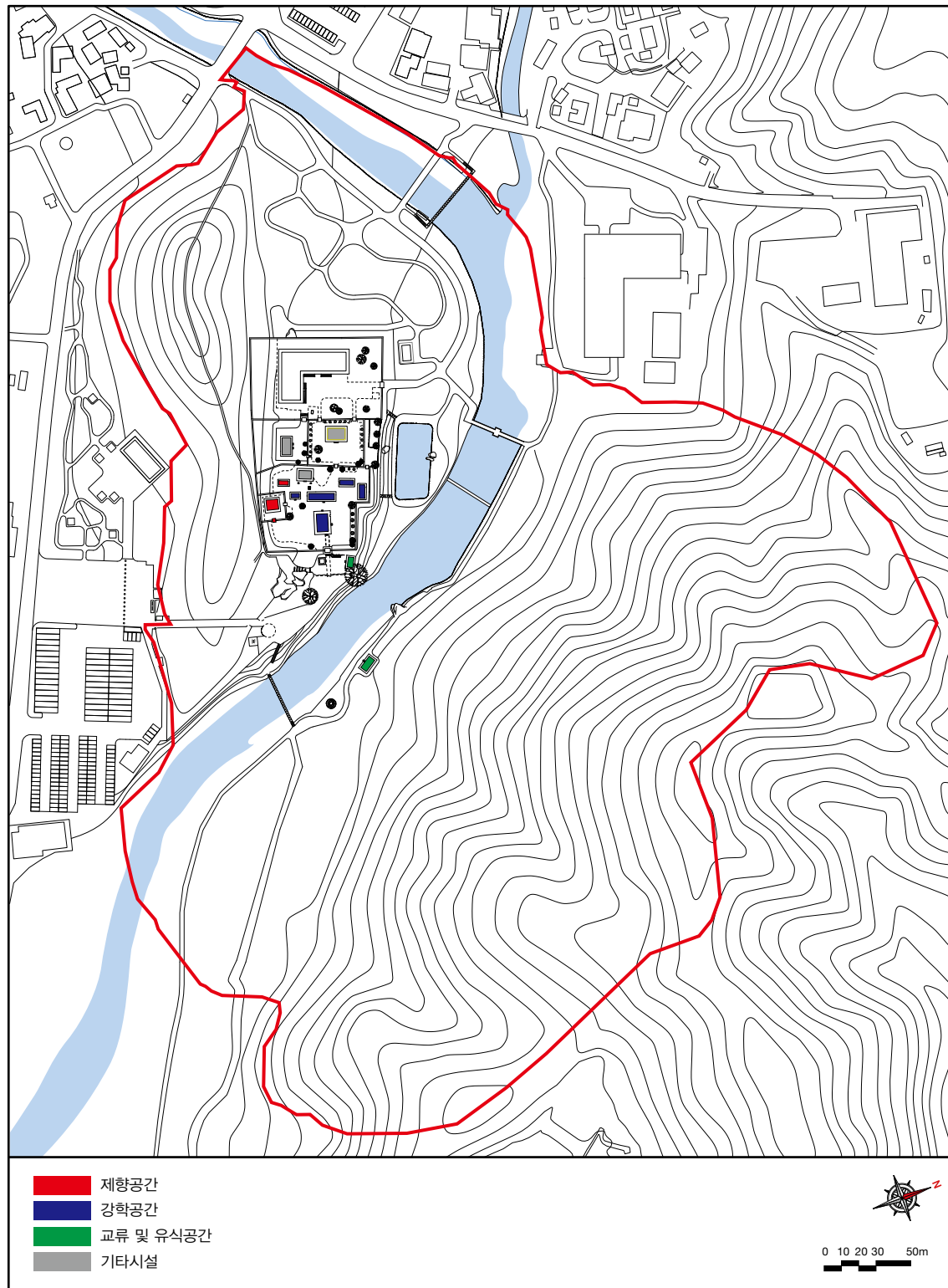


그림 2-17. 소수서원 평면도



그림 2-18. 소수서원 단면도

2.a.ii.2 남계서원

남계서원은 1552년에 건립된, 한국의 두 번째 서원이다.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 들판이 조성된 탁 트인 경사지에 입지하고 있다. 남계서원에서는 전면에 위치한 남계까지 이어지는 들판을 감상할 수 있다. 남계서원은 경사지의 지형조건을 활용하여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배치 정형을 최초로 제시하여 한국 서원의 독창적 건축 배치 형식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남계서원은 한국 서원의 운영과 건축배치의 전형을 구축한 서원으로 이후 건립되는 많은 서원들의 기준이 되었다. 남계서원은 순수한 민간인인 사림이 서원 건립 및 운영을 주도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이후 건립되는 서원들의 전형이 되었다. 자발적인 서원 재정 운영 사례로 창건부터 19세기까지 사림의 기부내역과 관련된 장부인 『부보록』이 남아있다.

남계서원의 주향인물은 정여창(1450-1504)이다. 정여창은 함양 출신 사림으로 16세기 전반 중앙 정계에 관료로 진출한 인물이다. 그는 중앙 관료들의 관료주의적이고 훈구 중심적인 성향에 대해 성리학에 기반한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 활동을 하였다. 정여창의 정치활동은 이후 사림의 정치 참여의 하나의 유형이 되었다. 이후 남계서원은 강익(1523-1567)과 정온(1569-1641)을 중향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적 실천과 교육의 측면에서 함양을 대표하는 사람이자 남계서원 건립과 초기의 운영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남계서원의 사림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예로 마을 사람들의 혼례나 장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교화에 힘썼으며, 봄과 가을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그림 2-19. 남계서원 전경

제향의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격식을 갖추고자 했다.

남계서원은 16세기 후반 일본의 침입에 대해 경상남도의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1595년 일본군에 의해 전소(全燒)되었으나, 전쟁이 종료된 후 1603년 곧바로 함양지역 사림에 의해 재건되었다. 이후 남계서원은 경상남도의 서원들과 사림 중심 거점으로 발전하였다. 남계서원은 19세기 까지 훼손되지 않은 경상남도 유일의 서원이다.

남계서원의 주요 건물은 다음과 같다. 제향시설은 사우, 전사청이 있다. 남계서원은 제향공간의 구성에서 세칸의 신문과 세칸의 사우, 그리고 제향 준비를 위한 전사청을 유기적으로 구획하여 이후 서원 제향 공간의 전형을 이루었다. 강학시설은 강당 명성당, 재사 양정재·보인재, 경관각이 있다. 우측 재사 앞에는 제향인물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놓여있다. 교류와 유식 시설로는 애련헌, 영매헌, 누각 풍영루, 연당이 있다. 풍영루는 18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누각의 건립은 이후 건립된 서원에서 보편화된 누각 건축물이 이후에 적용된 것이다. 누각 건립 이전에는 두 재사의 바깥쪽에 위치한 마루와 그 아래에 두 개의 연당이 유식 시설로 기능하였다.

남계서원은 다른 서원에 비해 건축 공간의 규모가 작다. 그러나 서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각 건축물의 배치형식까지 시원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은 남계서원이 가진 건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공간구성은 대표적으로 재사 공간이 1칸의 온돌방과 1칸의 누마루로 구성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남계서원 재사 공간의 누마루는 서원 강학공간에 교류와 유식 공간을 조성한 초기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2-20. 남계서원 강학공간



그림 2-21. 남계서원 경임안



그림 2-22. 일두선생문집 책판



그림 2-23. 남계서원 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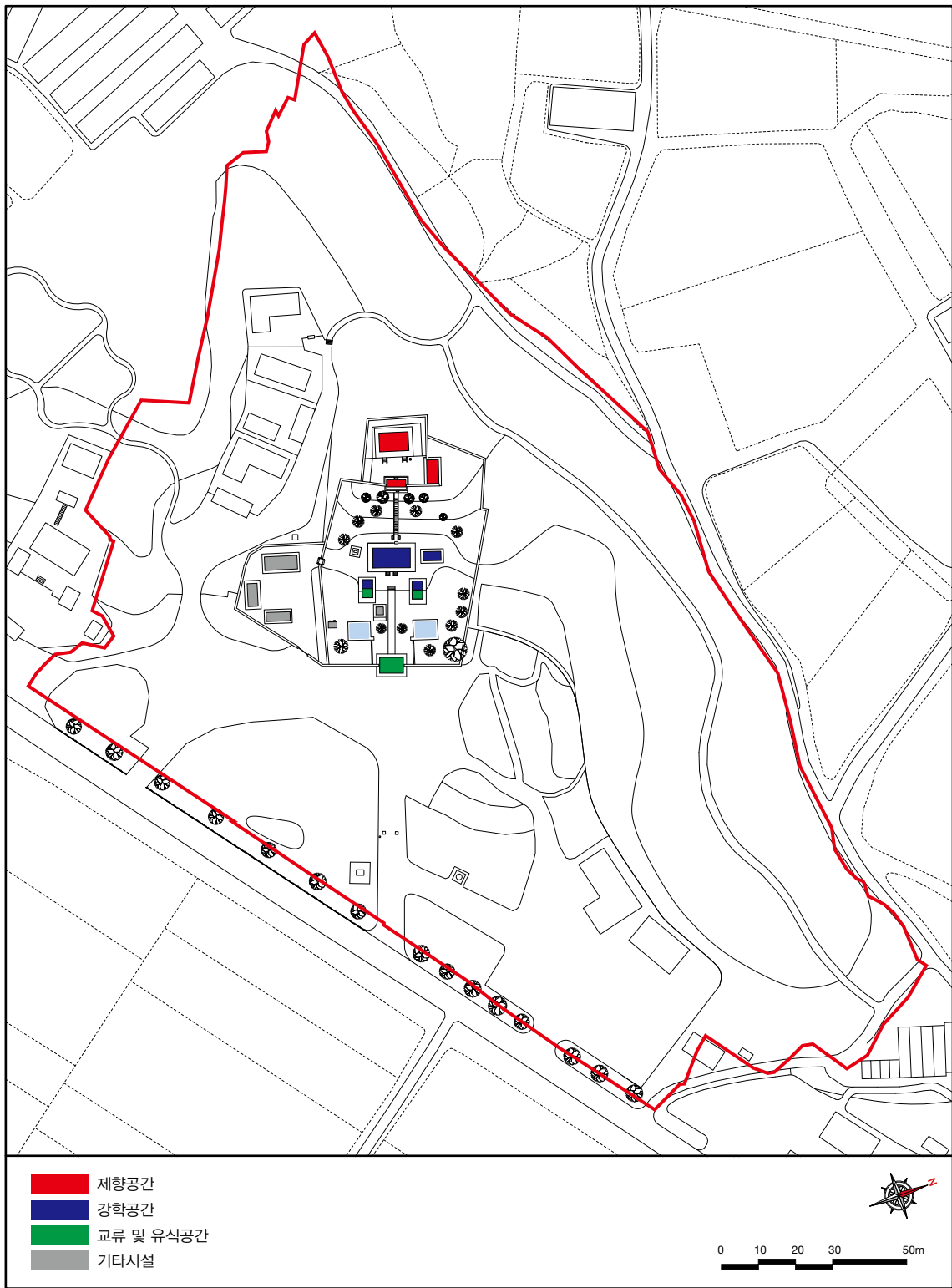


그림 2-24. 남계서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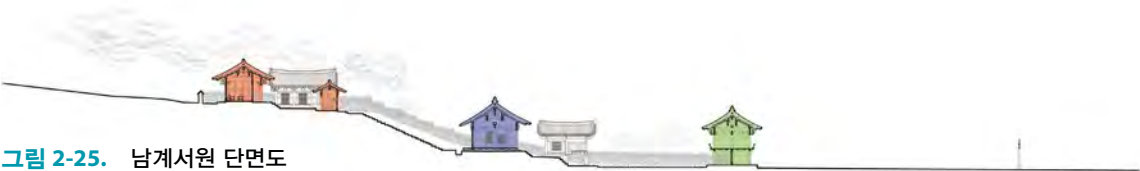


그림 2-25. 남계서원 단면도

2.a.ii.3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1572년에 건립된 서원이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계천이 휘돌아가는 경사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앞뒤로 자옥산과 화개산이 둘러싸여 있다. 옥산서원은 누마루 건축물을 처음으로 서원 건축에 도입한 사례이다. 옥산서원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일부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옥산서원은 경주지역 사림의 주도로 건립된 서원으로 경상북도 동부지역 사림의 근거지였다. 옥산서원은 출판 및 장서의 중심기구로서의 서원 기능을 증명한다. 옥산서원에는 제향자의 문집, 성리학 서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관된 다양한 서적들이 출판, 소장되어 있다.

옥산서원은 입학 규정, 교육 평가 내용과 관련된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어 서원의 교육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옥산서원에는 서원의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원생의 선발과 평가에 대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다. 원생 선발관련 자료는 천거 유생의 명단과 천거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봄·가을과 각종 모임이 있을 때마다 천거하였다. 평가 자료인 강지(講紙)는 원생 시험의 성적 기록부로서 시험 과목에 따라 성적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성적 아래에 평가자의 서명이 되어 있다.



그림 2-26. 옥산서원 전경

제향인물 이언적(1491-1553)은 한국 성리학 발전 단계에서 존재론·우주론 등의 성리학 이론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또한 16세기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성리학에 기반을 둔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왕실의 성리학 교사로서 활동하였다. 이언적은 관료·학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옥산서원은 현재에도 제향 희생물을 검사하는 의례를 엄격하게 진행한다. 서원의 제향에서 제물을 매우 신성하게 여기는데 그 철저한 절차와 전통이 옥산서원에 전승되어 있다. 두 개의 장대 위에 큰 상자를 놓은 가자에 제물을 넣고 건물의 중심축을 통과해서 사우까지 운반하는 것도 옥산서원 의례의 특징이다.

옥산서원은 경상도 동부의 서원과 사림의 공론을 주도하며 발전해 갔다.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 옥산서원에 모여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였다. 옥산서원의 사림은 19세기 말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성리학 전통을 고수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근대화 정책에 반발하여 지역 사림의 연명상소인 만인소를 주도하였다. 8,849명의 사림이 서명한 이 자료는 현재 옥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2-27. 옥산서원 체인묘



그림 2-28. 옥산서원 무변루



그림 2-29. 옥산서원 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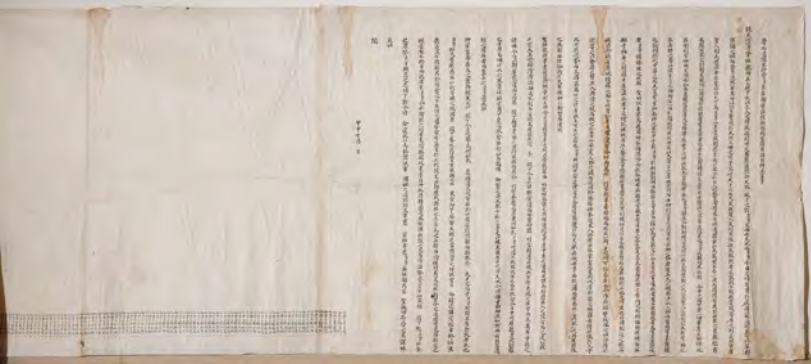


그림 2-30. 만인소

옥산서원의 방문자는 지역 사림 뿐만 아니라 관료, 타 지역의 사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서 옥산서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옥산서원의 현관은 16세기 이래로 저명한 명사들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교류 공간으로서 옥산서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옥산서원에 걸려있는 대표적 편액 2점은 16세기의 명필가 한호(1543-1605), 19세기의 명필가 김정희(1786-1856)의 작품이며, 현재에도 서원 강당에 걸려 있다. 두 인물은 해당 시기 한국의 서예 필법을 주도하였다.

옥산서원의 주요 건물은 다음과 같다. 제향시설은 사우 체인묘와 전사청이 있다. 강학시설은 강당 구인당과 재사 민구재, 암수재가 있다. 강당의 동쪽 뒤편에는 문집관각과 서적을 보관하는 경각이 있다. 이외에 이언적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 강당 서쪽 뒤편에 있다. 교류 및 유식시설로는 누각 무변루와 세심천 주변의 세심대가 있다. 옥산서원은 정문인 역락문부터 무변루, 체인문, 체인묘까지 일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하 축선으로 구성된 서원 건축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옥산서원은 건축적으로 교류와 유식 시설로서 누마루 건축물을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누마루 무변루는 강학공간과 유식공간을 구분하는 진입문이자 외부와 내부의 경관을 연결하는 건축물로서, 이후 건립되는 서원들의 건축 구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무변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에 맞배 지붕을 한 건물인데, 위층 가운데 3칸은 대청이고, 그 양측은 각각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이며, 그 밖으로 좌우 각 1칸에는 퇴칸처럼 덧붙인 누마루를 만들어 난간을 둘렀다. 무변루는 내부와 외부가 모두 열려있는 구조로서 가변적 경관 개폐방식을 통해 주변 경관을 모두 시각적으로 서원 내부로 끌어 들일 수 있다. 누각 건축의 도입은 자연친화적 경관 구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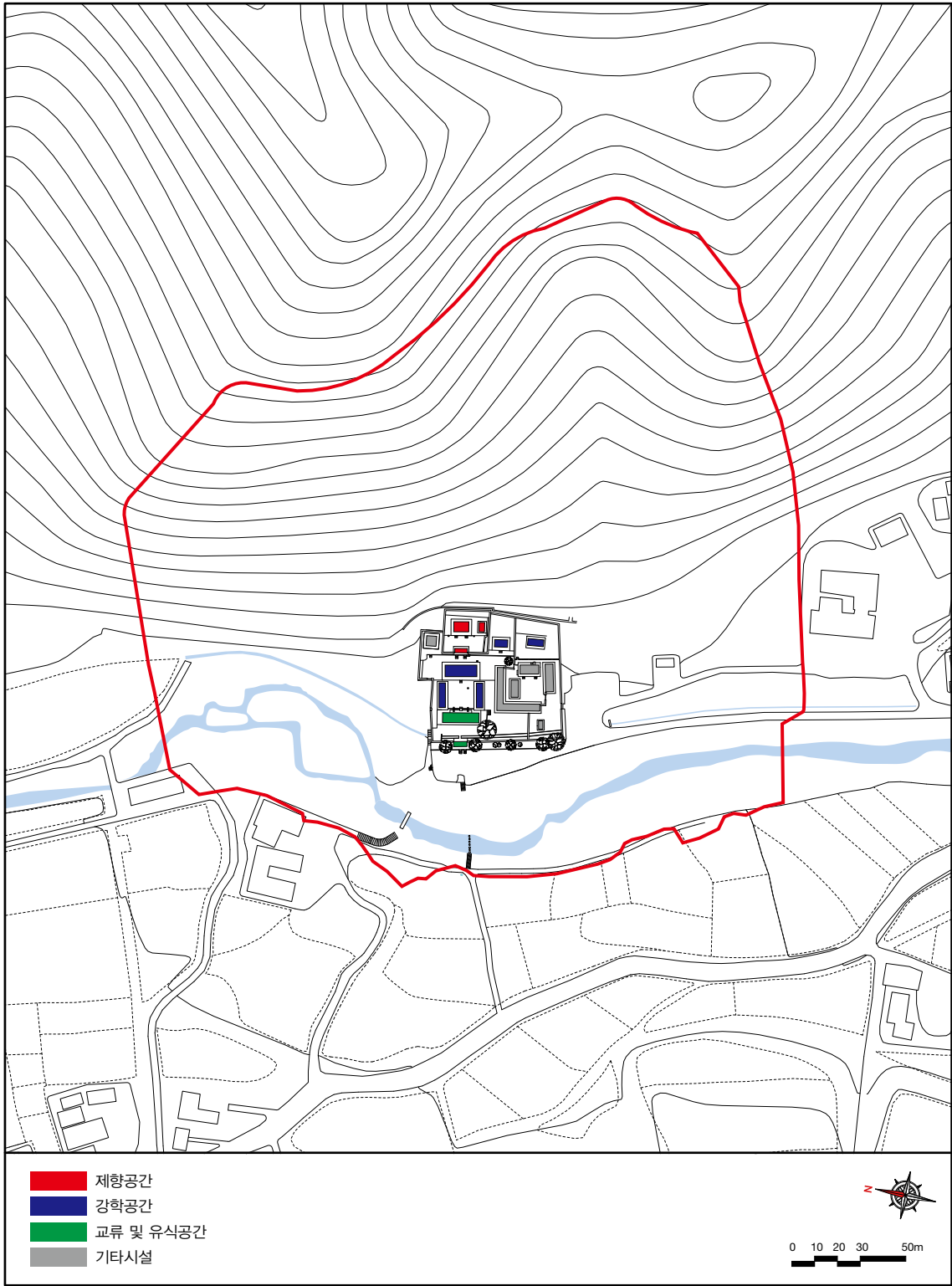


그림 2-31. 옥산서원 평면도



그림 2-32. 옥산서원 단면도

2.a.ii.4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1574년에 건립되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 낙동강이 흐르는 경사지에 입지하고 있다. 서원 건물이 낙동강과 평야를 바라보게 구성되어 있다. 제향인물인 이황의 강학처였던 도산서당을 모태로 이황 사후 서원으로 건립되었으며 현재에도 강학공간 전면에 도산서당이 자리잡고 있다. 도산서원은 자연친화적 경관입지를 구현한 한국 서원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성리학적 공간으로서 서원 건축 장식의 간소화를 실현, 독자적으로 완성한 사례이다.

도산서원의 건립 주체는 예안과 안동 인근의 사림과 이황의 제자들이다. 도산서원은 한국 서원 중에서 학문 및 학파의 전형을 이룬 대표적 서원으로 한국 서원의 역사에서 학술·정치·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상징적인 서원이다. 성리학과 관련된 고서, 목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강회록 등 교육과 관련된 기록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도산서원 목판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유교책판”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도산서원은 토론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형태의 강학 활동이 존재하였으며, 소장 자료를 통해 서원의 교육 방식을 입증한다. 도산서원은 건립 이후 이황의 문인 및 제자들의 학술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성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적 논쟁들을 거쳤고, 이를 기반으로 학파의 통일된 의견을 종합하였다. 강회록은 이러한 과정 속에 일어난 사항을 세세히 기록한 자료로서 성리학 학술 전당으로서 서원의 기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도산서원에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운영된 강학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그림 2-33.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원의 주향인물은 이황(1501-1570)이다. 이황은 안동 출신으로 중국에서 전래한 성리학을 한국에 정착시키고 체계화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다. 이황은 16세기 중반 한국의 성리학 지성계를 주도하였고, 그의 성리학 연구를 기점으로 한국의 성리학이 이론적·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황의 성리학 연구 및 저술들은 한국의 많은 사림의 지침서가 되었고, 17세기에는 일본에 전래되어 영향을 끼쳤다. 이황의 주도로 16세기 중후반 서원 건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에 의해 서원의 교육 및 제향의례와 관련한 사항들이 정리되었다. 한국 성리학의 정착과 서원 보급에 있어 이황은 가장 상징되는 인물이다. 1614년에는 이황의 제자였던 조목(1524-1606)도 함께 종향되었다.

서원 제향의례에 있어서 도산서원은 이황이 제정한 제향의례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한국 서원 제향의 정형을 이룬다. 이황은 소수서원의 홀기를 정비하는 한편, 이후 시행되는 서원 제향의례의 원칙을 제정하였다. 이황을 제향하는 도산서원은 이러한 이황이 제정한 제향의례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도산서원은 경상북도 북부의 대표 서원으로서 지역 공론과 학파를 주도해갔다. 학파의 중심지로서 도산서원에서는 성리학 관련 서적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이황의 저술들을 출판하였다. 공론 활동의 하나로서 만인소를 작성하여 지역 공론을 중앙에 알리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도산서원이 주도한 공론은 중앙 정부에 반영될 수 있었다. 도산서원이 가진 성리학 연구의 대표성과 상징성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정되었다. 정조는 특별히 도산서원에서 이황의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자 관료를 파견하여 치제를 하고 과거를 시행하였다.

도산서원은 사림 문학의 대표적 교류처, 창작처였다. 도산서원을 방문했던 많은 인물들은 도산서원을 주제로 한 많은 시문(詩文)을 남겼다. 도산서원을 둘러싼 주변 경관을 주제로 한 시문은 3,000여 작품 이상이 현존하며, 그중에서도 이황이 지은 도산잡영이 그 대표적이다. 또한 도산서원은 자연 경관의 탁월성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화가들의 작품 주제로 선택되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도산서원과 관련된 다수의 작품들이 현존하고 있다.

도산서원의 주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제향시설로 사우 상덕사, 전사청, 주청이 있다. 강학시설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단에는 강당 전교당과 제사 박약재, 홍의재, 도서관 동광명실, 서광명실, 장관각이 있다. 하단에는 제향인물 이황의 강학시설이었던 도산서당, 역락서재, 농운정사가 있다. 도산서원의 교류 및 유식공간에는 누각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천연대와 천광운영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외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기타시설로 서원의 중심축 좌측에는 서원의 지원을 위한 고직사 2동이 있고, 강 건너편에는 18세기 도산서원에서 시행한 과거시험을 기념하기 위한 시사단이 남아있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제향인물인 이황이 만년에 성리학 연구와 제자 양성을 위해 건립한 건물이다. 도산서당은 1560년에 농운정사는 1561년에 건립되었다. 도산서당은 세 칸으로 서쪽 한 칸은 골방이 딸린 부엌이고, 중앙의 방 한칸은 완락재, 동쪽의 대청 한 칸은 암서헌이다. 완락재는 이황이 독서하며 거처하던 방이고, 암서헌은 제자들과 함께 강학활동을 했던 공간이다. 농운정사는 제자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던 곳으로, 여덟 칸 규모의 일자형 평면을 하였다. 농운정사는 학습공간과 침실이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건축공간 구성을 보면, 최소한의 면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공간은 최대한 확보하여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황이 조성한 도산서당, 농운정사에는 아무런 장식이나 채색이 가해지지 않았다. 건물들은 아주 절박하고 단순하다. 현재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강학공간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서원 건립 당시에 두 건물을 유지하면서 뒤편에 서원을 갖추기 위한 다른 건축물들을 조성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전각 형식에 있어서 도산서원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산서원은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을 비대칭으로 설정하여 서원 건축의 혁신을 보여준다. 비대칭적 공간 구성은 거주시설에서 사우를 거주공간 북서쪽에 배치되게 하는 성리학적 예학 건축이론을 한국적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설정은 병산서원을 비롯한 도산서원 인근의 서원 건축 배치에 영향을 끼쳤다. 도산서원의 장관각은 장서공간에 누각형식을 도입한 마루의 또다른 사용 방식을 보여준다. 강당과 누각 위주로 적용하던 마루 건축에서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당인 전교당은 한쪽만 온돌방이 있는 비대칭으로 구성하여 강당 건축의 또다른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림 2-34. 도산서원 전교당



그림 2-35. 도산서당 전경



그림 2-36. 퇴계선생문집



그림 2-37. 도산서원도(정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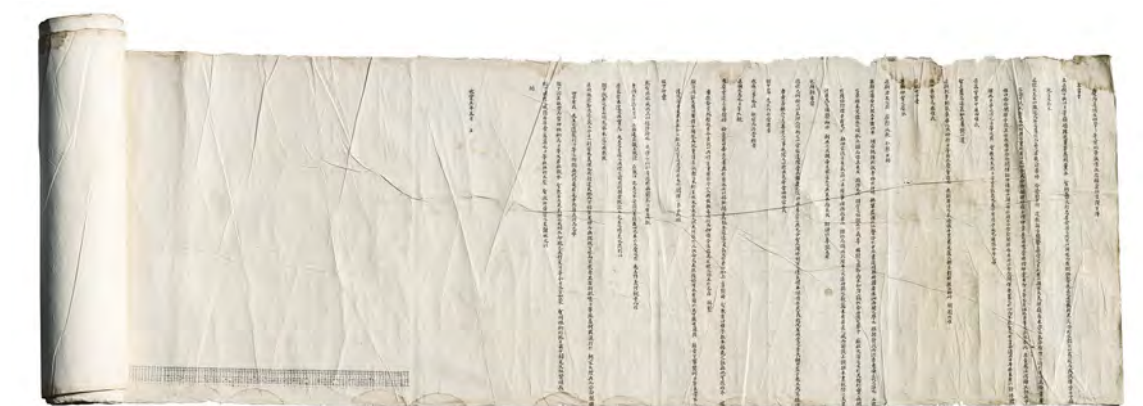


그림 2-38.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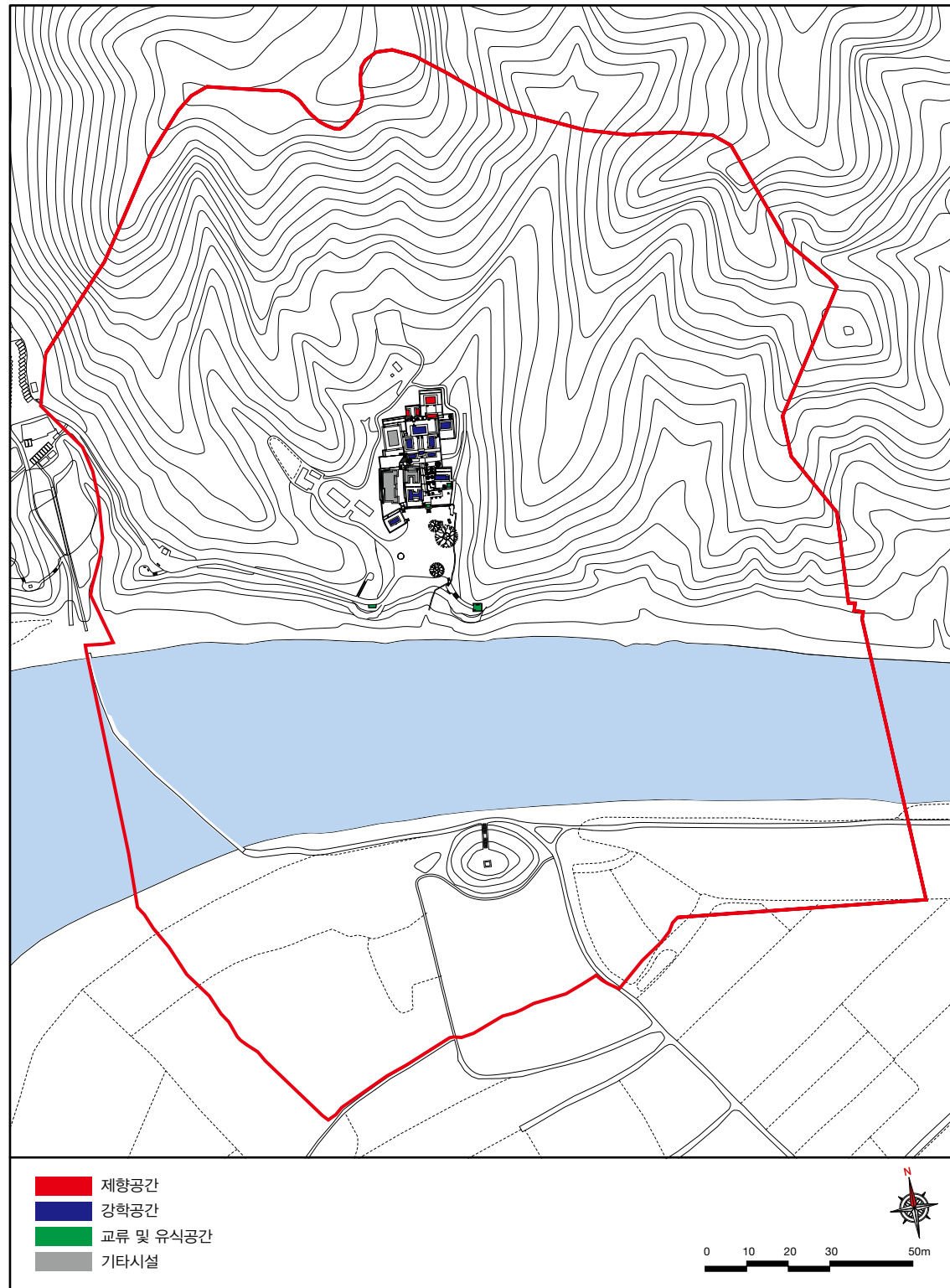


그림 2-39. 도산서원 평면도



그림 2-40. 도산서원 단면도

2.a.ii.5 필암서원

필암서원은 1590년에 건립된 서원이다.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원은 뒤편에 야산을 등지고 전면이 평야가 펼쳐진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전면이 평야로 구성되어 있어 누마루 확연루에서 탁 트인 야경(野景)을 감상할 수 있다. 필암서원은 기존의 서원과 달리 평지에 입지한 서원으로 건축 배치 형식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필암서원의 배치 형식은 이후 건립되는 평지형 서원 배치의 하나의 전형이 되었다.

필암서원은 장성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노비안, 양안 등 기록물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이 정립되는 단계를 보여준다. 재정 기반은 서원의 구성원과 함께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필수 요소이다. 필암서원에는 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토지, 노비를 포함한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있다. 관련 고문서에는 서원 소유 전답의 규모와 소출량, 노비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필암서원에는 노비의 명단과 계보도인 노비보가 현존하는데, 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노비 족보로서 노비의 출신, 가족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필암서원의 주향인물은 김인후(1510-1560)이다. 김인후는 16세기 중반 성리학 이론을 도식화하여 성리학 이해의 진전을 가져왔다. 성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중앙 정계에서 왕실의 스승으로 활약하였다. 김인후는 관료·학자로서 사림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김인후의 활동은 지방사회의 교육을 주도 하던 사림이 국가지도층의 교육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사림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것을 나타낸다. 1786년에는 김인후의 제자인 양자정(1523-1594)이 종향되었다.



그림 2-41. 필암서원 전경

제향인물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은 필암서원이 전라남도의 사림과 서원을 주도하는 서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전라남도의 사림은 의병을 결성하였고 필암서원은 저항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암서원은 남계서원과 마찬가지로 전쟁과정에서 1597년 전소(全燒)되었지만, 지역 사림에 의해 1624년 재건됨으로써 서원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필암서원은 전라남도에서 19세기까지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유일한 서원이다.

필암서원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다양한 인사들이 방문하고, 학문을 토론하는 현장이 되었다. 필암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현판과 기문 등은 창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방문한 증거로 남아있다. 필암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16, 17, 18세기를 대표하는 명사들의 시문자료인 현판과 기문 등은 창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방문한 증거로 남아있다. 강당과 누각의 현판은 돈암서원의 제향인물 2명이 작성한 것으로 서원 간의 교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필암서원이 장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필암서원은 주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제향시설은 사우 우동사와 전사청, 한장사가 있다. 강학 시설은 강당 청절당과 재사 진덕재, 숭의재가 있으며, 도서관인 경장각과 장판각이 있다. 경장각의 현판은 정조가 직접 책을 내려주며 작성해준 것이다. 교류 및 유식시설로는 학연루가 있다. 평지형 서원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에서는 외부 경관을 감상하기 어렵고, 학연루에서만 전면의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기타시설로 서원의 중심축 동측에는 서원의 지원을 위한 고직사가 있다.

필암서원은 이전에 건립되었던 서원과 달리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들이 경사지에 조성된 이유는 각 공간의 위계를 설정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평지에 입지한 필암서원에서는 이를 구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지형적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필암서원은 강당과 동·서재가 사우를 일상적으로 바라보도록 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서원의 강당은 대체로 입구 문루를 향하지만 필암서원의 강당은 입구를 등지고 있다. 산을 등지고 남향하여 좌우로 시립한 동·서재를 사이에 두고 북향하여 공손하게 예를 표하는 강당을 지켜보는 사우는 의례적인 중심일 뿐 아니라 서원의 실질적인 중심으로 자리하게 한 것이다. 필암서원의 배치 형식은 이후 건립되는 평지형 서원 배치의 하나의 전형이 되었다.

사우 우동사 내부에는 제향인물의 사상을 나타내는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 시각적으로 제향인물의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2-42. 사우 뒷면에서 바라본 필암서원 전경



그림 2-43. 필암서원 학연루 전경



그림 2-44. 필암서원 강학공간



그림 2-45. 필암서원 고문서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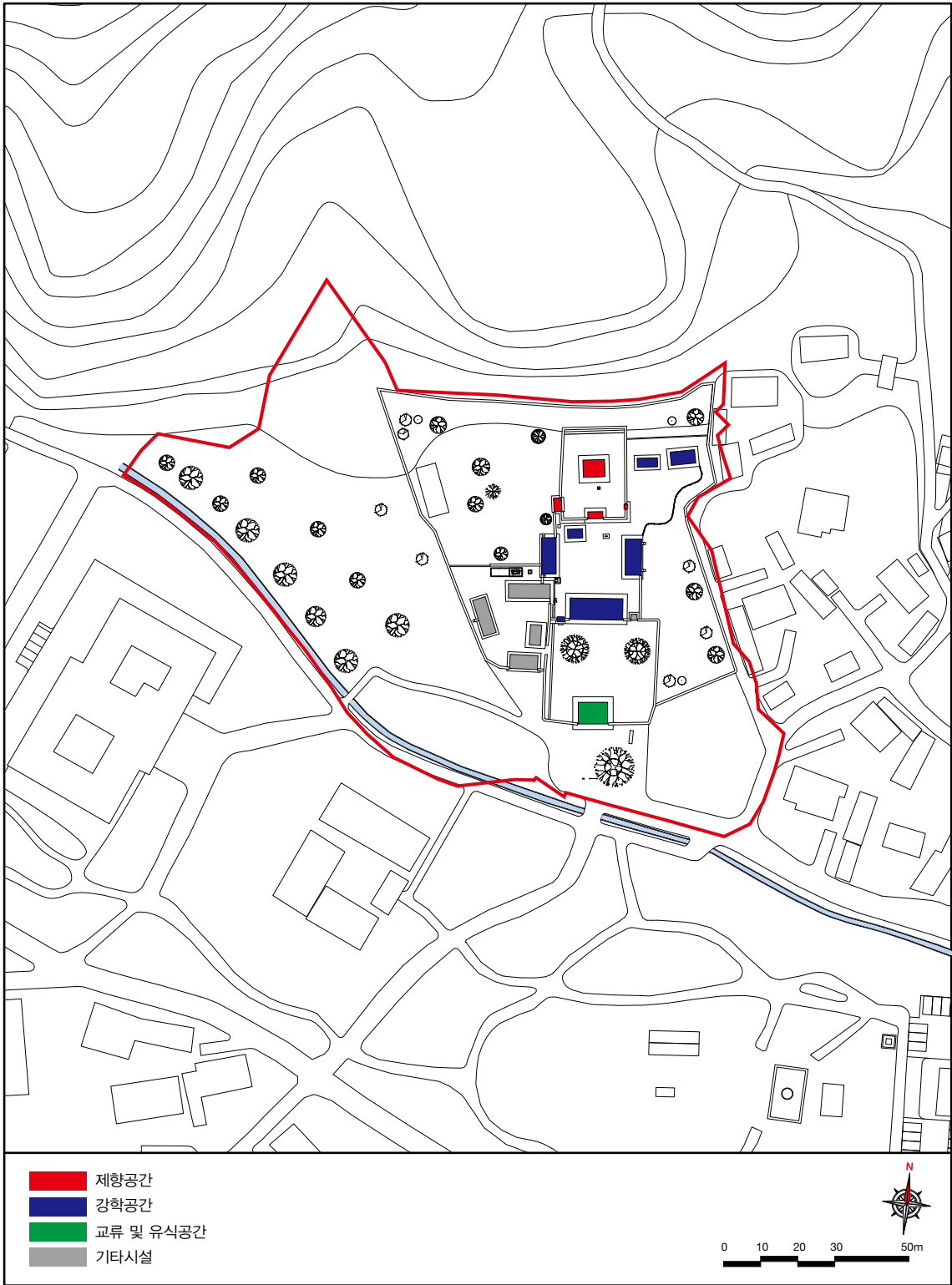


그림 2-46. 필암서원 평면도



그림 2-47. 필암서원 단면도

2.a.ii.6 도동서원

도동서원은 1605년 건립되었다. 도동서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니산 기슭에서 북향하여 전면의 낙동강을 바라보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도동서원은 위치와 경관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국 서원의 특징을 대표하며 경사지의 지형 조건을 최대한 살린 서원건축 배치의 탁월성을 보여준다. 강당 기단부의 예술적 구현, 최소 규모의 예술적 계획, 흙담장 등 경관과 성리학적 건축미학의 완성을 이루었다.

한국 서원의 교육 및 일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도동서원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동서원의 원규는 교육 방식, 재정 운영, 제향 횟수 및 절차, 원장 등 서원 구성원의 역할 및 임기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도동서원의 원규를 통해 소수서원에서부터 제정된 서원 규정들이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도동서원 목판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유교책판”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도동서원의 주향인물은 김굉필(1454-1504)이다. 김굉필은 성리학을 토대로 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에 집중한 사림 활동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김굉필은 성리학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실천윤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도동서원이 실천윤리에 집중하는 학풍으로 정착, 발전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도동서원에는 김굉필과



그림 2-48. 도동서원 전경

함께 정구(1543-1620)를 추가로 배향하고 있다. 정구는 김굉필의 외증손자이자 17세기 한국 남동부 지역 예학연구의 대표적 사림이었다. 정구는 도동서원의 건립을 주도하였으며, 도동서원의 원규는 정구에 의해 제정되었다. 도동서원에서의 기여와 활동 등으로 인하여 1678년 종향되었다.

도동서원은 제향 절차의 하나인 음복례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곳이다. 현재 서원향사에서 준례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은 도동서원이 대표적이다. 홀기에 따라 행하므로 의식이 엄숙할 뿐만 아니라 제관 모두에게 돌아가며 순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순배하는 순서도 다른 서원의 홀기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존현의식과 예학사상을 전승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도동서원은 인근에 김굉필의 묘소가 있어서 묘제와 서원 제향을 결합한 유일한 서원이다. 도동서원 사우의 출입문은 낮게 조성하여 제향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몸을 자연스럽게 숙이게 함으로써 제향에 대한 엄숙함과 공경함을 체화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도동서원은 대구광역시의 중심 서원으로서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활동을 주도하였고, 지역 공동체의 현안에 대해 서원에 모여 논의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사림·서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담은 고문서들이 남아있다. 도동서원은 19세기까지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대구광역시의 유일한 서원이다.

도동서원은 전면에 강을 바라보아 강당 중정당, 누각 수월루에서 확인되는 강경 입지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강경에서 자연친화적 입지를 건축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도동서원의 건축 구성은 경사지를 기반으로 한 서원 구성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건물들 상호간의 위계가 분명하고 건물 배치의 축이 뚜렷하다. 서원 공간이 좌우로 대칭을 이뤄 서원 예제건축의 전형성을 알 수 있다. 강학 공간으로 진입하는 문의 규모를 작고 낮게 구성하여 진입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낮추어 이동하도록 하여 서원을 진입할 때 자연스럽게 공경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도동서원의 주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제향시설은 사우, 전사청, 증반소가 있다. 강학시설은 강당 중정당, 제사 거인재, 거의재, 장판각이 있다. 교류 및 유식시설로는 누각 수월루가 있다. 유식공간에는 창건당시 식재된 것으로 알려진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제향인물과 관련된 기념비 3동이 분산되어 세워져 있다. 서원의 중심축 서측에는 서원의 지원을 위한 고직사가 있다.

도동서원 강당의 기단부는 다른 서원과 달리 거북, 용 등의 조각이 되어 있고, 벽돌에도 다양한 무늬를 삽입하여 지나치게 정제된 서원 건축을 보완하기 위한 창의적 장식 기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거북 무늬는 기단의 좌우로 구성되어 있는데, 좌측은 위로, 우측은 아래로 향하고 있어 출입의 의미를 부여한다. 용 조각은 서원 전면에 있는 강과 관련이 있다. 일종의 비보(裨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해가 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서원의 벽돌들은 계층적이면서도 벽돌 내에 다양한 무늬들을 삽입하였다. 사우 내부에는 제향인물의 시와 이를 형상화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점들은 서원 건축에서 장식의 미학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49. 도동서원 제향공간



그림 2-50. 도동서원 묘제



그림 2-51. 도동서원 강학공간



그림 2-52. 도동서원 중정단 기단 및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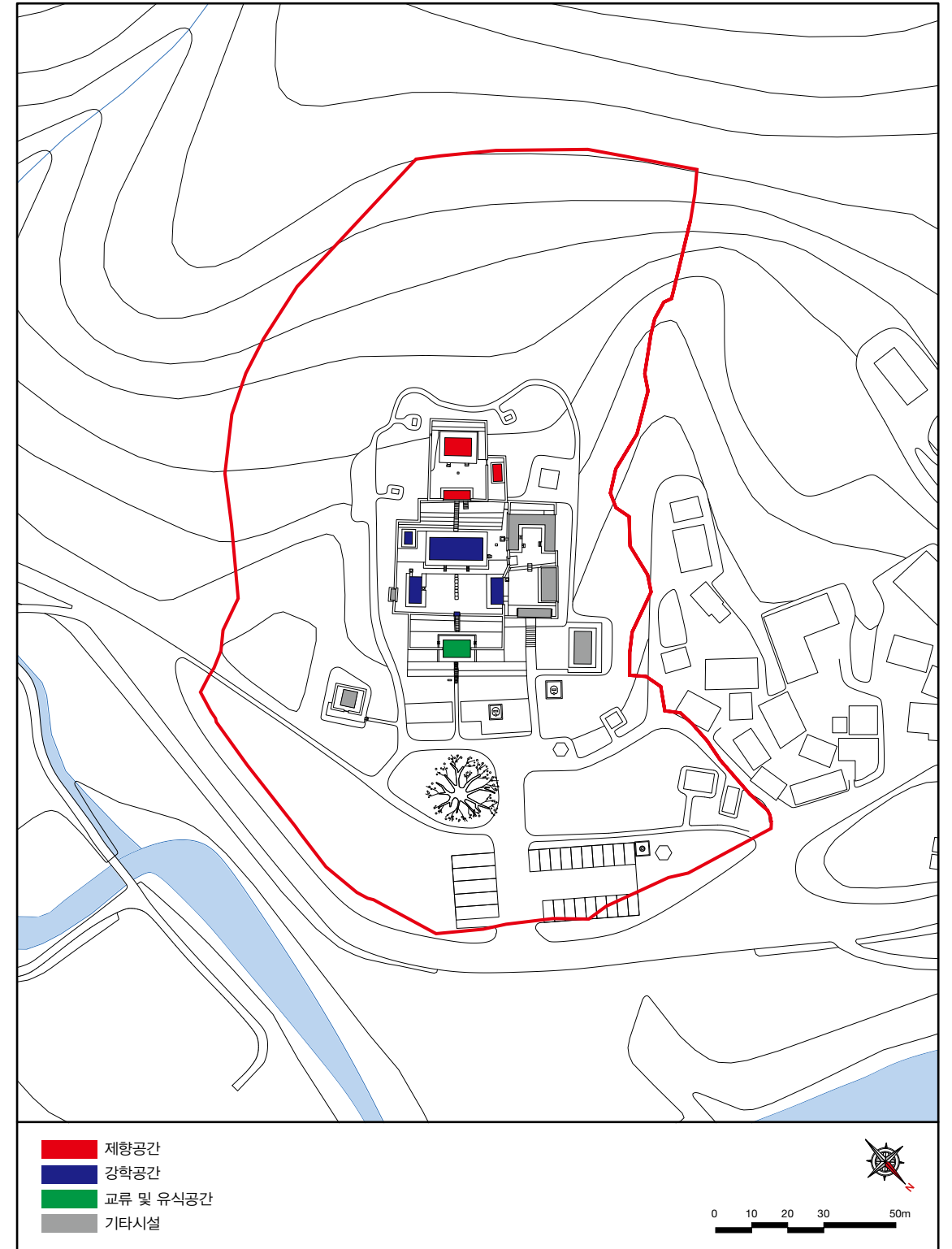


그림 2-53. 도동서원 유산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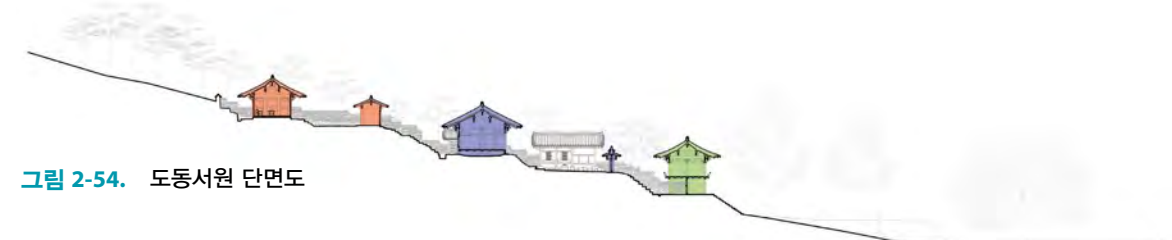


그림 2-54. 도동서원 단면도

2.a.ii.7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1613년에 건립되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지를 기반으로 맞은편 병산과 낙동강을 바라보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병산서원은 만대루를 통해 한국 서원 누마루 건축의 탁월성을 보여준다. 병산서원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병산서원은 류성룡의 제자, 후손, 그리고 안동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서원은 교육기관에서 출발했지만, 교육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점차 사림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모습의 한 측면을 병산서원에서 볼 수 있는데, 병산서원은 만인소를 조선시대에 최초로 작성하는 등 공론장으로서 서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곳이다. 병산서원 목판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유교책판”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병산서원의 주향인물은 류성룡(1542-1607)이다. 류성룡은 16세기 후반 영의정·도체찰사로 임진왜란을 수행한 인물이다. 사림이 중앙 정계에 최고위직에 진출하였다는 사실은 사림이 지역을 넘어서 주요 정책과정의 핵심적인 위치로 발돋움한 관료형 사림의 유형을 나타낸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징비록』, 『군문등록』 등 여러 저술들을 남겼는데, 병산서원에서는 이를 출판 간행하였다. 류성룡의



그림 2-55. 병산서원 전경

저술은 일본에까지 보급되어 일본의 지식인들에 의해 읽혀졌다. 1662년에는 류성룡의 아들이자 그의 학문을 계승한 류진(1582-1635)을 중향하였다.

병산서원은 한국 서원의 발전 과정에서 서원의 기능이 교육에서 공론장으로 확장된 사례에 속한다. 병산서원은 한국 최초로 수천명이 연명한 유소를 올린 서원이며 지역의 공론을 형성하고 종합, 산출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병산서원에 소장된 다양한 고문서들은 병산서원이 지역의 공론을 수합하고 조정해 나간 전반적인 사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병산서원의 공론장의 기능은 통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문은 공론 소통의 문서로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병산서원에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의 다양한 서원 및 사림의 공론을 수합하기 위해 작성된 통문들이 남아 있다.

병산서원의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장식을 배제하고 있지만, 만대루를 비롯한 건축물들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인위적인 장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원 건축의 단조로움과 자연친화적인 서원 입지와 경관 구성 등 자연경관이 건축물과 조화롭게 배치된 탁월한 사례에 속한다. 강당과 사우가 비대칭적으로 강당의 동측 상단에 배치된 것은 같은 도시에 위치한 도산서원의 건축 배치방식과 동일하다.

병산서원의 주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제향시설로 사우 존덕사, 전사청이 있다. 강학시설로 강당 입교당, 제사 동직재, 정허재, 장관각이 있다. 교류 및 유식시설로 만대루, 광명지가 있다. 서원의 중심축 우측에는 서원의 지원을 위한 고직사가 있다.

서원은 대체로 경관이 수려한 강, 계곡, 그리고 산을 배경으로 입지한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병산서원은 이러한 경관적 요소를 탁월하게 나타낸다. 병산서원은 낙동강과 전면의 산지의 조화를 이룬 곳에 입지하였으며, 이를 만대루라는 누마루를 통해 건축적으로 구현하였다. 만대루는 7칸으로 구성된 누각이다. 만대루는 7칸으로 구성된 화면이 각각 다른 장면을 연출해 줌으로써 서원 앞의 자연 경관을 하나로 합쳐 극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구조물이 되었다. 만대루는 옥산서원에서 처음 도입한 누마루 형식을 완성도 있게 구현하였다.



그림 2-56. 병산서원 강당에서 바라본 만대루



그림 2-57. 징비록 책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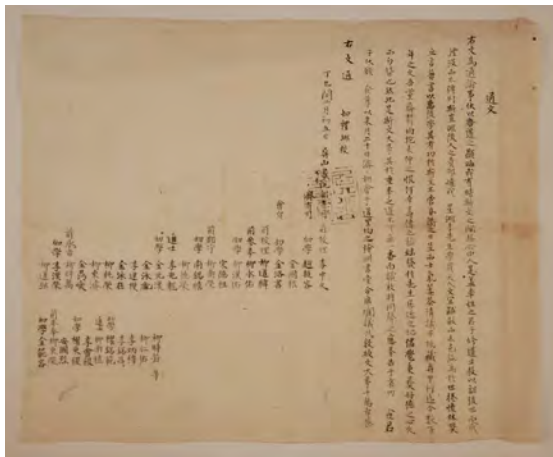


그림 2-58. 병산서원에서 발행된 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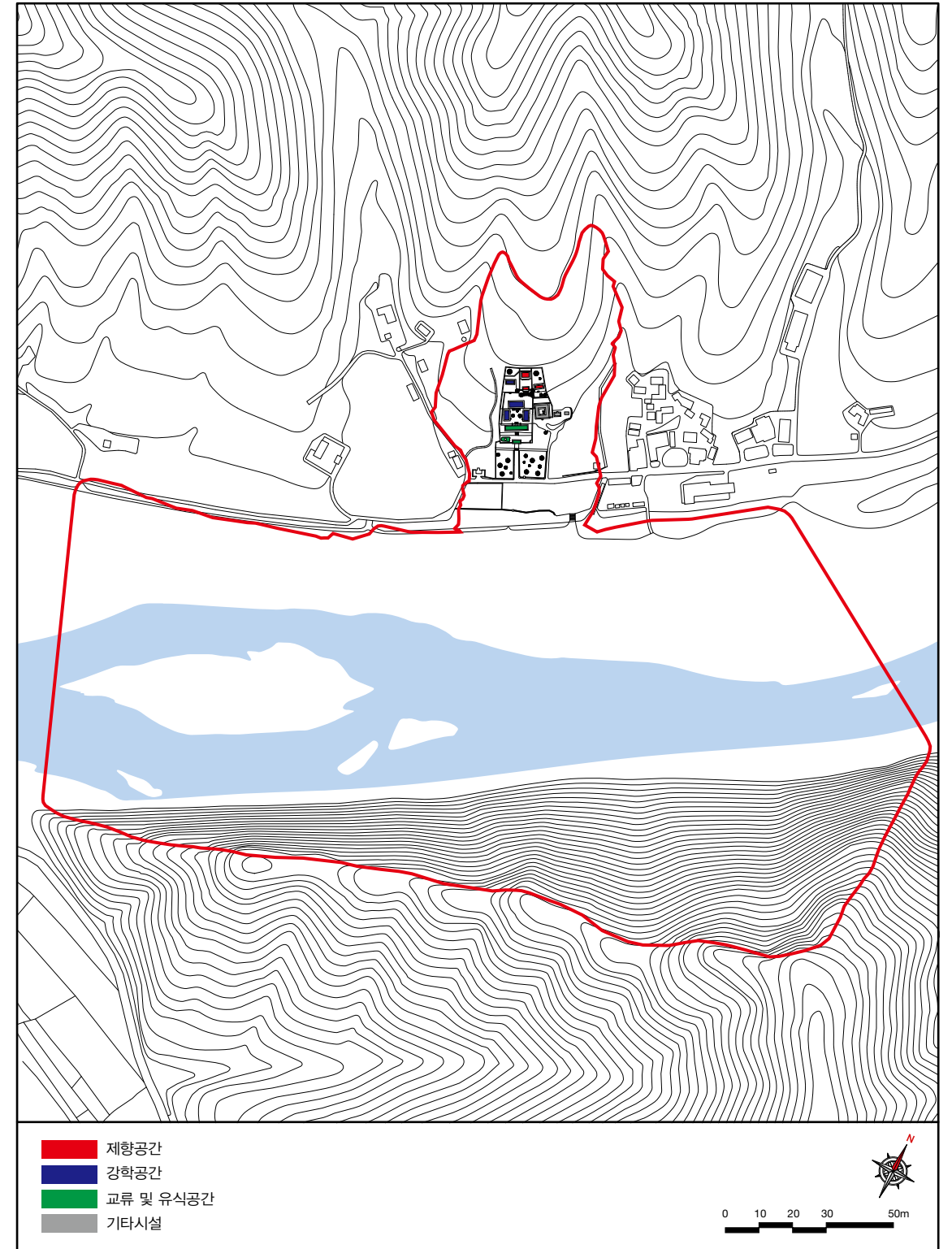


그림 2-59. 병산서원 평면도



그림 2-60. 병산서원 단면도

2.a.ii.8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1615년 건립되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원 건립을 주도했던 사림이 활동하였던 마을 인근에 입지하고 있다.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과 달리 자연 경관보다는 서원의 제향인물들이 활동하던 지역 인근에 입지한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향약 시행과 20세기 초 항일의병의 근거지였다. 서원과 인접한 마을에 지역 사족활동의 다양한 유적들이 함께 남아 있다.

무성서원의 제향인물은 최치원(857-?), 정극인(1401-1481), 송세립(1479-?), 신잠(1491-1554), 정언충(1706-1772), 김약목(1500-1558), 김권(1549-1622)이다. 이들 모두 정읍 지역 홍학과 관련된 사회활동을 한 관료와 지역 사림이다. 이들은 향촌교육과 연계되어 성리학의 가치를 보급하고, 학문을 권장한 인물들로 이들은 제향인물로 선정되었다. 성리학의 사회 교화와 실천을 실현한 모범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서원들이 제향인물을 지역사회의 강학활동과 성리학 연구를 중심으로 선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무성서원은 지역 전통 의례와 결합되어 제향 의례 전에 서원 입구에서 서원 경내의 건물 마당을 거쳐 제향공간까지 황토를 뿌리는 특이한 사례가 주목된다. 황토 길을 만드는 것은 이 서원의 특징인데,



그림 2-61. 무성서원 전경

선현께 올리는 신로와 제물을 신성시하여 일체의 사사로운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한다는 벽사의 의미를 가진다. 무성서원은 현재까지 지역 주민과 서원 구성원들에 의해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무성서원은 성리학이 사림을 중심으로 기층민까지 영향을 주는데 있어 서원의 역할을 보여준다. 무성서원은 지역의 교육, 홍학 전통을 토대로 건립된 사례로 서원이 가진 기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대표한다. 무성서원은 사림의 홍학당을 기원으로 하며 이후 홍학을 주도한 사림을 기리는 사우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서원 건립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성리학의 사회전파와 관련하여 사림활동 중 가장 대표되는 것은 지역 자치규약인 향약이다. 무성서원은 인근지역 향약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지역민 결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향약과 관련성이 높은 무성서원의 특성은 강학 의례에도 반영되어 향약 의례의 하나인 향음주례(鄉飲酒禮)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사회 결집 역할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는 병오창의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성서원에는 병오창의 기념비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무성서원은 19세기말까지 훼손되지 않고 운영된 전라북도의 유일한 서원이다.

서원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된 것은 서원의 입지와 건축 구성에도 영향을 끼쳐 마을에 포함된 건물로서 입지하였고 서원 건축물들도 마을을 향해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서원 영역 전체를 관통한다. 무성서원 인근에는 지역의 사림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정자와 사우들이 존재한다. 무성서원 입지의 특성은 신청유산 중에서 예외적인 특이한 사례이다.

무성서원 주위에는 지역 성리학자들과의 연계성이 있는 누마루와 사우들이 존재하며, 사액 현판을 비롯하여 학규, 제향인물과 관련된 사건 등을 알 수 있는 기록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마을 내에 위치한 무성서원의 입지는 서원 구성원의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대부분의 건물이 마을 전역과 연결된 개방형 구조로 이러한 입지는 9개 서원 중에서도 예외적인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무성서원은 전라북도의 10개 중심 서원 중 하나로, 19세기 전국적인 서원



그림 2-62. 칠광신흔도의 무성서원 모습



그림 2-63. 무성서원지

철폐령에서 살아남은 지역 유일의 서원이다.

무성서원의 주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제향시설은 사우 태산사가 있다. 강학시설은 강당 명륜당과 재사 강수재가 있다. 강수재는 다른 서원과 달리 강당 앞마당 좌우에 있지 않고 별도로 조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류 및 유식시설로는 현가루가 있다. 이 외에 무성서원에는 서원과 관련된 다수의 기념비들이 서원 내외부에 분산되어 세워져 있다.

무성서원의 재사인 강수재 앞에는 기념비 하나가 서있다. 이 비는 1906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의병활동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최익현과 임병찬이 중심이 된 의병창의는 무성서원의 강회와 유림 동원력, 대표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성서원의 정신사적 위상과 지성사적 전통을 보여 준다. 무성서원에서는 해마다 병오창의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이를 기념하고 정신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2-64. 황토를 깔아 신도를 만드는 무성서원



그림 2-65. 무성서원 강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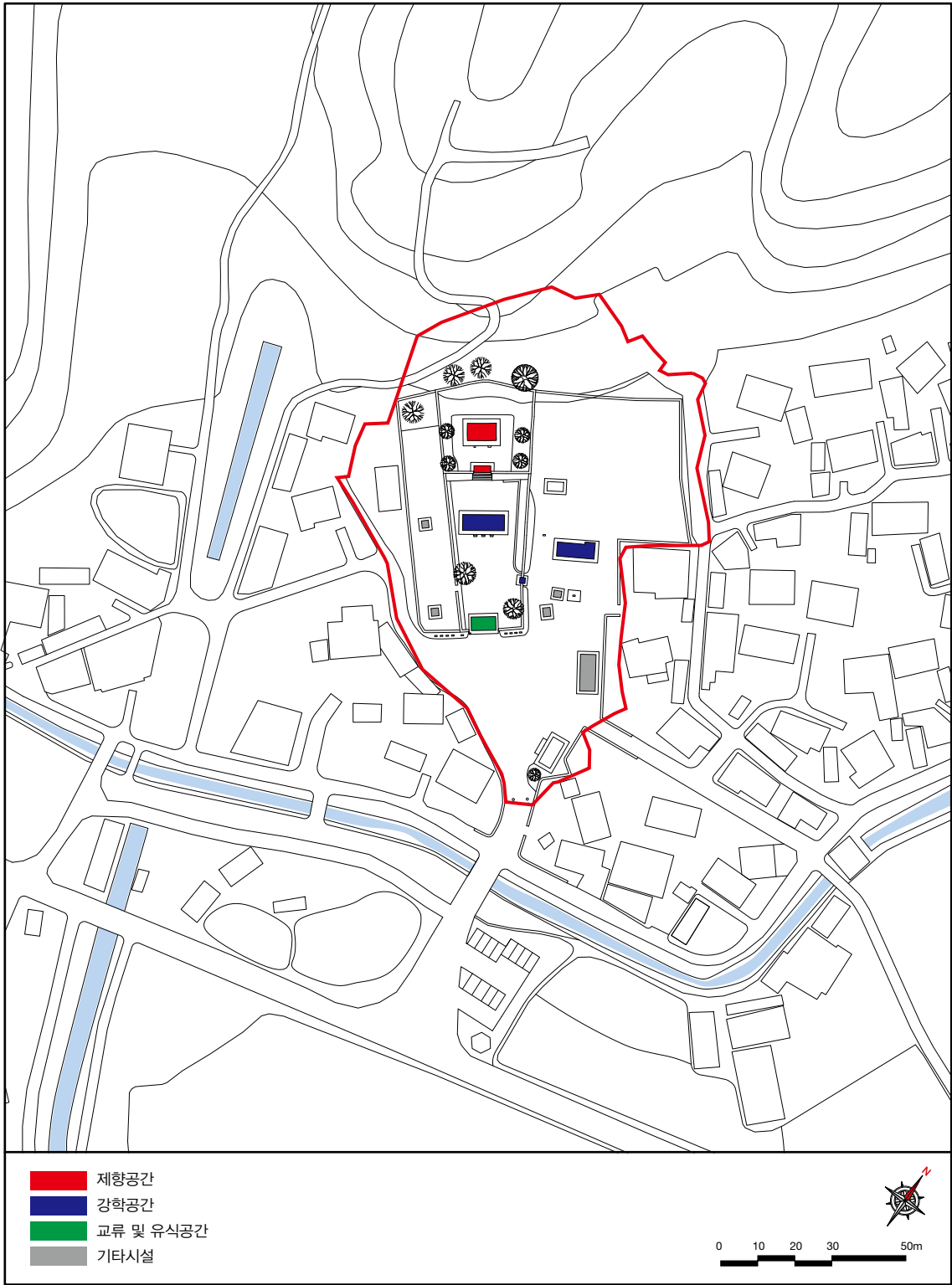


그림 2-66. 무성서원 평면도



그림 2-67. 무성서원 단면도

2.a.ii.9 돈암서원

돈암서원은 1634년 건립되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제와 결합된 강학 건축물의 탁월성을 보여준다. 강당인 응도당은 다양한 의례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의 전통건축과 예학 이론을 결합하여 완성된 건물로 구현한 사례이다. 돈암서원은 19세기 후반 한차례 이진된 바 있으나, 당시의 이진상황이 세세하게 기록된 자료를 통해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사항을 증명한다. 이진 과정에서 서원의 원래 입지와 유사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을 통한 노력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형보존을 전제로 한 이진 과정에서 전통 건축기술의 전승을 이루었다.

돈암서원은 김장생의 제자들과 논산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돈암서원은 한국적 실천예학과 한국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禮學) 논의의 산실이었다. 예학이라는 성리학의 이론이 특화되었다는 점은 획일적인 연구가 아니고, 특정 분야를 토대로 다양하게 발전되어가는 한국 성리학의 흐름을 보여준다. 각 건축물의 현판들은 성리학적 예(禮)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목판과 장서 등 대부분의 기록물들도 예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돈암서원에는 많은 목판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예학과 관련된 이론서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돈암서원의 주요 제향인물은 김장생(1548-1631)이다. 김장생은 17세기 조선의 예학 연구를 선도해간 사림으로서 그의 견해는 중앙정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김장생의 제자들은 돈암서원을 중심

으로 특정 학파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중앙정계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주요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예학은 전쟁으로 파폐된 국가의 질서를 재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시된 성리학 주제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이후 김장생의 제자인 김집(1574-1656)은 1659년에, 송준길(1606-1672)은 1888년에, 송시열(1607-1689)은 1697년에 추가로 배향되었다. 돈암서원에 배향된 모든 인물들은 예학 이론을 구체화하는 저서들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서인 학맥의 형성 과정에서도 이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성리학의 특정 분야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예학에 대한 논의는 서인에 의해 활성화 되었다. 돈암서원 설립 후,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어 국가 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다루기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돈암서원에서는 김장생을 배향하며 현재까지도 문중과 유럽에 의해 제향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돈암서원은 충청남도 지역의 중심서원으로서 지역의 공론과 학문을 주도해갔다. 충청남도 지역의 많은 서원들은 김장생과 관련된 문인, 제자들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따라서 돈암서원과 건축물이나 교육 방식, 연구 경향 등에서 유사한 점들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충청남도의 중심서원으로서 돈암서원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학과 관련된 돈암서원의 학술 특성은 제향인물인 김장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장생은 17세기 전반 예학을 집대성하여 사회에 보급한 인물이다. 따라서 돈암서원은 예학의 완성을 상징하며, 조선 시대 예학의 거점이자 지역 학맥의 거점으로 역할하였다. 예학과 관련된 토론 문화가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지역에서 활성화 되었다. 이러한 토론문화의 전통은 문중과 유럽에 의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돈암서원의 주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제향시설로 사우 숭례사와 전사청이 있다. 강학시설로 강당 양성당, 응도당과 재사 거경재, 정의재가 있으며, 정회당, 경회당, 장판각이 있다. 이 중에서 양성당과 정회당은 제향인물인 김장생이 생전에 강학 및 성리학 연구를 했던 건물이며, 응도당은 김장생의 예학 이론서에 수록된 것을 김장생의 사후 제자들이 건립한 것이다. 교류 및 유식시설은 산양루가 있다. 이외에 서원 내외부에는 김장생 및 돈암서원과 관련된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다.

돈암서원은 예학 실천공간으로서 서원 형식을 크게 혁신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강당 응도당이다. 응도당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 전면, 측면 3칸 모두 8자로 동일하게 계획되었는데 이는 현존하는 서원 강당 건축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응도당 상부의 공포는 경쾌한 디자인으로 둔중한 응도당의 형태를 보완하고 있다. 응도당은 제향인물인 김장생에 의해 기획되었고, 그의 예학 관련 저술인 『가례집람』에 관련 사항이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응도당은 건립된 이후 예학논의의 산실로 기능하였다. 예학과 관련된 토론, 저술활동은 응도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갔다. 현재 돈암서원 장판각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은 응도당에서 작성된 것들이다.



그림 2-68. 돈암서원 전경



그림 2-69. 돈암서원 응도당



그림 2-70. 『가례집람』의 하옥전도



그림 2-71. 돈암서원에 소장된 책판



그림 2-72. 돈암서원 신독재전서 및 목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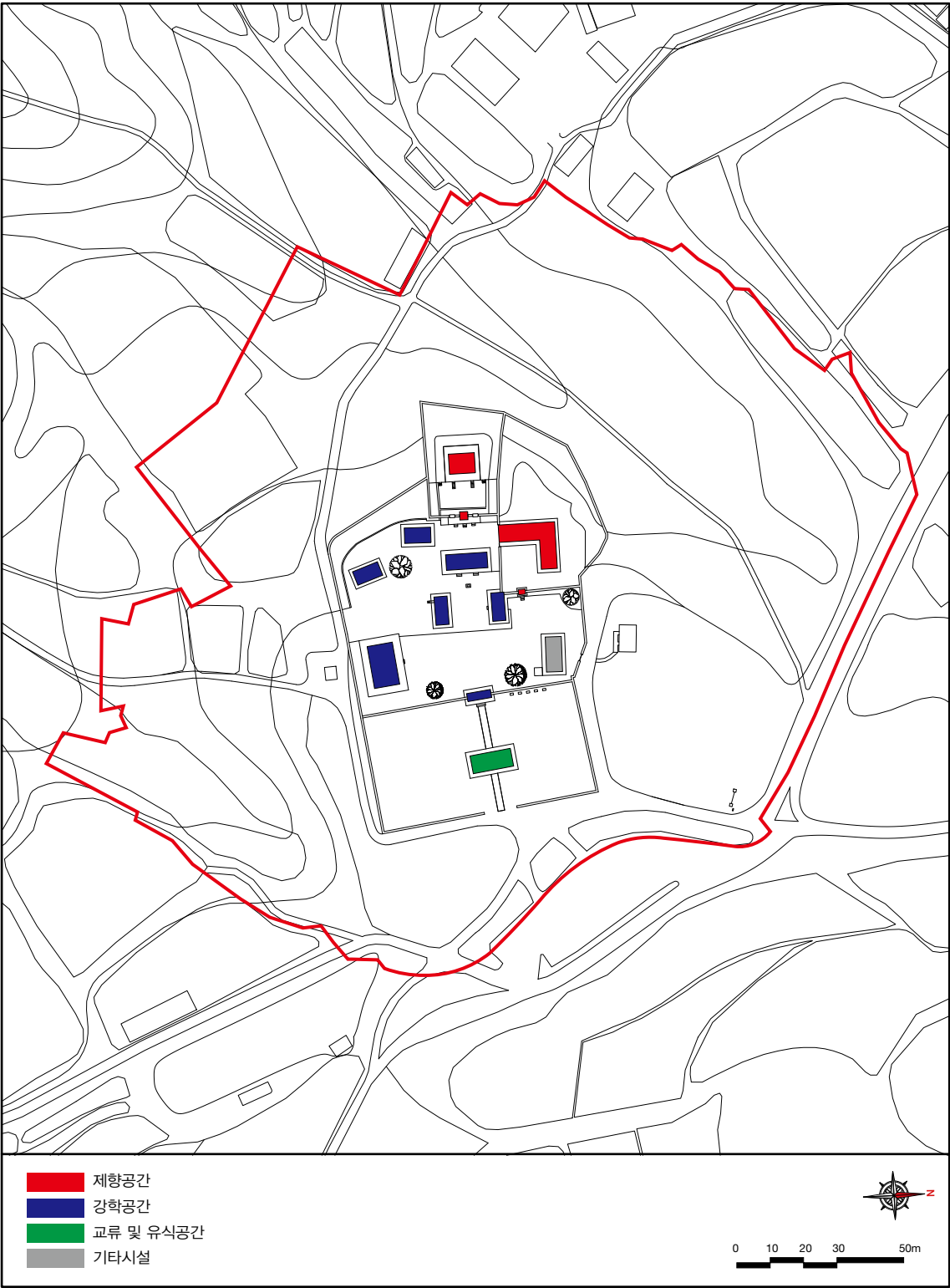


그림 2-73. 돈암서원 평면도



그림 2-74. 돈암서원 단면도

2.b 역사 및 발전

신청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00년에 걸쳐 설립된 9개의 사립 성리학 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는 제향, 강학, 유식공간을 특징으로 한 서원건축형태의 정형화 이전 단계로, 다양한 건축 배치와 기법이 시도된 서원 설립의 초기 발전단계라 할 수 있다. 자연경관을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시킨 것도 한국서원의 독특한 특징이다. 한국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주자가 부흥시킨 중국 백록동 서원의 제향, 강학, 도서관 기능의 개념을 채택했다. 소수서원은 중국의 서원에서 기본적인 구성을 차용했지만, 사우의 건축적인 기능을 재해석하여 공자 대신 서원이 있는 영주지역 출신의 성리학자 안향을 배향했다. 제향공간은 건축 배치와 기능 면에서 서원의 중심 요소가 되었다. 서원의 교육은 관료를 배출하거나 과거시험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후학들에게 성리학적 가치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서원은 사림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기관보다는 민간교육기관에 가깝다. 남계서원은 사림의 노력만으로 건립되고 운영된 최초의 서원으로, 후에 이어지는 서원 배치의 정형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16~17세기는 성리학의 학파 형성과 이기론, 예론, 경세론 등에서 다양한 논리를 마련하던 시기였다. 신청유산은 이후 한국 사립 활동의 거점으로서 정형화를 이루며 정착, 발전하였다. 도산서원은 서원이 지향해야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서원 교육은 성리학을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실천을 통한 성리학의 이상사회 건설을 지향하였다. 돈암서원과 도동서원은 성리학의 실천에 집중하여 지식인의 재생산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한국 성리학의 특화된 분야인 예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이후 한국의 서원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학문 네트워크를 기초로 한 지식 중심의 사회를 이끌어 갔는데, 신청유산은 그러한 지역 학맥을 형성하는 핵심 거점이었다. 신청유산은 교육과 제향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실생활 적용과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 감으로써 정치·사회적 기구의 성격을 가진다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신청유산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지성활동과 사림활동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거점으로서 공론을 결집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병산서원은 17세기 이래로 경상북도 공론의 중심이었고,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은 만인소를 주도하였다. 또한 16세기말 임진왜란 시기 필암서원과 남계서원은 의병활동을 주도하였으며, 20세기 초 일본에 의한 식민지로 변환하던 시기에 무성서원은 의병활동을 주도하는 등 역사적 분기점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신청유산들은 사림의 문화창출 공간이기도 했다. 사림은 서원 내에서 정기적·비정기적 시회·강회 등을 통해 감성과 지식을 교류하였다. 서원은 이러한 문학과 기록물을 생산·유통·확산시키는 출판 및 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소수서원과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서원 건축의 도입과 배치의 유형화가 시도된 이후 여러 지역에서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건축 정형화된 동시에 건축물, 건축양식, 입지 등에서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서원제도를 한국에 최초로 도입한 소수서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원들은 모두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제향공간-강학공간-교류와 유식공간을 위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누마루의 도입은 서원의 건축에서 자연 경관을 주요한 요소로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옥산서원은 자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누각 건축을 도입하여 서원 누마루 건축 양식의 초기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성리학 교육 유산으로서 한국 서원 건축의 독자적 유형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은 지형을 고려하여 전저후고형과 평지형 양식으로 이원화되었다. 도동서원은 전저후고형의 지형조건을 탁월하게 나타낸 사례에 속하며, 필암서원은 평지형 서원배치를 보여준다.

17세기 서원 건축의 정형화가 마무리되면서 특정 건축물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변화가 시도되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누마루 형식을 구현하여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 하였다. 이는 옥산서원에서 기획된 누마루 형식이 탁월하게 발전한 사례에 속한다. 돈암서원의 응도당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강당 건물이면서 모침제라는 예제 건축 이론을 적용한 사례이다. 이것은 돈암서원이 강학과 성리학 토론 등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고, 실제 강학과 관련된 참여자의 수가 월등히 많았음을 증명해 준다. 서원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자연경관보다는 접근성 및 서원 참여자에 주목하여 선정되는 변화도 나타났다. 무성서원과 같이 주거지 인근에 서원이 건립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성리학이 사림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공동체 전반으로 확대된 결과이다.

17세기 이후, 신청유산은 입원생의 증가를 비롯하여 서원의 참여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들이 신축·증축되기도 하였다. 증가하는 서적·목판을 보관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서원들도 있었다. 일부 건물들은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소실후 복원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남계서원의 사례와 같이 누각을 새로 건립하여 서원의 완전성을 구현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은 유산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돈암서원과 같이 자연재해로 서원이 이진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준수되었다. 신축·증축·복원의 과정에서 전통 건축 기술이 보완되고 전승되는 효과도 있었다.

19세기말 근대화로 인해 성리학 중심의 교육이 재편되어 신청유산의 교육 기능이 존속되기 어려워졌지만, 신청유산은 서원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제향의 전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적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청유산은 한국에서 서원이 만들어지던 초창기에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당시의 서원 구조와 건물 형태를 보전하고 있기에 국가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서원 건축물들과 입지, 주변 경관을 원형에 가깝게 보호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향사를 비롯한 각종 모임과 교육을 통해 성리학적 가치관을 보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b.i 소수서원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서원이다.

1542년 8월에 주세붕과 영주 지역 사림은 이 지역 출신이자 한국에 최초로 성리학을 수용한 안향을 배향하는 사우 문성공묘(文成公廟)를 설립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1543년 2월에 준공하였다.

1543년 4월에는 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강당인 강학당(講學堂)과 기숙사인 직방재(直方齋) 및 장서각(藏書閣)을 짓기 시작하여 8월에 서원을 완공하였다. 강당은 사우의 동쪽에 위치하였고, 재사는 강당의 뒤편에 조성하였다. 서원의 외형이 갖추어지자 주세붕은 1543년 8월 안향의 영정을 봉안한 후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명명하였다. 1550년에는 '소수(紹修)'로 사액되어 국왕인 명종(明宗)이 직접 쓴 현판을 내렸다.

주세붕은 14세기 한국의 대표적 성리학자로 알려진 안축과 안보를 1544년에 사우에 추가로 배향하였다. 이후 1633년에는 주세붕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유생들의 교류와 유식을 위한 목적으로 정자 경림정(景濂亭)이 1545년 서원의 진입부에 건립되었고, 1549년 정자 취한대(翠寒臺)와 1614년 연못 탁청지(濯淸池)가 조성되었다. 건립이후 학생수가 증가하여 1614년에 기숙사인 지락재(至樂齋)를 추가로 건립하였다. 1807년에는 직방재의 건물을 연장하여 일신재(日新齋)를 건립하였으며, 일신재 뒤편에 별도로 학구재(學求齋)를 건립하였다.



그림 2-75. 소수서원 잡록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소수서원 초창기에 건립된 건축물들은 증축 및 보수 과정을 거쳤다. 1657년 경림정을 재건하고, 1677년에는 사우와 강당 등 주요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가 있었다. 1730년에는 강학당과 전사청의 수리, 1799년 지락재 재건, 1805년 직방재와 학구재 수리, 1813년 사우와 전사청, 담장의 수리가 진행되었으며, 1819년에는 장서각을 재건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현존하는 고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창기에 건립된 건물들 대부분은 현재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소수서원은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보다 강화된 법적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1975년에는 소수서원 경내에 영정각을 건립하고, 1982년 사료관을 증축하여 소수서원과 관련된 인물과 자료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정자 경림정을 해체 수리하고, 2015년 강학당의 지붕을 수리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소수서원이 초기 서원으로서 건축물 및 유형 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음에 따라 2004년 강당 강학당과 사우 문성공묘가 보물로 지정되었다. 활용 시설로 1992년 충효교육관을 건립하여 유물 전시와 교육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2.b.ii 남계서원

남계서원은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다. 1552년 강익의 주도하에 정여창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함양 사람 30여 명이 참여하여 서원 건립이 추진되었다. 1561년에는 사우와 강당 명성당(明誠堂)이 완공되었다.

기숙사인 동재 양정재(養正齋)와 서재 보인재(輔仁齋)가 1564년에 건립되었고, 그 아래에 한 쌍의 연당(蓮塘)을 만들어 서원의 외형을 갖추었다. 동재와 서재는 강당 쪽의 각 한 칸은 운돌방이고, 문루인 풍영루 쪽의 나머지 한 칸은 각각 애련헌(愛蓮軒), 영매헌(詠梅軒)이라고 이름 붙인 누마루로 되어 있다. 이처럼 실(室)과 헌(軒)이 하나의 건물에 같이 있는 것은 헌(軒)이 누(樓)건물로 나타나기 이전의 형식으로 교류와 유식시설로 기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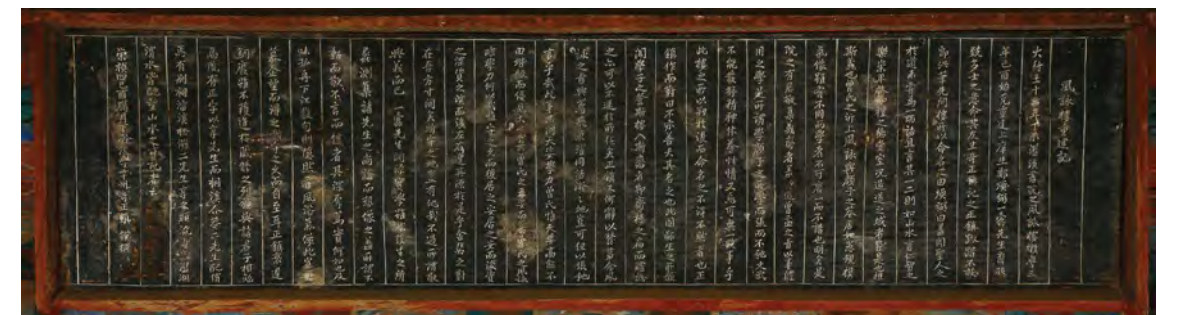


그림 2-76. 남계서원 풍영루기

1566년에 ‘남계(濫溪)’로 사액되었다. 1569년에는 전사청을 제향공간 내에 건립하여 제향을 위한 완비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남계서원을 1605년에 다시 건립하고, 1606년 다시 사액이 되었다.

1677년 정온을 종향(從享)하고, 1689년에는 서원 건립을 주도했던 강익을 종향하였다. 1779년 묘정비를 세우고, 1849년에 풍영루(風詠樓)를 건립하였다. 원래 남계서원의 정문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동·서재 전면 1칸이 누의 기능을 함께 했었지만 풍영루가 건립되면서 교류와 유식을 위한 누각과 강학을 위한 기숙사 재사가 구분되었다.

건립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922년에 장관각(藏板閣)을 다시 건립하여 책판과 서적을 보관해왔다. 남계서원에 소장되었던 책판과 서적은 보존관리를 위해 현재 함양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2009년에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관리되고 있다. 2011년 풍영루를 수리하였고, 2016년 고직사를 개축하였다.



그림 2-77. 구인당 증건일기

옥산서원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해 있다. 이언적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이제민(李齊閔)을 비롯한 경주의 사림들이 힘을 합쳐 1572년에 건립하였다.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8월에 사우 체인묘(體仁廟)·강당 구인당(求仁堂)·동재 민구재(敏求齋)와 서재 암수재(闇修齋)를, 1573년에 누각인 무변루(無邊樓)와 외삼문인 역락문(亦樂門) 등을 건립하였다. 1574년에 ‘옥산(玉山)’으로 사액을 받았다. 옥산서원에는 건립한 당대에 학문과 명필로 명망이 높았던 인물들이 건물을 명명하고 썼던 현판이 걸려있다. 그만큼 옥산서원이 가지는 위상이 높았음을 나타낸다. 1577년에는 이언적의 신도비(神道碑)를 건립하였다.

1835년 문집판각(文集板閣)을 건립하면서 서원 내에 책판을 보관하게 되었다. 1839년 1월에는 강당 구인당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1840년 3월에 재건하였다. 1843년에는 누각 무변루를 대대적으로 수리하였으며, 1905년에는 강당 구인당과 사우 체인묘를 수리하였다.

1967년 사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1970년에는 수백 년간 관리되어온 장서들 중 『삼국사기』가 보물로 지정되었다. 1991년 무변루와 구인당, 동재·서재를 수리하고, 1998년 문집판각과 비각을 수리하였다. 2010년에는 역락문을 수리하고, 활용시설로 ‘옥산서원유물전시관’을 새로 건립하여 옥산서원의 고서, 고문서, 책판 등의 자료를 보관 중이다.

2.b.iv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해 있다.

도산서원은 이황의 생전에 강학처인 도산서당에서 발전하였다. 이황은 1560년 도산서당을 건립하고, 이듬해인 1561년에는 기숙사인 농운정사(隴雲精舍)를 건립하였다. 1570년 이황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역 사림이 서당 뒤쪽에 서원 건립을 발의하였다. 1575년 8월에 강당 전교당과 동·서재인 박약재(博約齋)와 홍의재(弘毅齋), 사우인 상덕사(尙德祠)를 완공하고, 사액을 받았다. 1614년 이황의 제자인 조목을 종향하였다.



그림 2-78.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된 도산서원 책판

도산서원은 경상남·북도의 학풍을 대표하는 서원의 하나이자 이황의 사상을 잇는 학맥의 총본산이다. 도산서원의 높은 위상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은 1792년의 치제였다. 이때 치제와는 별도로 서원에서 경상남·북도 유생들을 위한 과거를 시행하였다. 당시 7,000여 명의 유생들이 과거에 응시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796년에 시사단(試士壇)을 도산서원과 마주 보이는 강변의 소나무 숲에 세웠다.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기 전 1975년에 10m 높이의 돌축대를 쌓아올려 원형 그대로 보전하였다.

도산서원은 ‘조선 성리학’의 본산으로서 이황 및 그의 학파와 관련된 저서들의 출판을 통해 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중심처였다. 증가하는 장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1819년 동광명실(東光明室)을 건립하였다. 1930년에는 서광명실(西光明室)을 추가로 건립하였다.

도산서원 전교당이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1969년에는 상덕사(尙德祠)와 내삼문(內三門)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1969년 사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 관리되고 있다. 1970년에는 이황의 유품을 전시하는 유물전시관 옥진각(玉振閣)을 건립하였다. 2003년부터 광명실과 장관각 소장 고서, 고문서, 목판 일체를 한국국학진흥원에 이관하여 위탁 관리 중이다. 위탁 관리중인 도산서원 목판이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으로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되어 등록되었다. 2016년에는 17세기에 간행된 『퇴계선생문집』과 그 목판이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되었다.

2.b.v 필암서원

필암서원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해 있다. 필암서원은 김인후의 절의와 학문을 기리기 위해 지역 사림에 의해 1590년 창건되었다. 그러나 정유재란 당시 의병활동의 주요거점이 되면서, 전쟁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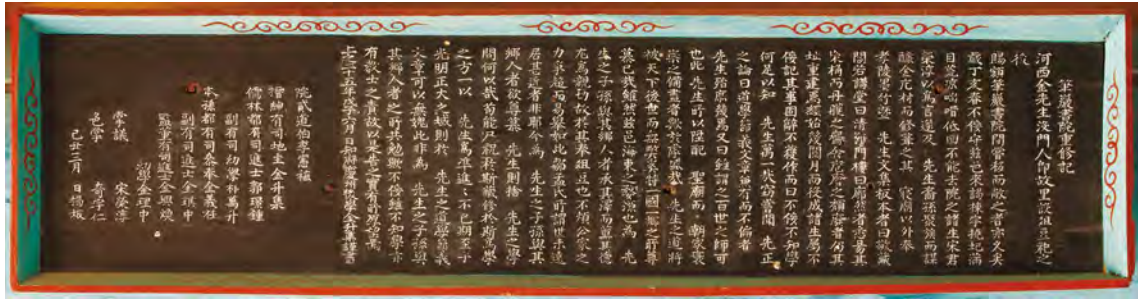


그림 2-79. 필암서원 중수기

소실되었다. 1624년 장성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황룡면 필암리로 옮겨 다시 세웠다. 1659년에 ‘필암(筆巖)’으로 사액을 받았다. 1672년 3월에 현 위치로 다시 옮겨 건립하였다. 이때 객사를 옮겨 서원의 강당인 청절당(淸節堂)으로 삼고, 누각 확연루(廓然樓)를 건립하였다. 1786년에는 양자정을 추배하였고, 장서각(藏書閣)을 건립하였다.

1844년 제향 제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청(典祀廳)을 건립하고, 1886년에는 사우 우동사(祐東祠)를 보수하고, 고직사(庫直舍)를 신축하였다. 1887년에는 강당 청절당, 동·서재, 문루 확연루를 보수하였다. 근대 이후에도 서원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1941년 사당 재건, 해방 후 확연루·동재·서재·고직사 보수, 확연루 단청 등의 수리를 거쳤고, 1970년 서원 소장 목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판각을 건립하였다.

1975년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 하에 유지되고 있다. 1975년 필암서원 중요 문적은 보물로 지정되었다. 1990년대 들어 현재까지 내삼문 수리, 동·서재 수리, 청절당, 확연루 등을 수리하였다.

1998년에는 서원 외부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였고, 2010년에는 서원 외부에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필암서원과 연계된 교육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b.vi 도동서원

도동서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해 있다. 도동서원은 김광필의 도학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정구에 의해 1605년 건립되었다. 당시 김광필의 후손 및 사림의 공동협력에 의해 사우, 강당, 재사를 건립하였다. 1607년에 ‘도동(道東)’으로 사



그림 2-80. 도동서원 월차철물록

액되었다. 도동서원의 건립과 사액에는 김광필의 외증손이며 당시 이 지역의 대표적 성리학자였던 정구의 역할이 컸다. 이처럼 서원 건립에 기여한 공으로 인해 1678년 정구를 중향하였다.

도동서원은 1605년 건립된 이래로 여러 차례 건물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증축해왔다. 1803년 10월에는 후손들과 사림 및 13개 고을의 향교·서원·문중에서 부조하여 전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를 마치고 이를 기념하는 백일장(白日場)을 개최하였다.

문루인 수월루(水月樓)는 1849년에 건립하여, 1863년에 한차례 수리하였지만 1888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1973년 재건하였다.

도동서원은 이처럼 수리와 증축을 거치면서도 건립 당시의 배치구조 원형을 유지해왔다. 도동서원 건축의 특징은 디테일한 예술성에 있다. 환주문(喚主門)과 강당인 중정당(中正堂) 기반, 사당을 오르는 돌계단, 사당 내부 벽면의 그림, 외부의 감(坎)과 서원 담장 등 입구에서 사우까지 서원 경내 전체에서 보여 진다. 특히 중정당과 사당,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담장은 그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는 배치의 정형과 더불어 예술적 구현을 가능하게 한 서원 건축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 2007년에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관리되고 있다.

2.b.vii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해있다. 병산서원은 1575년 류성룡이 현재의 서원 위치로 옮겨지은 풍산류씨 가문의 초등 교육기구였던 풍악서당이 전신이다. 류성룡이 사망한 후 1613년 지역 사림을 중심으로 풍악서당 뒤편에 류성룡의 학문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사우를 건립하여 서원으로 격상되었다.

풍악서당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지역 사림이 1605년 현재의 위치에 복원하였다. 1662년 류진을 중향하였다. 1863년에 ‘병산(屏山)’으로 사액을 받았다.

병산서원은 류성룡의 저작들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였다. 1633년에는 『서애선생문집』 초판본을 간행하였고, 1647년에는 『징비록』을 간행하였다. 이후에도 두 서책은 여러차례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병산서원은 지역 사림의 공론의 형성지로도 활동하였다. 『조선



그림 2-81. 병산서원 연액시사실

왕조실록』 등 연대기 자료에 의하면, 1611년, 1666년, 1800년, 1832년, 1863년에 병산서원에서 조정에 보낸 유소(儒疏)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서원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당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까지 다양하다.

1921년 강당을 수리하였고, 1937년에는 사우를 수리하였다. 1971년에는 누각인 만대루와 서재를 수리하였다. 1978년에는 병산서원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관리되고 있다. 사적 지정 후 1981년까지 건물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가 진행되었다.

병산서원 건축물을 대표하는 것은 누각인 만대루이다. 이곳에서 유생들은 교류와 유식하며 시회(詩會)를 가지거나,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유회(儒會)를 열기도 했다. 이외에도 병산서원에는 책판을 보관하던 장판각(藏板閣)과 제수를 준비하던 전사청(典祀廳), 주소(廚所)가 부속 건물로 남아있다.

1946년에는 병산서원의 재산으로 병산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인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였다. 병산교육재단의 중·고등학교는 병산서원과 연계되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병산서원의 장서와 책판은 2004년(책판)과 2008년(류성룡 저서 및 고문서), 2009년(고서 및 현판)에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위탁 보관중이다. 2015년에는 위탁 관리중인 병산서원 목판이 ‘한국의 유교책판’으로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되어 있다.

2.b.viii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해 있다. 1615년 최치원과 지역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잠을 기리기 위해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1630년에 정극인과 송세립을 추가 배향하였다. 1675년에 정언충, 김약묵, 김관을 추가 배향하여 현재 모두 7명을 배향하고 있다.

무성서원이 마을 가운데 입지한 이유는 제향 인물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제향 인물들은 현재의 서원 터에서 흥학당을 건립하여 후진양성과 향약보급에 힘썼으며, 이후 이들을 기리기 위한 사우를 함께 건립함에 따라 무성서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서원들과 달리 무성서원은 마을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다.

‘무성(武城)’으로 사액된 1696년 이후 무성서원은 전라북도의 대표적 서원으로 강학과 제향 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였다. 건물에 대한 보수는 수시로 있어 왔다. 1828년에는 지방관 및 지역 사림의 지원을 통해 대대적인 재건이 이루어졌다.



그림 2-82. 무성서원 강당중창기

1891년 현가루(絃歌樓) 건립, 1887년에는 강수재(講修齋)를 건립하여 서원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다.

무성서원은 1871년 국가의 서원 정비 정책에도 불구하고 존속된 전라북도의 유일한 서원으로서 19세기 지역 여론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1884년 간행된 『무성서원지』에는 서원의 강의와 제향의례, 정기 모임과 관련된 절차들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1906년에는 무성서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반발한 병오창의가 거병하였다.

1904년과 1917년에는 무성서원 전반에 수리가 이어졌고, 이후에도 사우, 현가루, 강수재 등을 수리하였다.

1968년 사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 관리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도 강수재, 비각, 사우, 강당, 현가루 등 지속적인 수리가 이루어졌다. 정극인에 의해 시행된 고현동향약은 그 기록물이 1993년 보물 제1181호로 지정되었다.

2.b.ix 돈암서원

돈암서원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해 있다.

돈암서원은 김장생 생전의 강학처인 양성당에서 발전하였다. 김장생은 1602년 양성당을 건립하고 강학활동을 하였다. 1631년 김장생이 사망한 후, 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1632년 지역 사림의 발의에 의해 서원 건립이 추진되어 1634년 건립되었다. 이때 양성당 옆에 사우를, 사우 앞에는 강당을 짓고 ‘응도(凝道)’라 이름하였다. 건립 당시 제향의례를 비롯한 서원의 운영규정은 김장생의 제자였던 송시열, 송준길에 의해 제정되었다.

돈암서원이 건립된 후, 응도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학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관련 저술들이 출판되었다. 1646년에 『의례문해』, 1648년에 『상례비요』 등 김장생이 저술한 예학서들이 교정되어 간행되었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강론이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김장생의 저작들은 돈암서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김장생의 예학을 완성한 김집을 1659년 추가 배향하고, 1688년과 1695년 기호학과를 대표하는 송준길과 송시열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이들은 모두 17세기 전반 한국의 예학이론의 주류를 형성한 인물들이었다. 예학과 관련된 이들의 견해는 당시 정부에서도 이슈가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659년에 ‘돈암(遯巖)’으로 사액을 받았는데, 이 또한 당시 제향인물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돈암서원은 홍수로 인하여 1881년 현재 위치로 이진되었다. 당시에 응도당을 이진하지 못하여 김장생이 강학처인 양성당을 강당으로 하여 서원의 형태를 구성하였다. 이진 사유와 과정을 기록한 돈암서원이진비(遯巖書院移建碑)를 보면 당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가 오래 지남에 따라 산천이 바뀌어졌는바, 시냇물의 흐름이 바뀌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1880년에 다시금 거기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호계(虎溪)의 언덕에 터를 잡아 새로 지었는데, 이곳 역시 선생이 예전에 오가던 곳이다. 새로 지은 사우의 재목은 옛 사우의 재목을 실어다가 썼으며, 그 나머지는 바꾸어서 고쳤다. 사우를 지은 제도는 한결같이 옛날의 규모대로 하여 당(堂)과 도(塗)와 문(門)과 숙(塾)을 조금도 차이 나지 않게 하였으며,……”

이진비는 서원이 이진되고 약 10여년이 지난 1903년에 제향인물 송시열의 후손 송병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서원의 이진 사유, 이진에 따른 사람의 논의과정, 입지 선정의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응도당은 서원 이진 당시에는 이진 기술력의 한계로 옮기지 못했다가 1971년에 원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현 위치로 이진하여 보존하고 있다. 다른 건물들에 비해 이진 시점이 90여년 가량 늦은 이유는 응도당의 규모가 매우 커서 1881년 당시 기술력으로 이진할 경우 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기둥기 등의 현대식 장비가 도입된 후 1971년에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진이 이루어졌다.

1881년 현재의 장소로 돈암서원이 이진된 이후에도 서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1926년 서책과 판각을 보관하기 위해 장판각 건립, 1927년과 1956년에 양성당을 수리하였다. 돈암서원은 1993년 사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관리되고 있다. 돈암서원의 건축물 중 이진 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응도당은 동아시아 건축 이론을 예학 이념과 결합하여 완성한 건축물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2008년에 보물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한층 높은 보존관리를 받고 있다.



그림 2-83. 돈암서원이진비



그림 2-84. 돈암서원이진비 탁본

3장

등재신청의 정당성



3장 등재신청의 정당성

3.1 간략한 진술

3.1.a 간략한 진술

신청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조선시대 지방 지식인들에 의해 건립된 대표적인 사립 성리학 학교이다. 이 유산은 한국 최초의 서원인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1543년 건립)을 포함하여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1552년 건립),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1572년 건립),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1574년 건립),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1590년 건립),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1605년 건립),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1613년 건립),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1615년 건립),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1634년 건립)이다. 신청유산의 순서는 건립연도를 따랐다.

한국 서원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성리학 가치에 부합하는 이상적 지식인을 양성하였다. 둘째, 지역의 대표적 성리학자를 사표로 삼아 제향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였다.

성리학자들은 강학을 통해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였고, 정기적인 제향을 통해 학파의 결집을 도모하였으며, 교류와 유식을 통해 성리학에 부합한 향촌 교화활동을 주도하였다.

신청유산은 성리학이 만개했던 조선의 성리학 교육과 사회적 확산을 주도했던 교육기관이자 무형적, 역사적 독특성의 탁월한 증거다. 성리학자들은 교육에 필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을 완성하였다. 성리학자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지역의 인물을 제향함으로써 후속

세대에게 롤모델을 제시하고 강학을 통해 학문을 계승함으로써 학맥을 형성하였다. 또한 그들은 신청 유산을 사회 교화와 정치 활동 등 각종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하면서 성리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신청유산은 성리학적 이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장소였으며, 한국적으로 진화한 유학 교육시설의 특징을 보여준다. 서원은 제향인물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였으며, 성리학자의 전인적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였다. 제향영역, 강학영역, 교류와 유식영역 등 각각의 영역은 지형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뚜렷한 하나의 서원 건축 전형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탁월하고 특출한 가치를 갖는 유산이다.

신청유산의 정형성은 조선사회에 서원이 등장한 초기에 빠른 속도로 정립되었으며, 이후 모든 서원 건축에 공유된 모델이 되었다. 신청유산을 구성하는 9개 서원은 이러한 뚜렷한 정형성을 확립해가는 연속적인 과정을 명확하게 증명한다. 이 건축물의 정형성은 건축물의 배치방식으로 대표된다. 서원은 강학과 제향, 교류와 유식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각각 강당, 사우, 누마루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들 각 영역은 지형, 외부공간, 기단, 담장, 대문 등을 이용하여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위계로 결합되었다.

연속유산으로서 신청유산을 구성하는 9개의 서원들은 한국 성리학 교육기관의 전형으로서 서원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유산이다. 이들은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며, 이들을 통해 한국 서원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소수서원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이다. 한국 서원의 강학, 제향과 관련된 규정을 최초로 제시하여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도 풍부하다. 소수서원은 교육 기관으로서 서원이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남계서원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으로 지역의 사림만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이다. 건축적으로는 한국 서원 건축의 정형적인 배치방식이 처음 등장한 사례이다. 각각의 주요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선 상에 배치한 것은 이후 건립되는 서원 배치방식의 전범이 되었다.

옥산서원은 출판과 장서의 중심기구로서의 서원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건축적으로는 서원 영역의 앞에 누마루를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옥산서원 이후 서원에 누마루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도산서원은 서원이 학문과 학파의 중심 기구로 발전하는 한국 서원발전의 과정을 입증한다. 제향인물의 강학처를 기반으로 건립되었으며, 강당이 비대칭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탁월한 자연 경관으로 인하여 일대의 경관을 묘사한 다양한 작품들이 남아 있다.

필암서원은 한국의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원 운동이 서남부지역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입증한다. 기록물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전의 서원들이 경사

지형을 이용하던 것과는 달리, 이 서원은 평탄한 지형에 적합한 건축물 배치 방식을 적용하였다.

도동서원은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을 입증한다. 경사지를 활용한 서원의 건축 배치를 탁월하게 구현하였다. 건축물별로 여러 개의 단을 조성하여 외부의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용한 것은 경사지 서원의 조성 기법을 잘 보여준다.

병산서원은 서원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만이 아니라 만인소 등 사람의 공론장으로도 확대된 사람활동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입증한다. 많은 학자들의 수용이 가능한 큰 규모의 만대루는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탁월하다.

무성서원은 한국 서원의 발전과정에서 성리학 이념이 지역단위의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확대되는 단계에 속한다.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향촌을 교화하고자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되었다.

돈암서원은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으로서, 응도당을 정침이론에 맞추어 만들었다. 응도당은 정침이론을 한국의 건축언어로 재해석하여 완성한 뛰어난 건물로서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례이다.

신청유산은 한국서원의 특징과 역사를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한다. 일부 서원은 장기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 화재, 자연재해 등을 겪으며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피해 직후 사림에 의해 즉각 복구되면서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복구된 이래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 아래에서 전문가 집단의 면밀한 검토와 공인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의해 엄격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보수만을 진행하는 등,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신청유산의 보존 관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중심으로 신청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수행 중에 있다.

종합하면, 9개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구성된 신청유산은 16세기 중반 서원 제도의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사회에서 서원이 정착되어 나가는 역사와 건축의 성취를 증명한다. 신청유산은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며 꽃피운 중요한 사례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 신청유산은 건축적으로 한국 서원의 정형을 뚜렷하게 완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전통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3.1.b 등재신청 기준

(iii)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iv) 인류 역사의 주요 단계(들)을 보여주는 유형의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의 뛰어난 사례이어야 한다.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 건축 유형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서원 설립 운동의 초기단계에서 건축 유형을 정형화하는 노력들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끼쳤다. 이 유산은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을 수행하기 위한 강당, 사우, 누각 등의 건축물들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건축 배치는 지형, 경관, 기단, 담장과 문을 통해 구현하였다.

표 3-1.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기준, 속성

구분	등재기준 (iii)					등재기준 (iv)				
	서원발전	교육체계	강학특성	제향특성	사람활동	건축적 특징	입지	배치	건축물	경관
소수서원	제도도입	●	●	●	◎	건축요소	●	◎	●	●
남계서원	설립주체	●	◎	●	●	배치방식	●	●	●	◎
옥산서원	출판활동	●	◎	●	●	누각도입	◎	●	●	●
도산서원	학맥형성	◎	●	●	●	경관구현	◎	●	◎	●
필암서원	운영방식	●	◎	●	◎	평지특성	●	●	◎	◎
도동서원	교육체계	●	◎	●	◎	경사특성	●	●	◎	●
병산서원	사회활동	◎	◎	●	●	누각특화	◎	◎	●	●
무성서원	교화활동	●	◎	◎	●	입지특화	●	◎	◎	◎
돈암서원	예학심화	●	●	●	◎	강당특화	◎	◎	●	◎

● 탁월한 충족 ◎ 평균수준의 충족

3.1.c 완전성에 대한 진술

신청유산은 한국의 성리학의 발전과 서원 유형의 정립과정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원 9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요소는 집합적으로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며, 각각 하나의 온전한 서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서원의 필수 공간 요소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을 구성하는 각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 주변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사우와 사우 내부의 위패, 전사청 등이 온전하게 존재하며,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강당과 재사, 도서관, 각 건물의 편액 등이 온전하다. 누각 등 교류와 유식공간의 구성요소 역시 온전하며, 주변의 경관, 지형 등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서원 주변의 경관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중요한 부분은 모두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신청유산은 도시화, 현대화된 지역과 떨어진 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입지와 소유관계, 법적보호체계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위험이 거의 없다.

인공적인 개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풍화에 의해 쇠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아래 공인받은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 최소한의 보수만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유산 자체와 주변지역까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며, 경미한 보수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감독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된다.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의 특성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범위의 공간을 법적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 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 서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1.d 진정성에 대한 진술

신청유산은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서원 설립운동의 초기에 해당하는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기간 동안 건립된 대표적 서원으로서, 역사발전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였다. 제향자의 연고 및 경관을 포함하는 입지 환경,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의 건축 배치, 각 건물의 유형적 형태, 목재와 기와를 사용하는 물질 구성, 보존 관리의 체계 등을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다.

형태와 디자인 측면에서 신청유산은 서원 역사의 건축적 구현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의 유기적 결합을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로 완성하였고, 이를 지금까지 변형 없이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목조 건축기법과 좌식형 생활 관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건축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측면에서, 신청유산은 서원 설립 당시의 건축적 결과물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건축기법과 자재로 최소한의 보수를 해오고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기법으로 영건하였던 원형을 따라 현재는 공인된 기술인력과 훈련받은 장인들에 의해 최소한의 보수를 행한다. 신청유산은 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며, 전승되어오는 전통 기술을 적용한다. 목조건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흰개미, 부식, 화재 등에 대해 공인된 전문집단의 관리를 받고, 예방조치를 한다.

신청유산은 기록유산, 무형유산에 속하는 것들도 잘 보존, 전승하고 있다. 서원을 거쳐간 인물들이 남긴 전적, 문집, 기문, 목판 등은 잘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제향은 지금까지 창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 계승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록유산과 무형유산 모두 개별 유산들이 지속된 전통을 보여준다.

입지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 신청유산은 설립 당시에 적용되었던 성리학적 경관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각각의 서원은 야경, 계경, 산경, 강경 등의 특색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신청유산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로서 경내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환경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입지와 주변 환경은 대한민국의 문화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서원의 진정성을 높여준다. 신청유산은 수세기간 지속되면서 자연재해, 화재, 전쟁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변화를 겪어오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 진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재건, 수리, 그리고 이권 과정에서도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의 공간 배치를 관찰하여 한국 서원의 특징을 유지하였다. 신청유산은 개발 압력이 적은 곳에 위치하여 원래의 경관을 충실히 보존하고 있으며 경관적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치 보호를 위해 신청유산에 설정된 경계는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신청유산은 창건부터 현재까지 소유권의 큰 변동 없이 유림과 문중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에도 원회(院會)라고 하는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해당 유산의 관리, 운영,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 신청유산에 관련된 각종 고문서와 기록유산도 충실히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신청유산의 진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3.1.e 보존과 관리에 대한 요건

신청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신청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온전히 포함하고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계가 설정되었다. 또한 신청유산은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국가 사적으로 각각 지정되어 해당 서원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도 보호·관리되고 있다.

신청유산은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이라는 기능과 유기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서원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각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유산구역에 포함되었고, 서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산림, 농경지, 강, 계곡 등이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유산을 위협하는 개발 및 환경압력 등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은 경미하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청유산 대부분이 목재 건축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설비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과 관광 산업에 의한 서원의 보호·관리에 대한 영향은 향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원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서원별로 유산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중장기 사업에 근거하여 보호 및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연속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설립하였다. 신청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국제적인 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문화재청 및 서원 소재 지방자치단체,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함께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이 서원의 정기적인 보존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유산의 주변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신축, 증개축을 엄격하게 규제받는다. 연속유산으로서 신청유산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서원과 주변환경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해당 서원의 보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서원을 정비, 보수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각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 관리 외에도 시민들이 서원을 쉽게 접근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원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2 비교연구

3.2.a 유학 교육 시설이 갖는 세계유산적 가치

신청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의 확산 속에서 유학문화권의 보편성과 한국의 지역성을 함께 드러내는 교육 유산이다. 신청유산은 사림이 인간 본성의 함양과 도덕적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성리학 이상사회를 이끌어 나갔다는 점과 그 속에서 뚜렷한 배치개념과 건축미학을 가진 한국 서원의 건축적 전형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특출한 가치를 갖는다. 신청유산은 성리학 전통이 전승되고 있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산이다.

신청유산은 그 성격 상, 유학 시설의 범주 속에서 유산적 가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의 교육시설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유사 유산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신청유산과 비견될 수 있는 세계의 여러 문화유산군 속에서 신청유산이 갖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학이란 중국에서 공자(孔子, BCE 551-479)에 의하여 창시되어 그 제자 및 후학들에 의해 정립된 사상이다. 유학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사회 규범적 가치를 중시한다. 유학은 내세관이 없으며, 신적 존재보다는 인간의 선한 본성과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인간 간의 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존송하는 종합 인문학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는 동 시기에 다른 문화권들이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와 같은 종교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을 이끌어갔던 것과는 다른 특징이다.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유학은 세계 문명사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 시설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있으며, 일부는 세계유산으로 여러 사례가 등재되어 있다. 중국 북경의 천단, 베트남 후에의 남교는 제천시설로서 등재된 세계유산이다. 중국 북경의 자금성, 한국 서울의 창덕궁, 일본 교토의 어소, 베트남 후에의 후에성 등은 궁궐로서 유학의 이념이 반영된 통치시설로서 등재된 세계유산이다. 한국의 종묘는 유학적 제사시설로서 등재된 세계유산이다. 또한 이외에도 동아시아 각 지역에 산재한 유학의 교육시설과 제사시설은 다수가 복합유산 속의 한 요소로 등재되어 있다. 유학의 교육시설 중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부분은 특정 지역의 연속유산 속에 포함된 하나의 요소로 취급되었다. 한국의 병산서원과 옥산서원, 북한의 송양서원(崧陽書院), 중국의 백록동서원, 송양서원(嵩陽書院), 일본의 쇼카손주쿠 등이 그러하다. 다만 신청유산과 같이 유학 교육기관의 가치를 독자적으로 표방하는 유산은 아직 등재된 바가 없다.

한국의 세계유산 중 종묘는 유학적 관점의 제사시설로서, 창덕궁은 유학을 국가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의 궁궐로서 통치시설의 성격을 갖는다. 조선왕릉은 관련된 의례의 형태에서 유학 분묘시설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은 통과의례를 포함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거주지로서 한국 유학 특성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세계유산목록 중 유학시설이 포함된 사례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2. 유학 시설이 포함된 세계유산목록

no.	국가	유산명칭	등재 연도	유학시설의 범주				
				제천	제향	통치	교육	기타
01	한국	종묘	1995		●			
02	한국	창덕궁	1997			●		
03	한국	조선 왕릉	2009					●
04	한국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				●	●
05	북한	개성(開城)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	2013		●	●	●	
06	중국	타이 산	1987	●				
07	중국	베이징과 선양의 명청 시대 황궁	1987			●		
08	중국	취푸의 공자 유적	1994		●		●	
09	중국	루산 국립공원	1996	●			●	
10	중국	핑야오 고대 도시	1997			●	●	
11	중국	천단 : 베이징에 있는 황제의 제례 제단	1998	●				
12	중국	우이 산(서원)	1999				●	
13	중국	남부 안후이성 고대마을 - 시디춘과 홍춘	2000				●	
14	중국	천지지중(天地之中)의 평형 역사 기념물	2010				●	
15	일본	고대 교토의 역사기념물 (교토, 우지, 오쓰 시)	1994			●		
16	일본	고대 나라의 역사기념물	1998			●		
17	일본	류큐 왕국의 구수쿠 유적지와 관련 유산	2000			●		
18	일본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 철강 · 조선 · 석탄산업(쇼카손주구)	2015				●	
19	베트남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1993	●	●	●		●
20	베트남	탕롱의 제국주의 시대 성채 중앙 구역 - 하노이	2010			●		
21	베트남	호 왕조의 요새	2011			●		

유학과 관련된 건축 시설들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규정되었으며 예를 갖춘 행위의 장소라는 속성이 있다. 유학의 건축 시설은 제향과 교육을 중요한 양대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 양식

또한 이에 부합하여 설계되었다. 유학 문화권의 전통 건축물의 형태와 건축 배치에 관한 논의는 모두 의례와 관련되는 학문 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유학 문화의 대표 증거로 남아있다. 유학에서 중요한 점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게는 본받아야 할 모범과 계승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제향시설 : 자연물, 신격화된 인간에 대한 제향 / 천단, 사직, 종묘, 문묘, 사우, 능묘 등

자연물과 신격화된 인간에 대한 제향과 관련된 유산들은 문묘, 공자사당, 왕릉, 일반 사우 등이 있다. 유학의 세계관을 재생산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된 유산들은 설립 주체의 측면에서 국립 혹은 사립 학교로 구분된다. 통치와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학 관련 시설들은 궁궐, 주택, 그리고 향촌 시설들이 있다. 이 중, 교육은 유학의 보급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교육은 유학 이념의 세대간 교육과 사회적 교육을 통해 유학을 시간적, 계층적으로 확장시킨다. 유학의 교육시설은 국가 전체의 지역과 계층을 포괄하는 시설이며 일상적인 시설이다. 유학의 교육시설은 강당, 재사, 도서관 등을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 이는 유학 교육의 방법에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유학 교육은 유학 경전을 바탕으로 한 인문지식의 교환으로 이루어졌다. 교사와 학생은 유학 지식을 담고 있는 서책을 매개로 공자 이래 전승 되어온 지식을 계승하여 갔다.

동아시아의 건축은 건축 목적에 부합한 것을 결정하는 건물 배치로 정의된다.

유학 교육 시설은 정부의 주도로 건립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정부에서는 주로 수도에 최고 학교를 두고 지방에 이보다는 낮은 단계의 학교를 설치하였고, 정기 관료 시험을 치러 관료를 선발하였다. 관료의 재생산이 정부에서 설립한 유학 학교의 교육 목표였다. 국립 및 공립 교육기관의 경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주도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교육운영이나 건축유형이 획일적이다. 대부분의 국립 및 공립 교육기관에서는 공자 및 그의 제자를 제향 대상으로 설정하여 별도의 건물을 설치하였다.

유학 문화권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학교가 건립된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확인된다. 사립 교육기관은 국립 및 공립 교육기관에 비해 건축배치나 운영이 국가별, 지역별로 자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명칭에서도 각각의 창의성이 돋보이며,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나 교육 방식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일본의 사숙 등은 사립 유학교육기관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사립 교육 기관들은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해왔다. 건축 구조, 배치, 입지, 제향 대상, 커리큘럼, 제도, 사회적 역할 등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학의 교육시설은 유학의 발전과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사립 교육기관들은 국가 별로 유학 발전단계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유학교육시설이 독자적인 유산으로 등재된 바는 없지만, 세계유산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유학 교육시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중국

백록동서원은 장시성 북부 주장시 교외 루산에 위치해 있다. 1996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루산 국립공원(Lushan National Park/(ii)(iii)(iv)(vi))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송나라의 주희는 백록동서원을 부활시킴으로써 송대와 명대 유학자들의 철학 및 서원 교육에 본보기가 되게 하였다. 주희가 해석한 성리학과 교육은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귀감이 되며 널리 전파되었고, 나아가 세계 교육사의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백록동서원은 주희와 관련된 성리학과 교육의 유형적 증거이며, 중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교육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성리학 학교들은 푸젠성 우이산시에 위치해 있다. 199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이산(Mount Wuyi/(iii)(vi)(vii)(x))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성리학 학교들은 몇 세기동안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지배적 영향을 끼쳤던 성리학의 요람으로서 무이산이 가진 세계유산적 가치의 유형적 증거이다.

남호서원은 안휘성 황산시 이현에 위치해 있다. 200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휘성 역사마을(Ancient Villages in Southern Anhui-Xidi and Hongcun/(iii)(iv)(v))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남호서원은 중세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마을의 한 형태에서 교육기관의 건축적 성격을 보여준다.

숭양서원은 등봉시 북쪽 3km 숭산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천지지중의 덩펑 역사 기념물(Historic Monuments of Dengfeng in “The Centre of Heaven and Earth”/(iii)(iv)(v))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숭양서원은 학자들의 학문과 강학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서원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많은 강연을 하였고, 이후 유학사 및 교육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숭양서원의 입지 선정, 건축 배치 및 양식은 공공 및 주거식 건축 요소를 반영한다.

• 일본

쇼카손주쿠는 야마구치현 하기시에 있다.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Sites of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ii)(iv))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쇼카손주쿠는 소규모 교육시설로서, 유학 교육에서 출발하여 점차 서구로부터 유입된 근대 학문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쇼카손주쿠의 실천주의적 학습은 쇼카손주쿠 출신의 많은 학생들이 이후 일본의 메이지유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 북한

숭양서원은 황해남도 개성시에 위치하고 있다. 2013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개성역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ii)(iii))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숭양서원은 성

리학이 동아시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리학 교육을 담당했던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을 따르는 서원의 하나이다.

• 한국

옥산서원과 병산서원은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iii)(iv))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유학의 사립 교육시설은 다수가 기존 등재된 세계유산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유학 교육시설을 독자적인 가치로 조명한 세계유산은 없다. 유학에서 교육은 후속 세대의 재생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의 하나이다. 또한 각 국가별로 교육의 커리큘럼, 대상, 목적,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이 다양하다. 따라서 유학문화권의 국가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교육유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유학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전통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신청유산은 한국의 유학 문화 전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속성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교육 시설에서도 확인된다.

유학의 교육유산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유학은 수백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기 독자적인 특성을 달성하였다. 교육시설은 각 국가별로 유학이 정착되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산이다. 유학은 교육을 통해 달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및 사회는 유학의 사상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해 갔다.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은 각 시기별로 다양한 유학 사조를 바탕으로 각국의 유학 전통을 이끌어갔다. 또한 유학문화권에 해당하는 전 국가들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유학 교육을 권장하고 이를 사회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유학교육시설은 유학의 지역적 전파, 사회적 확산과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유학교육시설이 갖고 있는 교육방식과 사회적 역할의 개별적 특성은 지역별 유학의 성격을 이해하게 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학의 교육시설은 독립적인 유산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립 교육시설은 지역적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3.2.b 국외 유산과 비교한 신청유산의 가치

한국의 서원은 강학과 제향,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함께 갖춘 유학의 시설 중 교육 시설에 속하며 민간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신청유산은 유학문화권에서 유학 교육의 기본적 특성을 유지 전승한 유산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 성격을 보존·전승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 특성은 다음의 측면에 주목하게 한다.

- 신청유산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의 확산 속에서 유학문화권의 보편성과 한국의 지역성을 함께 드러내는 교육 유산이다.
- 신청유산은 지방의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관학의 하향적 교화로부터 탈피하여 지식에 기반하여 민간 스스로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거점이다.
- 신청유산은 유학의 교육시설로서 강학과 제향, 교류와 유식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이들을 하나의 배치전형으로 이룩한 독특한 건축적 전형에 해당하는 유형 유산이다.

주요 비교연구의 대상은 사립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서원, 일본의 사숙(私塾)이다. 이외에 유학 문화권의 대표적인 관립 및 공립 유학 교육 시설들도 부가적으로 검토한다. 중국에는 서원 이외의 국립학교인 국자감과 지방공립학교인 부학이 있다. 일본에는 사숙 이외에 국립학교인 유시마세이도와 지방학교인 한코와 고가쿠가 있다. 베트남에는 신청유산과 같은 사립 유학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립 학교인 반미메우가 현존한다. 이들은 이미 복합유산의 일부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각 국가 내에서 유학 교육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다. 아래에서는 본 신청유산인 한국의 서원과 국외 유사유산들을 주요 속성별로 비교하도록 한다.

• 동아시아 유학 교육시설의 성립과 발전 과정 비교분석

중국의 서원은 유학문화권의 교육 전통을 정립한 원류이다. 중국에서 서원은 유학 교육 기관으로서 오랜 전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중국의 많은 지역에 현존하고 있다. 한국 등 유학문화권에 분포하는 많은 교육기관들은 중국 서원 제도를 수용하여 각각 독자적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갔다. 한국 서원의 독자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은 중국의 서원이다(한자로 ‘書院’이란 표기 방식은 같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발음은 다르다). 중국의 서원과 더불어 사립 유학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일본의 사숙 또한 성립과 발전과정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중국의 서원은 7세기에 태동한 이후, 11세기에 활성화되었다. 13세기 이후에는 과거시험과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서원은 강학기능을 중심으로 제향, 장서를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한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과 강학 외에도 교류와 유식의 사회활동을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한다. 교육 기관의 건축기법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해석은 한국 서원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이다.

중국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라는 명칭은 당대(唐代, 618-907)부터 확인된다. 초기 단계의 서원들은 조정에서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위해 세운 서원 및 여타 민간의 서원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서원은 공립과 사립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송대(宋代, 960-1279)를 거치면서 서원은 크게 발전, 흥성하였다. 특히 남송대에는 관학의 쇠퇴와 과거제도의 부패 등을 비판하며 서원이 사립 학교로서의 독자성을 만들어갔다. 백록동서원은 이 시기의 대표적 서원으로 중국 서원제도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각 서원들은 각각의 학규 등 여러 제도를 제정하여 서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원대(元代, 1271-1368)에 이르러 서원과 성리학이 전국적으로 전파되었고 관학의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명대(明代, 1368-1644) 초기에 중국의 서원은 조정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하여 쇠락하였다가 15세기 중반부터 번영하기 시작하였다. 청대(清代, 1616-1912)에는 대다수의 중국 서원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전환하였다. 많은 서원들에 존재하는 과거합격자에 대한 비석군(碑石群)과 과거시험장소인 고봉(考棚) 시설 등은 이러한 현상을 증명한다. 중국의 긴 역사 속에서 서원은 각 시대의 여건을 반영하면서 변화해갔고, 학문적으로도 다채로운 면모를 띠었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서원은 점차 관학의 보조, 관학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서원이 사립학교로서 출발했지만, 설립 주체나 운영에서 관료의 개입이 두드러지면서 점차 공립 학교의 보조 기관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중국의 서원에서 중요한 기능은 강학, 제향, 그리고 장서이다. 조선시대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중국의 15~19세기에 중국의 서원은 관학의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학문적으로는 주자학과 양명학, 고증학이 공존했다. 청말 교육제도의 변천으로 서원의 문을 닫거나 근대 학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서원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근대 교육기관으로 성장한 일부 서원들은 현대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중국 서원의 제향 대상은 공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표적 유학자, 지역사회의 공헌자, 그리고 지역의 토속신앙과 연계되는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제향의례가 거의 단절되었다.

장서는 황제가 하사한 서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 공간은 서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

유학 교육기관의 전통은 일본에도 존재한다. 일본의 유학 교육기관은 에도시대(1603-1867)에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관립으로는 각 번의 번교가, 사립으로는 개인에 의한 사숙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번의 무사그룹과 가신의 자제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유학, 정치, 외교 관련 서적을 가르치거나 서민들의 기본 교양과 직업 교육을 위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일본의 유학 교육기관은 번교와 사숙으로 불렸지만, ‘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을 통해 유학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유학 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이루어 가며 동아시아 유학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해 갔다. 다만 중국과 한국에서 유학이 정치 이념이나 학술, 국가 제도나 사회 습속 형성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 비해, 일본은 유학이 각종 제도나 교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무사가 지배 계급이었던 일본에서는 중국·한국·베트남에서와 같은 과거 제도가 없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본의 전통 교육 기관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형태의 발전 양상을 이루어 갔다. 물론 전근대 일본의

교육 기관에서도 유학 교육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서원과 부분적으로 유사성이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교육 기관은 설립 주체와 교육 내용, 건립 장소나 건축 공간의 구성, 제향의 대상과 시행여부 등의 면에서 한국의 서원과 차이점이 있다.

에도시대에 건립된 교육 시설은 설립 주체 및 설립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설립 주체에 따라 관립 교육 시설과 사립 교육시설로 구분된다. 우선, 관립 교육시설은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인 바쿠후(幕府) 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690년 수도 도쿄에 세워진 유시마세이도(湯島聖堂, Yushimaseido)가 있다. 유시마세이도는 공자묘(대성전)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사학(私學)적 성격의 하야시케카주쿠(家塾)를 흡수하여 막부 직할 교육 시설로서 기능한 것이다. 이 시설은 속칭 “쇼헤이사카가쿠몬조(昌平坂學問所)”, “쇼헤이코(昌平黌)”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곳에서는 유학 경전의 강의와 학습 외에도 무사 계급의 가계도나 지방지와 같은 막부의 편찬 사업도 행해졌다.

지방 정부인 한(藩)에서 세운 교육 기관인 한코(藩校, Hanko)가 있다. 입학자는 무사계급의 자제로 한코는 무사의 교양 수준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교육 내용은 문자와 유학 경전의 학습, 무예의 습득이 중심이었는데 에도 후기에 이르면 서양의 근대적 학문인 란가쿠(蘭學)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고가쿠(鄉學, Gogaku)는 향촌(鄉) 등에 설립된 교육시설로 준공립학교에 해당한다. 설립 주체는 번주나 영주, 무사 귀족 계층, 지역 유지나 상인 계층 등의 민간인으로 나뉘며, 민간인이 설립주체가 된 경우에도 한(藩)으로부터 공인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입학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고가쿠는 무사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것과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두 종류로 나뉜다. 고가쿠의 교육 내용 역시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달랐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 교육이 행해졌지만 그 외에도 고쿠가쿠(國學)나 의학, 산학(算學) 등의 실용적 학문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순수한 사학(私學)적 성격을 갖는 교육 기관으로는 시주쿠(私塾, shijuku)가 있다. 시주쿠는 유학자나 저명 인사가 세운 사설 교육 기관이며 17~19세기에 걸쳐 건립되었다. 시주쿠는 기본적으로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이 함께 교육되었다. 따라서 학술 연구 기관으로 근세 일본의 많은 새로운 사상들이 이곳에서 탄생하였다. 시주쿠는 일본 지성의 집단 결과라기 보다는 개별 설립자의 입장에 따라 설립되어 건축물이나 교육 체계면에서 일정한 원칙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근대 교육기관으로 성장한 일부 시주쿠들은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 태동하였으며, 지역 성리학 지식인 집단인 사림(士林)의 주도로 성장하였다. 19세기 말 교육 기능이 종료될 때까지 자율적인 환경 속에 일관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국가적으로 유학 경전에 기반한 과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학적 성격이나 국가의 관료선발 과정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의 서원은 특히 성리학의 학문 전통을 보급·전승하기 위한 시설이었으며, 학문의 교육이나 관학

교육의 보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사적 사회활동의 독자적인 종합기구로 완성되었다. 19세기 말까지 대략 400여개의 서원이 건립되었는데, 중국에 비해 월등히 좁은 국토면적과 서원 건립역사의 시간적 길이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서원은 시간, 공간적으로 엄청난 밀도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은 19세기 말 성리학 중심의 교육이 중단될 때까지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운영, 발전되었다.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은 여러 유학의 사조 중에서도 특별히 성리학을 유일한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중국의 서원은 주희의 성리학 외에도 양명학, 고증학 등 여러 학설과 관련되는 내용의 유학을 받아들여 교육을 하였다. 중국의 서원은 장기간의 역사 전통으로 인하여 성리학 이외의 다양한 학설이 학습되었다. 일본은 사숙은 유학뿐만 국학, 기술학, 의학, 난학 등 다양한 학문을 교육하였다. 일본의 사숙 교육의 내용이 다양한 것은 유학이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 되지않은 사실에 기인한다. 중국과 일본의 교육시설의 커리큘럼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서원의 커리큘럼은 성리학을 유일하게 채택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관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창건부터 근대화 과정까지 사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 학교로 전환하기보다는 전통 가치를 고수하였고, 따라서 교육 방식을 근대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아울러 근대 교육으로 교육 방식을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성리학 관련 활용 프로그램을 서원을 통해 운영하여 서원을 현대적 관점에서 계승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던 시기에 지역 사림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건립되었고, 이에 따라 서원에서는 제향, 교육, 공론형성, 지적 교류 등 사림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즉 서원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건립 이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 유학교육의 지향점으로서의 제향인물과 제향의례 비교분석

유학 교육기관 중에서 한국 서원의 차별성은 공자 등 유학의 성현(聖賢)이 아닌 지역과 사승관계에 기반한 선현(先賢)을 신위로 모셔 사우에 제향한다는 점과, 선현의 제향 전통이 각기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학 교육시설에서 제향은 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중국의 교육시설에 속한 제향시설, 일본의 유시마세이도 및 고도칸, 아시카가학교, 시즈타니학교 등 각 번교의 제향시설, 그리고 베트남의 유학 최고학부였던 반미에우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한국에 있어서도 관학으로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성균관이나 각 지역에 설립된 향교에 속한 제향시설에는 공자를 위한 제향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서원은 기본적으로 공자를 포함하여 유학과 관련된 인물을 제향하며 시대적 변천에 따라 지역의 토속신이나 지역과 관련된 인물을 추가로 배향한다. 제향공간도 같은 공간에 제향을 하지는 않고,

인물 혹은 카테고리 별로 별도 공간들을 확장하면서 제향하고 있다. 중국의 서원은 토속신 등을 포함하여 제향 대상이 100여 명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서원은 유학자를 비롯한 배향대상의 제향 장소를 마련하고, 별도로 문묘를 조성하여 공자 및 그의 제자들을 제향하는 서원들도 있다. 제향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복수의 사우를 건립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백록동서원은 공자 사우와 더불어 주희와 후대의 여러 인물을 모신 전각을 각각 가지고 있다. 석고서원에는 공자 사우와 더불어 지역의 대표적 인물을 기리기 위한 2동의 사우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악록서원에는 공자를 모시는 문묘를 별도의 영역으로 조성하였고, 유학의 발전 과정에서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을 기리기 위한 6동의 사우를 설립하여 다수의 인물을 제향한다. 승양서원에도 공자 사우와 더불어 중국 고대의 성인 3명을 제향하는 1동의 사우를 등을 함께 두었다.

일본의 사숙은 교양을 위한 기능으로 설립되어 유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전파에 중점을 두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향기능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다. 다만 막부의 최고 학교기구인 유시마세 이도와 각 번의 번학, 시즈타니 혹은 준세이서원(順正書院), 다쿠세이묘(多久聖廟), 아시카가각코, 칸 키엔 등과 같은 곳에서는 공자를 모시는 성묘(聖廟)를 설치한 바 있다. 공자 이외의 인물들을 모시는 경우에 사숙 인근에 위치한 신사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유학 교육기관들은 근대화 이후 전통 교육에서 서구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제향이

단절되었다. 일부 제향이 유지되는 교육 기관들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단절된 제향 전통을 복원한 것이며 복원된 형태도 간헐적이고 제한적이다.

한국의 서원은 공자를 제향하지 않는다. 서원의 제향 대상은 제향자의 직접적 스승이거나 학문적 계통의 연원에 속한 인물이다. 제향 대상이 많은 경우도 5명 내외이며, 추가되는 인물도 주향 인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서원의 직접적 운영 주체로만 한정된다. 제향 인물의 제한을 통해 한국의 서원은 지역과 학파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특히 신청유산의 제향 인물들은 한국의 성리학 전통을 확립해가는 중요한 단계에 큰 기여를 하였던 인물들이다.

한국의 서원은 창건부터 현재까지 제향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학 교육기관들이 근대화 이후 근대교육기관으로 변모된 반면, 서원은 제향전통을 바탕으로 근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보다는 서원 자체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서원에서 제향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갖는다. 첫째는 제향대상으로 공자가 아닌 한국의 지식인을 설정하여, 스스로 지식인의 지역 계보를 설정하였다. 이상으로서의 공자가 아니라, 당장 현실의 실천적 지식인의 모델을 요구하였던 것은 한국 서원의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는 독자적인 제향 의례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전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성리학이 단순히 전파, 수용되는 것을 넘어, 자생적으로 정착되었던 중요한 증거이다.

• 동아시아 유학교육시설의 사회적 기능 비교분석

한국의 서원은 그곳에서 사회적 지성활동, 즉 공론을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성격을 갖는다. 물론 다른 지역의 교육기관들도 그곳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큰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한국의 서원은 그 자체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을 중심으로 사림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서원에 모여 토론을 하여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한 시점에도 그들은 만인소(萬人疏)의 작성 등을 통해 공론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공론은 국가에서도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았다. 사림은 서원에서 성리학 이념에 기반한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을 제정하여 기층민까지 성리학적 이념을 관습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서원에서 사림의 활동은 사회 리더로서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완성하고자 했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중국의 서원이나 일본의 사숙은 한국의 서원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지역 사회의 구심점, 학문 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문화 활동 등의 양상이 확인된다. 그러나 유학이 가진 사회적 위상, 서원에 대한 국가의 관점 등에 따라 한국의 서원과 차이가 있다.

중국의 서원은 주희에 의해 서원 교육이 체계화되었던 송대에 학문의 중심기구이자 여론의 형성기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서원이 관학의 보조기구로 점차 정착되면서 정치활동이나 사회 활동의 중심기구로서의 성격은 다소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일부 서원은 과도한 정치활동으로 정부의



그림 3-1. 중국 백록동서원 대성전



그림 3-2. 중국 악록서원 대성전



그림 3-3. 일본 유시마성당 대성전



그림 3-4. 일본 아시카가 학교 공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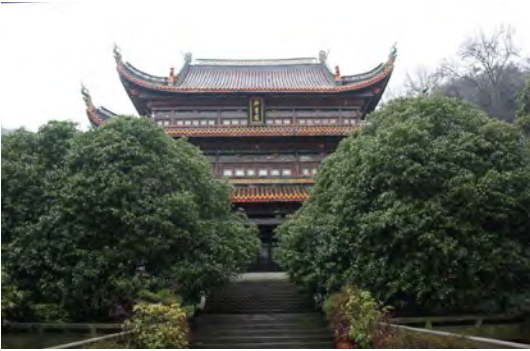


그림 3-5. 중국 악록서원 장서루



그림 3-6. 중국 백록동서원 반수

규제를 받았다.

일본의 사숙은 사립 유학 교육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유학 자체가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 되지 못하였고, 지식인보다는 무사(武士) 중심의 사회라는 점에서 사숙이 사회 전반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당시 권력집단인 쇼군이나 막부의 지배층 일부가 유학에 대해 흥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유학을 이데올로기로까지 채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숙은 유학 사상의 사회적 확산보다는 사숙 출신 학생들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과 같이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 사상을 선도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교육기관으로서 출발하여 교육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실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에 서원은 공론의 장으로서, 지역 지식인들의 회합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도 한국적 지식전통을 굳건하게 지켜왔던 귀중한 유산이다.

• 동아시아 유학교육시설의 건축물 배치형식 비교분석

한국의 서원은 그 창설부터 민간 주도로 운영된 교육기관이다. 관립에 비해 개별성이 강한 사립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원은 공유된 건축 정형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 서원의 설립 주체인 사립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된 목표점과 공고한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은 집단의 지성을 통해 지식을 통한 성리학 이상사회의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으며, 함께 서원의 건축 형식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으로서 다른 지역과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준의 정형을 이루었다. 특히 이 정형이 단지 구성요소의 수용 수준이 아니라 배치와 건축형식의 완전한 전형을 형성하였고, 그것을 한국의 거의 모든 서원이 공유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축 선상에 위치시킴으로써 유기적인 연결을

완성하였다. 제향공간은 신격화된 모범적 인간과 계승자의 대면을, 강학공간은 살아있는 인간 사이의 대면을 위한 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례의 형식도 다르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과 강학의 공간을 사우와 강당, 그리고 그 사이의 신문(神門)과 담장을 이용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완성하였다. 또한 제향 공간인 사우를 좀 더 높은 위계의 건축으로 형성하기 위해 지형이나 축을 미묘하게 활용하였는데, 각 서원은 이 과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제향, 강학 공간과 더불어 교류와 유식의 공간을 조성하여 외부 환경을 건축의 한 요소로 끌어들이면서 인적 교류 및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사립 활동을 위한 누각, 정자 등의 건축물들을 조성하였다.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각 영역의 결합은 자연지세를 활용한 독특한 한국적 건축기법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각 영역은 시각적, 동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표면의 조정을 통해 각각의 단을 구성함으로써 영역의 독립적 성격도 함께 완성하였다. 이러한 지형의 단계적 조정은 건축군 전체가 위계를 가지면서도 하나로 조화되도록 하는 뛰어난 수법이다.

한국 서원의 건축 정형은 중국, 일본 등의 유사 유산과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더욱 명확해진다. 한국의 서원은 중국 서원으로부터 그 제도적인 영향을 받았다. 중국의 백록동서원에서부터 기반이 마련된 서원의 기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적 배치 정형이 이루어지기 전 설립된 소수서원이 강학, 제향 등의 기능을 서원의 요소로 도입한 것은 이러한 영향관계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러나 건축적으로 이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서원이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서원은 강학공간, 제향공간, 장서루공간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었다. 한국의 서원과 비교해보면 중국 서원은 장서루공간이 크게 발달한 것이 다르다. 그 위치도 서원의 중심축 선상에서 위계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다. 배치의 모습으로 보면 중국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은 장서루이다.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은 위계적이기보다는 상호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가 비교적 자유롭다. 일부 서원은 공자를 제향하는 문묘영역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 서원의 앞쪽 경계는 반수(泮水)로 이루어져 있어 보다 인공적인 조경에 의존한다.

중국 서원은 10세기 이상 지속되었고,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배치의 정형을 한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현존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서원들의 건축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백록동서원은 물길을 따라 여러 개의 원(院)이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 중심 축에 장서루와 강당을 일렬로 배치하고 그 뒤 언덕에 백록의 상을 두었다. 좌우의 옆에는 여러 동의 사우와 강학공간을 두었다. 송양서원은 전체적으로 직선의 축을 따라 전각을 배치하였다. 산지에 있지만 서원 경내를 평탄한 지형으로 조정하여 건물을 배치하였다. 제향영역과 강학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강당을 중심에 두고 공자[선정전] 및 중국의 고대 위인들[도통사]을 제향하는 두 개의 사우가 위아래로 배치되었고, 가장 뒤쪽에는 장서각을 두었다. 악록서원은 대규모 서원이다. 가장 안쪽에 어서루를 두고, 유학사에 기여한 인물들을 제향하는 사우들을 어서루 서쪽에 배치하였다. 어서루 앞쪽에는 강당이 있고 그 앞으로 대규모의 재사가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로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 공자를 제향하는 문묘 영역을 강학영역 서쪽에 별도로 배치한 점이 특징적이다. 석고서원의 경우에는 강을 향해 돌출된 경사지형에 놓여 있으며 가장 앞쪽에 공자 및 지역의 선현을 제향하는 두 동의 사우가 좌우로 병렬되어 있고 강당과 장서각이 결합

된 별도의 전각이 그 뒤쪽으로 배치되었다. 녹강서원은 과거 시험을 치루는 별도의 고봉 시설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서원은 제향, 강학과 더불어 장서를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하고 서원 경내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장서각을 두었다. 여러 동의 사우가 있다는 점, 사우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게 설정되었다는 점, 일부 서원의 경우 공자 및 그의 제자를 제향하는 문묘를 별도로 조성하는 점 등이 중국 서원의 건축배치가 갖는 차별점이다.

일본의 전통 유학 교육시설의 경우 애초에 사찰, 신사 등의 형식과 교육시설이 겹쳐져 있는 탓에 별도의 건축 형식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제향과 강학기능을 함께 갖춘 유시마세이도 및 번교 등의 공립학교들은 때로는 신사의 형식을, 때로는 사찰의 형식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제향과 강학공간의 관계도 정형화되지 않는다. 사숙의 경우에는 강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건축의 형식을 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향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합적 건축군이라기 보다는 단일 건물을 사용하여,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한다. 오히려 일본의 교육시설은 일정한 배치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서원은 사우에 배향되는 인물과 연관이 있는 지역에서 자연 환경이 수려한 지점에 건립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의 교육 시설은 학생들의 모집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그 설립지가 되고 있다.

건축물의 배치 측면에서도 일본의 교육 시설은 한국의 서원과 같은 어떤 전형적인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정형화되지 않은 배치를 취하고 있다. 유시마세이도(湯島聖堂)는 대성전(공자묘)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를 취하고 있고 대성전의 좌우에 동무·서무가 행랑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한국의 서원과 같이 동재·서재는 갖추고 있지 않다. 또 유시마세이도는 지형지세와는 무관하게 남향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서원이 지세에 따라 좌향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번교인 시즈타니학교(閑谷學校)의 경우 교외의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서원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건축물들은 일본 불교건축의 양식 및 신사(神社)의 형식이 혼합되어 있어 한국의 서원과 같은 유학 건축의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의 교육 시설의 경우는 제향이나 강당의 개별적 기능이 중시되어 건축물의 독자적인 공간성이 중시되어 있다. 제향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것 외에 일본식 신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전통적인 교육 기관들 가운데 설립 당시의 모습을 현재까지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성전이 있는 유시마세이도는 수차례의 화재와 지진 등으로 소실되어 현재의 건물은 관동대지진 이후 콘크리트 구조로 재건한 것이다. 번교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시즈타니학교는 많은 건축물들이 원형의 형태로 남아있으며, 현재에도 교육활동이 지속되어 있다. 사립 유학 교육기관인 시주쿠 또한 온전하게 유지된 것은 많지 않다. 도쿄, 교토, 오사카 등 대도시에 사숙들이 일부 현존하고 있으며, 많은 사숙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서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중국과 일본의 사립 유학 교육시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서원이 갖는 가장 뚜렷한 건축 특징은 서원 사이에 공유되는 건축적인 유형이 정형화되었다는 것이다.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하나의 유기적인 구성으로 구현하여 이들 기능을 따로따로 인식하기보다는 모두가 하나의 공부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의 측면으로 인식하였으며, 외부의 경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자연과 건축이 통합되는 정형을 만들어내었다. 제향 인물로부터의 학맥을 중시한 한국의 서원은 제향영역을 가장 상위에 배치한 것도 동아시아의 유학 교육시설들과 차별적인 특징이다.

한국 서원의 건축 정형은 수입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림에 의해 집단적으로 모색된 결과이다. 이 점은 한국 서원의 중요한 특질이며, 그 단계적 과정 자체가 하나의 지식운동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한국의 서원은 이들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의 세 영역을 하나의 유기적인 집합적 건축으로 완성하였으며, 외부의 자연과 하나로 융합되는 위치에 자리하였다. 이로써 그들이 지향하는 전인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유학 시설로 완성되었으며, 이는 동아시아 문명 내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 동아시아 유학교육시설의 전각형식과 경관특징 비교분석

신청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건축배치의 정형과 더불어 전각의 형식에서 뚜렷한 특징을 드러낸다.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전각인 사우, 강당, 동서재, 누각 등은 한국의 사림이 성리학 관념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완성한 독자적인 결과물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각의 평면형식과 주변경관의 활용, 건축세부에서 드러난다.

신청유산의 사우는 3칸의 정면을 갖는 작은 건물로 제향을 위해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는 시설이다. 사우는 주변을 담장으로 둘러싼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의 경계부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두었다. 문과 전각의 출입방식은 예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달리 중국 악록서원이나 송양서원의 제향시설은 화려한 장식이 있는 중대형 전각이며, 정면 규모도 훨씬 크고 높이도 높다. 일본의 사숙에는 별도의 제향시설이 없으나, 관학인 번교의 경우를 보면 다쿠세이보는 대단히 화려한 중층 전각의 형태이다. 다만 시즈타니학교의 공자묘는 이와 달리 소규모의 전각으로 조성되었다.

한국 서원의 강당은 대개 5칸의 정면 중 중앙부 3칸을 대청마루를 설치하고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완성되었다. 전면부에는 대청 양단에 맞추어 2개의 계단을 동서로 설치하여 건물에 오르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정침 이론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들어낸 독자적인 건축형식이다. 동아시아의 정침은 제사를 지내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등의 의식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다. 정침에 대해서는 역사적 실체와 구체적인 쓰임새, 건축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상세한 논의가 존재해왔다. 사림은 정침을 한국적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건설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돈암서원의 응도당은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계획된 정침 건물의 사례로 그 자체로 뛰어난 유산 가치를 갖고 있다. 돈암서원 응도당에 이르러 한국 서원의 강당형식은 정점을 이루었다. 한국 서원의 강당은 대청마루 동쪽에 선생의 자리를, 서쪽에 학생의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강론하는 공간사용방식을 정형화하고 있다.

중국 서원의 강당은 입식형 생활습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강의를 위해 중앙에 교사가 위치하는 장소를 구성하였고, 그 아래에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강당 내부의 공간이 넓고 높게 구성되어 있으며, 강당 벽면에는 유학과 관련된 용어와 서원의 학규 등이 석각되어 있다. 많은 서원들에는 내부 가장 안쪽 위에는 현판이 걸려있는데 대체로 황제의 친필로 되어 있다. 일부 서원에는 장서나 교사의 수업 준비를 위해 강당 동서(東西)로 별도의 방이 조성되어 있다. 중국 서원의 건축물에는 신청유산과 같이 별도의 난방 시스템이 존재하지는 않고, 난로 등을 활용하여 난방을 행한다.

일본 사숙의 강학공간은 특정한 형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관학 중에는 시즈타니학교의 강당이 대표적인데, 전체가 마루로 구성된 대형 전각으로 그 형식이 일본의 전통 건축기법을 따르고 있다. 중국 서원의 강당은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입식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입식으로 내부를 이용하는 형태도 한국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 서원에서 각각의 전각 건축형식은 평면과 지붕구성 등에서 성리학의 예법과 이상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돌, 마루 등 좌식관습을 활용하는 한국 건축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잘 융합되어 있다. 강당과 누각 등에서 보이는 주변의 경관은 좌식 공간에 앉았을 때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 좌식공간은 전각에 드나들 때 신발을 신고 벗는 문제로 인해 정면과 후면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강당의 후면이 판벽으로 설계된 것, 사우의 위치를 강당의 바로 뒤가 아니라 약간이라도 축을 달리하거나 서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은 이러한 관습에 기인한다. 또한 각 전각은 화려한 장식을 가급적 배제하면서 최소한의 구성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포, 초각 등의 장식적 부분이 거의 없고 특히 제사와 강당은 단조로운 경우가 많다. 이는 물질 가치보다 정신 가치를 중히 여긴 성리학의 이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누정, 누각 혹은 누마루로 불리는 서원 전면부의 시설은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이다. 중국, 일본의 유사 시설은 이러한 형식의 전각을 갖고 있지 않다. 누정은 좌식공간관습을 갖고 있는 한국의 건축적 전통과 한국 서원의 독특한 기능 중 하나인 회합과 유식의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특출난 건축형식이다. 경관적으로는 서원의 강당과 중앙 마당에서 누정을 통해 바라보는 외부의 경관을 하나의 액자처럼 연출하는 수단이 되며, 기능적으로는 지역 사림의 회합, 유생들의 유식, 여타 사회적 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강당 좌우의 동서재는 학생들의 거거공간으로 마루와 온돌방이 적절하게 조합된 비교적 자유로운 건축으로 한국 주택형식과의 상호영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중국의 서원은 자연경관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반수(泮水)나 서원 내부에 정원을 조성하여 유식의 기능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공간 자체를 폐쇄적으로 구성하여 서원의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전망경관을 고려하여 건축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백록동서원이나 석고서원과 같이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중국 서원의 경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악록서원이나 숭양서원은 외부가 차단된 건축 구성을 취하고 있다. 대체로 서원 내부에 정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휴식을 제공한다.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에 기반한 절제와 창의를 복합적으로 결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박하고 검소한 양식을 지향하는 서원 건축을 바탕으로 일부 창의적인 기법을 통해 다소 정제된 건축 구성을 보완하였다. 한국 서원의 장식 기법은 유학 경전에 기반한 명칭을 사용하고, 해당 개념들을 각서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서원 뿐만 아니라 유학 문화권의 대부분의 교육시설들의 건축물들은 유학 경전에 기반한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한국 서원에서는 단청이라는 한국 고유의 채색 기법을 활용하여 서원의 내부를 장식하고 있다. 강당, 누각 등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청 양식 중에는 성리학 개념이 반영된 형태들도 존재한다. 또한 목조와 석조에 부조를 통해 단조로울 수 있는 서원의 건축미학을 다채롭게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성을 취하면서도 전체적인 서원의 미학을 깨트리지 않는데, 이는 외양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는 성리학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서원은 기본적으로 유학 사상이 반영된 장식을 사용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유학의 개념들을 각 건물 명칭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혹은 해당 개념들을 각서(刻書)하여 건물의 내·외부 벽면이나 기둥에 구성한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건축 환경에 따라 그 형태를 다양하게 전개해왔다. 검소함을 지향하여 장식을 최소화한 서원도 있지만, 장식을 극대화하여 화려하게 장식된 서원들도 존재한다.

일본의 사숙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립되었기 때문에 주변이 도시에 입지하여 자연경관을 고려한 건축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사숙으로서 독립된 건축물을 건립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을 사숙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건축 기법상 사숙만의 창의성은 미약하다. 대체로 사숙의 공간구분은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친화적 경관 구성과는 거리가 있다. 사숙에만 존재하는 장식 보다는 해당 시기에 보편적으로 유행한 건축 장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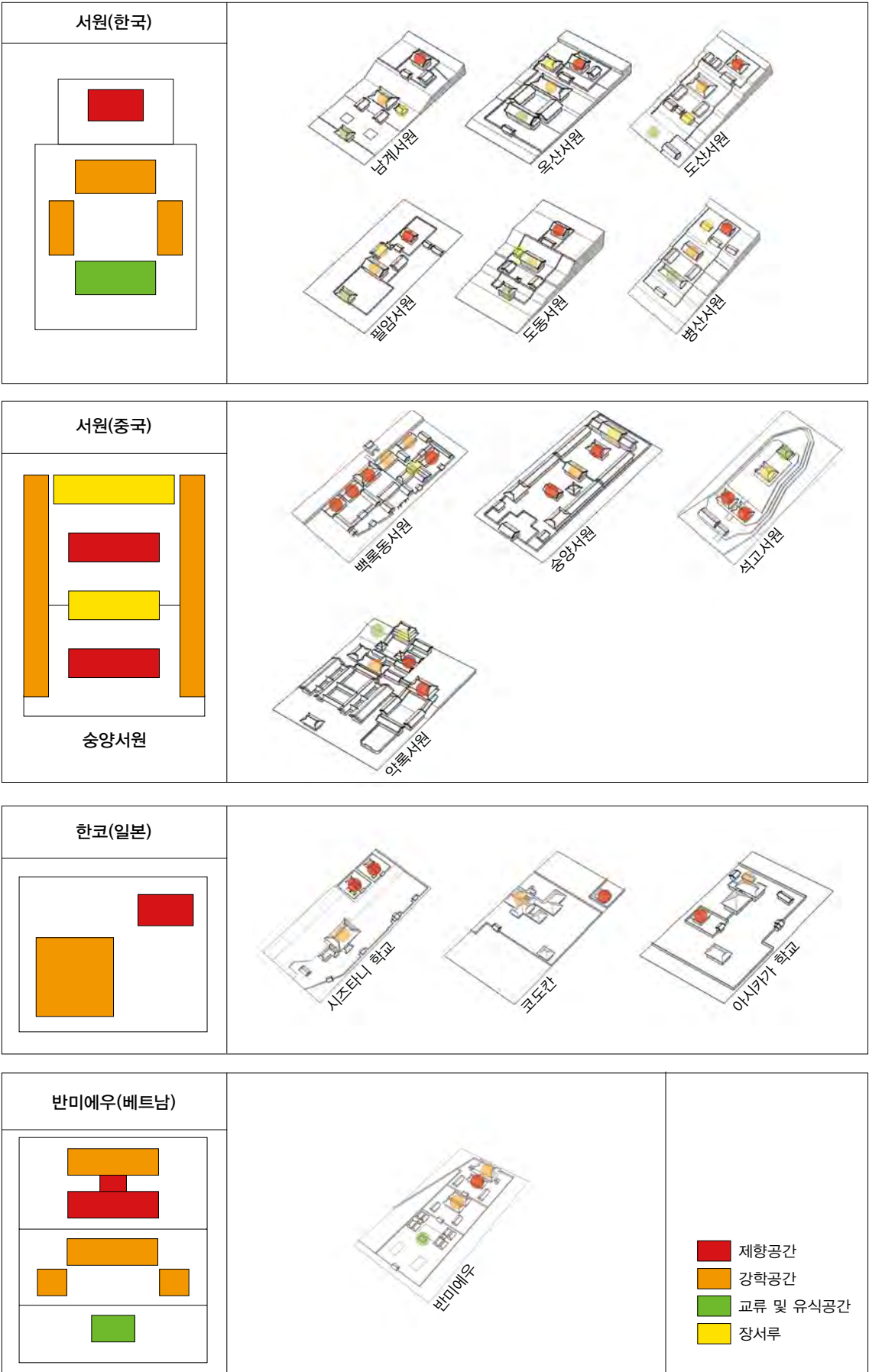


그림 3-7. 동아시아 유학 시설의 건축물배치 비교



그림 3-8. 중국 약록서원 강당



그림 3-9. 일본 쇼카손주구 강당

• 종합

-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 내의 유사 제향 시설 혹은 교육 시설과 차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켰으며, 유교 문화권 내의 보편성을 증거한다.
- 유학문화권 국가들은 모두 유학교육의 전통과 관련된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립 학교는 한국, 중국, 일본에 존재하였다.
- 사립학교들의 교육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중국은 관료시험 등과 같은 정부의 교육 정책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유학 과목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되었다. 한국은 지방의 지식인 집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성리학을 학습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설립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커리큘럼 등도 개별 학교마다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며 유학 이외의 학문들도 학습하였다.
- 사립학교의 제향 전통은 제향인물의 삶과 철학을 제향 참여자들이 실천하기 위한 의례행위이다. 사립학교에서 강학과 결합된 제향 전통은 중국과 한국에서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공자 등 다수의 인물을 제향하였다. 한국에서는 지역과 연계된 선현을 제향하면서 한국적 제향 전통을 구축하였다.
- 사립학교들은 학문이라는 토대를 통해 일군의 집단이 형성되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집단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사립학교가 집단적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던 반면 한국은 사립학교가 지식인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정치·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사립학교들은 배치나 건축물의 정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국의 서원은 사립학교 중에서도 정형화된 건축 요소와 배치 형식이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는 한국에서 서원이 사립이었지만, 집단 지성 모색의 결과로서 구현된 건축물이기 때문이었다. (표 3-3 참조)

- 사립 학교의 건축물들은 모두 지역 전통 건축 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생활관습에 따른 건축 기술 또한 사립학교들에서 확인된다. 사립학교의 건축양식을 통해 해당 시기의 전통 건축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표 3-3. 동아시아 지역 유학 교육시설과 신청유산의 비교

비교대상		한국	중국	일본
비교항목				
		신청유산을 포함한 한국과 북한의 서원	백록동서원, 송양서원, 악록서원, 석고서원 등	사숙 (송하촌숙, 도주서원, 함의원 등)
도입시기		- 16세기	- 7세기	- 17세기
설립목적		- 성리학 지식인 양성 (인성교육 중심) - 지역에 기반한 성리학적 선현의 제향	- 유학 지식인 양성에서 점차 관료양성으로 변화 - 관학의 보조	- 유학을 포함한 지식인 양성
교육대상		- 지역 유생	- 지역, 계층 제한 없음	- 무사, 가신 그룹
교육학문		- 성리학	- 유학(시대에 따라 변화)	- 유학, 의학, 산학 등 다양
제향	인물	- 지역단위의 선현	- 성현	-
	의례	- 존재, 현재까지 지속	- 존재, 일부 서원만 유지	-
사회적 기능		- 지역 공론의 중심지 - 지역 교화의 중심지	- 국가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높았음	- 근대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
건축	입지	- 자연 경관 고려 - 제향인물과의 연고지	- 접근성 고려 - 도시공간 등	- 접근성 고려 - 도시공간
	기능	- 제향, 강학, 유식	- 강학, 제향, 장서	- 강학
	건축 구성요소	- 사우 - 강당, 재사 - 도서관 - 누정	- 사우 - 강당, 재사 - 도서관 - 반지 - 비석군(과거합격)	- 강당 - 재사 - 도서관
	배치유형	- 공통의 배치 유형이 존재	- 서원별로 개별성이 강함	- 단일건물 중심
	경관구성	- 자연친화적 - 개방과 관입 구현	- 인위적 - 폐쇄적	- 인위적 - 폐쇄적
	지역성	- 좌식 생활구조 - 온돌과 마루의 조화	- 입식 생활구조 - 의자, 화로	- 좌식 생활구조 - 다다미, 화로

3.2.c 국내유산과의 비교를 통한 신청유산의 가치

14세기말 건국된 조선은 성리학을 유일한 유학 사상으로 발전시켜왔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교육 기관은 관립인 성균관과 향교, 사립인 서원으로 구분된다. 이들을 설립 주체, 교육 목적, 제향대상, 입지와 건축 유형에서 비교해보면 신청유산의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한국의 유사유산과 비교하여

신청유산은 한국의 성리학 전통과 이 전통을 이끌어간 사림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준다. 또한 서원은 향촌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독자적 건축유형을 자발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의해 규격화된 학교의 정형과 차이가 있다.

한국에는 신청유산 이외에도 많은 서원들이 현존하고 있다. 한국에 소재한 서원 중에서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이 교육기관으로 정착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서원이 보유한 총체적 특징을 단계적·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완전성과 진정성의 측면에서도 신청유산은 한국에 현존하는 서원 중에서 독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9개의 서원을 연속유산으로 선정한 사유이다.

1)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 중 신청유산의 차별적 특징 : 향교, 성균관과의 비교

성균관과 향교는 정부에서 설립한 성리학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을 국가 주도로 설립한 목적은 관료 선발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각 교육기관에는 공자묘를 함께 건립하여 성리학 교육과 더불어 공자에 대한 제향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점은 강당과 공자묘를 기본으로 구성한 중국의 유학 교육기관과 유사하다.

서원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 서원은 관료 선발과 같은 목적보다는 지역의 성리학 소양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서원은 공자에 대한 제향이 아닌 지역과 관련된 선현(先賢)의 제향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제향대상 및 제향의례의 지역 관련성이 공립학교에 비해 높다.

성균관은 최상위의 국립학교로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묘인 대성전과 강학 시설로 강당 명륜당, 그리고 학생들의 기숙사인 양사제로 구성되어 있다. 향교는 지역의 공립학교로서 각 지방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의 행정중심지(치소) 인근에 건립되어 있다. 구성요소 및 배치는 성균관과 동일하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만이 존재한다.

건축구성에 있어서 성균관과 향교는 문묘 영역과 강학영역으로 구성된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성균관은 문묘가 앞에 배치되고 그 뒤에 강당과 재사가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 많은 향교도 대체로 성균관의 구성방식을 따랐으나 배치 순서는 지역마다 선후관계의 차이가 있다. 관학은 공자의 제향과 관료 시험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도회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적 요소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서원은 한 고을에도 수 개가 세워진 경우가 있으며, 설립주체인 지역 사림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으로 건립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서원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사림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건립되었다. 서원은 지역의 중심지와는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 입지가 제향인물과의 연관성이 높다. 주요 구성요소는 대체로 성균관, 향교와 동일하지만 교류와 유식을 위한 공간을 특별히 고려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서원의 건축배치는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의 위계적 체계를 따라 구성하였다. 제향공간이 서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강학공간이 위치하며, 교류와 유식영역이 서원의 전면부에 구성되어 있다. 제향과 강학공간은 성균관, 향교와 유사하지만, 지형과 축선 등을 활용하여 제향공간을 가장 신성하게 설정한 것은 관립 교육기관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교류와 유식의 기능이 극대화된 것은 관립 교육기관에서 고려되지 않은 배치형식이다.

이상의 비교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서원, 향교, 성균관의 비교

비교대상 비교항목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주체	- 사림	- 지방정부	- 중앙정부
분포	- 지역별 다양	- 지방군현별 1개	- 수도에 1개
설립목적	- 인성교육 - 선현제향 - 사림 활동의 기반	- 관료 양성 교육 - 공자제향	- 관료 양성 교육 - 공자제향
사회적 역할	- 지역 공론 형성 기능 - 지역 문화 교류 기능	- 없음	- 유생 공론 형성 기능
입지	- 제향 대상과 관련성 - 교육 목적에 부합한 환경	- 지방 행정 중심지	- 수도
구성요소	- 사우(선현), 전사청 - 강당, 재사, 도서관 - 누각, 정자	- 사우(공자), 전사청 - 강당, 재사	- 사우(공자), 전사청 -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유형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 강학, 제향	- 강학, 제향

2) 신청유산의 선정근거 : 한국의 여타 서원과의 비교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설립·운영되었다. 이 시기에 성리학은 한국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 정착되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주도했던 계층은 사림이라는 향촌 지식인들이었다. 사림은 서원을 중심으로 교육·제향·정치·문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점차 사회의 주도집단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에서 성리학이 만개하기 시작한 시기는 16세기 중반 이후이며, 서원이 한국 사회에 설립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점은 서원이 성리학의 발전 및 사림의 성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한국 서원을 이해하기 위한 구성 요소는 유형·무형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단일 서원으로는 한국 서원의 총체적 특징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이것이 단일 유산이 아닌 9개 서원을 연속유산으로 선정한 이유이다.

신청유산의 선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신청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한국 서원의 초기 정착과정 중에 건립되어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운영이 지속되었다.

- B. 신청유산은 현재까지도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 C.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지표들을 보유하고 있다.
- D.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 건축의 정형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입증한다.

상기 4 항목을 기준으로 신청유산의 선정 사유를 아래와 같이 논증하고자 한다.

- 검토항목 A : 서원역사의 초기에 설립되어 그 역사를 지속했는가?

신청유산은 서원 역사의 초창기인 16세기 중반부터 1세기간 건립되었다. 한국에서 서원의 건립은 성리학의 정착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림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상으로서 성리학의 정착과 사회의 리더로서 사림의 성장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간 특화되었으며, 이 시기는 한국 사회에서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를 통해 사림은 성리학 이념을 서원에서 제향과 강학을 통해 전승하고, 서원을 기반으로 정치·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청유산의 건립 시기는 한국 사회에서 성리학이 한국적으로 재해석되고 사회 전반에서 성리학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성리학 정착을 주도한 주체들은 사림이라는 지방사회 지식인들이다. 사림은 성리학 교재들을 학습하며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으며, 이를 한국 사회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려는 운동을 지속하였다. 사림의 성리학 보급 운동의 결과 이 시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 규범과 관습들을 성리학적 내용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정착된 전통은 근대화로 생활패턴이 변화된 현재까지도 한국인에 의해 일부 지속되고 있다.

한국 서원의 제도와 건축 유형은 초창기인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걸쳐 완성되었다. 제향과 강학, 그리고 교류와 유식이라는 기능을 집목한 개별 시설들의 구현, 배치의 정형, 입지의 정형, 건축 구성물의 창의적 기법 등은 이 시기에 기획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서원들이 건립되었다. 한국 서원의 건축 유형은 유학문화권의 사립 교육 기관 중에서도 독특하면서도 차별적이다. 이러한 특성이 한국 서원의 초창기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유형으로서 서원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의 100년간 한국에는 약 150개의 서원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 중 19세기 말까지 그 역사를 지속한 서원은 16개에 불과하다. 이는 서원의 건립과 운영이 순수하게 민간에서 이루어져서 지속성에서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서원을 폐지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적합한 서원들을 폐지한 바 있다. 물론 이는 정부가 서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교육 전반을 통제한 것은 아니고,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서원들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유산들은 모두 근대교육으로 전환되는 19세기말까지 교육기능을 유지하며 존속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서원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가치가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16개의 서원 중 두 서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송양서원은 1573년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되어 현존하는 서원이다. 제향-강학-교류와 유식과 같은 한국 서원의 전형을 갖추고 있다.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부속요소로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서원은 현재 북한에 소재하고 있어 정치외교적 요인으로 당사국에서 해당 서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충렬서원은 1650년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되어 19세기 후반까지 유지된 서원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유산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해당 서원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유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건립되어 19세기 말까지 그 역사를 지속한 접근 가능한 서원은 14개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국 서원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원을 요소별로 검토하였다(14개 서원의 항목 및 관련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조한다).

- 검토항목 B :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는가?

신청유산은 한국의 서원으로서 구비해야하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신청유산의 진정성은 유형적 원형 보존과 관리·운영의 지속성을 들 수 있다. 한국 서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각 서원들이 유산적으로 전통적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유산의 제향전통과 서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서원 활동 등은 서원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신청유산은 현재까지 400년 이상을 존속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존속기간 동안 다양한 내외부적 원인에 의해 보수, 복원, 이건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원의 건축물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서원 구성원들의 각별한 관심 하에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유산의 완전성은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 환경의 측면에서 온전한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서원의 완전성은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으로 공간과 공간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서원은 전근대의 전통 유산으로서, 창건 당시의 입지와 현재의 입지는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다.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19세기 후반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서원 건축물의 대부분의 자재가 목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거주 환경이 변화된 현대의 한국 사회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 건립되었던 많은 서원은 20세기 이후,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들로 파괴, 훼손되었다. 진정성 및 완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대화와 20세기 중반 발생한 한국전쟁을 들 수 있다. 한국전쟁은 한국 중부에 존재하는 서원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들이 파괴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 결과 한국의 중부에 존재하는 서원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진정성과 완전성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 중부는 수도가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신청유산들은 대체로 한국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근대화, 전쟁, 그리고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결과 신청유산

들은 상대적으로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심곡서원은 주변 환경의 변화로 현재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 결과 주변의 개발압력으로 인해 서원 주변의 경관이 파괴되었다. 서원 주변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다. 또한 서원의 주요 요소의 하나인 재사가 현존하지 않아 완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서원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서원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제향과 활용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원 건축물의 완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파산서원은 한국 전쟁으로 훼손되어 현재 사우만이 보존되고 있어 완전성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서원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서원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제향이 지속되고 있다.

우저서원은 20세기 이후 서원의 내부적 요인으로 사우와 강당을 제외한 시설들이 존재하지 않다가 최근에 재사 등의 건축물이 신축되었다. 서원 전면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으며, 현재에도 개발행위가 서원 주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원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서원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제향과 활용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즉 서원 기능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14개의 서원들은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다. 일부 서원들은 전쟁, 개발행위,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훼손된 경우들도 있다. 14개의 서원 중 진정성과 완전성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서원은 신청유산인 9개 서원들이다.

- 검토항목 C : 한국 서원의 총체적 특징을 대표하는가?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의 교육, 제향, 사회·문화적 활동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요소들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만개한 성리학이 정착되는 과정과 성리학을 선도한 사림 활동의 독특한 전통을 보여준다. 유학 문화권에서 한국 서원의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유산은 다음의 사항을 총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유산을 통해 한국 서원의 발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서원은 동아시아 유학 유산 중에서도 한국에서 정착된 사림 성리학 교육기관이다.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 확산 과정에서 성장했고, 사림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신청유산은 한국에 소재한 서원 중에서 이러한 과정을 주요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서원에서 교육과 제향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남계서원에서부터 사림에 의한 자발적 기구로서 서원이 운영되기 시작되었다. 교육에 관련한 자료는 옥산서원이, 재정운영에 관련된 자료는 필암서원이, 서원의 구체적 운영규정에 대한 자료는 도동서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림은 지역에 근거한 학파를 형성하였고, 학파는 서원을 통해 발전하였다. 성리학 이론의 토론향이 되었던 도산서원과 예학을 기점으로 발전한 돈암서원의 활동은 이를 입증한다. 성리학이 서원에 활동했던 사림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확산된 과정은 무성서원이, 서원이 교육을 넘어 보다 공론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병산서원에서 입증할 수 있다. 서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 성리학 확산과정의 기여, 그리고 사림의 기반으로서의 기여 등은 신청유산의 주요한 선정기준이다.

둘째, 제향 기능은 서원의 중요하면서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통 중의 하나이다. 각 서원의 제향 인물은 한국 성리학 발전의 기여도가 높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청유산은 제향인물을 통해 한국 성리학의 전체적 흐름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성리학의 정착 과정에서의 기여도는 한국의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청유산의 제향인물은 한국 성리학의 역사와 사림 활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각 서원에서는 각기 다른 인물들을 제향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성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분포한 서원의 제향인물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향 인물 뿐만 아니라 제향의 지속성은 한국 서원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다. 제향의 지속은 제향 인물을 중심으로 서원 구성원의 단결과 화합을 완성한다. 제향인물의 상징성과 제향의례의 지속성은 한국 서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14개의 서원들 모두 제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제향인물과 제향방식에 있어서 신청유산은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기능은 서원이 교육 기능에서 확장되어 지역사회의 공론장과 문화센터로서 기능한 것을 의미한다. 교육기관이 교육 자체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은 한국 서원의 독특한 특성이다. 서원의 사회적 기능중 대표적인 공론장 기능은 만인소·통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사회적 기능은 수원(首院)으로서 도단위의 지역이나 주요 학파를 대표하는 서원을 의미한다. 신청유산들은 대체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원의 문화적 기능은 우선, 각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현판, 기문, 고문서, 목판과 같은 유산과 서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남긴 각종 문학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유산은 이를 충족한다.

서원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14개의 서원은 초창기에 건립되어 19세기까지 존속되었기 때문에 한국서원의 발전과정을 전체적·부분적으로 충족한다. 서원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원 발전의 단계와 교육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원들이 그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14개 서원들이 한국 서원 발전에 기여한 각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신청유산은 9개 서원들이 상대적으로 보유한 자료나 기록유산의 보존여부가 탁월한 측면이 있다.

제향과 관련하여, 14개의 서원은 현재까지 제향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향 전통이 가지는 지속성 면에서는 모든 서원이 충족한다. 제향 인물은 성리학의 역사와 사림의 활동을 증명하여야 한다. 성리학의 도입(소수, 금오), 성리학의 이론화(옥산, 도산, 필암, 파산, 돈암), 사림 활동의 상징(남계, 도동, 병산, 무성) 등을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서악서원은 해당 지표에 예외적이다. 서악서원의 제향 인물 중 주향인물인 김유신은 7세기에 활동했던 장군으로 분열된 한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여를 한 인물이다. 김유신 이외에 서악서원에 배향된 인물들도 모두 7~9세기에 활동했던 지식인들이다. 서악서원의 제향인물은 조선시대 성리학과 사림의 전통과 관련성이 높지 않다.

서원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관련하여, 14개의 서원은 지역 사림 활동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서원은 사림의 공론에 기반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지역공동체의 교화활동을 진행해왔다. 전자의 경우 만인소(옥산, 도산, 병산)와 같이 적극적 의사표현을 통하거나 통문(병산, 돈암)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고, 후자의 경우 향약(무성)이 대표적이다. 문화활동은 서

원에 남겨져있는 다양한 기록물들을 통해 활동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신청유산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반면, 14개의 서원 중 일부는 사회문화적 활동의 입증이 어렵다. 이는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소장 자료의 유실 때문이며, 특히 한국 중부에 위치하는 서원들은 20세기부터 발생한 산업화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조직과 전통의 전승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14개 서원중에서 신청유산인 9개 서원은 한국 서원의 제도, 제향, 회합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입증한다. 신청유산은 한국의 서원중에서도 고문서, 고서, 현판, 목판 등 기록물들을 현재까지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 제향의례와 같은 한국 서원의 무형적 가치 또한 신청유산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 검토항목 D : 서원 건축 유형의 단계별 완성을 보여주는가?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의 정형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며, 이를 증명할 요소들을 충족한다. 한국 서원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서원별로 존재하는 개별 요소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건축 요소, 건축 배치, 건축 입지, 그리고 특화된 부분들이 그 대상이 된다.

신청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기 위해 개별 요소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한국 서원의 유형적 요소에 기여도를 주목하여야 한다. 대체로 서원 건축의 요소 및 배치의 정형을 모색한 서원과 정착을 입증하는 서원, 그리고 정착된 건축들이 재해석된 서원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건축 요소 및 배치를 도입한 서원은 서원 건축물의 구성요소와 서원 건축물의 배치형식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이후 서원들이 건립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과 한국 최초로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의 배치형식을 바탕으로 건립된 남계서원은 도입기 서원 건축의 특징을 증명해준다. 교류와 유식을 위한 건축물의 하나로서 누마루를 도입한 옥산서원 이후 서원 건축물의 주요 요소로 강학공간의 진입문에 누마루가 보편화되었다. 서원 건축의 정착과 관련된 경관과 건립 입지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원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자연친화적 경관을 탁월하게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도산서원은 주목된다. 한국의 서원이 평지형 서원과 경사형 서원으로서 각기 정착된다는 점에서 필암서원과 도동서원은 각 입지 전형을 대표한다. 따라서 모든 서원이 이를 부분적으로 구현하며, 따라서 이 시기에 건립된 서원들은 모두 한국의 서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 건립된 많은 서원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기본 모델로 하였다.

정형화된 건축요소 및 배치를 재해석한 서원은 정착 단계에 정돈된 서원 건축의 배치와 입지의 어떠한 지점들을 특별히 발전시킨 서원이다. 신청유산인 병산서원은 누마루인 만대루, 돈암서원은 강학시설인 응도당의 특화를 엿볼 수 있다. 무성서원은 기존의 서원들이 자연에 접한 입지였던 것에서

변화된 입지의 양상으로서 한 특성을 보여준다.

서악서원, 금오서원, 우저서원은 신청유산과 마찬가지로 건축 요소와 배치형식의 측면에서 정형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초기 서원으로서 건축 요소와 정형화된 배치 이외에 서원 건축을 주도한 점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건립 이후 중수와 증축, 재건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 단계에 따른 이해 보다는 완비된 그 자체로 존재하여 초기 건립 당시의 건축물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원 건축의 완전성을 입증하는 일부 요소가 존재하지 않은 사례들도 존재한다. 파산서원과 심곡서원은 초기 서원으로서 건축물의 일부만이 보존되어 있어 건축적 기여를 입증하기 어렵다.

• 종합

이상의 비교분석을 요약하면, 4개의 검토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서원은 9개이며, 이러한 가치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이들 서원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아래 표는 주요 서원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표 3-5. 한국의 주요서원 속에서 신청유산의 비교

연번	유산명칭 위치, 설립연도	검토항목	검토항목 A	검토항목 B	검토항목 C	검토항목 D
		서원역사의 초기에 설립되어 그 역사를 지속했는가?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는가?	한국 서원의 총체 적 특징을 대표하는 가?	서원 건축 유형의 단계별 완성을 보여 주는가?	서원 건축 유형의 단계별 완성을 보여 주는가?
01	소수서원(紹修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	●	●	●	●
02	남계서원(濫溪書院) 경상남도 함양군	●	●	●	●	●
03	서악서원(西嶽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	●	◎	◎	◎
04	파산서원(坡山書院) 경기도 파주시	●	◎	◎	◎	◎
05	금오서원(金烏書院) 경상북도 구미시	●	●	◎	◎	◎
06	옥산서원(玉山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	●	●	●	●
07	도산서원(陶山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	●	●	●	●
08	필암서원(筆巖書院) 전라남도 장성군	●	●	●	●	●
09	도동서원(道東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	●

연번	유산명칭 위치, 설립연도	검토항목	검토항목 A	검토항목 B	검토항목 C	검토항목 D
		서원역사의 초기에 설립되어 그 역사를 지속했는가?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는가?	한국 서원의 총체 적 특징을 대표하는 가?	서원 건축 유형의 단계별 완성을 보여 주는가?	서원 건축 유형의 단계별 완성을 보여 주는가?
10	병산서원(屏山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	●	●	●	●
11	무성서원(武城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	●	●	●	●
12	돈암서원(遯巖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	●	●	●	●
13	우저서원(牛渚書院) 경기도 김포시	●	◎	◎	◎	◎
14	심곡서원(深谷書院) 경기도 용인시	●	◎	◎	◎	◎

한국 사회에서 성리학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지배적 이념으로 만개하였다. 이 시기에 성리학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으며, 예학과 같은 실천이론들도 한국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도층은 사림이라는 지방지식인 집단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설립된 서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리학의 정착과 사림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유산들이다.

교육기관으로서 창건 이후 개별 서원들이 지속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서원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국가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닌, 민간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존재했던 많은 서원들은 운영 과정에서 중단과 재운영, 그리고 폐지를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건부터 약 400여년의 지속성을 보유했던 서원들은 유산적 가치가 높다.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만개한 성리학이 정착되는 과정과 성리학을 선도한 사림 활동의 독특한 전통을 보여준다. 신청유산은 한국의 성리학 확산 과정에서 성장했고, 사림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제향 기능은 신청유산의 중요한 전통 중의 하나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향의 지속은 제향인물을 중심으로 신청유산에 소속된 구성원의 단결과 화합을 완성한다. 교육기관이 교육 자체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도 신청유산의 독특한 특성이다.

건축 유형의 관점에서 서원의 건축 요소, 배치, 입지, 그리고 특화를 이해하는 것은 집합적 유산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 서원의 정형을 선도한 신청유산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형 뿐만 아니라, 정형 속에서 다양한 창의적 기법들을 활용한 점들은 주목할 점이다.

이상과 같이 신청유산은 건립시기, 지속성, 서원 전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가치의 충족, 서원 건축 정형화의 단계별 입증, 진정성과 완전성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여타 서원에 비해 탁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신청유산으로 선정된 사유이다.

3.3.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문

• 간략 진술

신청유산은 향촌 지식인들에 의해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다. 이 유산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의 9개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던 성리학이 지역화되고 변형된 독특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이 유산은 한국에서 서원 건축의 정형화에 의해 완성된 독특한 문화전통을 나타낸다. 9개로 구성된 이 유산은 한국 서원의 특성을 발전시켰으며, 서원이 건축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는지 각각의 과정을 통해 보여준다.

• 신청유산에 적용된 등재기준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 건축 유형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서원 설립 운동의 초기단계에서 건축 유형을 정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끼쳤다. 이 유산은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을 수행하기 위한 강당, 사우, 누각 등의 건축물들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건축 배치는 지형, 경관, 기단, 담장과 문을 통해 구현하였다.

• 완전성에 관한 기술

이 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며, 개별적으로 그 자체로 완전성을 충족한다.

이 유산은 조선시대 서원의 필수 공간 요소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을 구성하는 각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 주변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사우와

사우 내부의 위패, 전사청 등이 온전하게 존재하며,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강당과 재사, 도서관, 각 건물의 편액 등이 온전하다. 누각 등 교류와 유식공간의 구성요소 역시 온전하며, 주변의 경관, 지형 등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서원 주변의 경관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중요한 부분은 모두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신청유산은 도시화, 현대화된 지역과 떨어진 곳에 입지하였고, 입지와 소유관계, 법적 보호체계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위험이 거의 없다.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게다가, 현장 근무자가 일상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며 문화재청에서 3년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수행 중에 있다.

• 진정성에 관한 기술

신청유산은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유산은 입지와 주변 경관을 원래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 유산은 경관을 포함하는 당시의 입지 환경,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의 건축 배치 등을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다.

신청유산을 영건하였던 원형을 따라 20세기 중반 이래로 공인된 기술인력과 훈련받은 장인들이 전통적인 기법으로 최소한의 보수를 행하고 있다.

9개로 구성된 신청유산은 국가 혹은 민간의 관리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서원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신청유산은 기록유산, 무형유산에 속하는 것들도 잘 보존, 전승하고 있으며 이는 유산의 진정성에 기여한다.

•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술

신청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은 문화재보호법이다. 국가 사적으로서 이 유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층위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신청유산의 경계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법적 조처들을 포함한다.

신청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추가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청유산을 위협하는 개발압력 및 환경 등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은 경미하다.

신청유산은 해당 서원별로 유산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중장기 사업에 근거하여 관리 및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자연재해, 화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모니터링을 수행 중에 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신청유산의 보존상태와 정지 지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조치들을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수행중에 있다. 현재는 관광압력이 높지 않지만, 관련 종사자들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제기될 부정적인 관광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4장

보존현황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존현황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청유산은 중앙정부(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1962 제정)과 9개 서원이 소재한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신청유산을 이루는 9개 서원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기모니터링(3~5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설립 이후 9개 서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유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 약어

1. 문화재청(CHA)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 문화재보호법(CHPA) :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3.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HCEPA) :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4.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Seowon Foundation) :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5. 국립무형유산원(NIHC) :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4.a 보존현황

신청유산은 유산구역 안에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요소들과 함께 자연적·문화적 맥락을 이루는 완충구역의 주변 환경도 잘 보존하고 있다. 또한 신청유산은 기록 및 무형유산도 잘 보존하고 있다. 서원을 거쳐 간 선현과 성리학자들이 남긴 책자, 기문, 목판, 현판 등을 잘 보존·관리하여 서원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증거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향의례는 오늘날까지 창건 당시의 방식과 절차를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유산의 보존상태가 현재까지 양호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유산으로부터 일정범위(500m)까지의 건축행위를 단계별로 규제(현상변경허용기준)하여 서원의 입지, 공간, 건물 등 유산의 원형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의 사용,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기본원칙으로 엄격히 보호·관리해왔기 때문이다.

• 소수서원

소수서원 유산구역 내에는 오랜 역사성을 가진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있다. 주요건물인 사우(문성공묘)와 강당(강학당)은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3년 주기로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원 진입로에 위치한 은행나무(일명 학자수) 두 그루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1982)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소수서원은 최근(2015, 2017) 일부 전각들(강당, 전사청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다만, 서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1992)와 같은 일부 건물들이 콘크리트로 되어있으나 건물의 형태는 다른 목조 건물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건립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남계서원

2017년 재사(보인재)를 보수 하였는데, 기존 부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시행하였고 새 부재로 교체한 경우에는 목재의 재질과 형상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보수기술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누각(풍영루), 서고(경관고)에 단청과 별화(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여 퇴락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2017년 단청기록화사업을 통해 단청의 정밀조사 및 복원도 작성을 시행하여, 향후 훼손에 대해 대비하고 복원 시 활용할 예정이다.

남계서원의 고직사(2016), 관광안내소(2015), 화장실(2015)과 같은 일부 건물들의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형태는 다른 목조 건축물들과 동일한 양식이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2015년 서고(경판고) 보수와 노후화된 현대식 건물(고직사)을 철거하고 2016년 남계서원지에 근거하여 고직사를 복원했다. 또한 서원의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서원 동쪽 언덕과 인접 마을, 주변 시설물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 옥산서원

2016년 일부 전각들(민구재, 전사청, 문집관각)의 지붕이 노후하여 문화재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옥산서원 앞으로 옥산천이 흐르고, 서원의 전통 경관 요소로 개설된 소형수로가 서원의 외삼문과 무변루 사이를 흐르고 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하천수가 수로로 유입되어 옥산서원 외부 담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주시는 2017년 수로의 정비를 통해 하천수의 유입을 조정하였다. 옥산서원은 동편을 제외한 삼면이 수목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서원들에 비해 습도가 높다. 특히 내삼문 안쪽 기둥에 습기로 인한 피해가 있고, 사우 뒤쪽 공간의 경사로 조정 및 주변 배수체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경주시는 서원 담장과 수목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어 통풍 및 방화선 역할이 원활하도록 식재와 주변 배수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옥산서원은 한국의 서원들 중에 많은 장서를 보유한 서원으로, 다수의 서적 및 목판들이 옥산서원 유물전시관(2010)에 보관되어 있다. 최근 옥산서원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2016년 9월 경주 진도 5.8, 2017년 11월 포항 진도 5.4) 지진이 발생했지만 서원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재해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여 위험에 항시 대비하고 있다.

• 도산서원

도산서원을 이루는 주요건물인 강당(전교당), 사우(상덕사) 및 삼문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었고 시사단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잘 보호·관리되고 있다. 전시관(옥진각, 1970), 관리사무소(1982), 화장실(1982)과 같은 편의시설도 주변과 조화되는 양식으로 지어져 서원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다.

최근(2015년, 2017년)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농운정사와 사우(상덕사)를 보수하였다. 이러한 보수과정에는 문화재청 및 안동시의 감독 아래 분야별 문화재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였다. 도산서원은 현재 경내 일부 수목과 서원 동편으로 형성된 작은 계곡의 사면이 불안정해 이에 면한 담에서 일부 균열이 확인되어 보수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안동시는 주변지형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면 안정화 및 식재 변경, 배수체계 보완, 토사 유실 방지 등을 위해 균열이 생긴 담의 외부공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필암서원

2000년대 이후 필암서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원 외곽에 서원 활용시설인 유물전시관(2008), 교육센터(집성관, 2010)를 건립하였으나 건물의 규모가 유산의 경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활용시설물들을 차폐하는 조정계획을 수립하였다. 필암서원은 2016년 사우(우동사) 지붕 보수 및 2017년 강당(청절당) 지붕 보수 시 서까래 부재의 부식과 지붕을 지탱하는 보의 균열이 발견되어 문화재 전문 인력들을 통해 보수하였다. 그리고 서원 경내·외 배수 체계문제는 문화재전문가와 기술자들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도동서원

도동서원은 2016년 문화재 전문 인력들을 통해 노후된 서원 누각(수월루) 기단 상부와 환주문 및 내삼문 지붕을 보수하였다. 그리고 도동서원은 현재 서원으로서의 접근성이 불량한 다람재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원 전면을 지나는 도동~자모구간(길이 1.3km)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진행(2016년 12월~2019년 11월)하고 있다. 당초 서원 앞을 가로지르는 신설도로를 계획했으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서원의 경관과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신설도로를 우회시키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서원의 경관 회복을 위해 서원 앞에 조성된 주차장을 현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 병산서원

2013년 안동시에서 주관한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병산서원의 전반적인 보존·관리 상태는 양호하나 만대루에 사용된 일부 부재에서 균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안동시에서는 만대루의 보호를 위한 예산편성과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병산서원은 산지의 아래쪽 완경사 지역에 위치하는데 일부 배수로가 변형되어 배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강당(입교당)과 재사(동직재, 정허재) 사이 마당에는 별도의 배수로가 없어 집중강우 시 우수가 직접 만대루 하부로 유입됨에 따라 만대루 하부 기둥에 습해가 우려된다. 이에 안동시는 배수 체계를 보완하고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복토와 배수로 정비를 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서원의 경관 보호를 위해 서원 앞 주차장을 서원에서 약 300m 외곽으로 이전하여 서원 앞 경관을 회복하였다.

•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마을의 가옥들이 서원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입지 특성은 다른 신청 서원들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서원 주변의 경관을 만들고 있으나 서원 주변의 민가들이 근대와 현대시기를 거치면서 현대

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무성서원은 2016년 문화재 전문업체 및 인력을 통해 재사(강수재)의 지붕을 보수하고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무성서원 주변을 그린 칠광십현도(1924)에 근거하여 다른 장소에 세워졌던 홍살문을 본래의 위치로 옮김으로써 서원 진입영역의 진정성을 회복하였다.

• 돈암서원

돈암서원은 서원 영역과 주변 교육체험 시설인 한옥마을(2014)과 예학관(2018년 상반기 준공예정) 사이의 원지형을 회복시키고 두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시켜 서원의 가치를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서원의 진정성 회복을 위해 누각(산양루) 주변 담장을 철거하고 홍살문, 하마비는 2018년 상반기에 이전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원 앞 경관 회복을 위해 전신주(전선)들에 대한 지중화 작업과 응도당 뒤 펌프실 이전은 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다.

4.b 신청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청유산의 주변 지역은 각각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개인 또는 기타 요인들에 의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한 유산구역 내 토지는 대부분 국유지 혹은 공유지(서원 문중 및 유림)이고 일부 사유지는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신청유산은 서원의 입지 특성과 주요 건축물이 화재와 환경압력에 취약한 목구조라는 점 때문에 개발압력, 환경압력, 기후변화, 화재압력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방문객과 관광산업의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중심으로 해당 서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신청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4.b.i 개발압력

신청유산은 도시개발 및 도심의 팽창으로 인한 개발압력이 적다. 신청유산의 완충구역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유산 경계로부터 500m까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유산 주변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별도의 현상변경허용기준(1~5구역)이 마련되어 있다.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넘는 개발행위는 모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원 주변의 역사문화경관을 조화롭게 관리하여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4.b.ii 환경압력 및 기후변화

신청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압력은 자연풍화에 따른 건축 재료의 노후화, 온·습도 변화에 따른 목재의 부식, 흰개미, 재선충 등과 같은 해충에 의한 피해 등이 있다. 신청유산 중 일부 풍수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이나 석축, 배수로 등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해 예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청유산들은 경내·외에 식재된 주된 수종이 소나무이므로 재선충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신청유산의 주요 건물이 목조이므로 흰개미에 의한 손상 위협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봄·가을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병충해 방제활동들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흰개미에 대한 해충피해 대응은 문화재 방충사업 지침을 마련(2012년)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유산에서 이와 관련된 피해는 없으나 이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유산이 위치한 지역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속한다. 이 지역에서의 기후변화는 평균기온 상승, 집중 호우와 강설에 따른 강수량 증가, 강풍 등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습도 증가에 따라 목조 건축물의 습해와 충해, 그리고 풍화가 발생한다. 최근 5년 간(2012~2016) 신청유산이 입지한 지역의 연평균기온 변화를 살펴보면 9개 서원이 입지한 모든 지역에서 연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같은 기간 신청유산이 입지한 지역의 연간강수량과 강수일당 강수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곧 신청유산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이미 기온 상승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강수량 및 강수 집중도에 있어서는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근래 들어 기후가 극단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유산은 물론 거주자와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문화재 보호 종합 대책수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청유산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교육,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 관리

상주관리인이 매일 각 서원의 경내 순찰을 실시하며, 평산시 문화재 안전관리 및 방법, 방재를 위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소방시설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월 1회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유산의 경내·외에 식재된 주된 수종이 소나무이므로 재선충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신청유산의 주요 건물이 목조이므로 흰개미에 의한 손상 위험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봄·가을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병충해 방제활동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흰개미에 의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 방충사업 지침(2012)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 자연식생과 동물계의 조건과 동향, 물리적 과정과 생태계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흰개미 모니터링용 목재시편을 설치하는 등 모니터링에 환경지수를 포함할 계획이다.

표 4-1. 신청유산 소재 지역의 연평균기온(최고/최저) 현황(www.kma.go.kr)

(단위: ℃)

서원(소재 지역)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소수서원(영주시)	11.2 (37.5/−19.9)	11.6 (34.8/−20.9)	12.0 (35.2/−14.4)	12.5 (37.1/−13.7)	12.3 (35.5/−16.9)	11.9 (36.0/−17.2)
남계서원(함양군)	12.2 (35.2/−13.0)	12.8 (36.9/−13.9)	12.6 (36.6/−12.3)	12.9 (36.6/−10.8)	13.6 (37.3/−11.1)	12.8 (36.5/−12.2)
옥산서원(경주시)	13.3 (37.3/−13.0)	14.1 (38.6/−12.7)	13.8 (37.0/−8.8)	12.9 (34.7/−14.7)	14.0 (39.4/−12.9)	13.6 (37.4/−12.4)
도산서원(안동시)	12.2 (38.0/−18.6)	12.4 (36.0/−20.4)	12.5 (35.6/−13.4)	12.9 (37.2/−13.1)	13.2 (37.8/−15.7)	12.6 (36.9/−16.2)
필암서원(광주시)	13.7 (37.7/−10.2)	14.2 (36.2/−10.3)	14.3 (36.5/−7.3)	14.6 (36.2/−8.7)	15.0 (37.2/−11.7)	14.4 (36.8/−9.6)
도동서원(대구시)	14.1 (37.2/−12.4)	15.0 (37.9/−12.5)	14.9 (37.5/−7.4)	14.4 (38.3/−9.4)	14.6 (38.1/−13.0)	14.6 (37.8/−10.9)
병산서원(안동시)	12.2 (38.0/−18.6)	12.4 (36.0/−20.4)	12.5 (35.6/−13.4)	12.9 (37.2/−13.1)	13.2 (37.8/−15.7)	12.6 (36.9/−16.2)
무성서원(정읍시)	13.1 (37.8/−13.2)	13.7 (37.1/−14.5)	13.7 (37.3/−11.4)	14.1 (36.6/−10.1)	14.3 (36.4/−14.7)	13.8 (37.0/−12.8)
돈암서원(대전시)	12.6 (36.9/−14.4)	13.1 (35.0/−16.5)	13.4 (34.9/−10.7)	14.0 (36.3/−12.4)	14.0 (37.6/−17.0)	13.4 (36.1/−14.2)

표 4-2. 신청유산 소재 지역의 연간강수량(강수일당 강수량)/강수일수 현황(www.kma.go.kr)

(단위: mm/일)

서원(소재 지역)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소수서원(영주시)	1,431.0 (12.1)/118	1,180.8 (8.7)/127	1,156.4 (10.6)/109	771.2 (6.8)/114	1,263.3 (12.1)/104	1,160.54 (10.1)/114
남계서원(함양군)	1,576.8 (13.5)/117	1,096.2 (9.7)/113	1,305.1 (11.8)/111	982.0 (8.1)/121	1,128.0 (9.6)/118	1,217.62 (10.5)/116
옥산서원(경주시)	1,060.5 (9.8)/108	729.5 (7.2)/101	1,299.5 (11.7)/111	976.7 (8.1)/120	1,251.4 (11.7)/107	1,063.52 (9.8)/109
도산서원(안동시)	1,047.0 (9.7)/108	979.9 (9.3)/105	960.4 (9.4)/102	755.1 (6.9)/110	934.4 (10.3)/91	935.36 (9.1)/103
필암서원(광주시)	1,626.8 (12.4)/131	1,245.4 (11.1)/112	1,290.3 (10.3)/125	1,046.9 (8.7)/120	1,482.3 (11.8)/126	1,338.34 (10.9)/123
도동서원(대구시)	1,189.9 (11.0)/108	996.4 (9.9)/101	1,072.1 (10.4)/103	908.5 (8.4)/108	1,227.3 (11.7)/105	1,078.84 (10.3)/105
병산서원(안동시)	1,047.0 (9.7)/108	979.9 (9.3)/105	960.4 (9.4)/102	755.1 (6.9)/110	934.4 (10.3)/91	935.36 (9.1)/103
무성서원(정읍시)	1,473.4 (10.4)/142	1,061.9 (8.5)/125	1,261.2 (9.9)/127	988.5 (7.5)/131	1,279.5 (9.3)/138	1,212.90 (9.1)/133
돈암서원(대전시)	1,409.5 (11.0)/128	1,120.2 (9.7)/116	1,117.7 (10.0)/112	822.7 (7.6)/108	1,228.4 (10.4)/118	1,139.70 (9.8)/116

표 4-3.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 및 위기관리 관련 주요 연구(2008~2016)

유형	연구연도	연구명
기후, 지진, 환경, 홍수 등 자연재해 영향 평가	2010	건축문화재 지진(경주지역), 홍수(수원 화성지역) 재해 위험도 평가연구
	2010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기술 기획연구
	2011	기후 온난화에 따른 목조문화재 침입 생물종 정보 확보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2012	문화재 재난 위험지수 개발 연구
	2012	주요 지역별 건축문화재 지진, 홍수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2013	기후변화 대응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 종장기 기획연구
	2013	역사도시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2015	문화재 낙뢰 피해 현황조사 연구
모니터링	2009	문화재 보존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기술 표준화
재해 예측, 예방 시설 및 관리	2008	문화재 산불 방재 연구
	2015	문화재 현장 방재모니터링 표준설계 방안 마련 연구
	2016	문화재 방재환경 조사
재해 대응 매뉴얼	2008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 화재방재 매뉴얼 발간
	2009	사적 및 중요민속자료 화재대응 매뉴얼
	2010	문화재 재해예방 매뉴얼
	2012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매뉴얼 개발연구
	2014	문화재 방재설비 안전점검 매뉴얼
	2016	문화재 재난대응 통합 매뉴얼 연구

• **기후변화 적응 교육 실시**

서원 관리자 및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담당 공무원의 문화재관리를 위한 교육 교재를 개발(2008)한 이래 「문화재 방재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교재(2012)」, 「문화재 생물피해관리 매뉴얼(2012)」 등의 교재 발간하였으며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2017년 현재 문화재안전관리 과정(연 1회, 4일간 30명)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교육(연 1회, 4일간 30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주요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서원 거주자, 관리자, 유립, 지역공동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교육을 실시해 관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토지이용을 방지하고 충해, 청변(blue-stain)을 방지해 목재를 관리하는 방법 등 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전통기술을 교육해 유산의 보존에 지역공동체와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4.b.iii 자연재해 및 화재압력

신청유산은 그동안 자연재해 및 재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신청유산이 대부분 전통적인 입지 요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안정적인 자연지형에 자리 잡아 자연 재해로 인한 위험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몇 백 년 동안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신청유산이 얼마나 자연에 순응한 지역에 입지하였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잠정적인 재해, 곧 풍수해, 화재, 지진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자연(태풍, 홍수, 호우, 지진, 대설 등) 및 사회(화재, 붕괴 등) 재난에 대비해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지침 및 매뉴얼 등을 만들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강 주변이나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한 신청유산은 입지 특성상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소수서원과 옥산서원은 상시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최근 지진과 관련하여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목조문화재는 지진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행히 신청유산인 옥산서원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진에 대해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전문기관의 학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청유산은 대체로 화재에 약한 목조건축물들이다. 이에 따라 상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서원의 입지 특성상 대부분 산지가 포함되어 산불 등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서원의 고직사, 전사청, 동·서재와 같은 생활공간들은 현대적인 시설과 전열기 등의 사용에 따른 노후 전기배선의 과부화로 인해 화재가 우려된다. 실제로 목조건축물의 화재 원인 중 약 20%가 전기 관련 안전사고로 파악되었으며, 설비 노후화와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증가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해당서원에는 각각의 소방 시설과 경비 시스템을 통해 관리사무소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화재압력과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

표 4-4. 신청유산의 소방시설 및 CCTV 통합관제 현황

서원	소화기 (개)	옥외소화전 / 방수총 (개)	저수 방식	피뢰 설비	산불방지 방화선(림)	경비 시스템 (CCTV 등)	CCTV 통합관제
소수서원	18	4 / 5	상수도	○	×	○	관리사무소, 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남계서원	20	3 / 0	저수탱크	×	×	○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옥산서원	20	6 / 1	저수탱크	○	○	○	고직사, 경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도산서원	28	4 / 6	저수탱크	○	○	○	관리사무소,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
필암서원	20	2 / 2	저수탱크	×	○	○	유물전시관
도동서원	32	3 / 3	저수탱크	×	○	○	관리사무소, 달성군 통합관제센터(예정)
병산서원	21	3 / 0	상수도	×	○	○	고직사,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
무성서원	17	2 / 0	상수도	×	×	○	관리사무소
돈암서원	28	4 / 2	상수도	○	○	○	관리사무소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는 화재 및 재난방지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최근 개정(2017.3.21.)을 거쳐 문화재에 대한 화재 등 대응매뉴얼 마련, 화재 등 방지 시설 설치, 금연구역의 지정,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재난 관련 정보의 구축과 관리 조항이 추가되었다. 현재 신청유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분기별 재난대비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전기안전공사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유산의 전기 및 전기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와 유지, 중요 문화재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산불 및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신청유산에서는 소방시설들을 비치하여 긴급 시 초기화재 대응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신청유산 인근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발생 시 바로 출동이 가능하다. 소방설비의 경우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2014)을 마련하여 실제 적용하고 있다. 신청유산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계별 원칙에 의거하여 재해예방 및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서원별로 화재와 도난 등에 대한 다양한 재난방지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비정기적인 소방 훈련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신청유산의 화재 대응 매뉴얼은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화재예방점검 및 관리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에는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도, 자체소방조직, 신고 및 연락체계, 소방 시설 현황(도면), 서원 내 건축물별 소방시설 상세현황, 초동진화 요령, 소산문화재 목록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화재예방점검 및 관리요령에는 유관기관 협조체계와 화재예방 활동 방법, 동산문 화재 보호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주요 소화설비 사용방법, 자체 소방훈련 시나리오, 화재 진압 기술, 각종 시설물 점검양식표, 배치도 및 주요 건축물에 대한 기본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해 대응 조직 가운데 자위소방대는 주로 서원 관리자 및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총괄 책임자와, 통보연락반, 초기소화반, 소방대 3개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신청유산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지역대 또는 안전센터가 1차 출동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산림청 및 문화재청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유사시 중장비 활용을 위한 업체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표 4-5. 신청유산의 소방시설 비치 현황

서원	관할 소방서명	서원과의 거리(km)	출동시간(분)	소방훈련 : 2016년
소수서원	순흥119지역대	1.0	2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남계서원	안의119안전센터	10.3	12	
옥산서원	안강119안전센터	6.0	11	
도산서원	도산119지역대	5.0	8	
필암서원	삼계119안전센터	12.5	15	
도동서원	현풍119안전센터	10.0	15	
병산서원	하회마을119지역대	6.0	15	
무성서원	칠보119지역대	1.3	3	
돈암서원	연산119안전센터	2.7	5	

화재대응 매뉴얼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으며, 주로 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른 변화, 방재업무 관계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 수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원에서 화재발생시 목격자가 119에 신고하면 서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종합상황실에 접수되고 관할 소방서(소방서→안전센터→지역대)에 방송 지령을 내려 3~1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게 된다. 현장에서의 재해 대응은 1차로 자위 소방대 대장이 지휘하며, 소방관 도착 후에는 소방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문화재 파손이 불가피한 경우, 파손 범위 및 방법 결정은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서원 관계자간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아래 표는 중요 위협요소인 화재에 대하여 신청유산별로 마련된 대응 매뉴얼의 작성 유무, 시나리오 유형, 주요 유물과 소산처 내용이다.

신청유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훈련된 관계자들이 초기 화재 진압을 담당하고 신청유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통합지휘 시스템을 운용한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재난

대비 상황실을 편성하여 재난관리를 지도·감독한다. 또한 피해 현지 조사단 및 복구지도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서원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그리고 신청유산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재난 및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비를 투입해 신속히 복구하여 보수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한다.

표 4-6. 신청유산별 화재발생시 대응 절차

서원 인접 소방서

서원	-	광역단체	전달방법	기초 단체	관할 소방서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소수서원	화재 발생시 119 신고	경북도청 119 종합상황실	방송지령	영주시	영주소방서	풍기119 안전센터	순흥 119지역대
남계서원		경남도청 119 종합상황실		함양군	함양소방서	안의119 안전센터	-
옥산서원		경북도청 119 종합상황실		경주시	경주소방서	안강119 안전센터	-
도산서원		경북도청 119 종합상황실		안동시	안동소방서	법흥119 안전센터	도산 119지역대
필암서원		전남도청 119 종합상황실		장성군	장성소방서	삼계119 안전센터	-
도동서원		대구광역시청 119 종합상황실		달성군	달성소방서	현풍119 안전센터	-
병산서원		경북도청 119 종합상황실		안동시	안동소방서	풍산119 안전센터	하회마을 119지역대
무성서원		전북도청 119 종합상황실		정읍시	정읍소방서	하북119 안전센터	칠보 119지역대
돈암서원		충남도청 119 종합상황실		논산시	논산소방서	연산119 안전센터	-

표 4-7. 신청유산의 위협요소(화재) 및 대응 매뉴얼, 시나리오 유형

서원	대응 매뉴얼	시나리오 유형	주요 유물	주요 소산처
소수서원	○	관람객의 실화	강학당 현판 및 편액 문성공묘 현판	관리사무소
남계서원	○	관람객의 실화	현판 및 편액 다수	관리사무소
옥산서원	○	방화	중요 문서 등	서원 외부
도산서원	○	전기합선으로 인한 발화	전교당 현판 및 편액 전시관 내 유물 50점	전시관(1차 소산) 관리소(2차 소산)
필암서원	○	전기합선으로 인한 발화	하서문집 책판(650매), 목판(56매)	수장고
도동서원	○	향사 준비 중 난방 불씨 확산	현판, 편액 다수 전시관 내 서적, 제기	주차장
병산서원	○	전기합선으로 인한 발화	병산서원 현판, 만대루 및 복례문 현판	하회마을관리사무소
무성서원	○	방화	현판 및 편액 다수	서원 외부
돈암서원	○	향사 종료 후 촛불로 인한 발화	응도당 현판 및 주련(8점) 편액 6점	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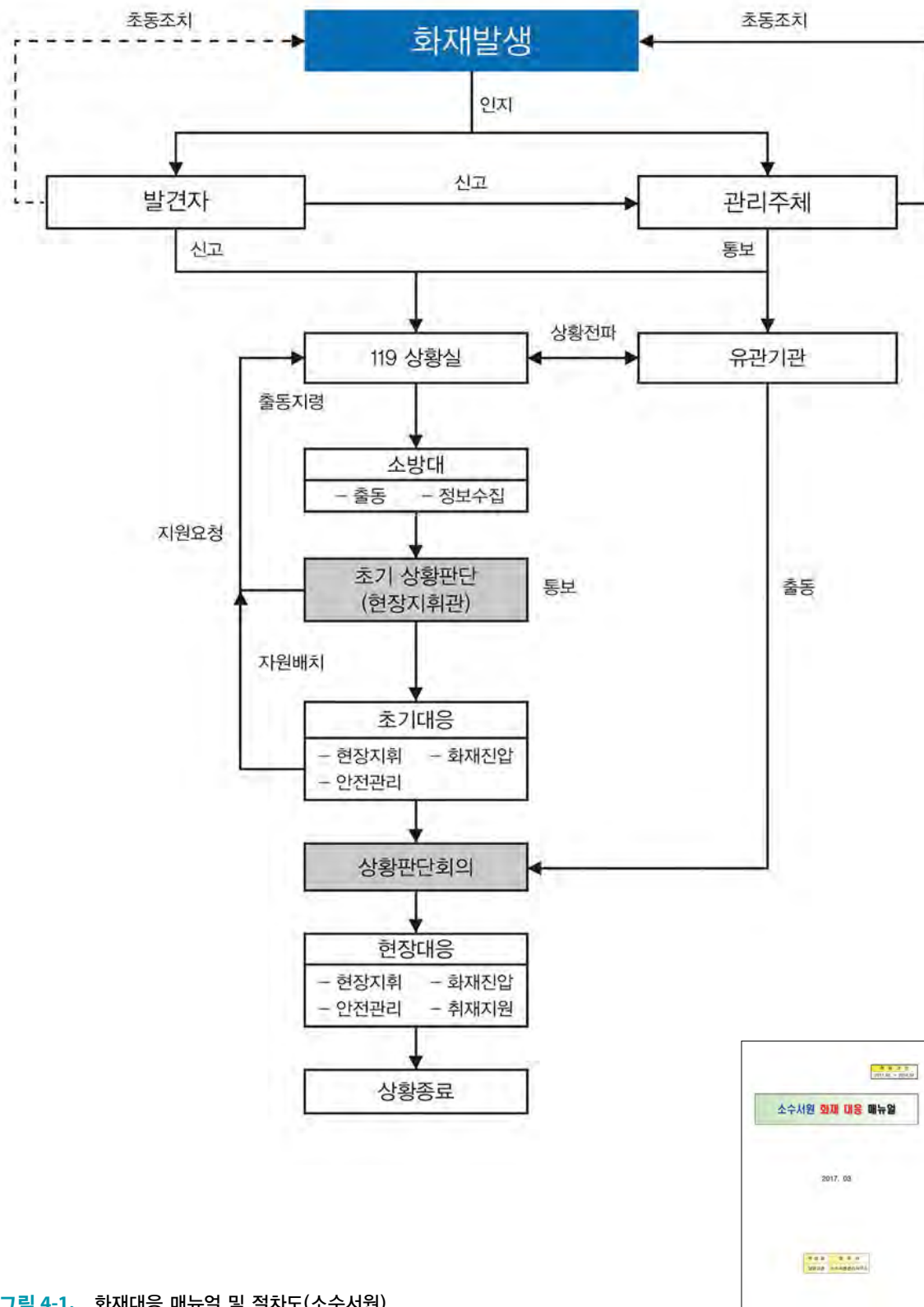


그림 4-1. 화재대응 매뉴얼 및 절차도(소수서원)



그림 4-2. 소방교육(소수서원)



그림 4-3. 소방훈련(남계서원)



그림 4-4. 소방훈련(도동서원)

4.b.iv 방문객 및 관광산업에 의한 압력

신청유산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사립교육기관으로 16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과 서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교육하고, 탐방하려는 목적의식이 강하다. 신청유산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대체로 교육에 목적을 둔 가족단위의 방문객과 단체 관광객(버스)들로서 어느 정도 서원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는 없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과 관광산업에 의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서원별로 방문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절별, 시간대별로 방문객을 분산 유도한다. 또한 서원에서 신청 시 되는 제향공간인 사우와 주요 건물내부의 출입을 제한하여 방문객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편의시설(문화교육, 교통숙박, 안내편의)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유산 관람객들의 방문을 관람 면적과 방문객 수로 비교하면 방문객 수는 한계 수용 능력보다 낮아 방문객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 신청유산의 방문객 수는 최근 3년간(2014~2016) 연평균 960,872명이며, 그 중 소수서원 방문객 수가 연평균 256,42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청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유산의 한 구성요소인 병산서원을 포함한 하회마을은(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년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등재 이전(2005~2009) 방문객이 787,210명에서 등재 이후(2010~2016) 1,182,573명으로 약 50%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관광객의 증가율 약 50% 적용한다면, 등재 이전(2014~2016) 연평균 방문객이 960,872명에서 등재 이후(2020~2022) 1,441,311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8. 신청유산 방문객 수 현황

(단위: 명)

서원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연평균 방문객 (2014~2016)	(A) 등재 이후 추정 방문객 (2020~2022)
소수서원	264,040	249,279	255,944	769,263	256,421	384,632
남계서원	41,605	41,813	42,332	125,750	41,917	62,875
옥산서원	25,500	28,050	30,800	84,350	28,117	42,175
도산서원	251,743	220,908	275,271	747,922	249,307	373,961
필암서원	15,485	14,600	16,200	46,285	15,428	23,143
도동서원	19,767	26,937	24,713	71,417	23,806	35,709
병산서원	206,775	215,286	225,808	647,869	215,956	323,935
무성서원	45,000	43,000	45,000	133,000	44,333	66,500
돈암서원	85,000	85,312	86,450	256,762	85,587	128,381
계	954,915	925,185	1,002,518	2,882,618	960,872	1,441,311

그리고 서원 관람 가능 면적(외부공간+건축공간)의 수용력 대비 방문객수는 약 22%에 해당한다(아래 자세한 산출 제시). 따라서 신청유산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관광에 의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유산에 대한 물리적 수용력(physical carrying capacity) 산출을 위해 방문객 관람 가능 면적을 계산하였다. 서원의 경우 방문객 관람 가능 면적은 유산구역 면적 중 외부공간(방문객이 통행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외부공간)과 건축공간(방문객이 출입할 수 있는 실내공간)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유산 구역 중 입장객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수로 등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면적에서 제외하였다.

표 4-9. 관광 이용가능 면적 현황

(단위: ha)

서원	유산구역 면적	방문객 관람 가능 면적	
		외부공간 면적	건축공간 면적
소수서원	17.16	2.24	0.12
남계서원	4.11	1.73	0.07
옥산서원	6.44	1.84	0.05
도산서원	36.73	0.70	0.07
필암서원	1.38	1.24	0.04
도동서원	2.32	1.25	0.05
병산서원	30.08	1.23	0.05
무성서원	0.84	0.58	0.02
돈암서원	3.43	1.34	0.06
합계	102.49	12.15	0.53

각 서원의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은 1인당 외부공간은 30㎡, 건축공간은 6㎡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회전률은 하루 개방 시간인 8시간(09시~18시, 문화관광해설사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관람 소요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서원의 관람 소요시간은 서원 별로 차이가 없으나 관람 행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관람소요시간을 일반 관람과 체험 관람으로 나누어 각각 약 1.5시간 및 약 3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회전율은 일반 관람은 약 5회(8h÷1.5h), 체험 관람은 약 3회(8h÷3h)로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청유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유산이 보호·관리될 수 있는 연간 물리적 수용력(인)과 연간 물리적 수용력 대비 방문객 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연간 물리적 수용력(인)

$$= \left(\frac{\text{외부공간 면적(㎡)}}{\text{1인 점유면적(30㎡)}} \right) + \left(\frac{\text{건축공간 면적(㎡)}}{\text{1인 점유면적(6㎡)}} \right) \times \text{회전률(1일 방문 회수)} \times 365\text{일}$$

* 연간 물리적 수용력 대비 방문객 수 비율(%)

$$= \text{등재 이후 추정 방문객} \div \text{연간 평균 물리적 수용력(인)} \times 100(\%)$$

표 4-10. 연간 물리적 수용력(인)

서원	(B) 일반 관람 연간 물리적 수용력(인)	(C) 체험 관람 연간 물리적 수용력(인)	연간 물리적 수용력 대비 방문객 수 비율(%)
	일반 관람 회전률 (1일 5회 방문기준)	체험 관람 회전률 (1일 3회 방문기준)	(A) ÷ [(B+C)÷2] × 100
소수서원	1,716,449	1,029,869	28 %
남계서원	1,277,792	766,675	6 %
옥산서원	1,277,482	766,489	4 %
도산서원	658,442	395,065	70 %
필암서원	870,397	522,238	3 %
도동서원	905,675	543,405	4 %
병산서원	889,250	533,550	45 %
무성서원	410,187	246,112	20 %
돈암서원	1,002,162	601,297	16 %
합계	9,007,836	5,404,700	약 22 %(평균치)

위의 표와 같이 신청유산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유산의 가치와 환경에 대한 위협 없이 방문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산서원의 경우 체험 관광의 소요시간이 증가되거나 그 비중이 높아질 경우 수용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관광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4.b.v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내 거주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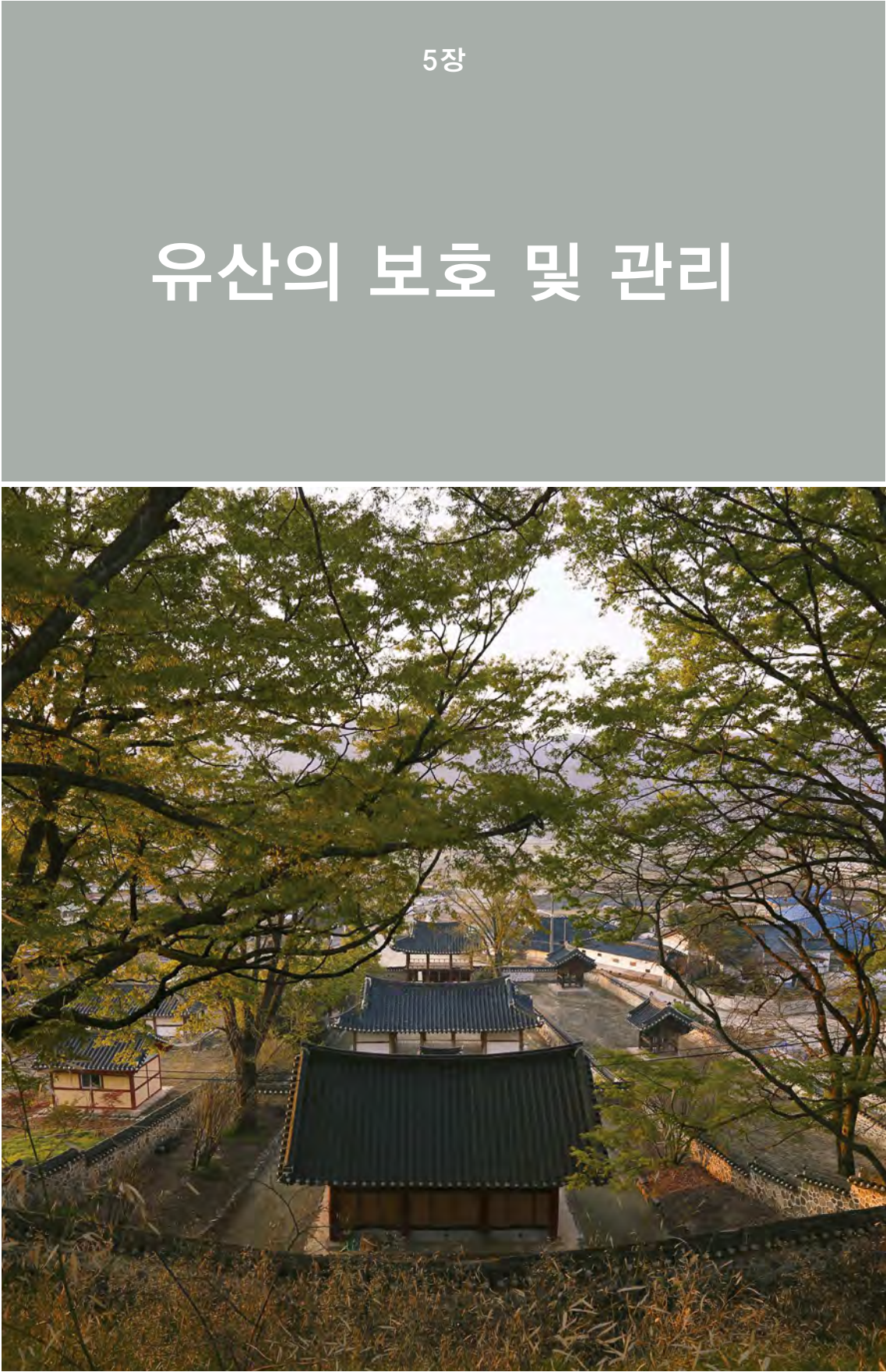
신청유산의 유산구역내 거주민 수는 8명이고, 완충구역내 거주민 수는 885명이다. 각 서원의 유산 구역에는 서원 관리를 위해 서원 고직사 건물에서 살아가며 일상관리 하는 사람들(남계, 옥산, 필암, 도동서원)과 서원 관리사무소로 출·퇴근하며 주·야간 교대로 당직을 보며 서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소수, 도산, 병산, 무성, 돈암서원)로 구분된다. 이에 유산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신청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다.

신청유산 중 도산서원을 제외한 8개 서원들에서는 완충구역 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 도산서원은 입지의 영향으로 완충구역 대부분이 산과 강이라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 8개 서원에는 모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되어 건축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거주민들로 인해 신청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으며,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한 개발행위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향후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일어나거나 거주민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2017년 10월 현재 다음과 같다.

표 4-11. 신청유산의 유산 및 완충구역 면적과 거주민 수

(2017년 12월 기준)

서원	유산구역		완충구역	
	면적(ha)	거주민(명)	면적(ha)	거주민(명)
소수서원	17.16	0	73.62	114
남계서원	4.11	2	78.67	124
옥산서원	6.44	2	80.83	186
도산서원	36.73	0	166.84	0
필암서원	1.38	3	51.06	76
도동서원	2.32	1	81.23	51
병산서원	30.08	0	164.30	24
무성서원	0.84	0	54.96	236
돈암서원	3.43	0	45.23	74
합계	102.49	8	796.74	885



5장

유산의 보호 및 관리

5장

유산의 보호 및 관리

신청유산의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문화재보호법(1962 제정)’이 모법이다.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04 제정)’, 신청유산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호조례’, ‘산림보호법(2009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 제정)’, 문화재청이 수립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9개 서원의 통합관리는 현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맡고 있다. 이 기관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발족되었다. 현재까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약 7년간 운영되어 세계유산 등재전반에 대한 사항, 그리고 연속유산의 항구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은 학계 전문가인 전문위원회와 공무원인 행정위원회, 두 위원회들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은 현재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업무와 함께 신청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과 보존관리계획 수립, 연구 및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통해 신청유산의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청유산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주체는 문화재청이다. 하지만 보수, 조사, 현상변경 및 불법행위 단속, 관광객 관리 등 실무적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원 유림 및 전문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오랜 기간 동안 신청유산의 보호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왔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신청유산이 세계유산목록 등재 이후에도 신청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통합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관의 발족에 근거가 되어준 15개(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함양군) 정부기관들은 신청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수행할 독립적인 기구의 행정, 운영을 지원한다.

5.a 소유권

신청유산의 유산구역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성되어있다. 국유지는 국가의 소유로 도로, 하천, 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지는 서원에 속한 문중 또는 유림 소유로 서원 및 서원 주변이다. 또한 사유지는 서원과 관계없는 개인 소유로 서원 주변에 있는 일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엄격한 개발행위를 규제받고 있다. 완충구역 또한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 완충구역에는 산, 강, 하천, 경작지,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유산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유산으로부터 일정범위(500m)까지의 건축행위를 단계별로 규제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보호·관리하고 있다.

신청유산 중 4개의 서원은 유산구역 안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유지 현황은 소수서원 3필지(하천 1, 논 1, 과수원 1), 도산서원 3필지(산 3), 도동서원 3필지(밭 1, 도로 2), 무성서원 1필지(대지 1)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 사유지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개발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청유산의 유산구역에 대한 토지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소유권 현황 * 단위(ha)

구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전체	사유지 현황			
	국가	문중+유림	개인		필지	필지현황		개발가능성
소수서원	2.40	13.96	0.80	17.16	3	1	하천	없음
						1	논	
						1	과수원	
남계서원	2.78	1.33	0	4.11	-			
옥산서원	1.50	4.94	0	6.44	-			
도산서원	18.00	17.55	1.18	36.73	3	1	산	없음
						1		
						1		
필암서원	0.67	0.71	0	1.38	-			

구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전체	사유지 현황		
	국가	문증+유림	개인		필지	필지현황	개발가능성
도동서원	0.46	1.83	0.03	2.32	3	1 발 2 도로	토지 매입예정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병산서원	16.78	13.30	0	30.08	-		
무성서원	0.10	0.72	0.02	0.84	1	1 대지	없음 (무연고자)
돈암서원	0.12	3.31	0	3.43	-		
합계	42.81	57.65	2.03	102.49	10	하천(1), 논(1), 과수원(1), 산(3), 밭(1), 도로(2), 대지(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행위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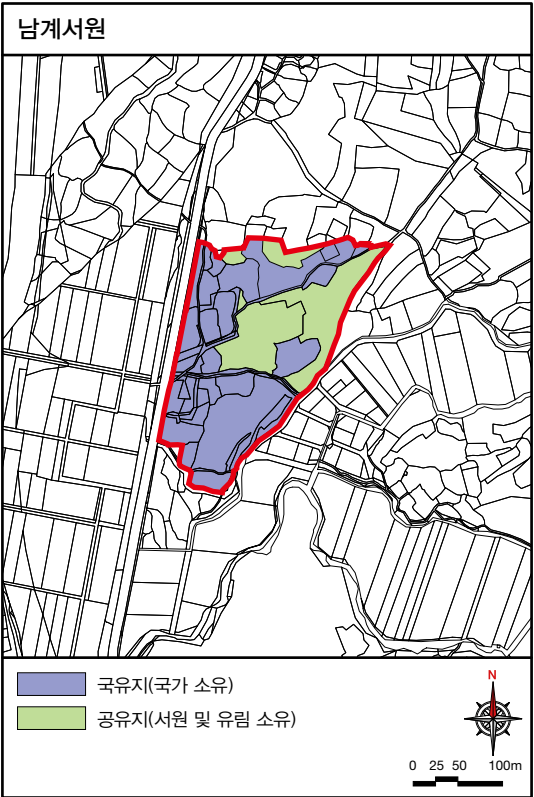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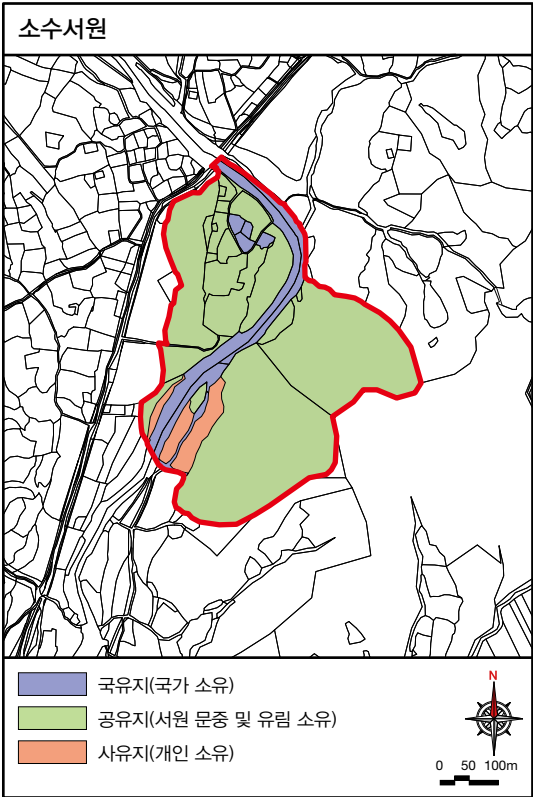


그림 5-1. 신청유산 토지소유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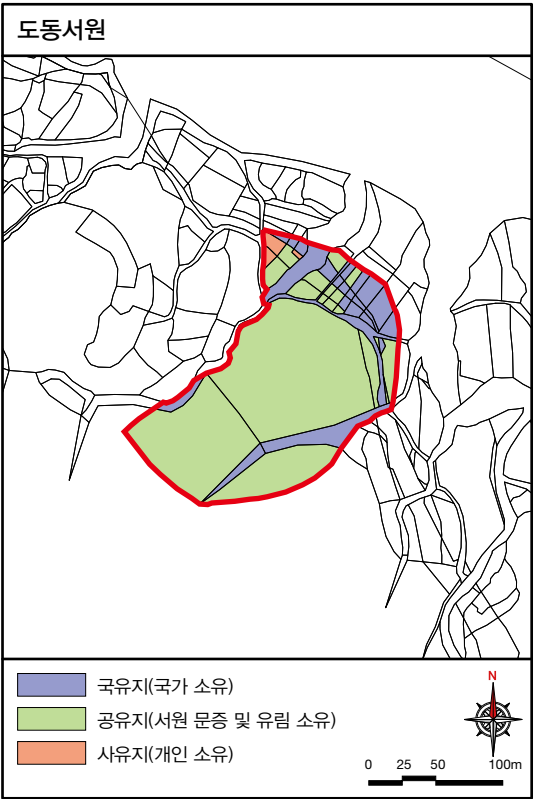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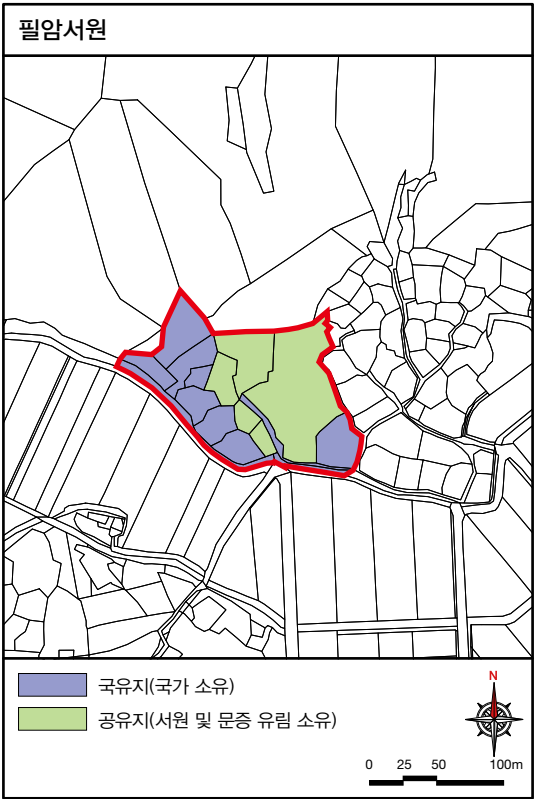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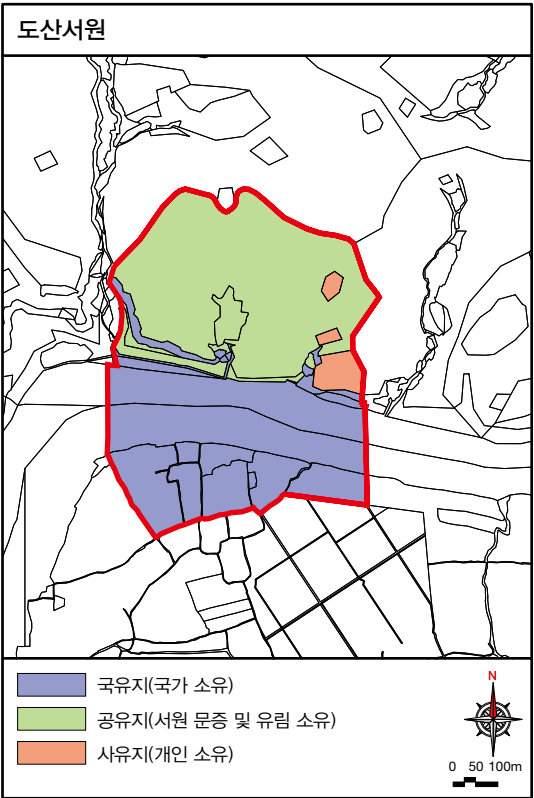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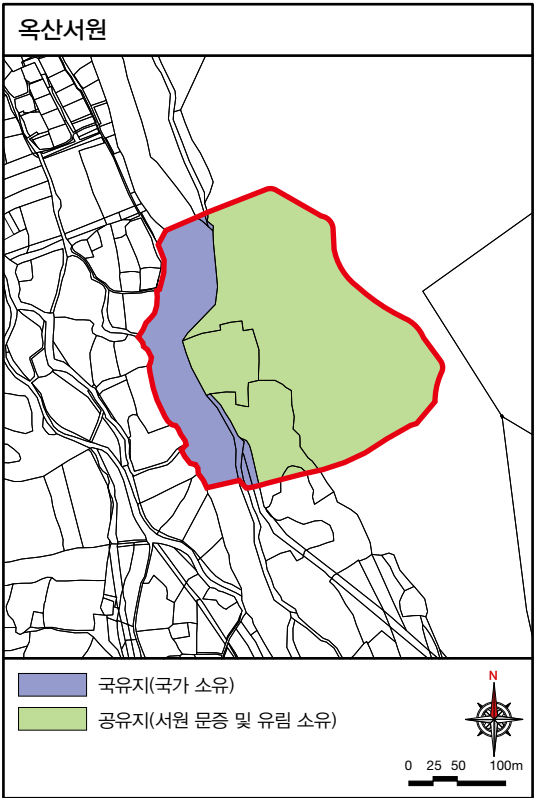


그림 5-2. 신청유산 토지소유 현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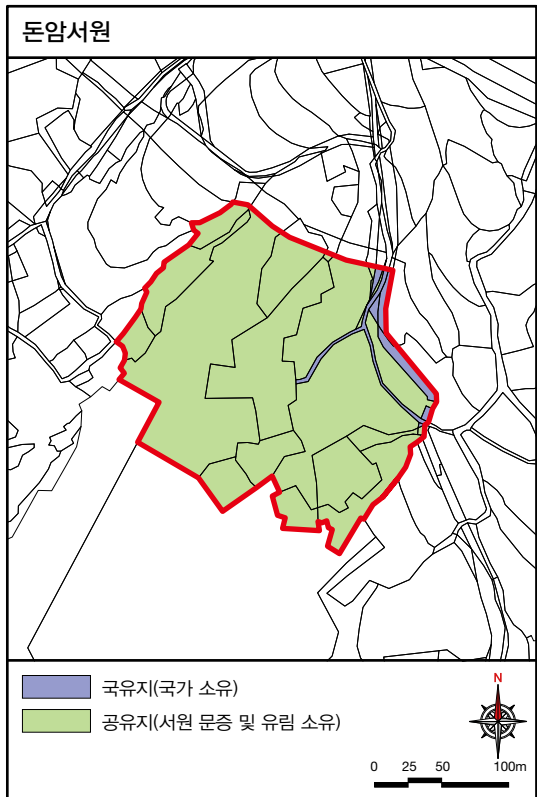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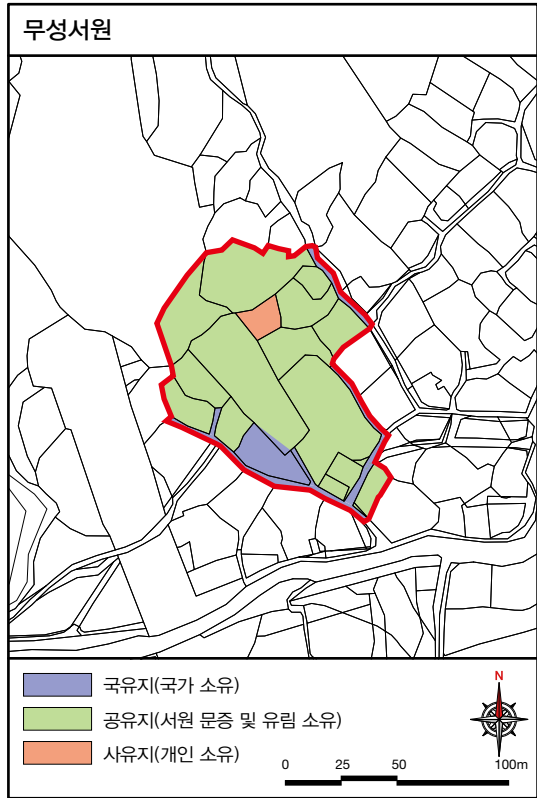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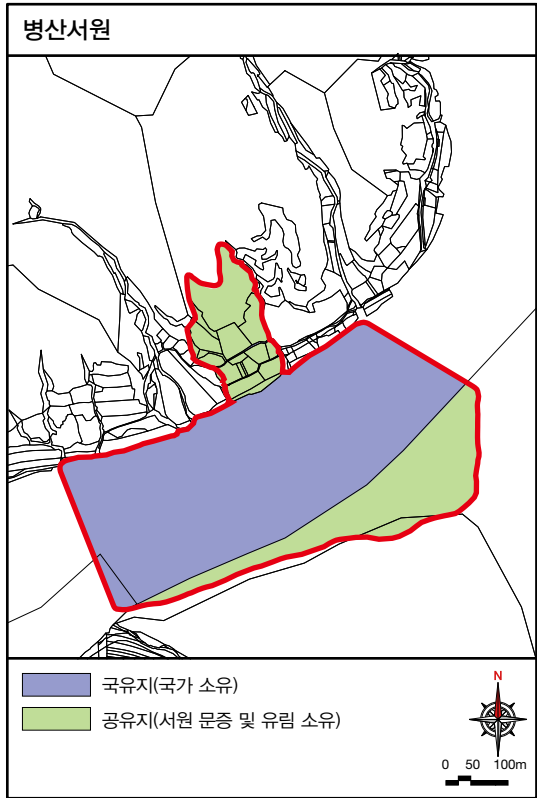


그림 5-3. 신청유산 토지소유 현황(3)

5.b 보호지정

신청유산의 경계는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유산구역의 경계는 평지의 경우 주변 조망과 토지이용(지적경계 및 소유권) 상태를, 산지의 경우 가시권의 경계를 이루는 능선을 고려하였다. 완충구역은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를 위해 유산구역과 인접한 산, 강, 하천 등과 같은 자연지형 경계물, 마을 거주 지역, 마을의 농지 경계 등과 같은 인문적 경계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지역을 경계로 하였다.

신청유산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위의 원칙과, 다음 표와 같이 각 서원의 가치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표 5-2.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특기사항

구분	유산구역	완충구역
소수서원	취한대와 경자 바위, 산자락 포함	자연지형 및 지적경계 고려
남계서원	서원 북측에 접한 활용시설도 포함(경사지형 고려)	서원 서측에 흐르는 남계 포함
옥산서원	주변조망, 지적경계, 소유권, 가시권 고려	-
도산서원	시사단 포함(사림활동의 증거)	자연지형 및 지적경계 고려
필암서원	주변조망, 지적경계, 소유권, 가시권 고려	경관보호를 위해 누각 전면의 하천과 주변 농경지 포함
도동서원	군도 경계선 포함(서원 전면으로 주차장 이전)	서원 전면 경관보호를 위해 낙동강과 그 너머의 야산을 구역에 포함
병산서원	낙동강과 병산 포함(서원과 일체화된 경관보호)	-
무성서원	지적경계, 소유권 고려	지역마을과 사림의 향촌활동을 고려
돈암서원	지적경계, 소유권 고려	자연지형 및 지적경계 고려 : 주변경관 저해요소(공장 및 주유소)등 제외

신청유산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또한 사적 안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조물인 부동산문화재와 초상화 및 고문서와 같은 동산문화재 역시 별도로 ‘국보’ 또는 ‘보물’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신청서원 중 일부 서원과 연관된 학자수(은행나무)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표 5-3. 한국의 문화재 분류 체계

구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주요 민속문화재
	보물				
시·도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시·도지정 기념물			시·도지정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				
등록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외				

표 5-4. 신청유산의 지정문화재 현황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소수서원	국가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부동산	1963.01.21.
		국보 제111호	안향 초상	동산	1962.12.20.
		보물 제1402호	소수서원 문성공묘	부동산	2004.04.06.
		보물 제1403호	소수서원 강학당		2004.04.06.
		보물 제59호	숙주사지 당간지주		1963.01.21.
		보물 제485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동산	1968.12.19.
		보물 제717호	주세붕초상		1981.03.18.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8호	서충대친림 연회도	동산	1988.09.23.
		유형문화재 제330호	명종 어필 '소수서원' 현판		2001.11.01.
		유형문화재 제331호	소수서원 소장 판목		2001.11.01.
	영주시	보호수(11-28-7, 8-14)	은행나무(500년)	부동산	1982.10.26.
남계서원	국가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부동산	2009.05.26.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일두선생 문집 책판	동산	1979.12.29.
		유형문화재 제167호	개암선생 문집 책판		1979.12.29.
옥산서원	국가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부동산	1967.03.08.
		보물 제413호	독락당	동산	1964.11.14.
		보물 제524-1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사마방목		1970.12.30.
		보물 제524-2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		2006.07.18.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1970.12.30.
		보물 제526-1호, 2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유목		2006.09.01.
		보물 제586호	이언적 수고본 일괄		1975.05.01.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6-1호	문원공 회재 이언적신도비	부동산	2006.01.02.

서원	종별	지정	명칭	구분	지정일
도산서원	국가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부동산	1969.05.28.
		보물 제210호	전교당		1963.01.21.
		보물 제211호	상덕사 및 삼문		1963.01.21.
		보물 제522호	도산서원도	동산	1970.08.27.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	시사단	부동산	1973.08.31.
필암서원	국가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부동산	1975.04.23.
		보물 제587호	필암서원 문적일괄	동산	1975.05.01.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15호	필암서원 하서선생 문집목판		1999.07.05.
		유형문화재 제216호	필암서원 하서유목 목판 일괄		1999.07.05.
도동서원	국가	보호수(704)	은행나무(200년)	부동산	1982.12.03.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2007.10.10.
		보물 제350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우 담장		1963.01.21.
병산서원	국가	보호수(3-9)	은행나무(400년)	부동산	1982.10.29.
	국가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1978.03.31.
무성서원	국가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부동산	1968.12.19.
		보물 제1181호	태인 고현동향약	동산	1993.11.05.
돈암서원	국가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부동산	1993.10.18.
		보물 제1569호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2008.07.10.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5호	돈암서원 유경사(송례사)		2000.01.11.
		문화재자료 제366호	돈암서원 원정비		2000.01.11.

5.c 보호대책의 시행수단

신청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정책수단을 시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관련 각종 정책 행위들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단체별로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통해 신청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지원의 근거가 된다.

표 5-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호조례

해당 서원	법제		주요내용 및 서원과의 관계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문화재보호법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 국가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및 보존, 관리 * 신청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 이므로 보존·관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
도동서원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남계서원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무성서원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필암서원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돈암서원		충청남도 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을 원래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문화재관리자들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 및 승인하고 관련 규제들을 조항에 포함함으로써 유산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유산종합계획 및 연간계획을 구축하도록 한다. 신청유산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주변 지역의 건축규제를 하고 있다.

5.c.i 문화재보호법

신청유산의 보호는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유형별 문화재에 대한 보존 법령을 별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다. 관련 법률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은 신청유산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수리, 서원에서 행해지는 향사와 같은 의례의 기록 및 보존 등을 위한 제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6. 한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 주요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표 5-7. 문화재보호법 주요 내용

구분	문화재보호법 관련조항	주제	주요 내용
원칙	법 제3조	기본원칙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함
지정	법 제23조~제26조	국가 지정	문화재청장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법 제70조~제74조	시·도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시·도문화재위원회 설치, 경비부담 및 보고, 준용을 규정
	법 제27조 시행령 제13조~제15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법 제19조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관리 주체	법 제34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3조	관리 주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음
보존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7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법 제10조~제11조 시행령 제6조~제7조	문화재 기초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
	법 제16조	전문 인력 및 관련 단체 육성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법 제41조 시행령 제18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 의무
보존의 법적 수단	법 제12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필요한 경비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

구분	문화재보호법 관련조항	주제	주요 내용
보존의 법적 수단	법 제4조 제3항	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 제42조	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문화재의 수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행할 수 있음.
	법 제83조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적법한 보상을 통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법 제35조, 시행령 제23조 법 제38조, 시행령 제27조, 제36조	허가사항 및 허가기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 필요

신청유산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문화재구역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히 문화재구역 내에서의 어떠한 현상변경 행위도 계획단계부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근거하여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도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한다. 다만,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라도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 지정고시 이후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일반인들에게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전문가들과 공무원,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적정한 대안을 만들어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고시 이후에는 일반인 누구나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gis-heritage.go.kr/board/boardAnnPerList.do>: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문화재명 검색)를 통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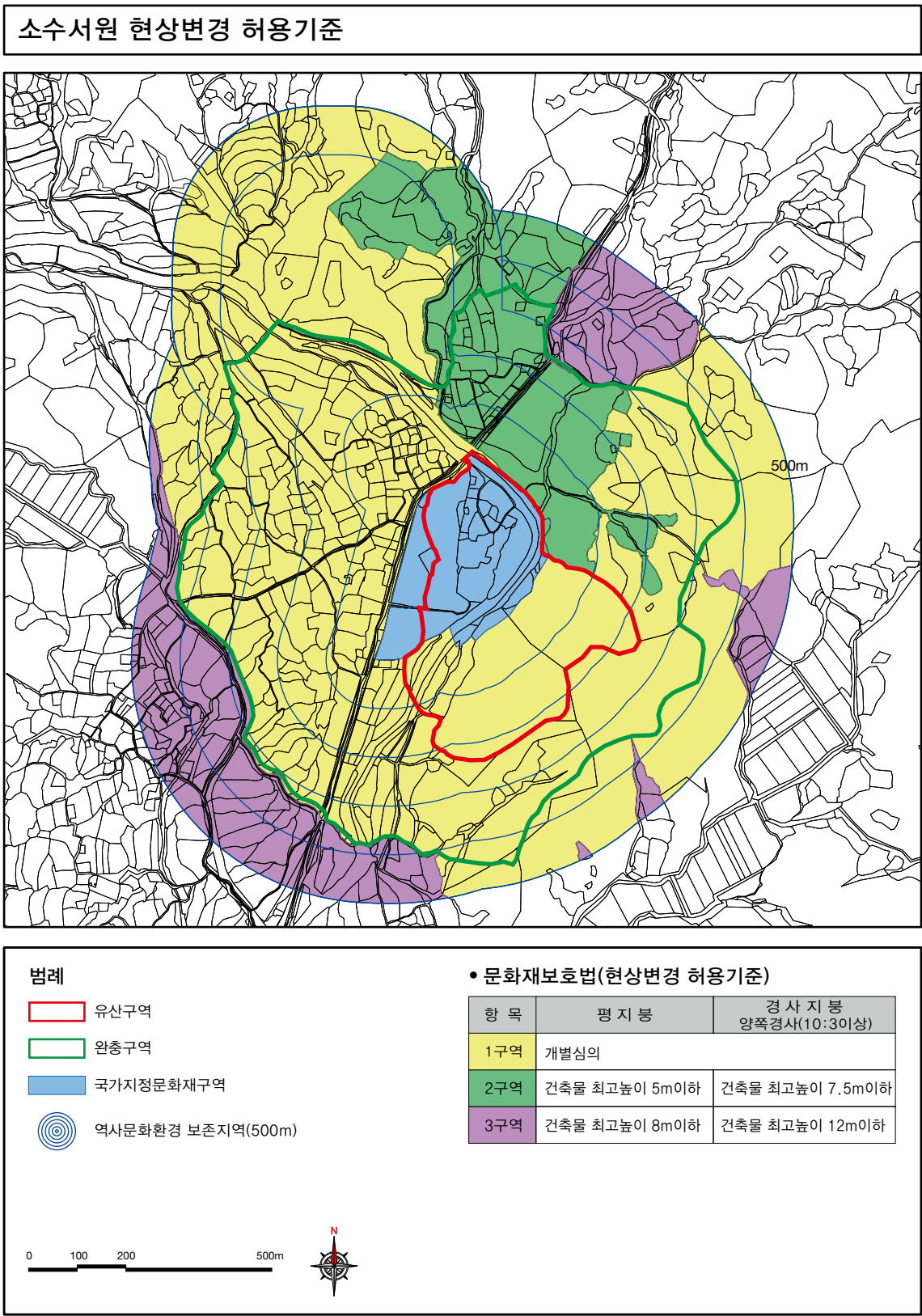


그림 5-4. 소수서원 경계구역 법적 규제 내용

남계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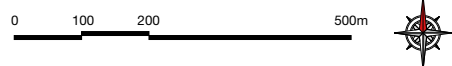
- 유산구역
- 완충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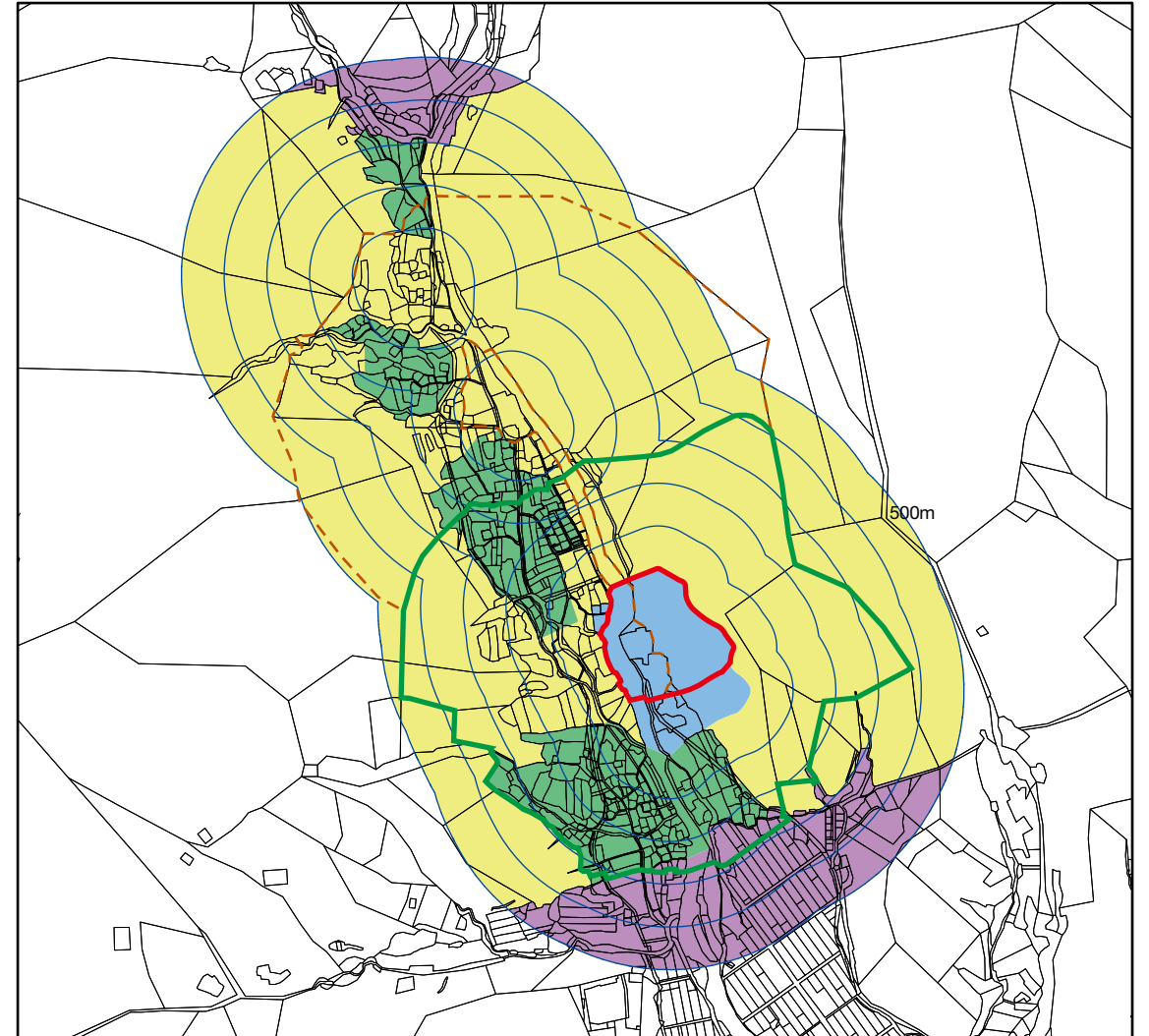
항 목	평 지 분	경 사 지 분 양쪽경사(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농가 참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농가 참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5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함양군 계획조례

항 목	계획관리지역
5구역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0,000㎡ 미만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옥산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례

- 유산구역
- 완충구역
-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경계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 허용기준)

항 목	평 지 분	경 사 지 분 양쪽경사(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항 목	생산관리지역
3구역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0,000㎡ 미만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6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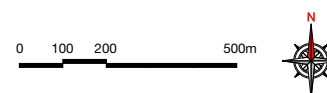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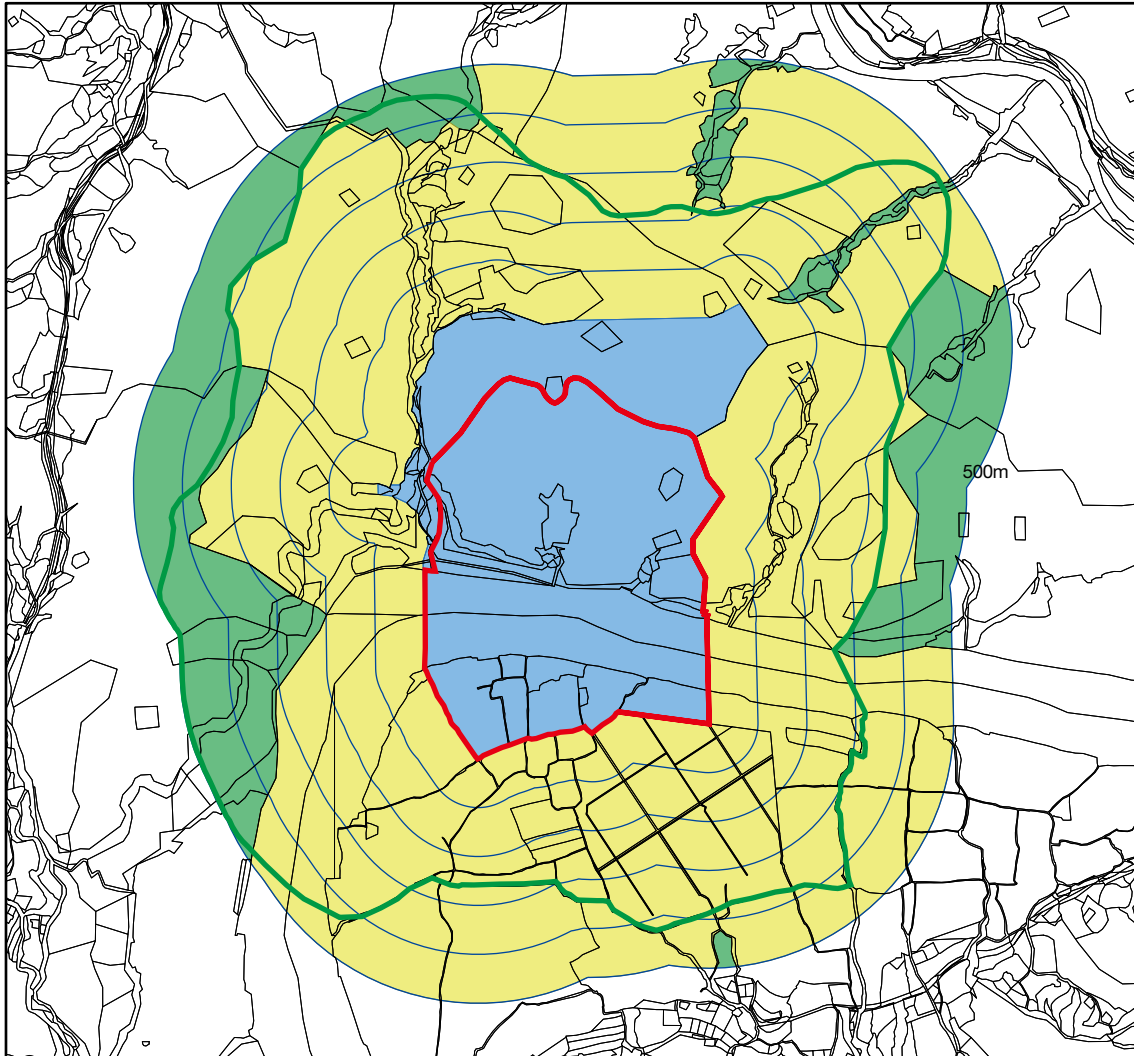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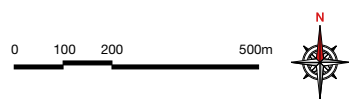
그림 5-5. 남계서원 경계구역 법적 규제 내용

그림 5-6. 옥산서원 경계구역 법적 규제 내용

도산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 범례**
- 유산구역
 - 완충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 허용기준)

항 목	평 지 붕	경 사 지 붕 양쪽경사(10:3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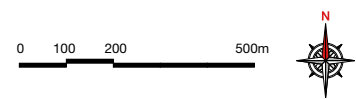
•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항 목	자연환경보전지역
2구역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필암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 범례**
- 유산구역
 - 완충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 허용기준)

항 목	평 지 붕	경 사 지 붕 양쪽경사(10:30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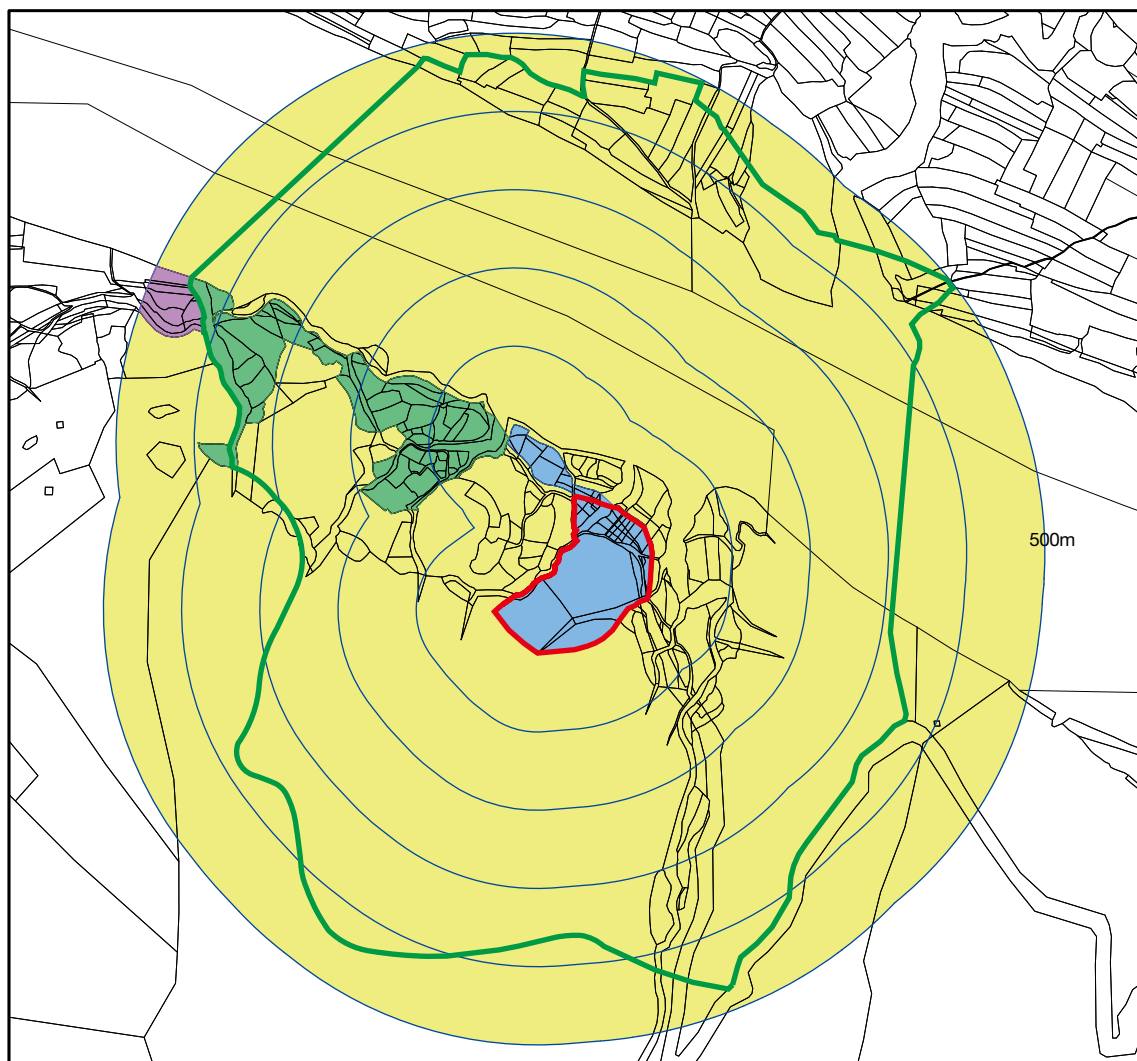
•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항 목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4구역	용도 제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용도 제한

그림 5-7. 도산서원 경계구역 법적 규제 내용

그림 5-8. 필암서원 경계구역 법적 규제 내용

도동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 범례**
- 유산구역
 - 완충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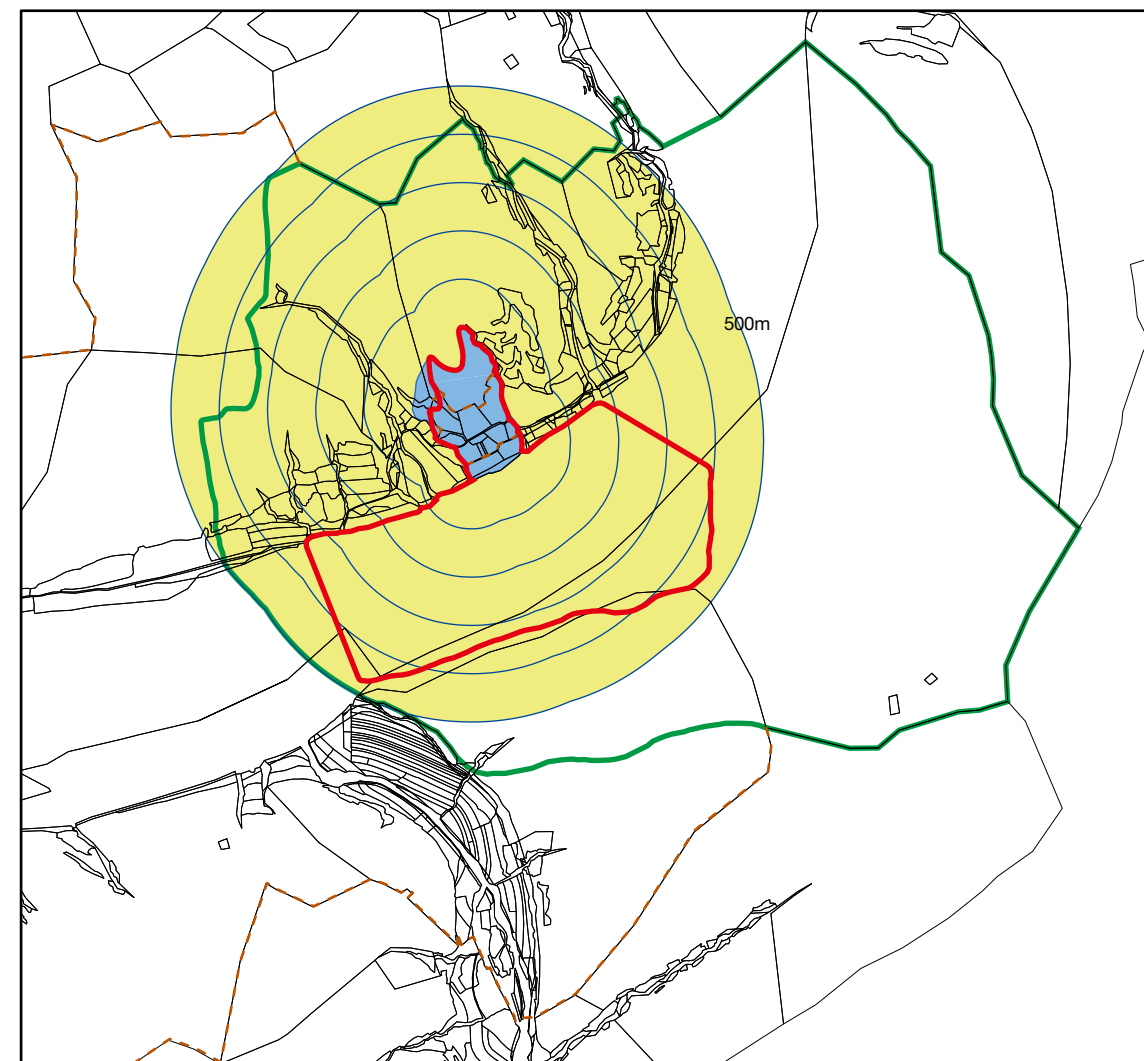
항 목	평 지 붕	검 사 지 붕 양쪽경사(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0 100 200 500m



그림 5-9. 도동서원 경계구역 법적 규제 내용

병산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 범례**
- 유산구역
 - 완충구역
 -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경계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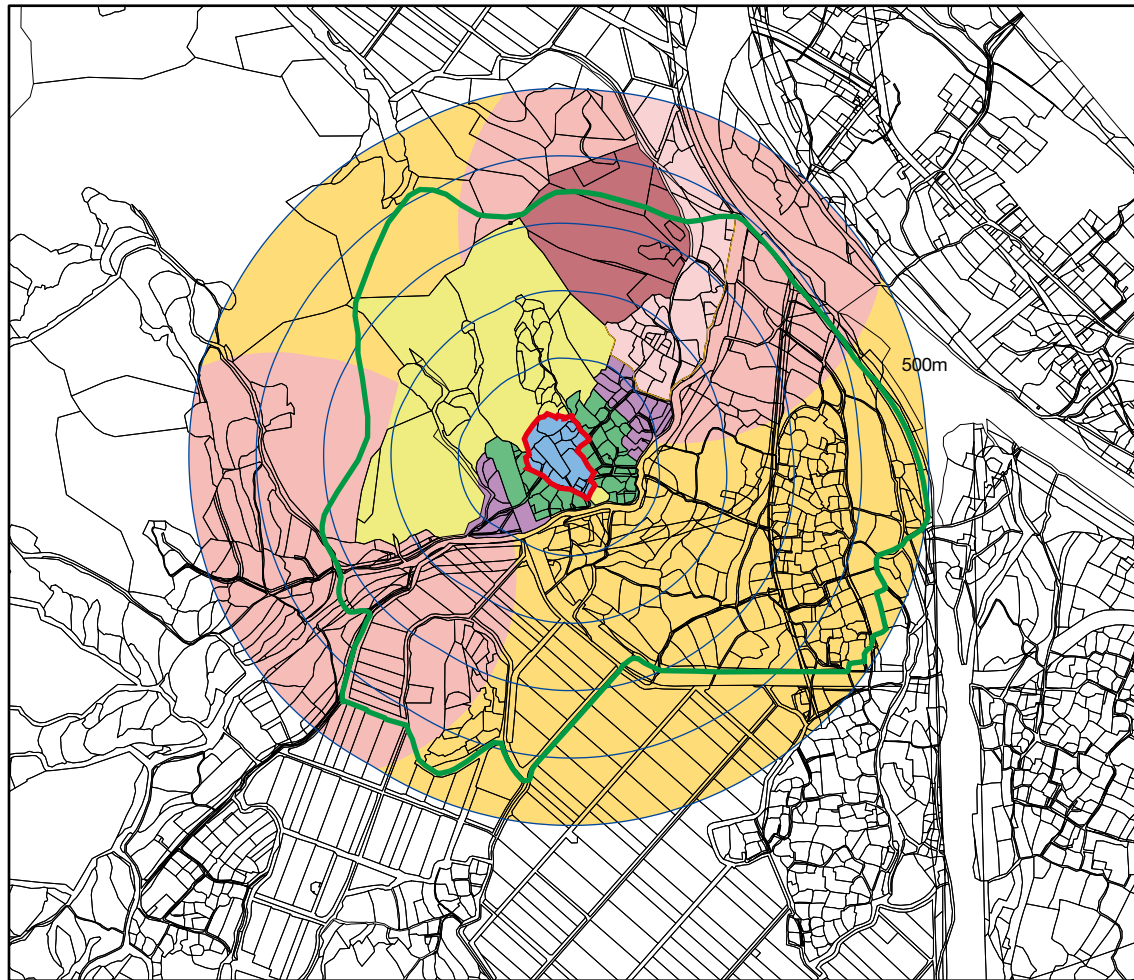
항 목	평 지 붕	검 사 지 붕 양쪽경사(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0 100 200 500m



그림 5-10. 병산서원 경계구역 법적 규제 내용

무성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례

- 유산구역
- 완충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 허용기준)

항 목	평 지 붕	경 사 지 붕 양쪽경사(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4구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5-1구역	보존구역으로 원지형 보존 또는 신축, 증축 불가	
5-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항 목	자연녹지지역
4구역	용도 제한 건폐율 20% 이하
5구역	용적률 10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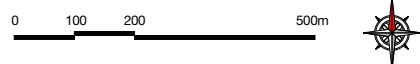


그림 5-11. 무성서원 경계구역 법적 규제 내용

돈암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례

- 유산구역
- 완충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 허용기준)

항 목	평 지 붕	경 사 지 붕 양쪽경사(10:3이상)
1구역	신축불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항 목	
5구역	용도 제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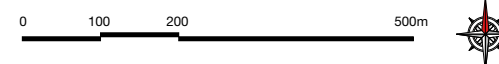


그림 5-12. 돈암서원 경계구역 법적 규제 내용

5.c.ii 기타 관련법

신청유산의 보호·관리에 관련된 법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및 일부 행위제한 등을 다루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산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작은 일부 세부구역에 대해서는 현상변경의 허용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신청유산 중에서 남계서원, 옥산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4개 서원의 완충구역 중 일부 구역은 이러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보호·관리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유산에 대한 자연(태풍, 홍수, 호우, 지진, 대설 등) 및 사회(화재, 붕괴 등)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c.iii 지방조례

해당 지자체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9개 서원을 통합관리 하는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설립에 관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5.d 유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현존계획

5.e 유산 관리계획 또는 기타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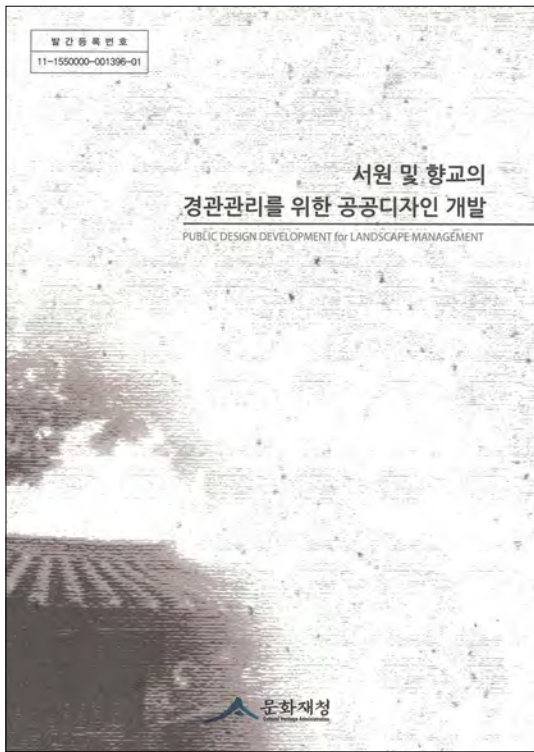
신청유산의 중요한 가치는 각 서원별 구성 요소들이 이루어내는 전체적인 조화에 있다. 신청유산의 관리계획에서는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보존의 목표와 대상을 체계화하고 관리원칙을 수립하였다.

5.e.i 관리계획

신청유산은 각 서원별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각 서원별 보수정비, 서원의 경관 관리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 신청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서원들에 대해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전문기관들을 통해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서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다. 또한 신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과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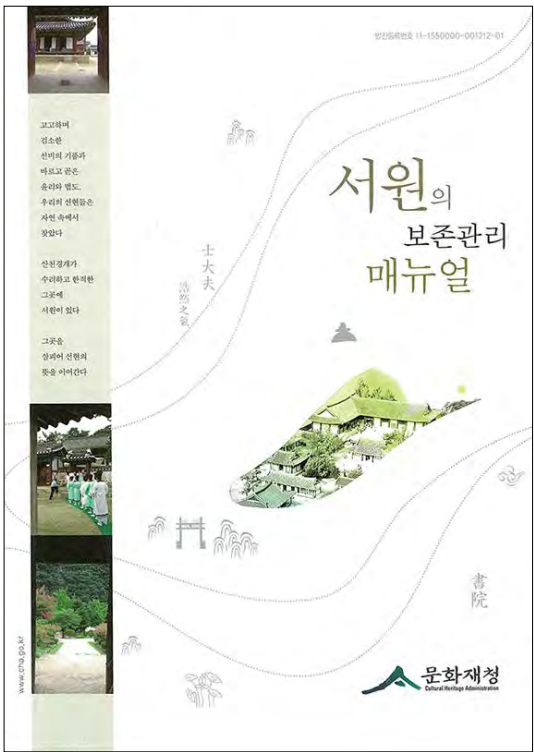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2011)’과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2012)’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다.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은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서원에 대한 이해와 관련법령, 보존·정비 절차, 서원의 건축물 관리, 활용 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은 신청유산 9개 서원에 대해,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관람환경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서원의 품격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침이 제정되면 신청유산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더욱더 체계적인 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예고(2017.1.5.), 의견수렴(~2017.1.25.), 발효(2017.2월)]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개발
(문화재청, 2012)

그림 5-13. 신청유산의 기타 관리계획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문화재청, 2011)

5.e.ii 관리체계

신청유산에 대한 관리체계는 크게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각 서원 조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재 신청하는 모든 서원은 관리단체가 지자체 또는 유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1. 신청유산의 관리주체

1)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신청유산은 9개의 서원들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 문화재청과 서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력을 위한 단체 간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신청유산의 통합관리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준비 등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실무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신청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설립하여, 연속유산으로의 보존·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와 9개 서원 운영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이 구성되어있다. 필요한 제정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서원 운영주체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서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각 서원의 조직

신청유산은 각 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림들로 조직된 단체이다. 각 서원의 운영위원회는 주로 전반적인 서원의 운영과 일상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원에 상주하지는 않고 필요시 서원을 오가며 서원을 관리하고 있다. 각 서원의 운영위원회는 주로 봄·가을 지내는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

신청유산의 일상관리는 크게 정부에 의한 관리와 민간에 의한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서원은 일과 시간과 상주 및 상시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일과시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원이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이거나 일부 고용된 사람들로 출·퇴근을 한다. 그리고 서원 고직사에 상주하는 사람은 일상생활과 서원관리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주로 서원에서 고용된 사람들이다. 또한 각 서원의 운영위원회는 서원을 상시로 오가며 서원을 관리하고 있다.

3) 정부기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신청유산은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와 8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이에 따라 신청유산의 보존·관리는 중앙정부(문화재청)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 관리주체가 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차원의 관리주체로서 신청유산을 구성하는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지닌다. 또한, 국가차원의 문화재 정책 및 관리의 주체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며,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보존·관리 기구를 감독하는 등의 지원 및 감독의 관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는 6개(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관리,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안전 및 소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단위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의 주체로서, 보조금의 지원주체이며 통합기구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하는 등의 지원 및 감독의 관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는 8개(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함양군)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해당서원을 구성하는 개별서원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주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유산의 통합기구인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직·간접적인 지원(예산 등)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관계를 가진다.



그림 5-14. 신청유산 정부기관 업무협약 및 실무기관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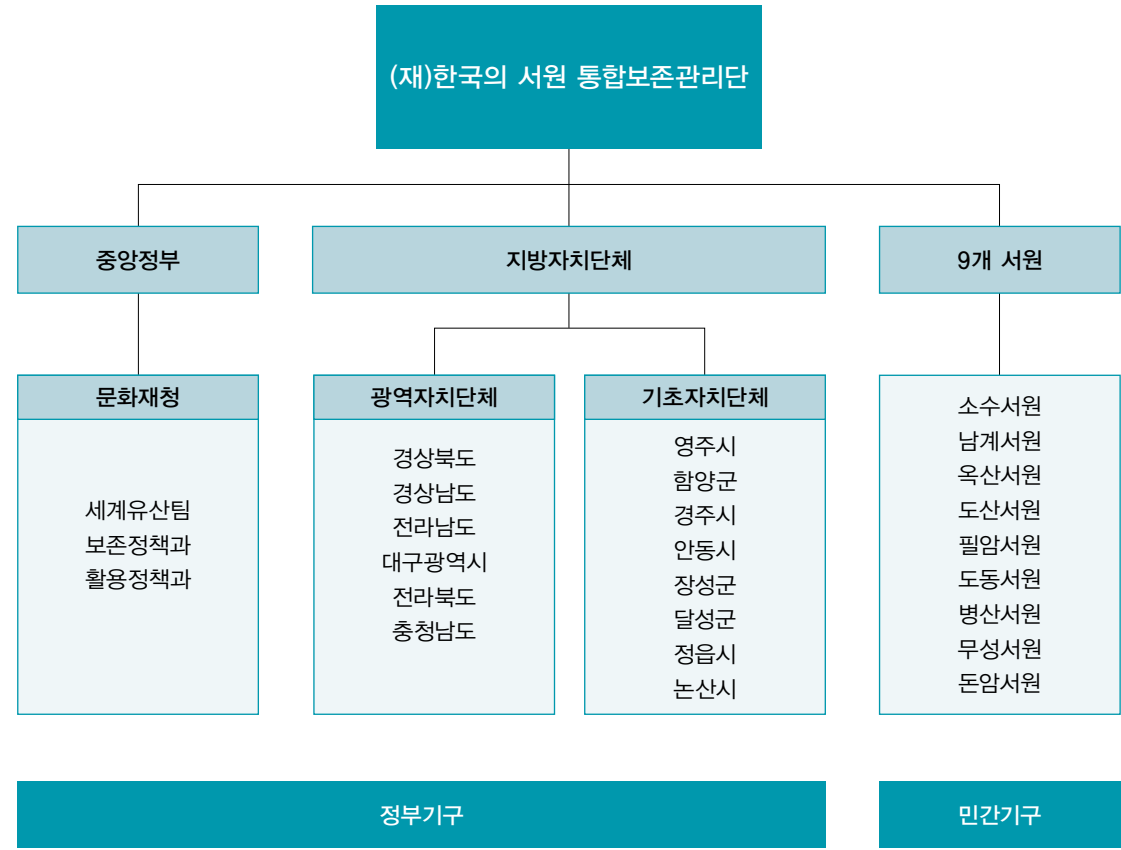


그림 5-15. 신청유산 관리주체 조직도

2. 신청유산의 통합관리

신청유산의 관리와 연속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잘 보존하기 위해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
관리단이 설립되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서원 운영위원회 모두가 이 통합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또한 사무국은 9개 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1) 목적

서원관리단은 주로 연속유산인 서원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세계유
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으며, 현장 관리, 통합관리, 9개 서원 통합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업무의 범주를 확대하여 보존관리, 복원보
수, 모니터링, 대외홍보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속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
다 효율적인 유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리단은 9개 서원 전체 및 개별 서원의 가치에 기
반을 둔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서원의 다양한 가치와 공통된 중요성을 알려 9개 서원만이
아닌 다른 서원에게도 향후 보존관리 및 문화 해설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책자를 제작하고 9개 서
원의 통일된 해설 자료를 제안하며 수업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뿐 아니라 문화해설사를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관리단은 9개 서원의 유·무형 유산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특정 유·무형 요소
의 경우 보존관리 지침서를 마련하며 서원간의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 운영 및 조직

서원관리단은 연속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9개 서원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각 지방
자치단체, 서원 운영자 간의 협의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통합보존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역
할로 하고 있다. 보존관리위원회는 전문위원회, 행정위원회, 9개 서원 운영위원회의 3팀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분기별로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역할을 분배하고, 유형 및 무형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련한 각종
사안을 조정, 시행하고 있다. 한편으로 서원의 통합보존관리는 관리단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
부, 서원 운영자 간의 업무협력체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각 그룹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관리단은 위에서 언급된 통합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9개 서원의 보존관리 업무
를 수행한다. 동시에 관리단은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기획/총무관리, 보존관리, 문화홍보와 관련된 3
개 팀을 운영 중에 있다. 각 부서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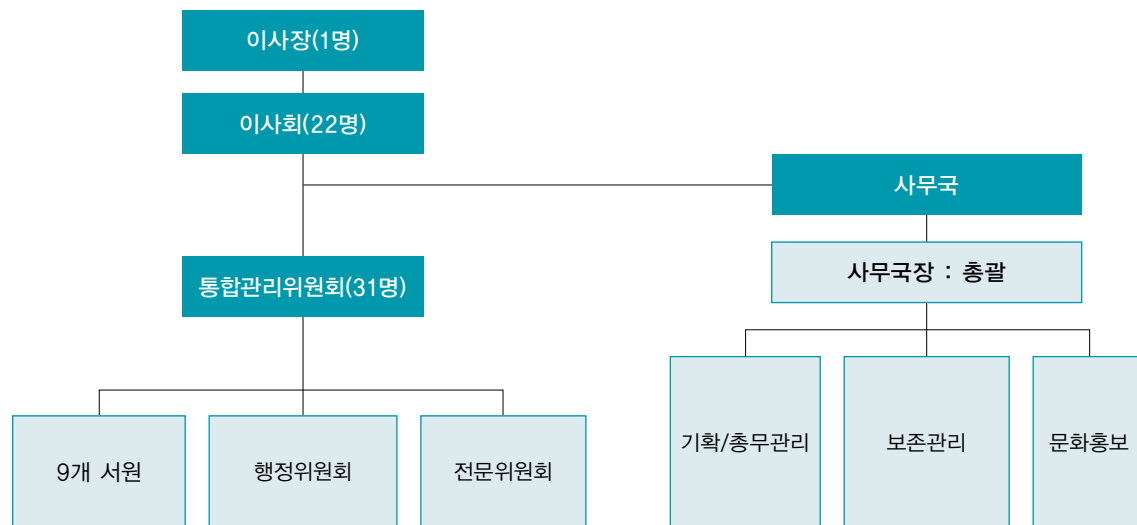


그림 5-16.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조직도

- 사무국장 : 행정위원회 총괄, 사무국 전반 담당
- 기획/총무관리 : 통합관리위원회 관리, 재단 관련 행정 및 재정 전반 수행
- 보존관리 : 각 서원별 통합보존관리, 통합 모니터링 등 제반 업무 수행
- 문화홍보 : 홈페이지, 언론 및 홍보 업무 수행

현재 사무국은 5명(사무국장: 비상근 1명, 직원: 상근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인력은 통합 관리 역할에 비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청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신청유산에 대한 서원의 인적자원, 재정, 필요한 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가? 서원별 보존관리계획이 잘 업데이트되고 있는가? 인적자원의 유지를 위한 참여교육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역할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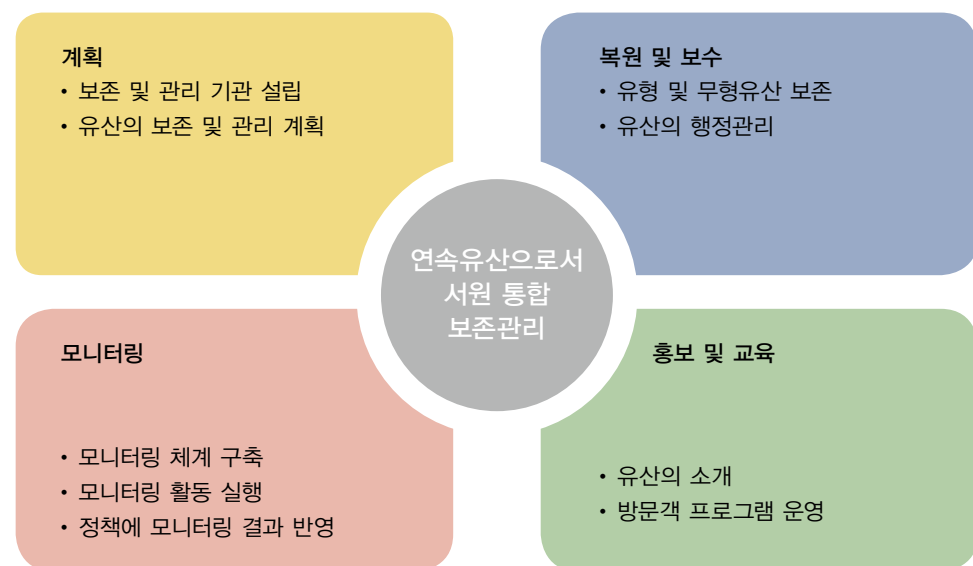


그림 5-17. 연속유산으로서 서원 통합보존관리 다이어그램

5.f 자원 및 재정규모

5.f.i 자원구조

신청유산에 대한 관련 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및 활용홍보 그리고 잠정목록연구지원 사업으로 각각 국고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보수정비 분야는 중앙정부에 의한 국비 지원(70%)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비 및 시·군비 지원(30%)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활용홍보 및 잠정 목록연구지원 분야는 중앙정부에 의한 국비 지원(50%)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비 및 시·군비 지원(50%)이 유산의 보존 및 활용 관련 재정의 주를 이룬다.

신청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문화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이 기관의 관리·운영비는 문화재청과 신청유산이 소재해 있는 6개 광역자치단체, 8개 기초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지며, 인건비 및 경상비, 세계유산 등재 학술연구 사업비, 문화재 관리 및 홍보 관련 사업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신청유산인 9개 서원들은 과거부터 서원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세를 받아 서원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농촌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작세가 줄어들어 서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신청유산 중 소수서원, 도산서원의 경우 서원 시설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취득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서원 사용료를 납부 받고 있으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서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에 나머지 서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서원운영과 관련된 제향 비용 등 일정 금액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서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일정하게 확보되는 예산은 없으나,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수·관리가 필요 할 경우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표 5-8. 자원 구성체계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예산		기타 예산
분야	보수 정비	활용홍보 및 잠정목록연구지원	경작세, 임차료, 기부금 (지출: 제향, 의례, 세금, 기타 행사)
재원 비율	국비 70%, 지방비 30%	도비:시·군비= 50%:50%	

표 5-9.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예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예산		국비		지방비		비고
	연도	합계	총액	연도	총액	연도	총액	
국비	2015	234,000	234,000	2015	234,000	2015	234,000	신청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지원 사업비(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비), 각 도비 및 시·군에서 부담 하는 재정 지원금
지방비	2016	2,970,000	2,970,000	2016	2,970,000	2016	2,970,000	
계	2017	3,204,000	3,204,000	2017	3,204,000	2017	3,204,000	
	소계	3,204,000	3,204,000	소계	3,204,000	소계	3,204,000	

표 5-10. 신청유산의 최근 3년간 보호관리 및 활용홍보 예산 (단위 : 천원)

서원	예산		국비	지방비	
	연도	총액		도비	시/군비
소수서원	2015	625,500	181,250	79,375	364,875
	2016	269,500	66,000	45,450	158,050
	2017	517,600	155,000	61,800	300,800
	소계	1,412,600	402,250	186,625	823,725
남계서원	2015	1,819,685	897,000	262,050	660,635
	2016	991,844	339,850	50,528	601,466
	2017	107,559	70,000	10,050	27,509
	소계	2,919,088	1,306,850	322,628	1,2896,10
옥산서원	2015	528,120	370,000	61,000	97,120
	2016	371,428	240,000	49,428	82,000
	2017	336,743	205,000	50,943	80,800
	소계	1,236,291	815,000	161,371	259,920
도산서원	2015	223,000	0	17,000	206,000
	2016	603,008	310,450	50,665	241,893
	2017	251,500	42,000	16,150	193,350
	소계	1,077,508	352,450	83,815	641,243
필암서원	2015	579,800	366,800	73,900	139,100
	2016	425,000	264,500	58,150	102,350
	2017	461,000	283,700	47,700	129,600
	소계	1,465,800	915,000	179,750	371,050

서원	예산		국비	지방비	
	연도	총액		도비	시/군비
도동서원	2015	581,672	354,636	115,318	111,718
	2016	446,072	239,536	89,768	116,768
	2017	533,600	356,800	88,400	88,400
	소계	1,561,344	950,972	293,486	316,886
병산서원	2015	1,351,400	632,500	93,950	624,950
	2016	507,000	35,000	17,000	455,000
	2017	1,126,200	465,000	74,000	587,200
	소계	2,984,600	11,32,500	184,950	1,667,150
무성서원	2015	240,000	150,000	33,000	57,000
	2016	247,000	130,400	31,800	84,800
	2017	138,600	66,800	28,400	43,400
	소계	625,600	347,200	93,200	185,200
돈암서원	2015	2,898,500	1,125,000	1,053,500	720,000
	2016	4,628,000	1,491,000	1,431,300	1,705,700
	2017	220,000	90,000	27,000	103,000
	소계	7,746,500	27,06,000	2,511,800	2,528,700
합계		21,029,331	8,928,222	4,017,625	8,083,484

다음은 2017년 신청유산과 관련하여 승인된 사업과 예산내역이다. 사업은 유산의 직접적인 보호 관리 예산과 유산의 활용과 홍보에 관한 사업으로 세분되어 있다.

표 5-11. 신청유산의 2017년 투자 예산

(단위 : 천원)

서원	보호관리사업				활용홍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소계
소수	517,600	110,000	164,000	274,000	시설물정비 및 환경미방총, 소나무관리 등	45,000	198,600	243,600
남계	107,559	70,000	29,559	99,559	서재, 동재 번외 보수 및 방재시설관리	0	8,000	8,000
옥산	336,743	160,000	76,143	236,143	전기시설 개선, 배수로 정비 등	45,000	55,600	100,600
도산	251,500	42,000	80,000	122,000	계단, 석축, 화장실, 수목 정비 등	0	129,500	129,500
필암	461,000	238,700	102,300	341,000	노후건물 보수, 수목이식 사업	45,000	75,000	120,000
도동	533,600	315,000	135,000	450,000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41,800	41,800	83,600
병산	1,126,200	435000	201,200	636200	전기, 화장실, 부대시설 등 개선공사	30,000	460,000	490,000
무성	138,600	25,000	25,000	50,000	전기시설 개선사업 등	41,800	46,800	88,600
돈암	220,000	0	40,000	40,000	종합 정비계획 및 시설장비유지	90,000	90,000	180,000
합계	3,692,802	1,395,700	853,202	2,248,902		338,600	1,105,300	1,443,900

5.f.ii 재정계획

신청유산에 대한 예산 투자계획은 신청유산별 해당 보호관리 사업을 고려하여 산출하였고, 재정 계획은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과 각 서원별 예산으로 구분하였다. 큰 규모의 보수정비 사업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에는 2017년에 확정된 예산을 기본으로 하여 연차별 인상률(5%)을 반영하였고, 활용 및 홍보에 대한 예산은 각 서원별 정액으로 반영하였다. 제시된 예산 투자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표 5-12.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향후 3년간 예산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총액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1,564,000	484,000	675,000	405,000	인건비, 경상비, 학술연구용역, 문화재관리, 세계유산 홍보

표 5-13. 신청유산에 대한 향후 3년간 예산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서원	총액	부문					
		보호관리 사업			활용 및 홍보 사업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수	1,631,734	274,000	287,700	302,085	243,600	255,780	268,569
남계	339,080	99,559	104,537	109,764	8,000	8,400	8820
옥산	1,061,583	236,143	247,950	260,348	100,600	105,630	110,912
도산	792,854	122,000	128,100	134,505	129,500	135,975	142,774
필암	1,453,303	341,000	358,050	375,953	120,000	126,000	132,300
도동	1,682,174	450,000	472,500	496,125	83,600	87,780	92,169
병산	3,550,346	636,200	668,010	701,411	490,000	514,500	540,225
무성	436,935	50,000	52,500	55,125	88,600	93,030	97,680
돈암	693,550	40,000	42,000	44,100	180,000	189,000	198,450
합계	11,641,559	2,248,902	2,361,347	2,479,416	1,443,900	1,516,095	1,591,899

5.g 보존·관리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기관

5.g.i 문화유산 전문 교육기관

신청유산의 보호·관리기술은 전통건축, 전통조경, 문화유적(발굴)과 단청미술 등 문화재의 물리적 환경을 수리·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유산의 보호·관리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의 제공과 교육은 문화재청과 공공기관에서 주로 담당한다. 문화재 수리에 있어 경미한 수리를 제외한 이외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유산의 실질적인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서원 관리사무소 직원, 보존·수리전문가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4. 문화재 보호·관리 전문가 훈련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구분	기관명	과정	대상	교육 및 훈련내용
중앙 부처	문화재청	문화재관리과정	지자체 방재 분야 행정 학예직 공무원	문화재 전문지식과 관리업무 능력 향상 목적 1988년부터 매년 실시. 2008년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연수과정으로 통합 운영.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지자체 문화재 수리분야 지도·감독업무 수행 기술직 공무원	문화재 보존 기술 관련 업무 수준을 제고하는 과정으로 1978년부터 매년 실시. 2008년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연수과정으로 통합 운영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 보존수리 관리인력(돌보미, 돌봄단체)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존 관리시스템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적. 2010년 문화재상시관리활동에서 2013년 사업명 변경. 민간 중심 문화재 예방관리 실행구조 확보. 돌봄교육(문화재수리기능자과목, 모니터링과목, 기본교육 등). 2018년 중앙문화재돌봄지원센터(특수법인) 신설 예정.
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 지식포털	문화재청 관련 공무원, 전문연구자, 보존수리종사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고, 미술, 건축, 보존, 복원, 자연문화재, 안전방재 관련 연구정보 제공. 중앙 및 지방문화재연구소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급 및 재교육을 실시.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전문교육 (전통예능) 과정	문화재청 관련 공무원, 전문연구자, 전승자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지원, 조사연구, 학술연구, 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구분	기관명	과정	대상	교육 및 훈련내용
대학교	국립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4년제 대학과정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과 문화재의 보 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 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 성 목적 개교(2000년). 7개학과(전통건 축학, 전통조경학, 문화재보존과학, 문 화재관리학, 전통미술공예학, 무형유산 학, 융합고교학) 설치 운영. 문화재 보존 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능력 및 문화재 보 호·관리를 위한 전문지식의 습득한 전문 인력 양성.
		일반대학원	전통건축, 전통미술 (단청), 문화재관리 분야 전문학술연구자	문화재 분야 중 전통건축학, 전통미술 공예학, 문화유산융합학 3개 분야의 학 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3년 설립 운영.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 문화재복 원 실무전문가	문화재의 보존·수리·복원에 관한 실무능 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3년 설립 운영. 문화재수리전공, 문 화재복원전공의 2개 세부전공으로 구성.
		전통문화교육원 프로그램	지자체 문화재 관련 공무원, 전문가, 일반인, 외국인	문화재 담당 지자체 공무원(직무교육과 정),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전문가(전문교 육과정), 일반인(사회교육과정), 외국인 (국제교류협력과정)을 위한 다양한 연수 과정 설치(2007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감리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의 보수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가 재 교육 프로그램(2016년 4회 → 2017년 7회).
			문화재수리기능인	문화재수리기능인양성과정으로 단청 등 7개 과정을 기초, 심화, 현장위탁과정 으로 나누어 1년 동안 교육 양성하는 과 정.
협회	문화재 수리협회	현장실무, 행정실무 교육과정	기술교육, 경영교육 지원 문화재수리기술 자 또는 업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하여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 리협회에서 비롯되었으나 2015년 12월 특수법인 문화재수리협회로 변경. 문화 재수리업자의 권익보호와 문화재수리기 술자의 기술향상 목적.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전통건축 부재, 재료, 기술	전통건축 수리 기술 관련 전문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에 의하여 설립하는 문화재청 산하 특수 법인.

문화재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관리 관련 전문지식의 축적과 제공, 전문인력 양성, 민간 재교육 및 연구 지원사업 등 3가지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첫째, 문화재청 산하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nrich.go.kr/>)을

통해 신청유산을 포함한 문화재의 건축, 보존, 복원, 안전방재 등에 관한 연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전승, 활용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http://www.nuch.ac.kr/)를 설립하고(문화재보호법 제16조), 전통건축학과 문화재보존과학 등 보호·관리 분야와 대학원의 전문가 등 수준별 전문가 양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속기관 전통문화교육원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문화재 담당(기술감독, 관리행정)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일반인, 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민간에서의 문화재수리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은 문화재청이 인정한 특수법인 문화재수리협회(kcpa.or.kr)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청유산 서원을 포함한 전통건축유산의 부재와 재료의 수집 보존과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문화재청 특수법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림 5-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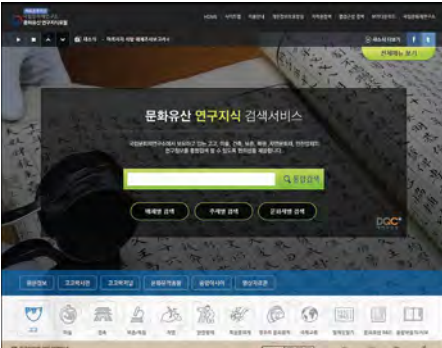


그림 5-19.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청유산의 복원 및 보존 전문 인력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6개 직종(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으로 구성되며,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총 24개 직종(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처리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제 및 표본 제작공, 모사공, 온돌공, 가공석공, 대목수, 목조각공, 석조각공, 훈증공, 온돌공)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모두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을 통해 국가자격시험으로 선발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재수리기술자는 1,632명, 문화재수리기능자는 7,161명이 선발되어 활동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문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보호·보존 등 경미한 보수작업을 위해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들로 구성된 문화재 돌봄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은 신청유산 서원을 포함한 모든 문화유산에 대해서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는 수리·보수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사후 보호 관리업무를, 경미한 보수 위주의 문화재 돌봄사업 참여 인력은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보호·관리업무를 분담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5-15. 문화재 돌봄사업 인력현황(2016년 12월 기준)

(단위: 명)

서원	지역	인력현황				
		총인원	전문인력	일상관리,수리	모니터링	행정인력
소수서원	경북 영주	경북(북부) 38	14	28	5	5
도산서원	경북 안동					
병산서원	경북 안동					
옥산서원	경북 경주	경북(남부) 38	8	28	5	5
도동서원	대구 달성	대구 17	4	9	4	4
필암서원	전남 장성	전남 51	17	41	6	4
남계서원	경남 함양	경남 45	10	36	4	5
무성서원	전북 정읍	전북 39	16	28	5	6
돈암서원	충남 논산	충남 56	19	44	7	5
기타지역		278	64	219	30	29
합계		562	152	433	66	63

5.g.ii 문화유산 전문 연구기관

문화재보호법(제6조의2)에서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재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문화재의 연구개발 <신설 2017.3.21.>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 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원 전문 학술단체와 연구기관은 신청유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더불어 각종 법령 및 제도와 연계하여 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주체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계획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지닌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서원학회 등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www.nrich.go.kr)는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복원하는 국가기관으로 문화유산과 관련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부서는 7개로 구성되어 있고, 5개 지방연구소와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두고 있다. 신청유산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서원에 남아있는 건축문화재의 학술조사와 정기조사, 문화재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국립무형유산원(http://www.nihc.go.kr/)은 무형유산 전시, 공연, 교육, 조사 및 연구 등 보존과 전승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해 무형유산의 활용 및 지원기능을 하고 있으며 4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신청유산과 관련해서는 서원의 제향 및 고문서 등을 담당한다.

한국국학진흥원(http://www.koreastudy.or.kr)은 전통문화유산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전통적 가치관의 교육과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02년부터 국학자료를 수집하여 현재 42만 여 점이 넘는 귀중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신청유산인 서원들에서도 서원이 소장했던 목판, 문집 등을 이곳에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다. 최근까지 목판 10만장 수집 국민운동을 추진하여 2015년 10월 유교책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서원학회(www.ksw2007.or.kr)는 한국 서원문화의 연구·발전과 전승을 위하여 역사·철학·문학·건축·서지학·교육학 등의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원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관점으로 연구발표회와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참여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청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5-16. 신청유산 관련 연구기관

서원	전문지식 연구기관				
	박물관/사료관	정부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기타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국립 문화재 연구소	—	한 국 서 원 학 회	영주문화원
남계서원	함양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함양문화원
옥산서원	국립경주박물관		—		경주문화원
도산서원	안동민속박물관	국립 무형 유산원	한국국학진흥원		안동문화원

서원	전문지식 연구기관					
	박물관/사료관	정부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기타
필암서원	국립광주박물관	국립 문화재 연구소	—	한 국 서 원 학 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장성문화원
도동서원	국립대구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달성문화원
병산서원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사)서애선생기념사업회	안동문화원
무성서원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정읍시립박물관		국립 무형 유산원		—	—
돈암서원	—		—		—	논산문화원

5.h 방문객 시설과 기반시설

5.h.i 방문객을 위한 문화유산해설사

신청유산은 오랜 시간에 거쳐 변함없이 전승되어온 성리학 문화와 전통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신청유산은 과거부터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으로 인해 방문객이 찾아오는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매표소와 서원에 위치한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는 해설사 건물에서 서원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받는다. 서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지역 내 문화유산 소재지의 거주자, 지역 문화재 연구자, 퇴직 교사, 외국인 가능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 이 과정의 수료자가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설인력의 배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청유산 중 필암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들은 모두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소에 상주하여 서원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은 안내소에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설이 가능한 사람들이 순환하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설이 필요하면 서원 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전화 사전예약을 통해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 다. 각 서원의 문화유산해설사 인원 및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17. 신청유산의 문화유산해설사 현황(1일 상주인원)

서원	인원(명)	해설 언어 및 구성	소속	해설신청
소수서원	3	한국어, 순환(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주시 / 소수서원 관광안내소	054-639-5852
남계서원	1	한국어	함양군 / 남계서원 관광안내소	055-962-9785
옥산서원	1	한국어	경주시 / 옥산서원 관광안내소	054-741-2594
도산서원	2	한국어, 순환(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동시 / 도산서원 관광안내소	054-840-6599
필암서원	0	장성군 문화관광과 요청 시 연계	장성군 해설사 신청	061-390-7241
도동서원	1	한국어, 순환(영어, 일본어)	달성군 / 도동서원 관광안내소	053-616-6407
병산서원	1	한국어	안동시 / 병산서원 관광안내소	054-858-5929
무성서원	1	한국어	정읍시 / 무성서원 관광안내소	063-539-5232
돈암서원	1	한국어	논산시 / 돈암서원 관광안내소	041-746-5403

신청유산은 세계유산목록 등재 시점에 맞춰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서원의 외국어 안내(문화유산해설사) 및 관리자 증원, 편의시설 및 관람 예약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문객 관리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 의해 9개 서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 서원마다 통합안내 브로셔가 구비되어있다. 또한 신청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객 동선과 관광안내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그림 5-20.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문화재청)



그림 5-21. 도동서원 관광안내소 설치 사례

5.h.ii 방문객 현황 및 관련 시설

신청유산 중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은 매표를 통해 방문객 지수가 측정된다. 두 서원의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방문객 중 외국인 입장객을 살펴보면, 소수서원은 외국인 입장객이 총 9,967명, 연평균 1,993명이 방문하였다. 외국인 입장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에 높은 수치를

보이고 2014년 이후 안정되고 있다. 또한 도산서원의 외국인 입장객은 총 27,743명, 연평균 5,549명이 방문하였다. 외국인 입장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2014년에는 4천명 선이었다가 2015년 이후 7천명 선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5-18.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방문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연평균
소수서원	내국인	558,031	584,361	263,456	248,198	255,120	1,909,166	381,833
	외국인	4,237	3,241	584	1,081	824	9,967	1,993
도산서원	내국인	241,765	201,268	247,723	213,897	267,466	1,172,119	234,424
	외국인	4,170	4,737	4,020	7,011	7,805	27,743	5,549

신청유산은 방문객의 편의에 따라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문화재청, 2011)에 제시된 5가지 분류 체계로 방문객 시설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청유산의 방문객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9. 신청유산의 방문객 시설 현황

구분	주차숙박시설	문화교육시설	편의시설	관리·안전시설	정보안내시설
소수서원	○	○	○	○	○
남계서원	○	×	○	○	○
옥산서원	○	○	○	○	○
도산서원	○	○	○	○	○
필암서원	○	○	○	○	○
도동서원	○	×	○	○	○
병산서원	○	×	○	○	○
무성서원	○	○	○	○	○
돈암서원	○	○	○	○	○

1. 주차숙박시설

신청유산에 대한 교통 접근성은 고속도로와 철도를 이용한 광역교통체계를 먼저 고려할 수 있다. 고속도로와의 거리는 도산서원(34km)과 병산서원(14km)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서원들은 모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를 이용할 경우 서원 인근 역에 하차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버스는 각 서원 소재 지자체 버스터미널과 서원 사이를 오가는 일반버스가, 병산서원(1일=3회)을 제외하고 8개 서원에서 모두 30분~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신청유산은 대부분 서원의 입지 특성상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원으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편하지만 이점이 오히려 방문객 관리와 유산의 보호에 이점을 제공해 준다.

신청유산의 숙박시설은 소수서원(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남계서원(체험동), 옥산서원(독락당=증가체험숙박), 도산서원(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필암서원(평생교육관), 도동서원(한옥마을), 병산서원(하회마을=증가체험), 무성서원(태산선비문화관), 돈암서원(한옥마을)이다. 이러한 숙박시설을 통해 서원스테이 등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숙박시설의 수용력을 넘어서는 방문객들은 서원의 유산구역 밖에 위치한 고택, 수련관, 캠핑장 등 공공 및 민간시설을 함께 이용하여 숙박할 수 있다.

신청유산에 대한 주차장 및 숙박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0. 주차숙박시설 현황

구분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주차장	3(145대)	1(45대)	1(20대)	3(195대)	1(30대)	1(19대)	1(40대)	1(15대)	1(30대)
숙박	○	○	○	○	○	○	○	○	○



그림 5-22. 도산서원 주차 관리실



그림 5-23. 도동서원 버스 정류장



그림 5-24. 소수서원 선비촌(숙박)

2. 문화교육시설

문화교육시설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지식과 정신을 해석, 이해, 전승하는 기반 시설이다. 먼저 신청유산 가운데 4개 서원(소수, 옥산, 도산, 필암서원)이 방문객 문화교육시설로 전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소수서원 인근에 위치한 소수박물관은 신청유산의 문화교육시설 중 유일한 영주시 공립박물관으로 2004년 개관하였다. 소장유물은 총 22,246점으로, 이중 623점을 전시하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소장유물은 고서, 고문서, 책판, 현판, 민속품 등이다. 박물관 운영 전담인력은 5명으로 관장(팀장) 1인, 학예사 1인, 관리 3인으로 소장된 문화재의 관리와 박물관 운영을 담당한다. 그러나 소수박물관을 제외한 다른 서원의 전시관들은 대부분 복제물을 전시하고 있고 관리·운영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서원 소유의 중요 유물들은 해당서원이 위치한 지역의 국립박물관 등에 위탁 보관하여 보호하고 있다.

표 5-21. 문화교육시설(전시관) 현황

－ 박물관 및 수장고(학예사 및 전문인력 상시 관리), 전시관(전문인력 상시 관리 없이 누구나 관람)

서원	유형	설립(년)	면적(㎡)	인력(명)	주요유물	핵심시설
소수서원	박물관	2004	4,359	5	－ 국보 제111호 안향 초상화 － 보물 제717호 주세붕 초상화 － 고전적, 고문서 등 22,246점	－ 상설전시실(개방) － 기획전시실(개방) － 수장고(미개방)
	전시관	1982	61		－ 인물 관련 고전적, 고문서 복제물	－ 전시실(개방)
옥산서원	전시관	2010	65	5 (양동역사 마을 관리팀)	－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 서원 소장 전적과 고문서 － 유물과 목판 등 6,300점	－ 전시관(개방) － 수장고(미개방)
도산서원	전시관	1971	232	9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 퇴계 이황 유품 － 고문서류 등 114점	－ 유물전시실 (이전 논의 중)
필암서원	전시관	2008	538	18 (평생교육 센터)	－ 보물 제587호 노비보와 봉심록 － 기증 유물 등 3,795점	－ 유물전시실(개방) － 수장고(미개방)



그림 5-25. 소수서원 박물관



그림 5-26. 옥산서원 전시관



그림 5-27. 필암서원 수장고

특히 소수서원의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도산서원의 선비문화수련원은 서원문화의 원형가치에 대한 이해와 전승을 위한 기반시설(교육, 숙박, 휴게, 전시 등)들을 갖추고 다양한 계층(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기업, 공무원 등)을 대상별로 나누어 풍부한 서원문화프로그램[서원답사, 유림대화, 의례 교육, 유교강의, 문화체험(활인심방, 서예, 다도 등), 리더십 토론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필암서원의 평생교육관은 선비문화 속 청백리정신에 주목하여 청렴문화 보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이해 전승할 수 있는 기반시설(청렴전시실, 교육, 숙박, 휴게시설 등)로 운영되고 있다.

표 5-22. 문화교육시설(수련원=교육·체험시설) 현황

서원	명칭	설립(년)	면적(㎡)	시설 내용
소수서원	선비촌	2004	57,719	－ 체험시설 : 민속마을 및 저작거리 － 숙박시설 : 고택체험(초가집, 기와집)
	한국선비문화수련원	2008	60,395	－ 교육시설 : 세미나실(회의실) － 숙박시설 : 한옥체험
남계서원	서원 문화체험시설	2015	560	－ 교육시설 : 세미나실(회의실) － 숙박시설 : 한옥체험
도산서원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2002	4,615	－ 선비정신 교육장(회의실, 교육실) － 숙박시설 : 현대식

서원	명칭	설립(년)	면적(m²)	시설 내용
필암서원	평생교육관	2010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 예절교실, 서예실 - 숙박시설 : 현대식
무성서원	태산선비문화사료관	1998	2,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 전시실, 시청각실 - 숙박시설 : 주변 한옥체험 및 태산선비문화관
돈암서원	예학관	2019	1,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 유물전시관 및 방문자센터(개원 예정) - 숙박시설 : 한옥마을



그림 5-28. 소수서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그림 5-29. 남계서원 한옥 체험동



그림 5-30. 돈암서원 한옥마을

3.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장소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람피로와 생리욕구를 해결하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늘시령과 벤치는 대부분 현지상황에 맞게 조망과 휴식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여 앞으로의 입장객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음수대, 매점(자판기 포함), 휴지통, 화장실은 교육유산인 서원의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관 디자인을 조정하고 대부분 경외 주차장 주변과 진입부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입장객 수요 증가 시 인근 마을과 교육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표 5-23. 편의시설

편의시설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그늘시령/파고라	○	×	×	○	○	○	×	○	×
벤치/평의자	○	×	○	○	○	○	○	×	○
음수대	○	×	×	○	○	○	○	×	○
매점/자판기	○	×	×	○	×	×	×	×	×
휴지통	○	○	○	○	○	○	○	○	○
화장실	○	○	○	○	○	○	○	○	○
휠체어/유모차	○	×	×	○	×	×	×	×	×
응급 의약품	○	○	○	○	○	○	○	○	○

이 밖에도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와 응급 의약품 등은 일부 서원의 관광안내소나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그러나 서원의 입지 특성상 대부분이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위치해 있고 바닥 또한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서원들에서는 휠체어의 사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탐방객들의 보행 환경과 탐방로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포장 재료를 달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4. 관리·안전시설

신청유산은 관리사무소가 서원별로 운영되고 있다. 소수서원, 남계서원, 도산서원은 독립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옥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은 서원 경내 건물인 고직사 또는 유물전시관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매표소는 유료 관광지인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소수서원은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2007)’, 도산서원은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1995)’에 각각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방문객 및 유산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주 관리인이 매일 서원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또한 각 서원에서 방문객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근 소방서(119 안전센터 및 지역대)에서 15분 이내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표 5-24. 관리·안전시설 현황

구분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관리사무소(부스)	○	○	○	○	○	○	○	○	○
매표소	○	×	×	○	×	×	×	×	×
상시 순찰(경비원 등)	○	○	○	○	○	○	○	○	○

5. 정보안내시설

문화유산의 디지털 정보안내(웹페이지, 모바일어플)는 방문 전 또는 방문 중에 해당유산 정보와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또한 신청유산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먼저 방문자들에게 제공되는 안내지는 여전히 관람자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정보제공 매체이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은 방문객들에게 1차적인 정보 제공 시설이자 서원 경내의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경관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재 안내판은 대상 문화재를 설명하는 해설문을 담고 있는 해설 안내판과 관람 동선 상에서 길 안내를 하거나, 금지·주의사항을 알리는 등의 기능성 안내판의 2종류로 구분된다.

현재 신청유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 의해 홈페이지가 국·영문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통합홈페이지에서는 개별서원의 소식은 물론 연계된 프로그램과 함께 세계유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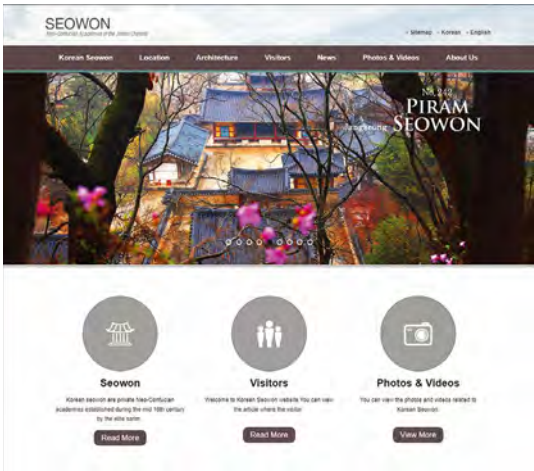


그림 5-31.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웹사이트(영문)

등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현재 신청유산 중 모든 서원이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서원에 비치되어 있는 통합브로셔도 9개 서원에 대한 연계성, 교통 및 숙박, 주변 체류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여 개별 서원을 방문하더라도 연속유산에 대한 서원 정보를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표 5-25. 신청유산 관련 웹사이트 현황

서비스명(운영주체)	한글사이트(URL)	외국어사이트(URL)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http://www.seowonheritage.org	http://en.seowonheritage.org
(사)한국서원연합회	http://www.seowonstay.com	없음
소수서원(관리사무소)	http://seonbichon.yeongju.go.kr	없음
도산서원(안동시)	http://www.dosanseowon.com	영어, 중국어, 일본어
병산서원(안동시)	www.byeongsan.net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돈암서원	http://donamseowon.co.kr	없음
QR코드 문화유산정보서비스(문화재청)	http://m.cha.go.kr/qr/index.jsp	없음
나만의 문화유산(문화재청)	모바일 앱	영어, 중국어, 일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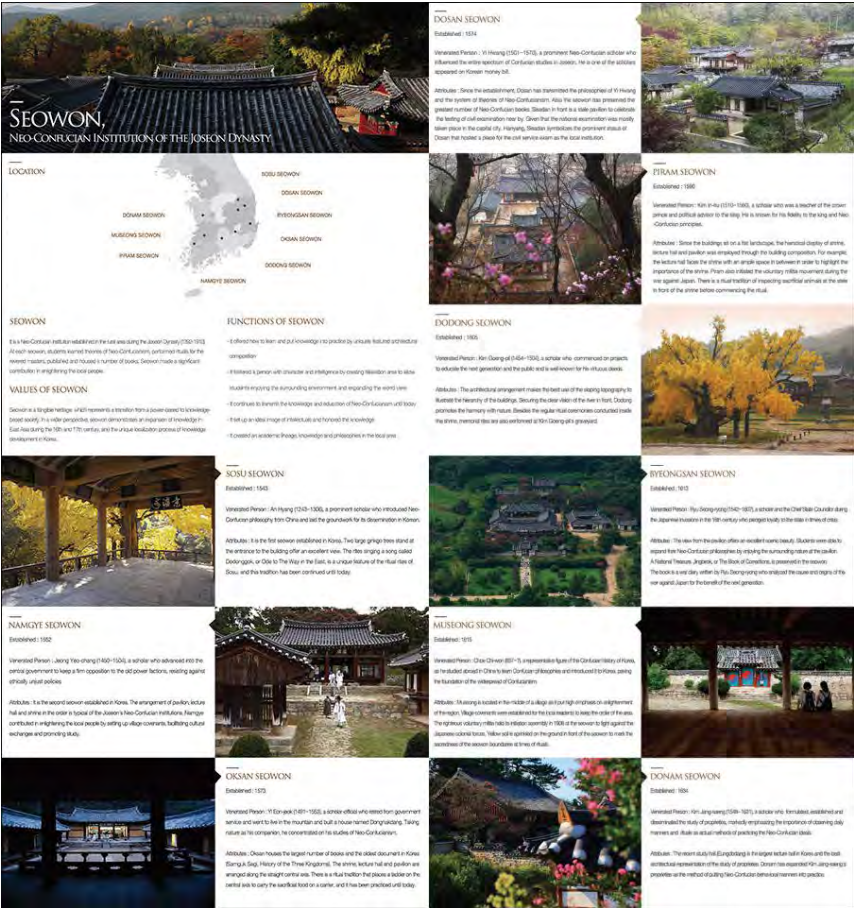


그림 5-32. 신청유산 통합 브로슈어 (영어)

표 5-26. 신청유산별 홍보자료 현황

서원	명칭	언어	비치장소
소수서원	소수서원 선비여행	한국어	관광안내소, 매표소, 소수박물관, 선비촌 매표소
	선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소수서원	한국어	관광안내소, 소수박물관, 관리사무소
	선비의 고장 영주, 그 고품격 선비문화를 찾아서	한국어	
남계서원	선비문화탐방	한국어	관광안내소
옥산서원	경주길라잡이	한국어·영어	관광안내소
	관광경주	중어·일어	
도산서원	도산서원	한국어·영어·중어·일어	매표소, 관광안내소
필암서원	500년만의 만남, 하서 김인후 선생	한국어	강당, 평생교육센터
	필암서원	한국어	
도동서원	도동서원	한국어·영어·중어·일어	관광안내소
병산서원	하회마을(병산서원 포함) 관광안내	한국어	관광안내소
무성서원	무성서원	한국어	관광안내소
돈암서원	돈암서원	한국어	관광안내소



그림 5-33. 도산서원 홍보 리플릿(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표 5-27. 신청유산 안내판 현황

구분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종합안내판	○	○	○	○	○	○	○	×	○
권역안내판	○	○	○	×	○	○	○	○	×
개별안내판	○	○	○	○	○	×	○	○	○
길찾기안내판	○	×	○	○	○	○	○	○	○
기능성안내판	○	○	○	○	○	○	○	○	○



도산서원 종합안내판



돈암서원 개별안내판



필암서원 길찾기안내판



소수서원 기능성안내판

그림 5-34. 신청유산 문화재 안내판 유형

5.i 유산의 소개와 홍보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유산의 활용은 유산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활동이다. 또한 활용을 통해 유산에 대한 지역 사회와 방문객들의 이해와 관심이 증진됨으로써 유산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활동에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신청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각 서원의 문중 조직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소개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프로그램은 신청유산의 현대적 가치를 해설하고 홍보하여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다. 각 서원의 문중은 지역인사, 민간단체, 정부와 협력체제(governance)를 이루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연속유산의 가치에 부합되는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맞는 홍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최근 모바일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원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연동한 서원 탐방 서비스, 서원에 대한 정보, 사진, 영상,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음성해설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시민들과 문화재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재 정보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35. 모바일을 통한 서원 홍보(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역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을 실행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원 활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유산을 포함한 서원의 홍보와 활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홈페이지와 리플릿을 통해 서원에 대한 정보와 해당 지역의 주변지역까지 포괄하는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추진 성과물을 분석하여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던 각 지역의 서원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잠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지역문화 진흥은 물론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전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 교육기능을 담당했던 서원에 현대적

기능을 부여하여 역사 및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장소로 재정립하고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2015년도부터 살아 숨쉬는 서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유산 중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했던 서원은 2015년 6개(소수, 남계, 필암, 도동, 무성, 돈암), 2016년 5개(소수, 도산, 도동, 무성, 돈암) 2017년 5개(소수, 옥산, 도동, 무성, 돈암) 이다. 살아 숨쉬는 서원 만들기 사업은 서원 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체험·관광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 지원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28. 살아 숨쉬는 서원 만들기 사업 지원계획(2018년)

구분	시범육성형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사업기간	1년	2~4년	5년 이상
지원금액	국비 3천만원 이내	국비 5천만원 이내	국비 1억원 이내

현재 각 서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활용 프로그램들은 서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일반인들에게 서원을 알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서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각 서원별 특성과 연속유산으로 서원의 가치가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과 서원의 문중 또는 유림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표 5-29. 신청유산의 소개와 홍보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목표	주요내용
제향	의례 해설 및 체험	각 서원에서 지속되어 온 제향의 의미와 가치 이해	- 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프로그램 - 단순제례 : 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의미 해설체험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강학	전통 교육	각 서원에서 이루어졌던 인성 교육의 전승	- 서원교육 및 학문 활동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 프로그램 - 동·서재에서 기숙하며 학습(시험) - 시대, 인물 연구,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 교육 프로그램 - 고전 강독, 서원 기문, 시문 자료의 조사와 번역
교류와 유식	유적 답사 및 문화 체험	각 서원에서 이루어졌던 사회·문화 활동의 이해와 체험	- 서원 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등 - 각 서원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

5.i.i 제향 프로그램

신청유산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제향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제향전통의 핵심은 선현 답기의 학습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서원 배향자의 뛰어난 학문과 올바른 인격을 추모하는 제향의례는

중요한 행위이다. 신청서원은 이들 의례를 통해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시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제향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서원의 제향은 각 서원에서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봄·가을에 봉행한다. 향사의 절차는 지역마다 혹은 서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향사 준비, 향사 시작, 향사 마무리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향사 준비 : 제향의 시작은 서원 임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된다. 향사 진행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임무를 작성하여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낸다. 그리고 향사에 사용될 음식과 행사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향사 시작 : 향사 시작 30분전에 모든 제관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집사나 관리인은 사당 문을 열고 제상 좌우에 놓은 축대에 불을 밝힌다. 향사는 집례가 향례의 진행 순서를 적은 홀기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향사 마무리 : 향사가 끝나면 향사가 잘 치러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제사공문을 행한다. 참가자들은 음복 식사를 한다. 그리고 행사에 쓴 제물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분조 의식 후 향사가 끝이 난다.



그림 5-36. 신청유산 춘추향사제 절차

신청유산은 근대교육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강학기능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제향기능은 현재까지 모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원의 가치 지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년 중 여러 시기에 진행되나, 봄·가을에 진행하는 춘추향사가 가장 큰 행사로 신청유산은 다음과 같이 모두 춘추향사를 유지하고 있다.

제향 행사는 서원 고유의 의식이지만 현대에 들어 신청유산 모든 서원에서 일반인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들은 서원 관계자(문중 및 유림)에게 신청 후 해당서원의 임원 회의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서원 관계자들은 제향 행사의 주체로서 행사를 이끌어 가고 일반 참여자들은 행사의 보조자 역할로 참여하여 90분 내외의 제향 의식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제향 의식의 절차와 엄숙함, 그리고 서원 마다 행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가 서원별로 동일하지는 않다.

표 5-30. 서원 제향 전통 지속프로그램 현황(춘추향사제)

구분	기간	행사시간	주체	참여자	일반인 참여방법
소수서원	음력 3월, 9월 상정일	오전 10:00~11:30	서원 관계자 (문중 및 유림)	문중, 유림, 일반인	- 참관 : 누구나 가능 - 비용 : 무료 - 행사 참여 절차 사전 예약 신청 ▽ 서원 임원회의 후 참여 여부 및 역할 배정 ▽ 제향 행사 참여 (제복 착용)
남계서원	음력 3월, 9월 상정일	오전 05:00~06:30			
옥산서원	음력 2월, 8월 중정일	오전 02:00~03:30			
도산서원	음력 2월, 8월 중정일	오전 11:00~12:00			
필암서원	음력 2월, 8월 중정일	오전 10:00~11:30			
도동서원	음력 2월, 8월 중정일	오전 05:30~07:00			
병산서원	음력 3월, 9월 상정일	오전 06:00~07:30			
무성서원	음력 2월, 8월 중정일	오전 10:30~12:00			
돈암서원	음력 2월, 8월 중정일	오전 11:00~12:30			

신청서원의 사우에서 행해지는 춘추향사는 일 년에 두 번 뿐이어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기회가 적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알묘례와 같은 행사에 참석하여 춘추향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제향 전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해당 개별 서원과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홈페이지(<http://www.seowonheritage.org/>)를 통해 신청된 참여자들이 서원을 방문하면, 서원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만남시간을 가지게 된다. 서원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제복을 갖춰 입고 사당에 들어가 서원 관계자의 인솔 하에 알묘례를 체험한다. 이외에도 향약, 향음례, 향사례 등과 같은 다양한 유교의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제향의 가치를 더욱더 일반인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러한 역할은 향후 신청서원의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향 행사는 유산의 주체인 서원 관계자가 신청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신청유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제향 의식은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제향 의례가 계속 이어지는 한 선현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을 함께 지속해나갈 수 있다. 앞으로 제향 등 의례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서원에서는 의복, 비품 등 관련 물품을 구비하고 해설 인력을 교육,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5.i.ii 강화 프로그램

한국이 근대사회로 발전하면서 서원의 강화이라는 교육기능은 현대교육으로 변모되었으나 서원의 강화 전통은 여전히 인문학 분야와 지역의 정신적 토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유산에서는 미래 세대에 서원의 강화 기능이 가졌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군계

달한 폐쇄적 공간으로 인식되던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 문화 재청에서는 서원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서원 중 대다수가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포함되지 않은 일부 서원들은 서원 자체적으로 전통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서원 관계자(문중 및 유림)와 문화유산활용 기관이 중심이 되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 등 자라나는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선비정신 강의, 고전강의, 예절교육, 전통문화예술, 유적답사 등의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융합하거나 현대 적인 콘텐츠와 융합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5-31. 신청유산 전통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분	세부프로그램	주요내용	주체	참여자	비고
소수서원	소수서원 학맥 계승 및 선비양성 프로젝트	서원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고 교육·문화·관광 과 연계한 프로그램	서원, 대학교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2017 문화재 활용사업
남계서원	함양 선비정신 표상 ‘일두 선비문화제’	기념행사를 통해 대중이 정여창 선생 의 학덕을 기리고 선비문화를 계승·발 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서원, 일두기념사업회	어린이, 일반인, 문중, 유림	서원 자체 활용사업
옥산서원	서원 네비게이션 타고 떠나는 시간, 공간 인성 여행	서원을 전통교육, 인성 함양장으로 적극 활용,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품 격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서원, 민간연구원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2017 문화재 활용사업
도산서원	도산별과 재현	조선시대에 지방 특별 과거시험으로 정조 임금이 퇴계 선생의 학덕과 유업을 기리기 위한 프로그램	서원, 안동시, 안동문화원	문중, 유림, 일반인	서원 자체 활용사업
필암서원	일일 선비체험, 1박 2일 선비체험, 성년식, 유적답사	교육과 체험 학습을 통해 현대인의 가치관 확립과 사회상 정립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서원	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	서원 자체 활용사업
도동서원	선비, 그 깊이와 너비 ‘도동서원’	유교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인문학과 결합하고 다양한 체험과 답사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서원, 문화재단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2017 문화재 활용사업
병산서원	인문독서아카데미	병산서원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 들을 대상으로 ‘유교와 선비정신’ 등의 주제로 강의 진행	서원	일반인	서원 자체 활용사업
무성서원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 루의 풍류를 찾아서	정읍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재 활용으로 문화재 가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	서원	청소년, 일반인	2017 문화재 활용사업
돈암서원	돈암서원 예(禮) 힐링 캠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 함 양을 위한 프로그램	서원, 민간연구원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2017 문화재 활용사업

조선시대 서원이 운영될 당시만 하더라도 입학 연령이 20살 이상인 것을 보면, 강학을 했던 학생들이 현재 대학생 정도의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원들에서 행해지는 활용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초, 중, 고등학생들에 맞춰져있다. 그런 점에서 수요층과 대상에 대해서도 적합한 대안을 찾기 위해, 초·중학생보다는 대학생과 청장년이, 사자소학이나 천자문 강의 보다는 인문학 강좌나 세미나를 그리고 현대 사회이슈인 환경, 정치, 교육, 시사토론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원과 지역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해 서원 관계자 또는 지역 유지, 학자들을 초빙해 서원에서 강의와 세미나를 병행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문제를 서원의 인성 교육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돈암서원의 경우 정회당 건물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강당과 동·서재 공간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상설화하여 활용하고 장서각(장판각)과 같은 시설들을 도서관으로 상설 운영한다면 단절되었던 서원의 교육과 도서관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5.i.iii 교류와 유식 프로그램

서원조직과 지방자치단체는 각 서원의 특성에 부합되는 유적 답사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원스테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 가족, 단체 등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원에서 숙박하며, 인문정신, 전통생활, 전통예술, 전통연희 등 서원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산서원, 소수서원, 필암서원은 자체 교육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돈암서원의 경우 지역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을 설립하여 서원의 보존과 활용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주체는 서원 문중 또는 유림들이며, 이들을 통해 서원의 정신적 가치를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다.

표 5-32. 신청유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시기	내용	운영기관	참여자
소수서원	영주선비문화축제	연중 1회 (5월)	선비문화 예술 공연, 체험, 교육, 전시	소수서원, 영주시, 영주문화관광재단	문중, 유림, 일반인
	선비문화 수련	예약 진행	특강(인문학, 리더십 등), 고전, 문학, 예절, 전통문화예술	소수서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청소년, 어린이, 일반인, 외국인
	선비촌 체험	연중 무휴	선비문화교육프로그램(인성, 서당, 예절)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공예, 놀이, 한식 등)	선비촌	
남계서원	사군자 서예교실	일정별	사군자, 서예	남계서원	일반인
	문화탐방	일정별	남계서원과 일두선생 고택연계 문화탐방 서원문화 체험 및 연계 숙박	남계서원, 함양군, 정여창기념사업회	
	서원스테이	예약 진행	한옥체험, 다도, 국궁, 예절교육	남계서원, 함양군	

구분	프로그램명	시기	내용	운영기관	참여자
옥산서원	문화탐방 및 체험	일정별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 독락당, 옥산서원 문화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옥산서원, 경주시, 양동마을 관리사무소	일반인
도산서원	선비문화교육	예약 진행	퇴계 선생과 도산서원 고전인문학특강, 활인심방체험, 전통문화체험	도산서원, 안동시, 선비문화수련원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인
	서원스테이	예약 진행	선비문화교육프로그램 연계		일반인
필암서원	선비학당	매주 진행	김인후 선비정신, 사상, 예정, 문화체험	필암서원, 평생교육센터, (사)필암서원산앙회	일반인
	청림문화체험교육	일정별	청림강의, 현장체험, 심신수련, 청림토크콘서트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무원, 교육자, 기업인 등
도동서원	문화탐방 및 체험	일정별	문화탐방, 문화체험	도동서원, 달성군	일반인
병산서원	서원강좌	연중 2회 (봄, 가을)	저명인사 인문학 특강	병산서원	문중, 유림, 일반인
	서원스테이	예약진행	서원 한옥체험, 문화체험	병산서원, 안동시	일반인
	서애 정신 함양교육	연중 3회	군인정신 및 자부심 함양을 위한 특강	병산서원, 안동시, 하회마을보존회	군인
무성서원	한림원 유림합숙 훈련	예약진행	유교 고전강독	무성서원	유림
돈암서원	학술세미나	예약 진행	서원활성화 세미나, 서원에서 진행하는 성리학 강의와 문화유산 교육	돈암서원, 논산시,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문중, 유림, 전문가
	인문학강좌 및 음악회	일정별	초청강연, 문화예술 공연	돈암서원, 논산시,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공무원, 문중, 유림, 청소년, 일반인
	논산향시	연중 1회	조선시대 과거제도[초시] 재현 청소년한마당, 소통과 화합의 축제		논산시, 문중, 유림, 청소년, 일반인
	기로연	연중 1회	조선시대 기로연 재현 유교적 가치와 덕목의 계승		논산시, 문중, 유림, 청소년, 일반인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그림 5-37. 신청유산별 문화체험 프로그램(2015~2017)

현재 서원 관련 유적 답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서원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청유산이 연속유산임을 감안할 때 9개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에 9개 서원의 서로 다른 역사 배경과 학문, 사상적 기반을 지닌 독자성(특성)도 가지면서 다른 서원들과 하나로 연계되어 한국 서원의 문화를 증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표 5-33. 신청서원 특화 프로그램(안)

구분	서원별 특화프로그램	인원(일정)	참여대상
소수서원	- 주세붕 향사 옮기 공부, 의례 익히기 - 도동곡 따라 부르기	10명 내외 (1일)	대학(원)생, 일반인, 문중, 유림 등
남계서원	- 정여창의 학문과 사상 배우기 - 정여창 고택 및 서원 체험	10명 내외 (1박 2일)	어린이, 일반인 등
옥산서원	- 옥산구곡 탐방 -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옥산서원	15명 내외 (1일)	일반인, 문화유산해설사 등
도산서원	- 도산별과 참여 - 퇴계의 학문과 사상 배우기	50명 내외 (1박 2일)	대학(원)생, 일반인, 문중, 유림 등
필암서원	- 김인후에 대한 주제 토론 - 필암서원 체험 및 관련 유적지 답사	15명 내외 (1박 2일)	대학(원)생, 일반인 등

구분	서원별 특화프로그램	인원(일정)	참여대상
도동서원	- 석축조각물 탐구 - 김광필 묘소 답사	15명 내외 (1일)	일반인, 문화유산해설사 등
병산서원	- 류성룡 리더십 특강 - 만대루에서 시문학 감상 및 서원 체험	10명 내외 (1박 2일)	대학(원)생, 일반인 등
무성서원	- 피향정, 유상대(최치원 유적) 방문 - 고현동 향약 프로그램 학습	15명 내외 (1일)	일반인, 문화유산해설사 등
돈암서원	- 가례집람을 활용한 인성교육 및 생활예절 - 응도당에서 강화하기 & 3D퍼즐 조립	10명 내외 (1박 2일)	학생, 일반인 등

표 5-34. 신청서원 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내용	인원(일정)	참여대상
한국의 서원문화 투어 프로그램	영남, 호남, 호서 등 지역 대표 서원 탐방 - 1코스(소수, 도산, 병산서원) - 2코스(옥산, 도동, 남계서원) - 3코스(필암, 무성, 돈암서원)	30명 내외 (1박 2일)	지역 유림, 대학(원)생,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재 돌봄사업단 등 관련 종사자 한정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한국서원의 특성을 테마로 한 연계 프로그램 - 제향 의례(소수, 도동, 병산, 돈암, 무성서원) - 교육 강화(도산, 소수, 옥산, 도동, 무성서원) - 경관 문학(소수, 도산, 도동, 옥산, 병산서원) - 도서 출판(소수, 옥산, 도산, 필암서원) 등	20명 내외, 매월 1회	서원 관계자, 대학(원)생, 전통문화관련 동아리, 일반인
9개 서원 유생 교류 프로그램	9개 서원 원임과 유생들의 교류 - 서원별 보존관리 - 서원별 계승 및 활용 방향 - 9개 서원 교류 협의 등	30명 내외, 분기별	각 서원별 관계자 3명

5.j 전담인력의 수준 및 전문지식

신청유산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통합관리 기구인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행정·연구·기술직종 등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조직, 서원에 상주(서원 고직사 거주 인력) 또는 비상주(서원 유립=필요시 서원 내방)하며 유산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서원 운영위원회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유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에 의해서만 수리 및 보수가 이루어진다.

신청유산이 소재하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원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전담인력에 대한 구성도 지방자치단체와 서원이 처한 여건에 따라 서원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신청유산의 통합관리 조정 기구인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구성되었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는 신청유산의 서원 관계자,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전문가 및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산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전담조직은 문화재 관리 행정 인력과 학예연구사, 분야별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공무원 조직이다. 행정인력과 학예연구사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과 집행, 개발압력 관리 등을 담당하며, 분야별 전문기술 인력은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점검 및 관리와 유지 및 보수사업의 지도 및 감독 등을 담당한다. 더불어 서원에 배치된 문화재관리원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계절별로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한 점검활동, 내진점검 활동 등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유산관리 전담 인력은 신청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핵심주체로서 매년 관련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담당업무의 전문성이 높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유산을 포함한 지역의 문화유산 해설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자원봉사자와 서원 문중 및 유림들의 협조 아래 관광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연속유산으로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자원봉사자, 서원 관계자(문중, 유림, 전문가, 공무원 등)들과 함께 서원의 방문객 서비스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서원의 유·무형적 가치를 고취시키고 계승하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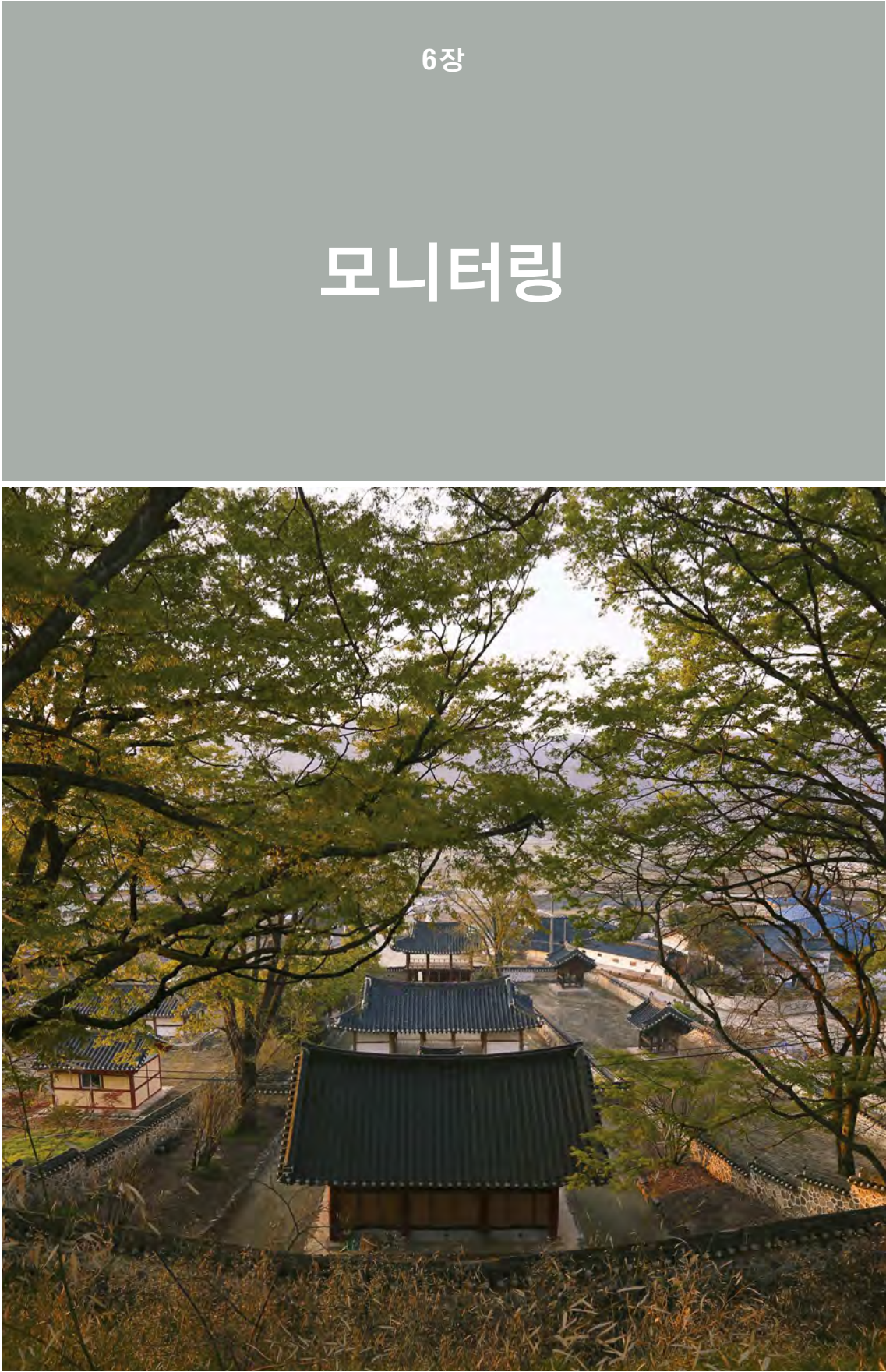
또한 각 서원별로 소속 유림과 문중이 중심이 되는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서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대표인 위원장(원장)과 서원을 관리하는 위원(유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제향과 예결산, 임원 선임과 재산 관리가 있으며, 방문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일부 서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무원이 운영위원회에 속하여 서원과 공무원의 협력을 증진시킨다.

표 5-35. 신청유산별 관리인력 전체 현황

서원	조직		인원 (명)	구성 및 내용
	소속	명칭		
소수서원	영주시	문화예술과	8	과장 1, 학예연구사 2, 문화재 관리·행정 5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15	소장 1, 관리팀 9, 소수박물관팀 5
		문화관광해설사	3	한국어, 순환(영어, 일본어, 중국어)
	서원	운영위원회	19	위원장 1, 위원 18
남계서원	함양군	문화관광과	4	과장 1, 학예연구사 0, 문화재 관리·행정 3
		문화관광해설사	1	한국어
	서원	운영위원회	23	위원장 1, 위원 22
옥산서원	경주시	문화재과	4	과장 1, 학예연구사 1, 문화재 관리·행정 2
		옥산서원 현장관리	1	상시관리(유물전시관)
		문화관광해설사	1	한국어
	서원	운영위원회	22	위원장 1, 위원 21
		고직사	2	상주관리
도산서원	안동시	문화예술과	7	과장 1, 학예연구사 2, 문화재 관리·행정 4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12	소장 1, 관리팀 11
		문화관광해설사	2	한국어, 순환(영어, 일본어, 중국어)
	서원	운영위원회	13	위원장 1, 위원 12
필암서원	장성군	문화관광과	5	과장 1, 학예연구사 1, 문화재 관리·행정 3
		필암서원 현장관리	1	상시관리(유물전시관)
		문화관광해설사	0	해설요청 시 상시 연계
	서원	운영위원회	16	위원장 1, 위원 15명
		고직사	1	상주관리
도동서원	달성군	관광과	13	과장 1, 학예연구사 1, 문화재 관리·행정 11
		도동서원 현장관리	1	상시관리(관리사무소)
		문화관광해설사	1	한국어, 순환(영어, 일본어)

서원	조직		인원 (명)	구성 및 내용
	소속	명칭		
도동서원	서원	운영위원회	24	위원장 1, 위원 23
		고직사	1	상주관리
병산서원	안동시	문화예술과	7	과장 1, 학예연구사 2, 문화재 관리·행정 4
		하회마을관리사무소	1(14)	소장 1, 관리팀 13
		문화관광해설사	1	한국어
	서원	운영위원회	9	위원장 1, 위원 8명
		고직사	1	상주관리
무성서원	정읍시	문화예술과	5	과장 1, 학예연구사 1, 문화재 관리·행정 3
		무성서원 현장관리	1	상시관리(관리사무소)
		문화관광해설사	1	한국어
	서원	운영위원회	27	위원장 1, 위원 26
돈암서원	논산시	문화예술과	6	과장 1, 학예연구사 1, 문화재 관리·행정 4
		돈암서원 현장관리	1	상주관리(관리소, 교대근무)
		문화관광해설사	1	한국어
	서원	운영위원회	25	위원장 1, 위원 24



6장

모니터링

신청유산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산을 점검·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청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는 서원(고직사) 관리인과 문화재안전경비원에 의한 상시모니터링(매일)과 전문가에 의한 정기 모니터링(분기 또는 반기별),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정부차원의 정기조사(정기모니터링)로 구성된다. 또한 이와 함께 문화재청에서 제공 중인 문화재지킴이서비스(문화재 안전 제보, 문화재 방재 시민 모니터링, 문화재 안내판 오류신고 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일반인 또는 방문객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자발적으로 문화재 보호에 참여 할 수 있다.

신청유산은 현재 정부, 개별 서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자원봉사자 등에 의해 보호·관리되고 있다. 신청유산을 이루는 9개 서원은 문화재보호법 제정(1962) 이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각각 지정되어 정부는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 및 재해 등을 대비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신청유산에 대한 정기조사와 특별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각 서원 관리사무소에서 일상점검을 하고 있으며, 신청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해 설립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도 2016년 5월부터 정기적인 현지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유산의 보존상태와 위협요소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4장의 ‘보존현황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5장의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서 언급한 요소들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사적 점검 항목’을 발전시켜 신청유산에 적합한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일반 지표, 핵심지표, 특수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지표는 신청유산에 대한 일반관리, 주변 환경, 관광시설 분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위주로 서원(고직사) 관리인과 문화재안전경비원에 의해 매일(1일) 관리되는 지표이다. 핵심지표는 신청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인 자연재해, 화재, 환경압력 분야에 대해 서원(문중, 유림) 및 관리사무소 그리고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같은 관리자가 분기별(3개월)로 관리하는 지표이다. 특수지표는 신청유산의 물리적 형태(부동산 문화재)뿐 아니라

무형적 요소(동산 문화재)까지도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반기별(6개월)로 관리되는 지표이다.

현재 신청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은 문화재청, 해당 서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서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각각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별 서원에 대한 관리상태 점검일지는 해당기관에서 관리·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신청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보존상태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의 기록보관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서원의 보수·정비 조치는 정도에 따라 바로 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있다.

표 6-1. 신청유산의 보호를 위한 주요내용

구역	신청유산을 구성한 주요 요소		시행기관 및 기록보관장소	주기
유산구역	유형요소	목조 건축물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서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상시(매일) - 정기(분기별) - 정기(반기별)
		석조 시설물		
	무형요소	주변 환경		
		제향 및 동산유물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3~5년
	소방·방재시설 점검		지방자치단체	1개월
	전기시설점검		지방자치단체	1개월
	방문객 수		관리사무소(소수, 도산)	상시
완충구역	유산구역 거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1년
	주변 환경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완충구역 현상변경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표 6-2.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점검 항목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방재	소방시설 현황	소화기, 소화전, 소방차, 고가수조, 저수조, 소화펌프(전동기/엔진), 화재경보기(수신기/발신기/감지기), 방화선의 유무
		방화선의 거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현황	소방시설도면 비치 여부
		화재 시 대피 대상문화재 유무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방재	기타	자체 방화대책 준비상태
		소방시설의 성능상태
		전기시설물의 관리상태
		가스 및 위험물의 관리상태
건조물	주변 환경 특성	배수, 습기
		주변 수목
		일조, 통풍
		진동, 소음
	건조물 및 부대시설 현황	건조물
		부대시설

6.a 보존상태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주요지표

6.a.i 일반지표

모니터링 일반지표는 신청유산의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지표는 신청 유산에 대한 일반관리, 주변 환경, 관광시설 분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위주로 서원(고직사) 관리인과 문화재안전경비원에 의해 매일(1일) 관리되는 지표이다.

표 6-3. 모니터링 일반지표

분야	지표 항목	주체	주기	결과
일반 관리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서원(고직사) 관리인 + 관리사무소 (문화재안전경비원)	상시 (매일)	Y / N
	재난 및 재해관련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Y / N
	화재 발생 시 행동 조치요령에 대한 안내가 있는가?			Y / N
주변 환경	경관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Y / N
	외부지역으로부터의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			Y / N

분야	지표 항목	주체	주기	결과
주변 환경	쓰레기 처리와 쓰레기통 주변 위생은 청결한가?	서원(고직사) 관리인 + 관리사무소 (문화재안전경비원)	상시 (매일)	Y / N
	문화재 구역내 방치된 물건은 없는가?			Y / N
관광 시설	관람객을 위한 안내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Y / N
	홍보자료는 비치되어 있는가?			Y / N
	응급조치에 따른 구급약은 준비되어 있는가?			Y / N
	장애인을 위한 장비들은 비치되어 있는가?			Y / N

6.a.ii 핵심지표

모니터링 핵심지표는 신청유산의 보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서원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인 자연재해, 화재, 환경압력 분야에 대해 서원(문중, 유림) 및 관리사무소 그리고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같은 관리자가 분기별(3개월)로 관리하는 지표이다.

표 6-4. 모니터링 핵심지표

구역	영향요소	지표 항목	주체	주기	결과
유산 구역	자연재해	지형이 손상된 곳이 있는가?	서원(문중 및 유림) + 관리사무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정기 (분기별)	Y / N
		하천이나 수로의 수위 변화가 있는가?			Y / N
		홍수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가?			Y / N
	화재	방재시설은 제 위치에 비치되어 있는가?			Y / N
		방재 경보 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			Y / N
		전기 배선에 문제는 없는가?			Y / N
		가스 및 위험물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Y / N
	환경압력	흰개미 등 벌레에 의한 피해의 흔적이 있는가?			Y / N
		습기에 의한 피해는 없는가?			Y / N
		배수는 잘 되고 있는가?			Y / N
완충 구역	자연재해	지형이 손상된 곳이 있는가?			Y / N
		하천이나 수로의 수위 변화가 있는가?			Y / N
		홍수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가?			Y / N
	환경압력	식생에 변화가 있는가?			Y / N
		재선충의 흔적이 있는가?			Y / N

6.a.iii 특수지표

모니터링 특수지표는 신청유산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보존·관리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지표는 서원의 물리적 형태(부동산 문화재)뿐 아니라 무형적 요소(동산문화재)까지를 포함한다. 목조 및 석조문화재, 경관 및 주변 환경, 동산문화재 관리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반기별(6개월)로 관리하는 지표이다.

표 6-5. 목조 및 석조문화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범주

분류	구분	체크리스트 범주	주체	주기
목조 문화재	지반 상태	지진 영향 여부, 기반부 훼손상태, 주변 배수로 상태, 위험요소 등	분야별 전문가 (건축, 조경, 토목 등)	정기 (반기별)
	구조부재 상태	기둥·보·도리·서까래의 상태(균열, 파손, 처짐, 기울기), 결구부 훼손상태, 총해, 열화 여부 등		
	지붕면 상태	지붕면 굴곡 여부, 덧서까래 유무, 건물내부 문화재 유무 등		
석조 문화재	지반 및 주변현황	지진 영향 여부, 주변 배수로 상태, 위험요소 등		
	형태 및 구성	이완, 침하, 균열, 처짐 등		
	부재 구성	탈락, 변형, 파손 등		

표 6-6. 경관 및 주변 환경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범주

분류	구분	체크리스트 범주	주체	주기
경관	자연경관	지형의 손상 여부, 자생수림의 보존상태, 고사한 수목 여부 등	분야별 전문가 (건축, 조경, 문화재 등)	정기 (반기별)
	인공경관	미관을 해치는 옹벽 여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과 구조물 여부, 미관을 해치는 철·성토 사면 여부,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하거나 돌출되는 색상 존재 여부 등		
주변 환경	시설물	담장 및 석축 안전 여부, 문화재 주변 시설물 훼손 여부 등		
	식생	소나무 군락의 병충해(재선충) 또는 훼손 여부, 관람객 동선의 침해 여부 등		
	조망	돌출 요소 여부 등		

표 6-7. 동산문화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범주

분류	구분	체크리스트 범주	주체	주기
고문서	종이	고문서(전적, 문집, 기문 등) 위치 여부, 목록별 수량 여부, 보존·관리 상태 여부 등	분야별 전문가 (역사, 문화재 등)	정기 (반기별)
목판	나무	목판(현판, 주련 등) 위치 여부, 목록별 수량 여부, 보존 상태 여부 등		

6.b 신청유산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조치

국가지정문화재인 신청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주체는 문화재청이다. 하지만 보수, 조사, 현상변경 및 불법행위 단속, 관광객 관리 등 실무적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청유산 중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하회마을 연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 소속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 관리한다. 서원과 관련된 문집, 현판 등과 같은 동산문화재는 서원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유물전시관 등에 나뉘어 위탁 관리되고 있다. 신청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은 서원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시행하고 있다.

신청유산에 대한 현지관리 및 모니터링 담당기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6-8. 신청유산 모니터링 담당 기관 정보

서원	기관		연락 정보	
	부문	명칭	주소	연락처
통합 관리	공공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600-0064
	민간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802호	02-3673-5441
소수 서원	공공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160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054-639-6560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054-639-7691
	민간	소수서원 운영위원회	소수서원(이갑선)	010-9244-4851
남계 서원	공공	경상남도청 문화예술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	055-211-4546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055-960-4353
	민간	남계서원 운영위원회	남계서원(이창구)	010-6353-8182
옥산 서원	공공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160
		경주시청 문화재과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054-779-6102
	민간	옥산서원 운영위원회	옥산서원(이원석)	010-6685-8053
		옥산서원 관리인 (고직사 상주)	옥산서원 고직사(고재우)	054-762-8719

서원	기관		연락 정보	
	부문	명칭	주소	연락처
도산 서원	공공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160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054-840-5237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054-856-1073
	민간	도산서원 운영위원회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054-856-1034
필암 서원	공공	전라남도청 문화예술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5445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을 영천로 200	061-390-7224
	민간	필암서원 운영위원회	광주시 북구 문암동 우미3차 302동 303호	062-524-9776
		필암서원 관리인(고직사 상주)	필암서원 고직사(김창봉)	010-8808-5598
도동 서원	공공	대구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053-803-3758
		달성군청 관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053-668-3162
		도동서원 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053-617-7620
	민간	도동서원 운영위원회	도동서원(김창규)	010-3535-8069
		도동서원 관리인(고직사 상주)	도동서원 고직사(김희섭)	010-3829-6171
병산 서원	공공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160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054-840-5237
		병산서원 관리사무소	하회마을 관리사무소(병산서원 관리 포함)	054-854-3669
	민간	병산서원 운영위원회	병산서원(류한욱)	010-3207-0581
		병산서원 관리인(고직사 상주)	병산서원 고직사(류시석)	010-3540-2172
무성 서원	공공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3317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063-539-5181
		무성서원 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063-531-1022
	민간	무성서원 운영위원회	무성서원(이치백)	010-3684-0001
돈암 서원	공공	충청남도청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041-635-3914
		논산시청 문화예술과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041-746-5411
		돈암서원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041-736-0096
	민간	돈암서원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211 2146번지	042-471-6490

6.c 선행 보고 활동의 결과물

신청유산을 구성하는 각 서원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몇몇 서원의 주요 요소는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이 정기모니터링(사적 정기조사, 개별 건조물 정기조사, 문화재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모니터링 활동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각 서원별로 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에 담겨져 있다.

또한 신청유산에 대해 문화재 재난·재해대비를 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유산은 대부분이 산지에 위치해 있고 유산들 또한 대부분이 목재이기 때문에 유산관리 측면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다. 정기적인 소방훈련과 안전점검, 소방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문화재안전점검, 해빙기 대비 문화재안전점검, 지진 대비 안전점검 활동 등이 매년 특정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점검 결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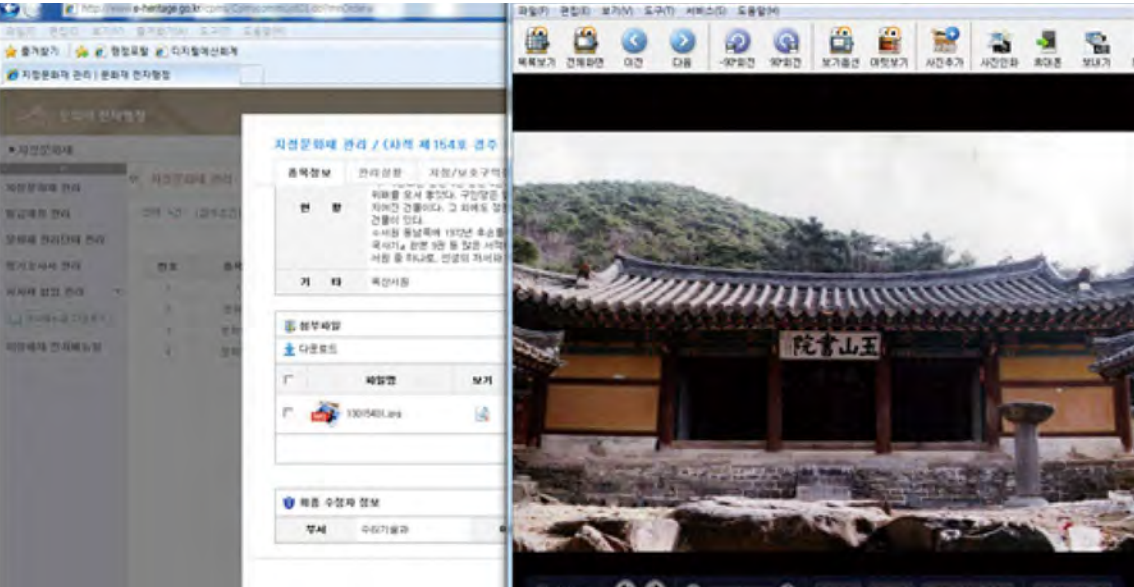


그림 6-1. 문화재청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기록된 옥산서원 모니터링 결과

신청유산은 공통적인 방호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문화재 안전경비원에 의한 일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경내 순찰 뿐 아니라 가스안전 점검, 전기시설물 점검과 같은 일상 안전관리도 일일모니터링 내역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형 문화재

정보 안내와 함께 보호 활동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일반 관람객이 서원 현장에서 안전 및 방재, 안내판 오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재 지킴이 서비스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현재 세계유산목록 등재추진 업무와 함께 신청유산에 대한 현지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주기는 분기별(3개월)로 한 번씩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어 현지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활동들은 신청유산 서원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정부기관과 함께 업무와 정보의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져 신청유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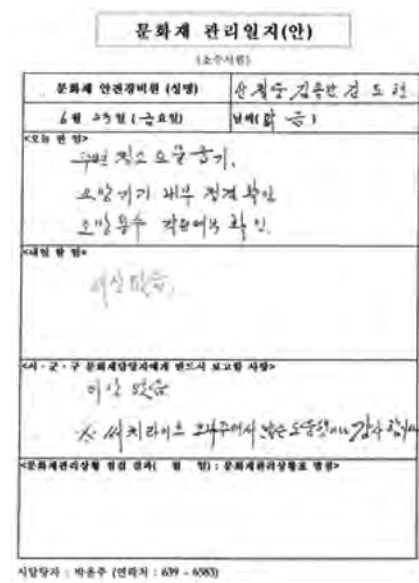


그림 6-2. 문화재 안전경비원에 의한 문화재 관리일지



그림 6-3. 국가지정문화재 정보 제공 및 상황 신고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그림 6-4. (재)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단 현지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7장 기록물

7.a 사진, 슬라이드, 영상기록, 인가 서류 및 기타 시청각 자료

자료 번호	형식	표제	촬영 연도	사진촬영담당	저작권 소유자 (사진촬영 담당자)	저작권 소유자의 연락처에 관한 세부 정보	권리의 비배타적 양도
2-1	JPG	남계서원 전경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승낙
2-2		제향 절차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3		병산서원 항공사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4		서원 운영위원회 모임(옥산서원)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5		옥산서원 항공사진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6		소수서원 항공사진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7		도동서원 항공사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8		필암서원 항공사진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9		신청유산의 공간 구성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10		도동서원 항공사진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12		소수서원 항공사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자료 번호	형식	표제	촬영 연도	사진촬영담당	저작권 소유자 (사진촬영 담당자)	저작권 소유자의 연락처에 관한 세부 정보	권리의 비배타적 양도
2-13	JPG	소수서원 교류 및 유식 공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승낙
2-14		백운동서원도(소수서원)	-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2-15		소수서원 도동곡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16		소수서원 제향의례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19		남계서원 항공사진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20		남계서원 강학공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21		남계서원경임안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22		일두선생문집 책판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23		서원운영위원회 모임(남계서원)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26		옥산서원 항공사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27		옥산서원 체인묘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28		옥산서원 무변루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29		옥산서원 강지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30		만인소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33		도산서원 항공사진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34		도산서원 강학공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35		도산서당 전경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36		퇴계선생 문집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37		도산서원도	-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2-38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41		필암서원 항공사진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42		필암서원 사우 및 강당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43		필암서원 확연루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자료 번호	형식	표제	촬영 연도	사진촬영담당	저작권 소유자 (사진촬영 담당자)	저작권 소유자의 연락처에 관한 세부 정보	권리의 비배타적 양도
2-44	JPG	필암서원 강학공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승낙
2-45		보물로 지정된 필암서원 고문서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48		도동서원 항공사진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49		도동서원 제향공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50		도동서원 묘제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51		도동서원 중정당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52		도동서원 중정당 기단 및 계단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55		병산서원 전경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56		강당에서 바라보는 병산서원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57		병산서원 정비록 책판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58		통문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61		무성서원 항공사진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62		무성서원 칠광십현도	-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	
2-63		무성서원지	2014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64		황토를 까는 무성서원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65		무성서원 강학공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68		돈암서원 항공사진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69		돈암서원 응도당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71		돈암서원에 소장된 책판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72		돈암서원 신독재전서 및 목판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75		소수서원 잡록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76		남계서원 풍영루기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자료 번호	형식	표제	촬영 연도	사진촬영담당	저작권 소유자 (사진촬영 담당자)	저작권 소유자의 연락처에 관한 세부 정보	권리의 비배타적 양도
2-77	JPG	구인당중건일기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승낙
2-78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된 도산서원 책판	2013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79		필암서원 중수기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80		도동서원 월차철물록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81		병상서원연액시사실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82		무성서원 강당충창기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83		돈암서원 이건비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84		돈암서원 이건비 탁본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3-1		중국 백록동서원 공자 사당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3-2		중국 악록서원 공자 사당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3-3		일본 유시마성당 공자 사당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3-4		일본 아시카가 공자 사당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3-5		중국 악록서원 장서루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3-6		중국 백록동서원 반수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3-8		중국 악록서원 강당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3-9		일본 쇼카손주구 강당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4-2		소수서원 소방교육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4-3		남계서원 소방훈련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4-4		도동서원 소방훈련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21		도동서원 안내소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22		도산서원 주차 관리실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23		도동서원 버스 정류장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자료 번호	형식	표제	촬영 연도	사진촬영담당	저작권 소유자 (사진촬영 담당자)	저작권 소유자의 연락처에 관한 세부 정보	권리의 비배타적 양도
5-24	JPG	소수서원 선비촌(숙박)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승낙
5-25		소수박물관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26		옥산서원 전시관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27		필암서원 수장고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28		소수서원 한국선비문화 수련원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29		남계서원 한옥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30		돈암서원 한옥마을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34		신청유산 문화재 안내판 유형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36		춘추향사제 절차	2013	오종은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5-37		문화체험 프로그램 (2015~2017)	2015~ 2017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7.b 보호 지정에 관한 문건, 대상물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 기록 및 해당 대상물과 관련된 기록의 초록 사본

7.b.1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산림보호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7.c 신청 대상물에 관한 최신 기록이나 목록의 작성 형식 및 작성 일자

- 부록 1. 관련 법령

7.d 목록, 기록 및 자료의 보관 장소

- 문화재청(<http://www.cha.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http://www.seowonheritage.org>)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802호

7.e 참고문헌 목록

7.e.1 고문서

서원등록(書院謄錄)
서원가고(書院可攷)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전고대방(典故大方)
조두록(俎豆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가례집람(家禮輯覽)
고현동향약(古縣洞鄉約)
남계서원기(濫溪書院記)
남계서원 부보록(濫溪書院裒寶錄)
남계서원지(濫溪書院誌)
도동서원원규(道東書院院規)
도산서원 서책치부(陶山書院書冊置簿)
도산잡영(陶山雜詠)
돈암서원상량문(遯巖書院上樑文)
돈암서원지(遯巖書院誌)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병산서원 강안(屏山書院講案)
상례비요(喪禮備要)
삼국사기(三國史記)
소수서원등록(紹修書院騰錄)
소수서원 심원록(紹修書院尋院錄)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入院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연산돈암서원묘정비(連山遯巖書院廟庭碑)
연산돈암서원이건비(連山遯巖書院移建碑)
옥산서원 구인당중건일기(玉山書院求仁堂重建日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징비록(懲毖錄)
필암서원 노비보(筆巖書院奴婢譜)
필암서원성책(筆巖書院成冊)
필암서원지(筆巖書院誌)

7.e.2 단행본

김동옥, 도산서당 선비들의 이상향을 짓다, 돌베개, 2012
김봉렬, 서원건축, 대원사, 2006
김은중, 한국의서원건축, 문운당, 1994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 1997
김현영 외 5인,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박소현 외,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재청, 2010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상해, 서원, 열화당, 2002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 연구, 일조각, 2002
이수환 편저,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이수환 편저, 도동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이우성, 도산서원, 한길사, 2001
이춘희, 조선조의 교육문고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1984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이호일, 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2006.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만조 외 6명,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3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출판부, 1979
정순목, 중국서원제도, 문음사, 1990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정시열 외 5인,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차장섭 외 4명,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최완기, 한국의서원, 대원사, 1991
한국국학진흥원 편, 경북서원지, 경상북도, 2007
한국서원연합회 편, 한국의서원문화, 도서출판 문사철, 2013a
한국서원연합회 편, 한국의서원유산I, 도서출판 문사철, 2013b
Lee Sang-hae, “SEOWON The Architecture of Korea’s Private Academies”, Hollym, 2005
Alexander Woodside, “Lost Modernities: China, Vietnam, Korea, and the Hazard of World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2006

Peter K. Bol, “Neo-Confucianism in History”,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Wing-Tsit Chan, “Chu Hsi: Life and Thought”,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1

Yin Yongda, “The Architecture of Classical Colleges”, China Architecture&Building Press, 2016

Lee, Thomas H. C. (1985), Government Education and Examinations in Sung China,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Lee, Thomas H. C. (2000), Education in Traditional China, a History, Brill.

Mehl, Margaret (2005), Private Academies of Chinese Learning in Meiji Japan, Denmark: NIAS Press.

Rubinger, Richard (1982), Private Academies of Tokugawa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ields, James J. Jr., ed. (1995), Japanese Schoolin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Walto, Linda A. (1999), Academies and Society in Southern Sung China, University of Hawaii Press.

邓洪波, 中国书院史, 武汉大学出版社, 2012

吴道行·赵宁, 岳麓书院志, 岳麓书社, 2012

杨慎初, 中国书院文化与建筑, 湖北教育出版社, 2002

李弘祺, 中国书院, 上海教育出版社, 2002

赵连稳·朱耀廷, 中国古代的学校`书院及其刻书研究, 光明日报出版社, 2012

朱汉民(编者), 岳麓书院, 湖南大学出版社, 2011

肖永明, 儒学·书院·社会:社会文化史视野中的书院, 商务印书馆, 2012

渡邊浩, 日本政治思想史: 十七-十九世紀, 東京大學出版会, 2010

梅溪 昇, 緒方洪庵と適塾, 適塾紀念会, 1980

箱崎和久, 近世の学校建築, 至文堂, 2011

冲田行司, 藩校·私塾の思想と教育, 日本武道館, 2011

海原徹, 松下村塾の人びと近世私塾の人間形成, ミネルヴァ書房, 1993

7.e.3 보고서

강경환·이혜준·김덕현·이왕기·김영범,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경주시, 경주 옥산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 소수서원·도산서원,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 돈암서원·노강서원, 2012a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 병산서원·옥산서원, 2012b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 무성서원·필암서원, 2013a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 남계서원·도동서원, 2013b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 보고서, 2015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의 조경 정비 방안, 사적지 조성정비 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 2010

문화재청,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1a

문화재청,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상덕사 및 삼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상, 하권), 2011b

문화재청,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문화재청, 정읍 무성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문화재청, 장성 필암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4a

문화재청, 함양 남계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4b

문화체육관광부, 유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연구, 2009

영주시, 소수서원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2013

7.e.4 학위논문

강상택, 조선후기 영남지역의 서원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동영, 조선후기 서원건축의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선구, 돈암서원의 이건 이후 변화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은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김자운,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노송호, 향교와 서원의 입지 및 외부공간 분석을 통한 한국적 교육환경 모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백세현, 도산서원과 돈암서원의 건축적 특성 연구, 조선중기 예학의 배경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서경태, 도산서원 건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서동수, 17세기 돈암서원의 강학활동과 정치·사회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손윤희, 무성서원의 건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송영인, 옥산서원 배치형태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상윤,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 특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수환, 조선시대 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이연숙, 돈암서원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용범,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배치형식과 그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이주연, 조선시대 서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혜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이호, 한중 서원건축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장극봉, 소수서원의 교육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전용우, 호서사립 형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정상선,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고직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정세환, 조선후기 안동 도산서원의 경제기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정창원, 소수서원의 복원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조상순, 필암서원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최민룡, 병산서원의 배치형태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7.e.5 학술지

강상택, 조선 중·후기 서원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사관논총 59, 국사편찬위원회, 1994

강주진, 서원과 그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고석규, 조선 서원·사우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 연구소, 1987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해석,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서지학회, 2008

김은중, 서원건축의 배치유형 및 변천추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6, 대한건축학회, 1991

김은중·주남철,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 (1)(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4, 대한건축학회, 1985

김지민, 전남지방의 서원·사우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2, 대한건축학회, 1991

_____, 전남지방 서원·사우의 건축적 성격, 전남문화재, 전라남도, 1992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김희춘, 조선조 서원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88, 대한건축학회, 1979

남풍현, 도산서원의 고문서에 대하여, 퇴계학연구 16, 단국대학교출판부, 2002

민병하, 조선서원의 경제구조, 대동문화연구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8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 교육사학회, 2008

_____,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 교육사학회, 2009

_____,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관한 일 고찰,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박현규, 병산서원서책목록의 분석과 그 특징, 서지학보 14, 한국서지학회, 1994

배현숙, 소수서원 수장과 간행 서적고, 서지학연구 31, 서지학회, 2005

송인협, 조선시대 서원에 대한 인식변화, 충남사학 13, 충남사학회, 2001

송정숙, 소수서원 입원록 분석, 서지학연구 34, 서지학회, 2006

_____, 소수서원 입사록 연구, 서지학연구 38, 서지학회, 2007

송정현, 필암서원연구, 역사학연구 10, 전남대학교 사학회, 1982

옥영정,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한국서원학보 2, 2013

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 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윤희면, 조선후기 서원의 경제기반, 동아연구 2,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3

_____, 조선시대 서원의 제례와 위차, 진단학보 90, 진단학회, 2000

_____, 전라도 장성 필암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 전남사학 17, 전남사학회, 2001

_____, 조선후기 서원의 경제기반(Ⅱ), 전남사학 19, 전남사학회, 2002

_____, 조선시대 서원 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181, 역사학회, 2004a

_____,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 사례, 역사교육 92, 역사교육연구회, 2004b

_____,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26, 남명학연구소, 2008

이병훈, 도동서원 소장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_____,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이상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퇴계학보 110, 퇴계학연구원, 2001

이수환,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민족문화논총 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_____,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2), 대구사학 26, 대구사학회, 1984

_____, 서원의 정치·사회사적 고찰, 교남사학 창간호,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5

_____, 조선시대 서원의 내부구조, 교남사학 2,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6

_____,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 한국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2000a

_____, 도동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한국사학회, 2000b

_____,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_____,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이왕기, 한국 유교건축의 ‘경의 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 대한건축학회, 1986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발달의 추이, 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_____, 조선후기 문중서원의 개념과 성격 문제, 한국중세사논총, 한국중세사논총기념 간행위원회, 2000

_____, 조선후기 호서지역 사족동향과 서원, 한국서원과 학맥연구, 경기대 소성학술원, 2002

_____, 한국 서원과 향촌사회,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한국학연구소, 2006

_____,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_____,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 방향, 한국서원학보 2, 2013

임근실, 16세기 서원의 장서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전용우, 조선조 서원·사우에 대한 일고찰, 호서사학 13, 호서사학회, 1985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전남사학 11, 전남사학회, 1997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 사우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5

_____, 조선서원의 성립과정,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_____,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 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_____, 퇴계학과의서원론, 남명학연구 9, 남명학연구소, 2000

정승모, 서원·사우 및 향교조직과 지역사회체계(상), 태동고전연구 3, 태동고전연구, 1987

_____, 서원·사우 및 향교조직과 지역사회체계(하), 태동고전연구 5, 태동고전연구소, 1989

정우락,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악양정과 남계서원, 남명학연구 36, 남명학연구소, 2012

조상순·이상해, 필암서원의 건축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7-2, 한국건축역사학회, 1998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교육사학연구 22, 교육사학회, 2012

최만봉, 무성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한국전통조경학회, 2004

최순권,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최완기, 조선서원일고-성립과 발달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8, 역사교육연구회, 1975

_____, 조선조 서원성립의 제문제,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최원규, 조선후기 서원전의 구조와 경영, 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8

하현정·유인호, 병산서원의 배치형태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1, 대한건축학회, 2003

한예원, 호남지역 서원의 교육활동, 유학연구 22,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0

7.e.6 기타

- 데이터 베이스

한국고전번역원 DB(<http://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DB(<http://db.history.go.kr>)

한국학자료포털 DB(<http://kostma.aks.ac.kr>)

- 영상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영상물(<http://www.iha.go.kr>)

- 지도

지적도(영주시, 함양군, 경주시, 안동시, 장성군, 달성군, 정읍시, 논산시)

디지털맵, 국토지리정보원



연락처 정보

8장

연락처 정보

8.a

준비담당자

성명 : 황권순

직위 : 문화재청 세계유산과 과장

기관 : 문화재청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 042-481-3180

Fax : 042-481-3199

E-mail : koreasoc@korea.kr

8.b

해당 지역의 공식 기관

통합기구

분류	주소	전화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802호	02-3673-5443

지방자치단체

분류	주소	전화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160
경상남도청 문화예술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055-211-4751

분류	주소	전화
전라남도청 문화예술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5445
대구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053-803-3753
전라북도청 문화예술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3314
충청남도청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041-635-3914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054-639-6560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055-960-4353
경주시청 문화재과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054-779-6102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054-840-5237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054-840-5237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061-390-7224
달성군청 관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053-668-3162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063-539-5181
논산시청 문화예술과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041-746-5411

8.c

해당 지역의 기타 기관

관련 서원	분류	주소	전화
소수서원	영주문화원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257	054-631-3300
	선비촌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96	054-638-6444
	관광안내소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054-639-5852
	소수박물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80	054-634-3310
남계서원	관광안내소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055-962-9785
	함양박물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055-960-5546
옥산서원	관광안내소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054-741-2594
	옥산서원 전시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관리인 : 이현목)	010-6529-7786
도산서원	관광안내소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054-840-6599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054-851-0700
	선비문화수련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268-6	054-843-1035
필암서원	광주박물관	전라남도 광주시 북구 하서로 110	061-392-1796
	필암서원 전시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	061-393-7270
도동서원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054-851-0700
	달성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2길 188	054-715-1231
	관광안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053-616-6407

관련 서원	분류	주소	전화
도동서원	국립대구박물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053-768-6051
병산서원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054-851-0700
	관광안내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054-858-5929
무성서원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398	010-289-6292
	태산선비문화관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063-536-7742
	정읍시립박물관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370-12	063-539-6792
	관광안내소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063-539-5232
돈암서원	관광안내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041-746-5403

8.d 공식 웹 주소

정부기관

-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 국립문화재연구소 : <http://www.nrich.go.kr>
- 국립무형유산원 : <http://www.nihc.go.kr>
-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mcst.go.kr>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경상북도청 : <http://www.gb.go.kr>
- 경상남도청 : <http://www.gsnd.net>
- 전라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 대구광역시청 : <http://www.daegu.go.kr>
- 전라북도청 : <http://www.jeonbuk.go.kr>
- 충청남도청 : <http://www.chungnam.net>
- 영주시청 : <http://www.yeongju.go.kr>
- 함양군청 : <http://www.hygn.go.kr>
- 경주시청 : <http://www.gyeongju.go.kr>
- 안동시청 : <http://www.andong.go.kr>
- 장성군청 : <http://www.jangseong.go.kr>
- 달성군청 : <http://www.dalseong.daegu.kr>
- 정읍시청 : <http://www.jeongeup.go.kr>
- 논산시청 : <http://www.nonsan.go.kr>

관련 공공기관

- 한국관광공사 : <http://www.visitkorea.or.kr>
- 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 : <http://www.nuch.ac.kr>
- 문화재수리협회 : <http://kcpra.or.kr>

서원 관련기관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http://www.seowonheritage.org>
- (사)한국서원연합회 : <http://www.seowonstay.com>
- (사)한국서원학회 : <http://www.ksw2007.or.kr>
- 소수서원 : <http://seonbichon.yeongju.go.kr>
- 도산서원 : <http://www.dosanseowon.com>
- 병산서원 : <http://www.byeongsan.net>
- 돈암서원 : <http://donamseowon.co.kr>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서

9장

신청 체약국을 대표한 서명



신청 체약국을 대표한 서명

김종진

대한민국 문화재청장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서

부록

신청유산 도면

소수서원



제향공간

1. 성생단
2. 내삼문
3. 문성공묘
4. 전사청

강학공간

5. 지도문
6. 명륜당
7. 직방재
8. 일신재
9. 학구재
10. 지락재
11. 장서각

교류 및 유식공간

12. 죽계
13. 취한대
14. 백운동 경자바위
15. 경림정
16. 탁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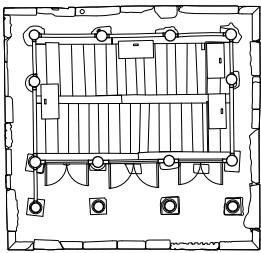
기타시설

17. 고직사
18. 영정각
19. 사료전시관
20. 충효교육관
21. 화장실
22. 광풍정
23. 당간지주
24. 매표소
25. 관광안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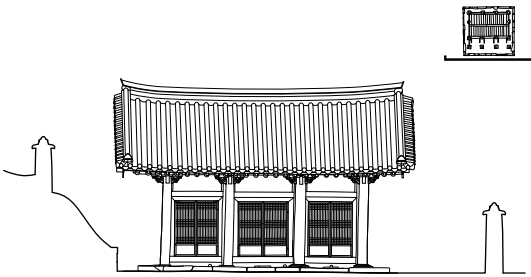
• 제향공간

3 문성공묘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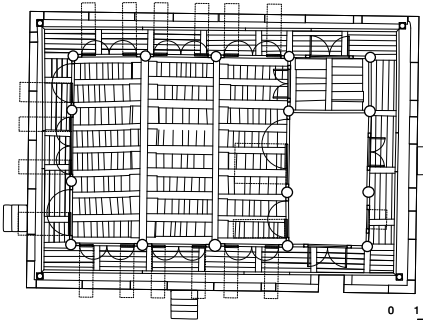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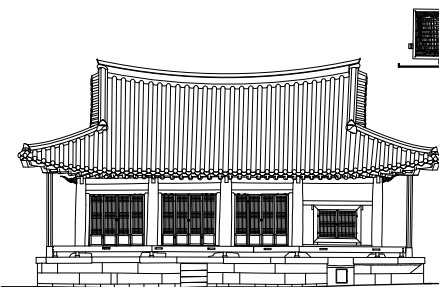
• 강학공간

6 명륜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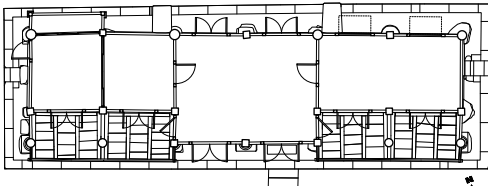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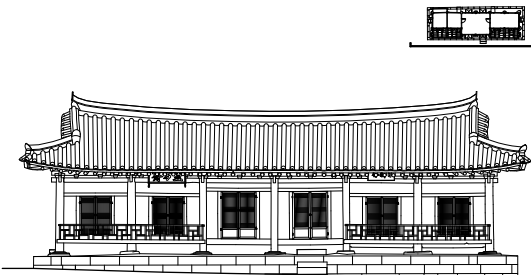


7, 8 직방재, 일신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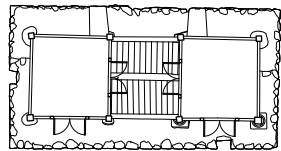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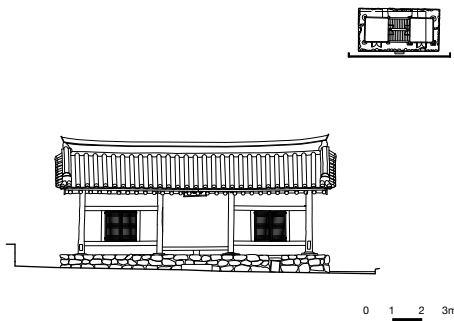
강학공간

9 학구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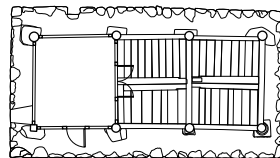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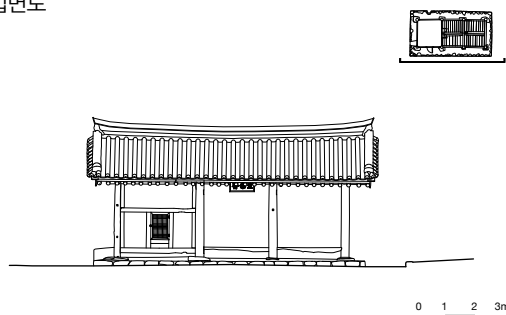


10 지락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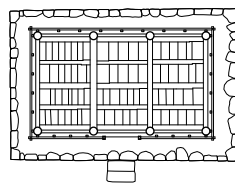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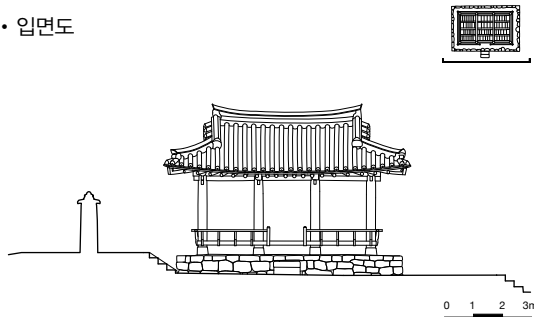
교류와 유식공간

15 경림정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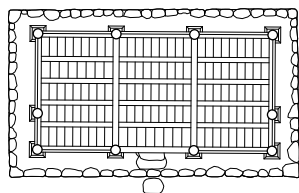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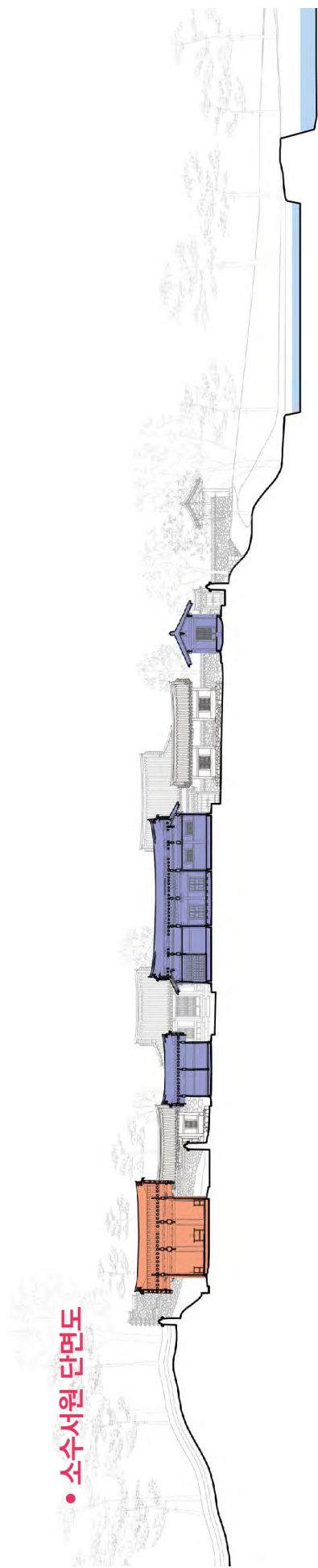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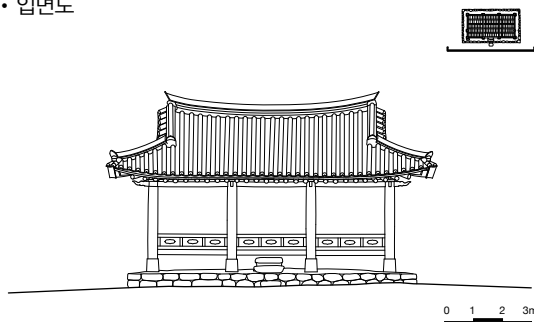


13 취한대

• 평면도



• 입면도



교류와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소수서원 단면도

남계서원



제향공간

- 1. 생단
- 2. 준도문
- 3. 사우
- 4. 전사청

강학공간

- 5. 양정재
- 6. 보인재
- 7. 명성당
- 8. 경판각

교류 및 유식공간

- 9. 풍영루
- 10. 연당
- 11. 애련헌
- 12. 영매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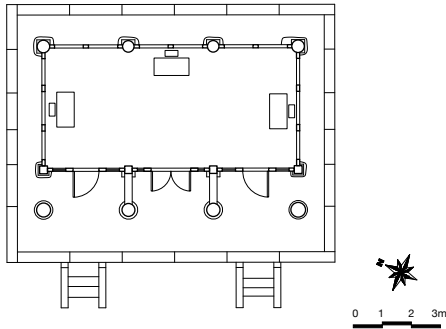
기타시설

- 13. 홍살문
- 14. 하마비
- 15. 묘정비각
- 16. 고직사
- 17. 화장실
- 18. 관리사무소
- 19. 관광안내소
- 20. 한옥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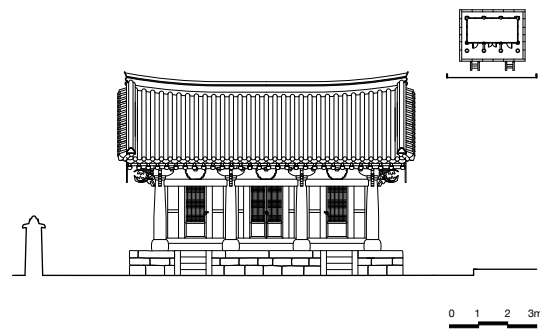
• 제향공간

3 사우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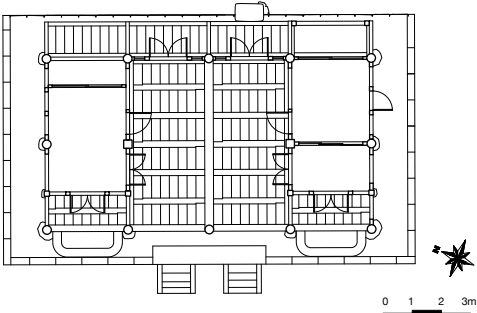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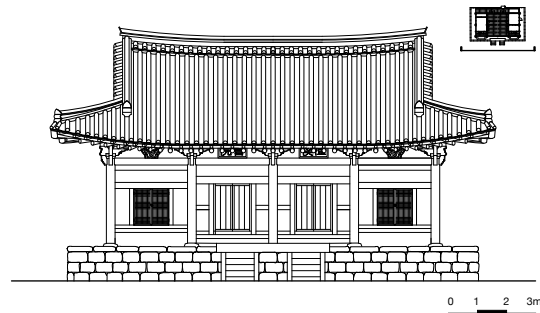
• 강학공간

7 명성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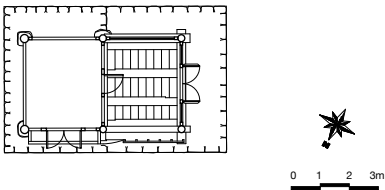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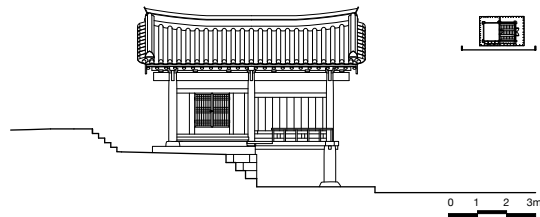


5 양정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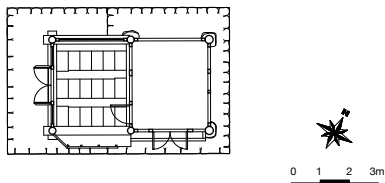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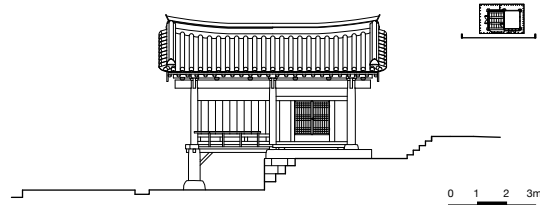


6 보인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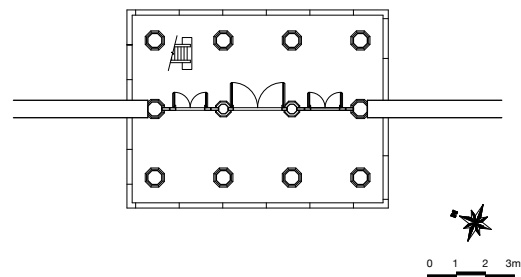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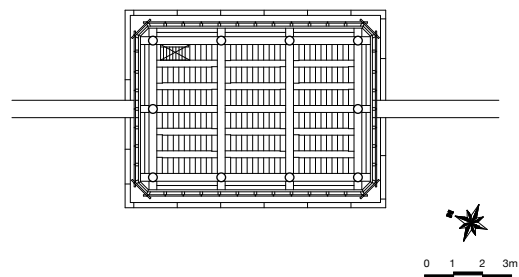
• 교류와 유식공간

9 풍영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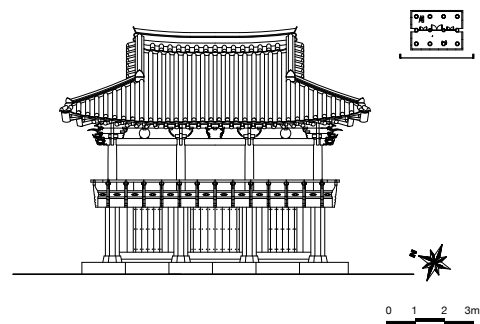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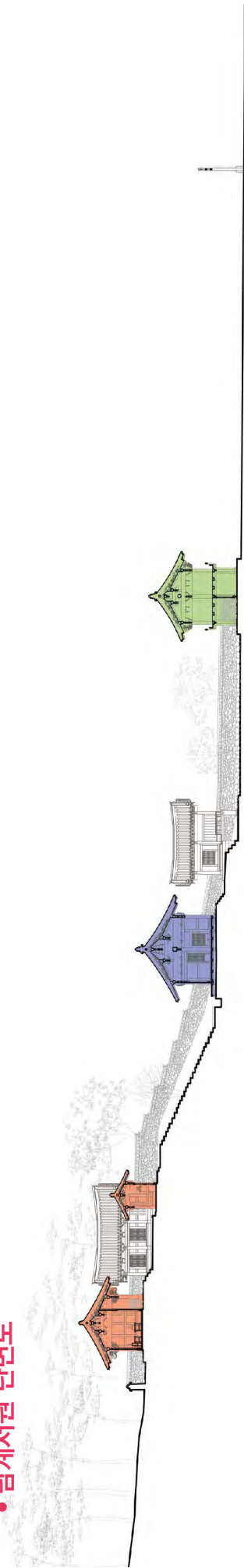
• 2층 평면도



• 입면도



• 남계서원 단면도



교류와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옥산서원



제향공간

- 1. 세심문
- 2. 체인문
- 3. 체인묘
- 4. 전사청

강학공간

- 5. 민구재
- 6. 암수재
- 7. 구인당
- 8. 경각
- 9. 문집판각

회합 및 유식공간

- 10. 역락문
- 11. 무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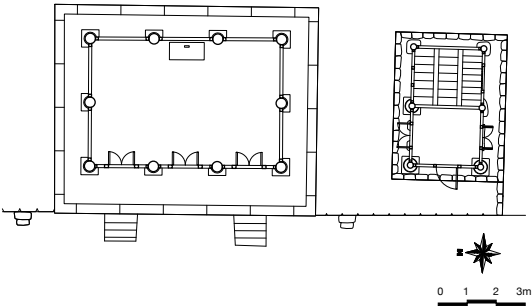
기타시설

- 12. 하마비
- 13. 신도비각
- 14. 고직사
- 15.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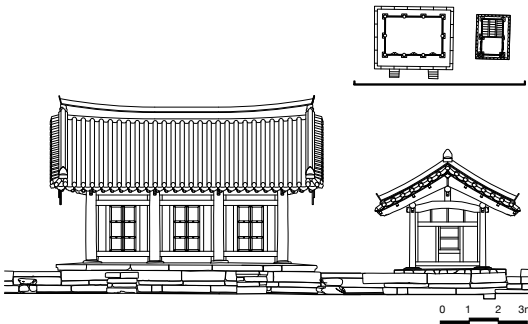
• 제향공간

3, 4 체인묘, 전사청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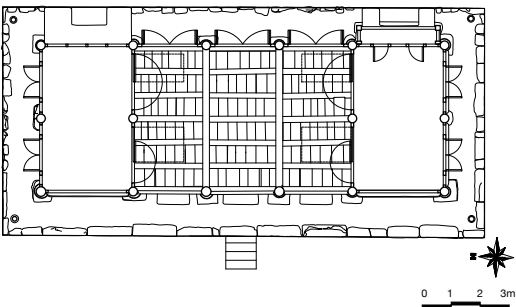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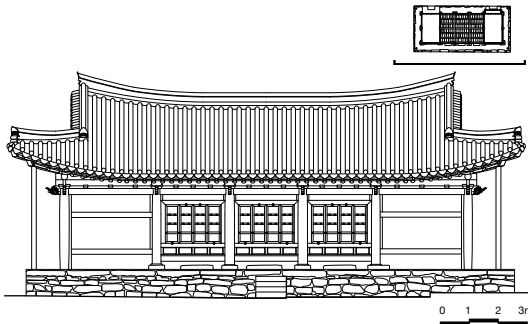
• 강학공간

7 구인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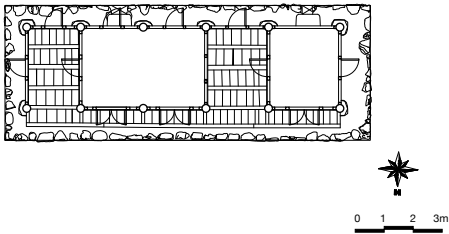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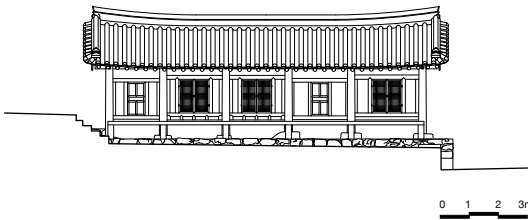


5 민구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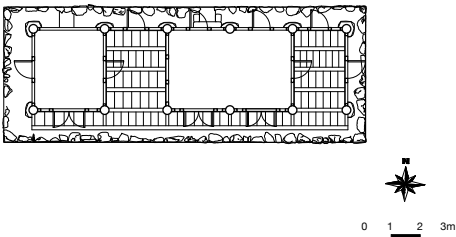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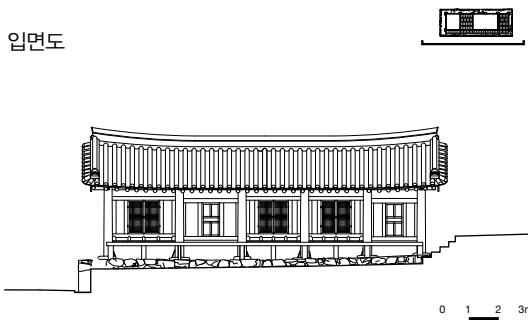


6 암수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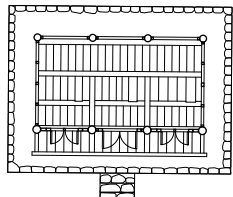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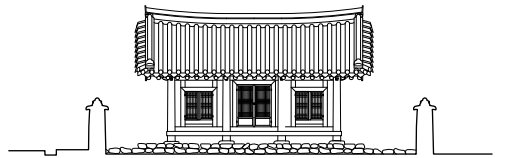
강학공간

8 경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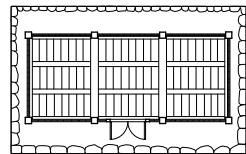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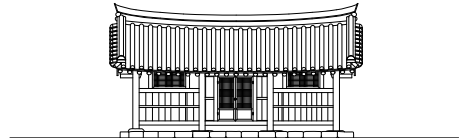


9 문집판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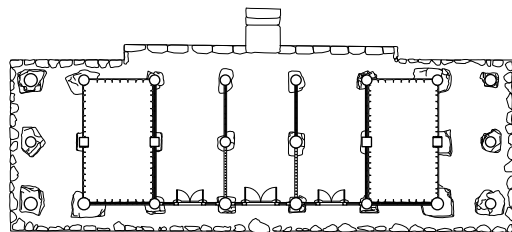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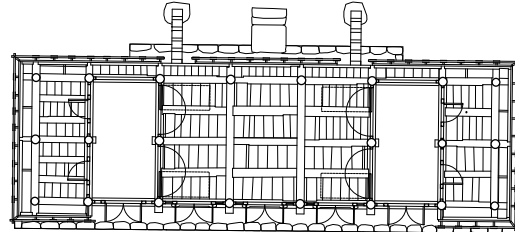
교류와 유식공간

11 무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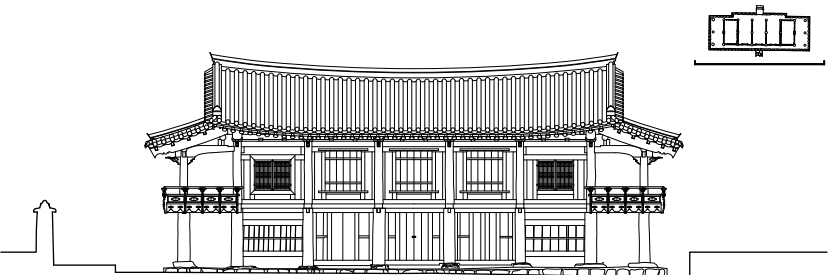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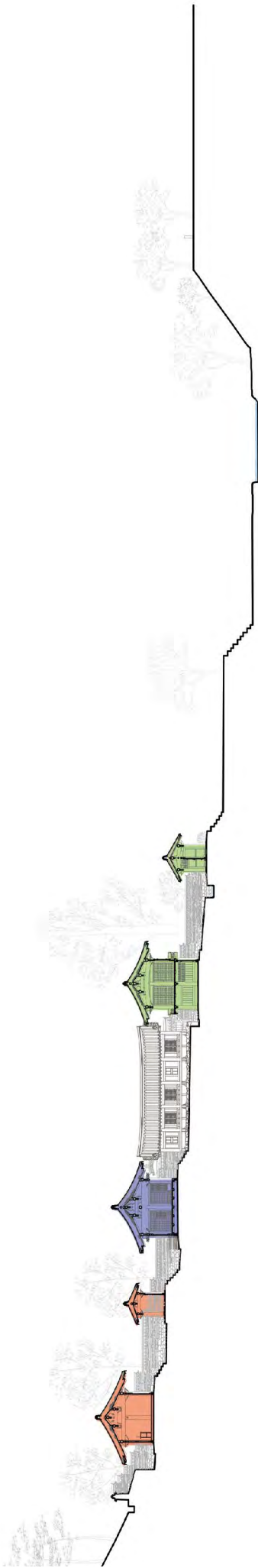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입면도



웅진서원 단면도



교류와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도산서원



제향공간

- 1. 내삼문
- 2. 상덕사
- 3. 전사청
- 4. 주청

강학공간

- 5. 도산서당
- 6. 역락서재
- 7. 농운정사
- 8. 진도문
- 9. 동광명실
- 10. 서광명실

- 11. 박약재
- 12. 홍의재
- 13. 전교당
- 14. 장판각

교류 및 유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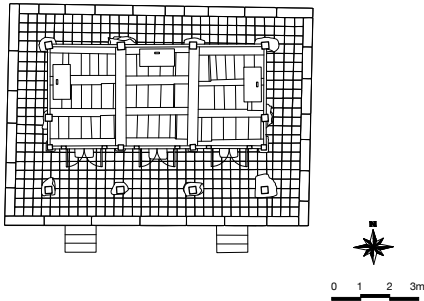
- 15. 천연대
- 16. 천광운영대
- 17. 열정
- 18. 정문
- 19. 몽천
- 20. 정우당
- 21. 절우사
- 22. 상고직사
- 23. 하고직사

- 24. 옥진각(유물전시관)
- 25. 관리소(숙직실)
- 26.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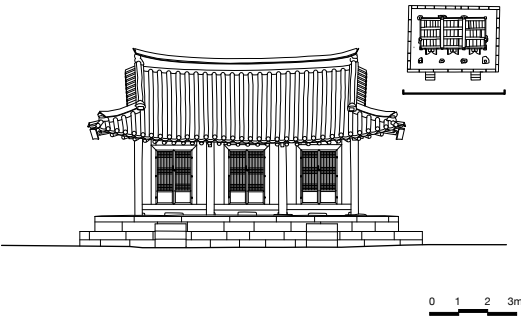
• 제향공간

2 상덕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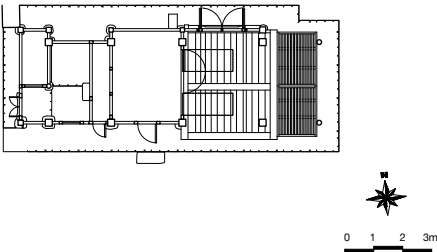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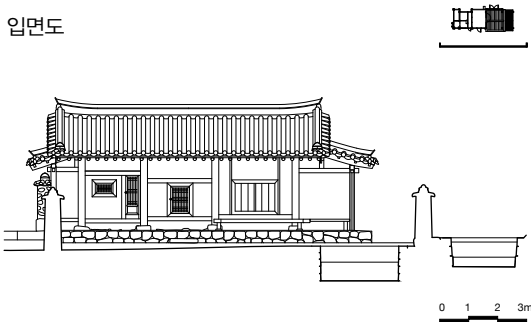
• 강학공간

5 도산서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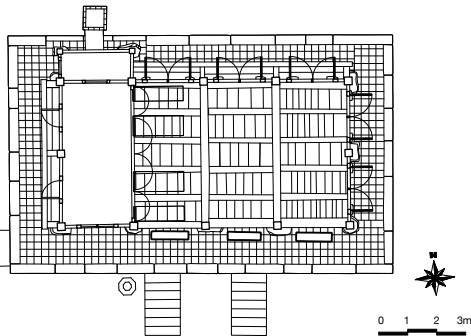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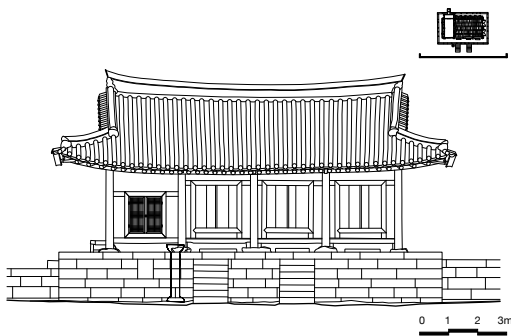


13 전교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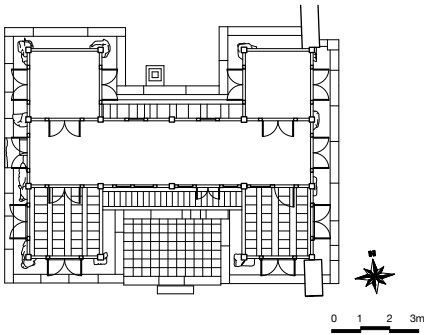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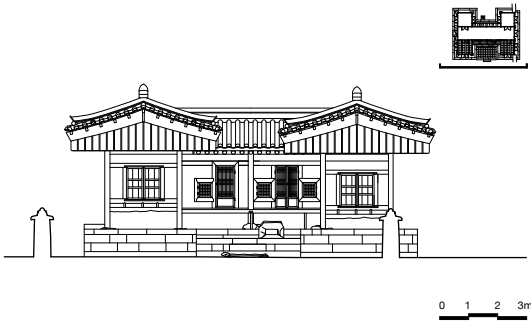


7 농운정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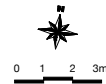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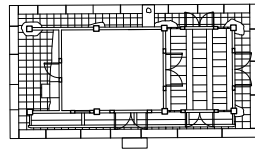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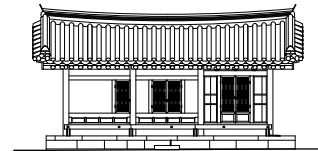
강학공간

6 역락서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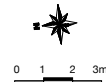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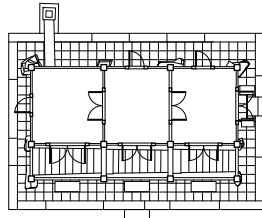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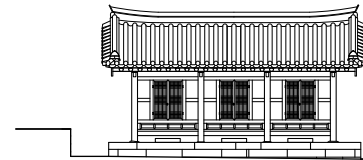


9 동광명실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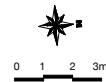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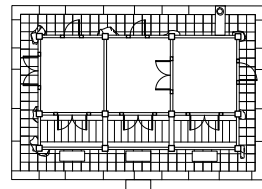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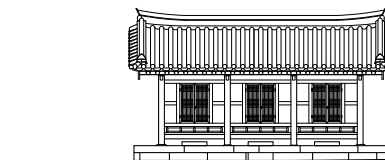


10 서광명실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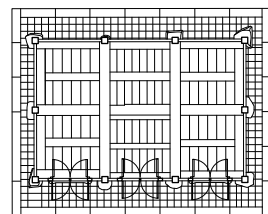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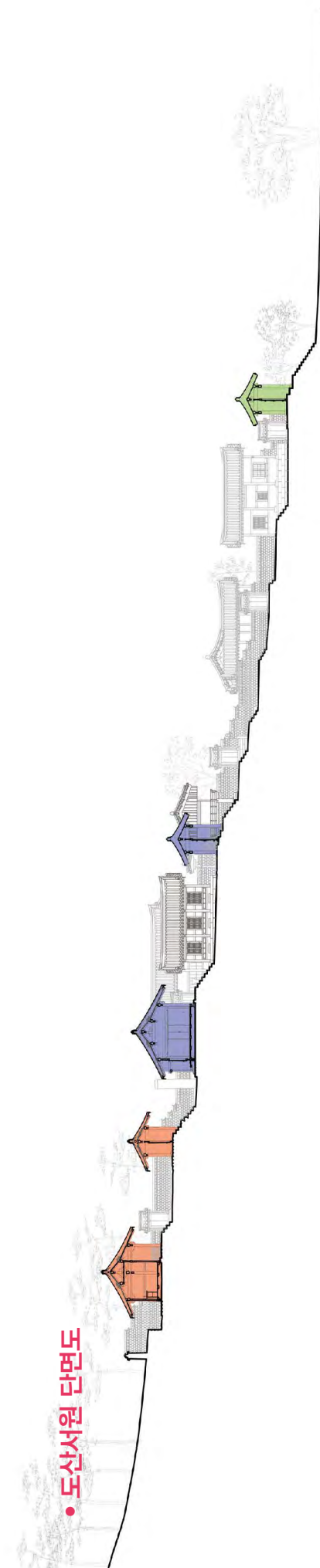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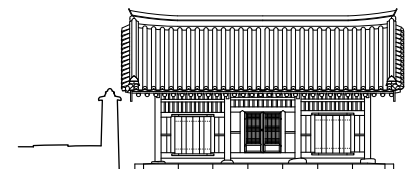


14 장판각

• 평면도



• 입면도



• 도산서원 단면도

교동과 양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필암서원



제향공간

- 1. 계생비
- 2. 내삼문
- 3. 우동사
- 4. 전사청

강학공간

- 5. 청절당
- 6. 진덕재
- 7. 송의재
- 8. 경장각
- 9. 장판각

교류 및 유식공간

- 10. 화연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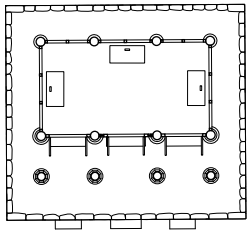
기타시설

- 11. 하마석
- 12. 홍살문
- 13. 한장사
- 14. 고직사
- 15.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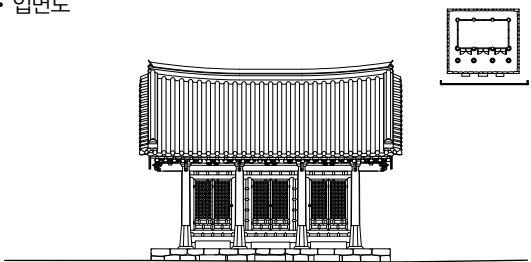
• 제향공간

3 우동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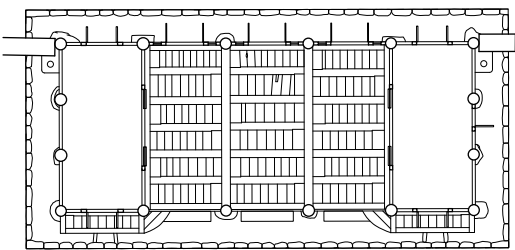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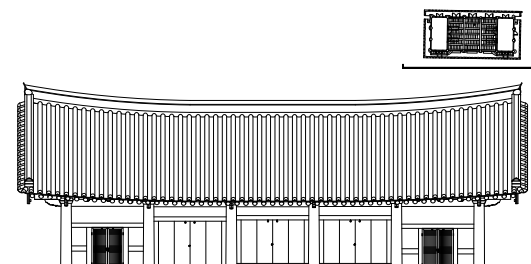
• 강학공간

5 청절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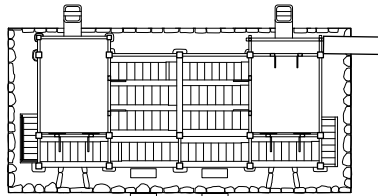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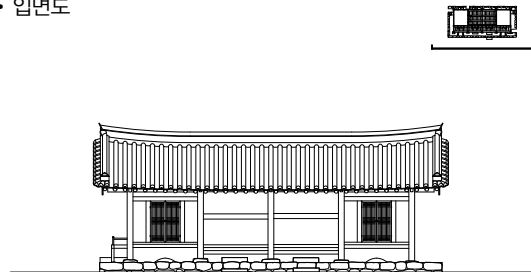


6 진덕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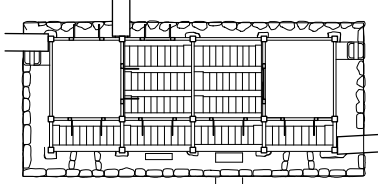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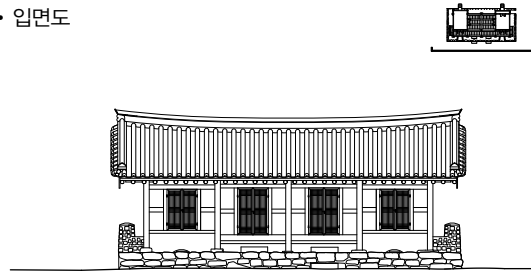


7 송의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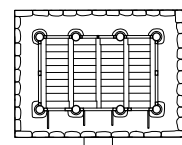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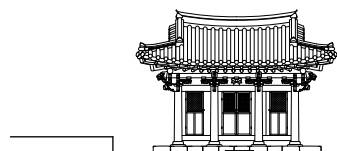
강학공간

8 경장각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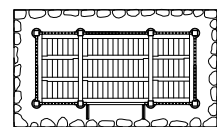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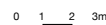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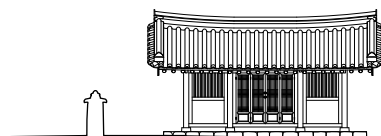


9 장판각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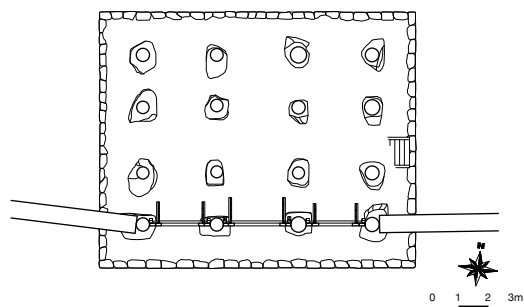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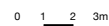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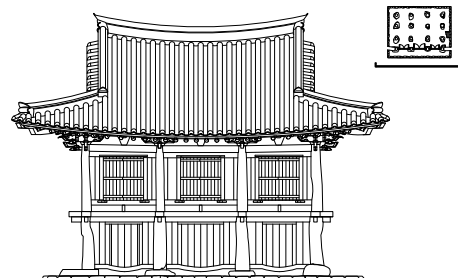
교류와 유식공간

10 학연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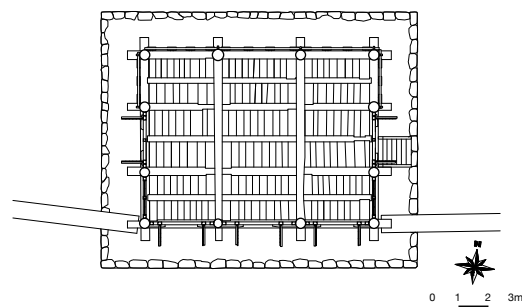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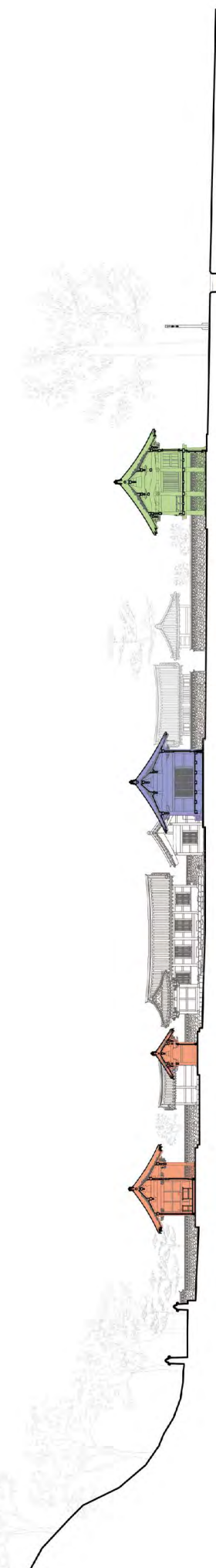
• 입면도



• 2층 평면도



필암서원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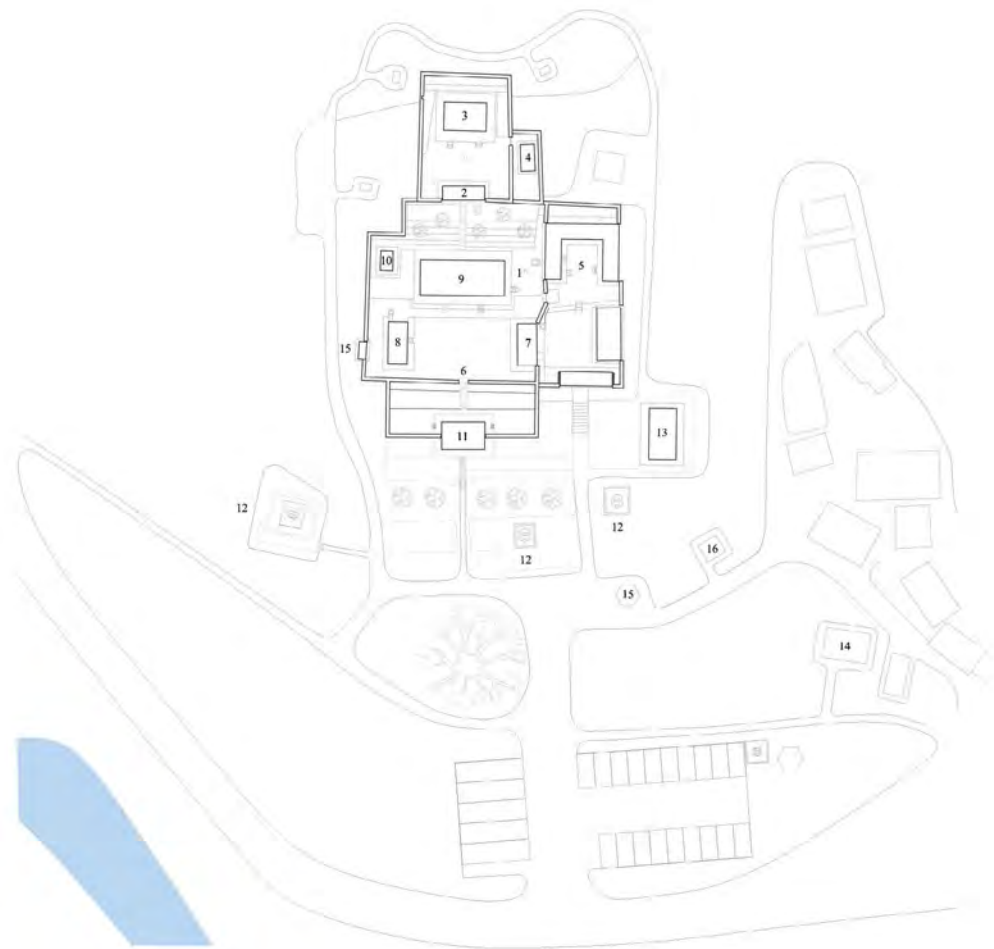


교류와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도동서원



제향공간

- 1. 생단
- 2. 내삼문
- 3. 사우
- 4. 중반소
- 5. 전사청

강학공간

- 6. 환주문
- 7. 거인재
- 8. 거의재
- 9. 중정당
- 10. 장판각

교류 및 유식공간

- 11. 수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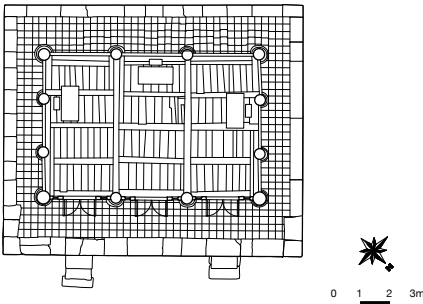
기타시설

- 12. 신도비각
- 13. 유물전시관
- 14. 화장실
- 15. 관광안내소
- 16. 관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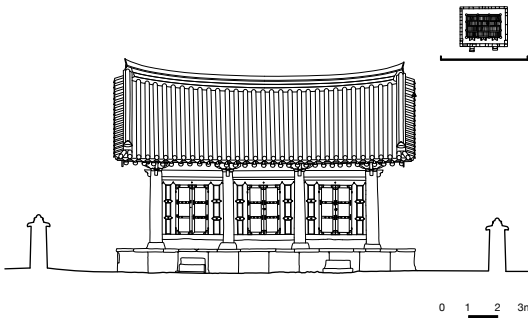
• 제향공간

3 사우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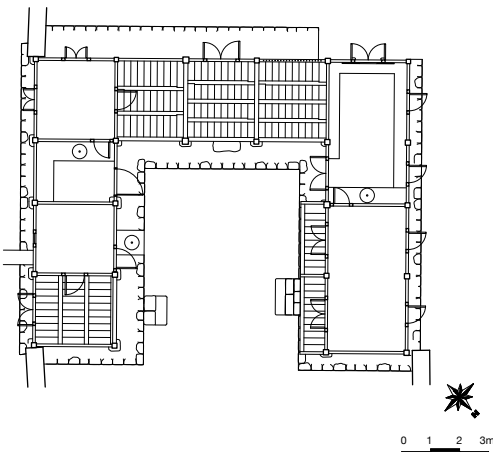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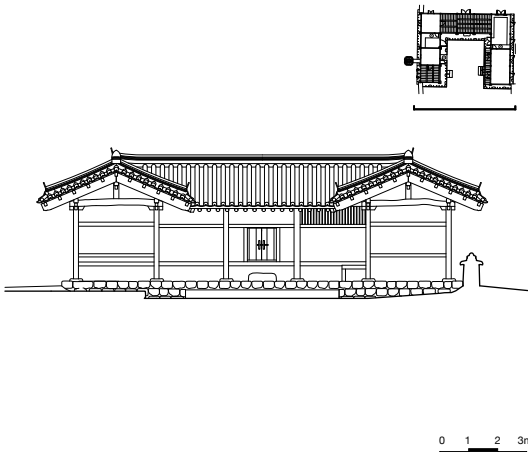


5 전사청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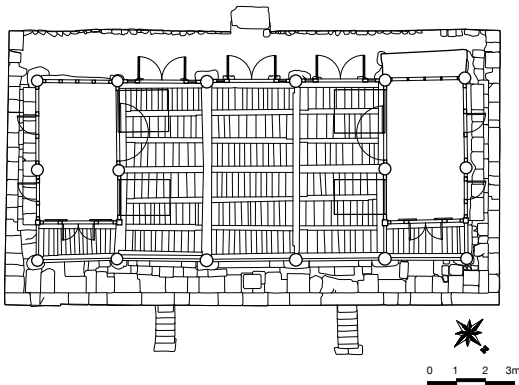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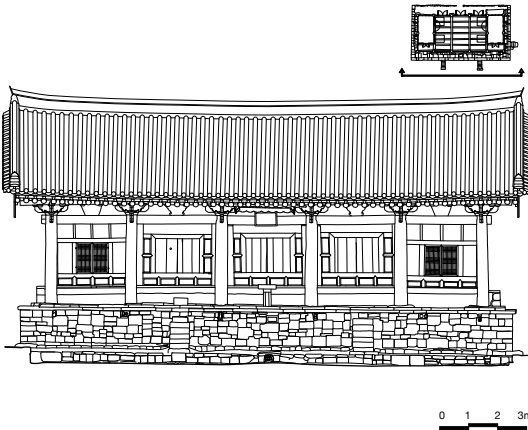
• 강학공간

9 중정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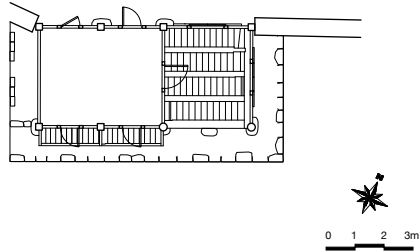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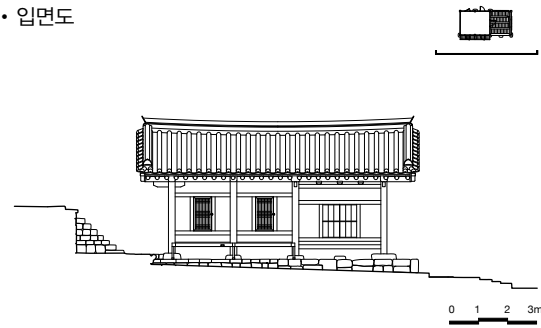
강학공간

7 거인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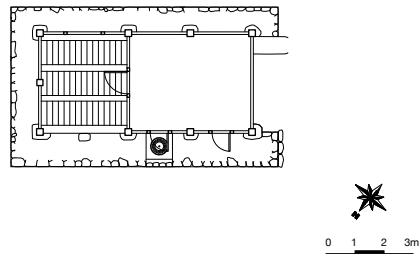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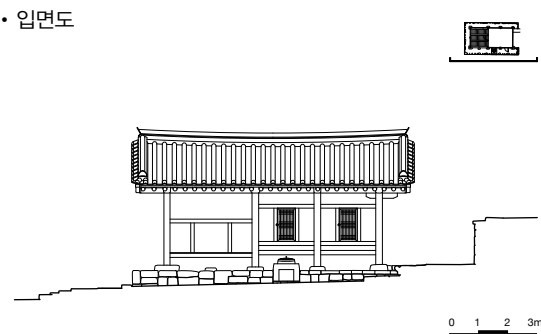


8 거의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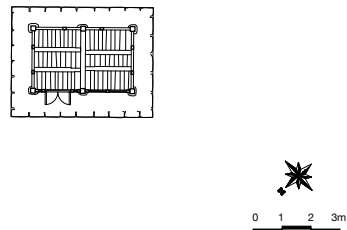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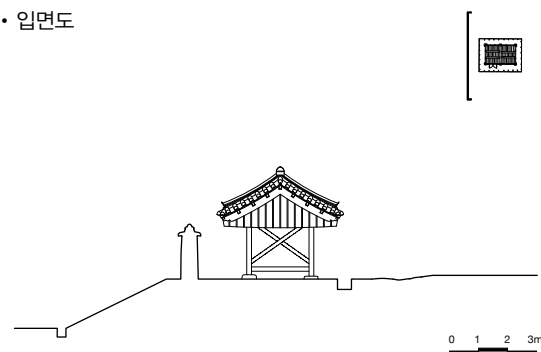


10 장판각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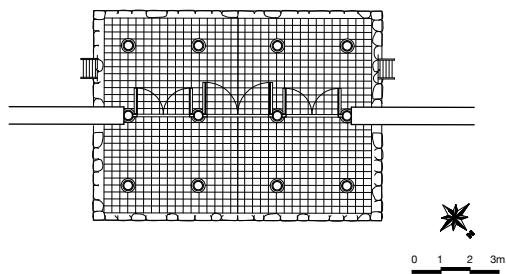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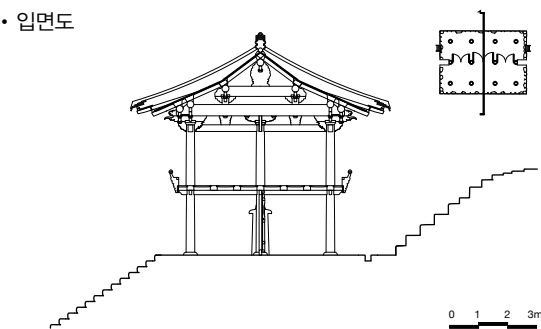
교류와 유식공간

11 수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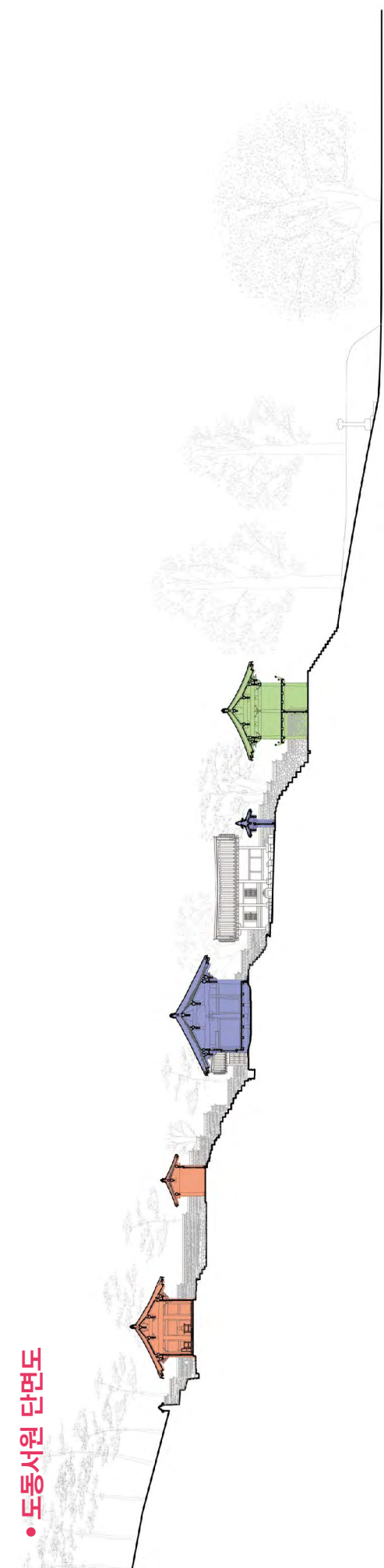
• 평면도



• 입면도



도동서원 단면도



교양농악장

강학공간

제향공간

병산서원



제향공간

- 1. 신문
- 2. 존덕사
- 3. 전사청

강학공간

- 4. 동직재
- 5. 정허재
- 6. 입교당
- 7. 장판각

교류 및 유식공간

- 8. 복례문
- 9. 광명지
- 10. 만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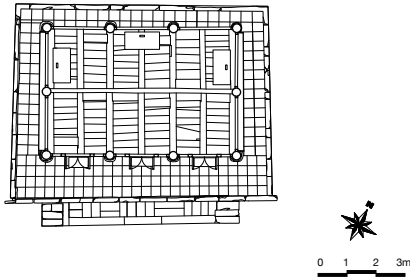
기타시설

- 11. 고직사
- 12. 화장실
- 13. 관광안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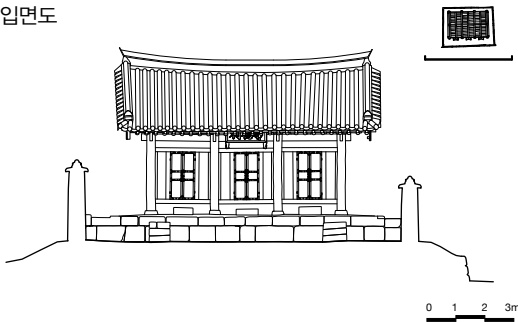
• 제향공간

2 존덕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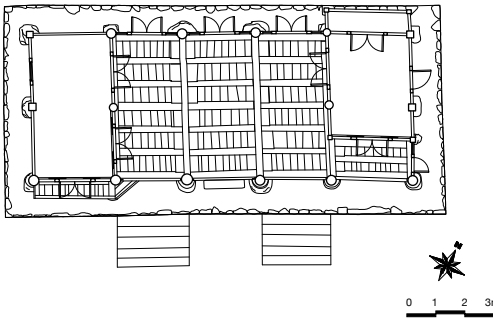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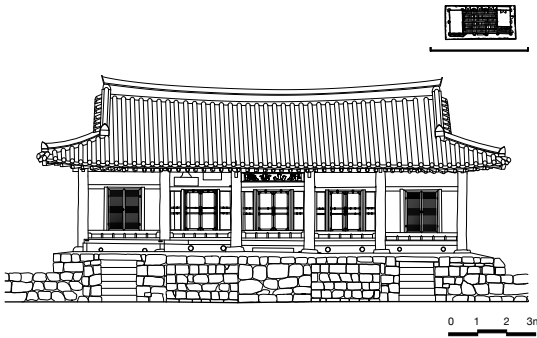
• 강학공간

6 입교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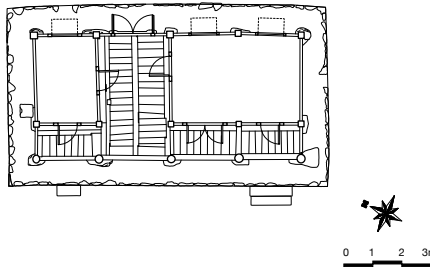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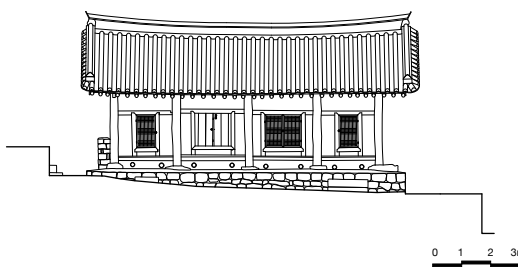


4 동직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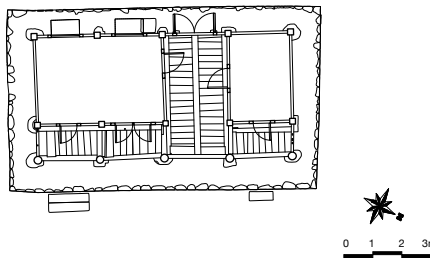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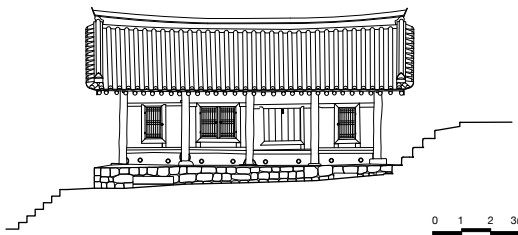


5 정허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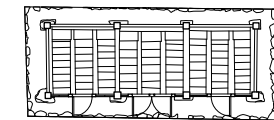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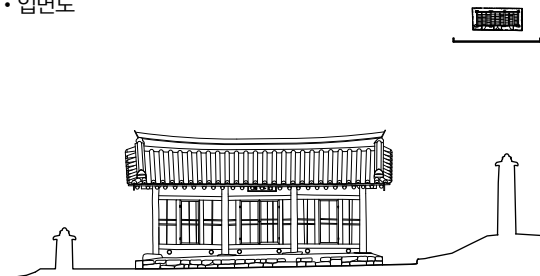
강학공간

7 장판각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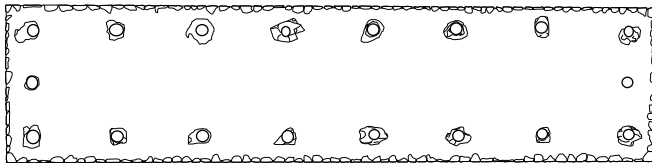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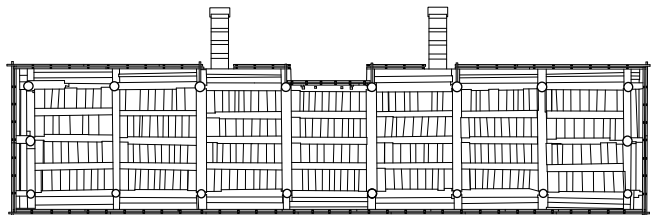
교류와 유식공간

10 만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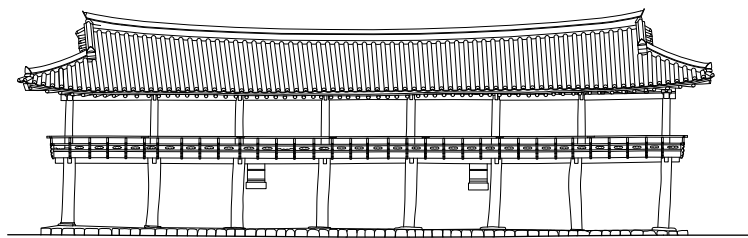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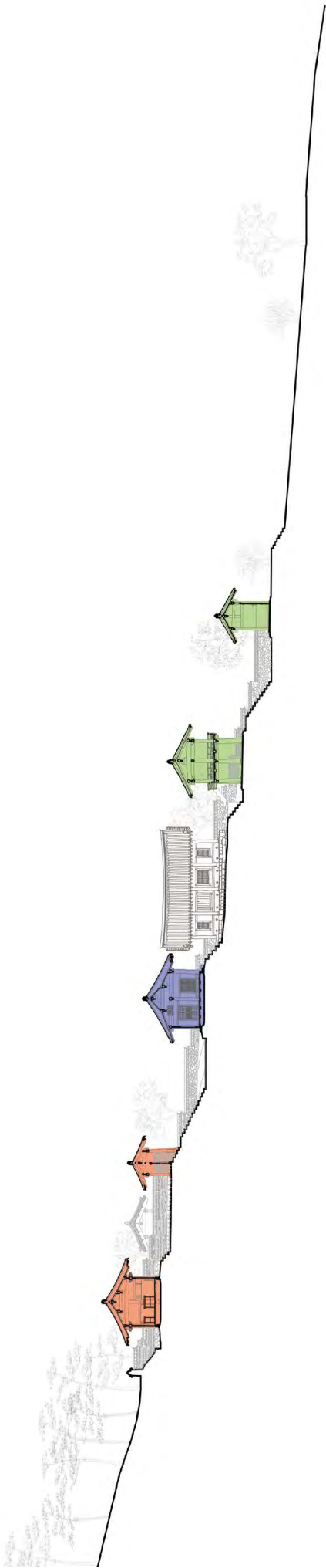
• 2층 평면도



• 입면도



• 평산서원 단면도



교류와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무성서원



제향공간

- 1. 내삼문
- 2. 태산사

강학공간

- 3. 명륜당
- 4. 강수재

교류 및 유식공간

- 5. 현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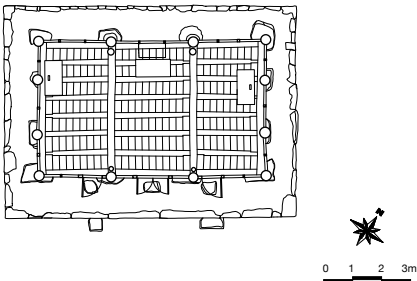
기타시설

- 6. 홍살문
- 7. 진사최영대영세불망비, 전감역정문술중수의조비, 병오창의기적비
- 8. 고직사
- 9.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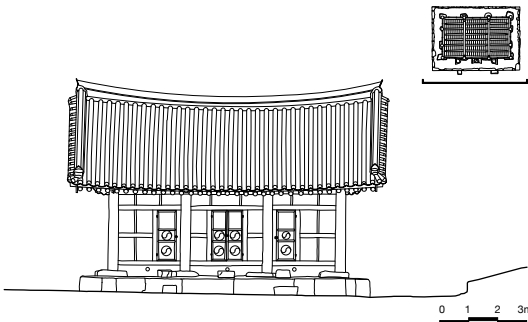
• 제향공간

2 태산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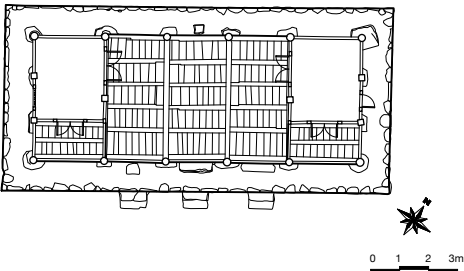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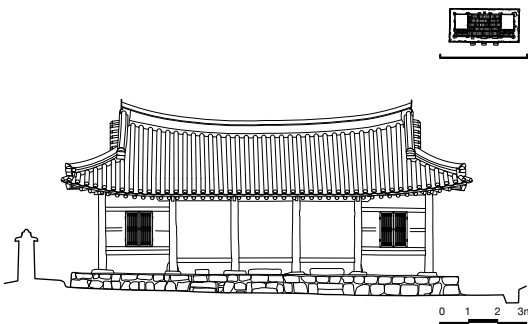
• 강학공간

3 명륜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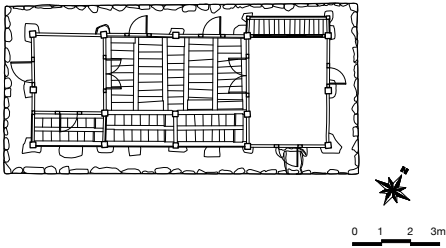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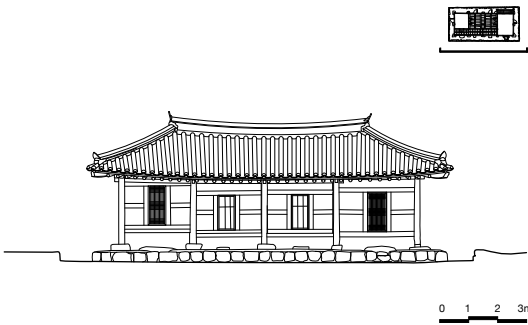


4 강수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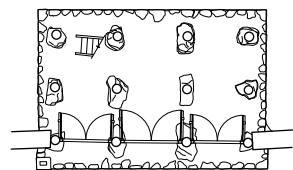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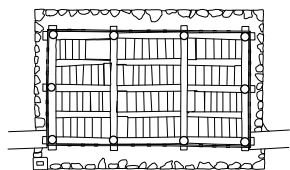
• 교류와 유식공간

5 현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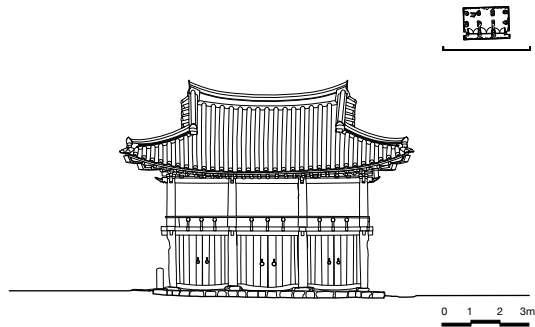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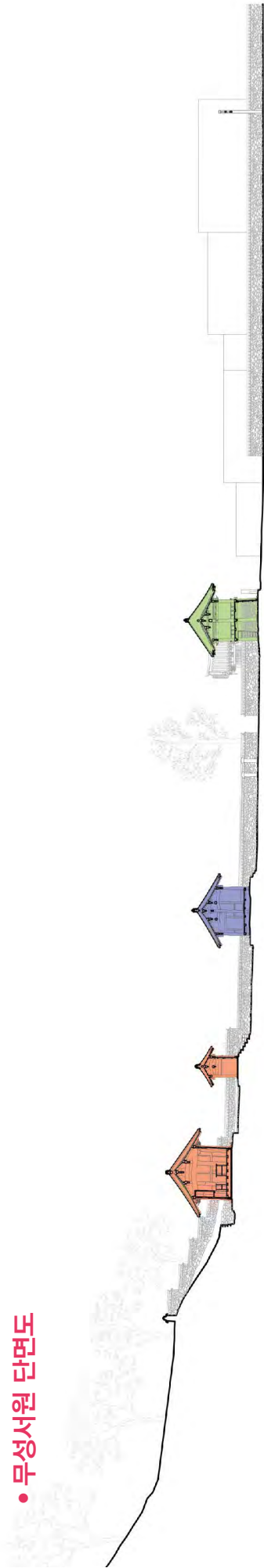
• 2층 평면도



• 입면도



• 무성서원 단면도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

돈암서원



제향공간

- 1. 내삼문
- 2. 송례사
- 3. 전사청

강학공간

- 4. 입덕문
- 5. 응도당
- 6. 경회당
- 7. 거경재
- 8. 정의재
- 9. 양성당
- 10. 정회당
- 11. 장판각

교류 및 유식공간

- 12. 산양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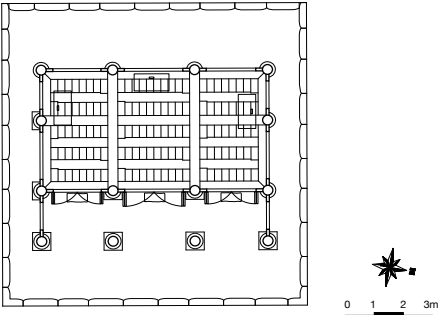
기타시설

- 13. 연산헌돈암서원비기
- 14. 홍살문
- 15. 하마비
- 16.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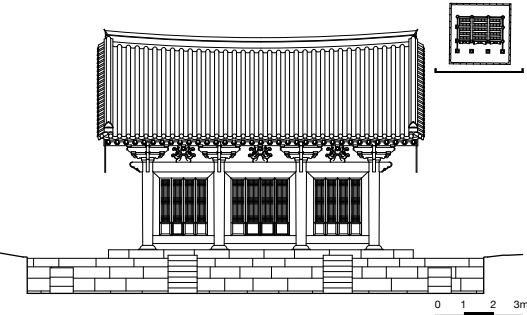
• 제향공간

2 송례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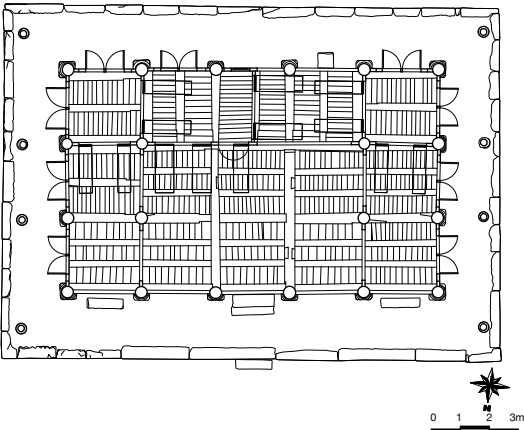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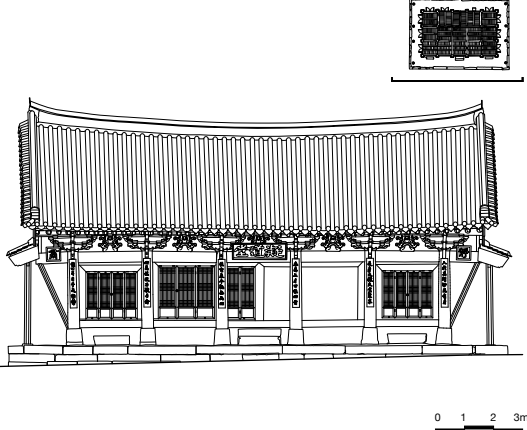
• 강학공간

5 응도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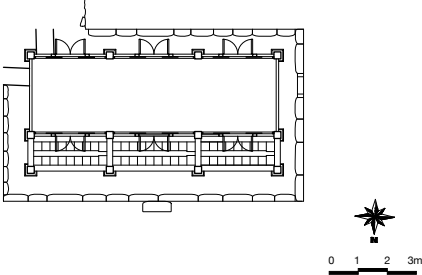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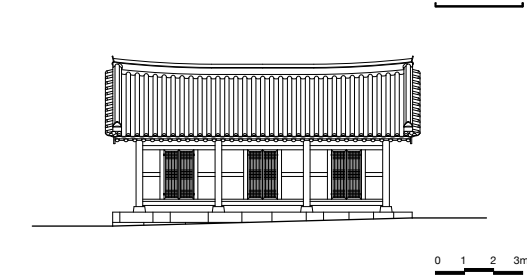


7 거경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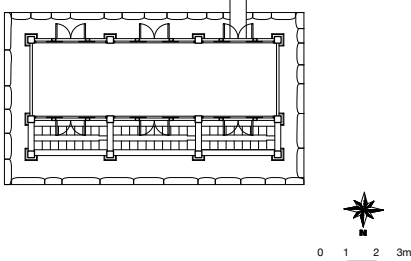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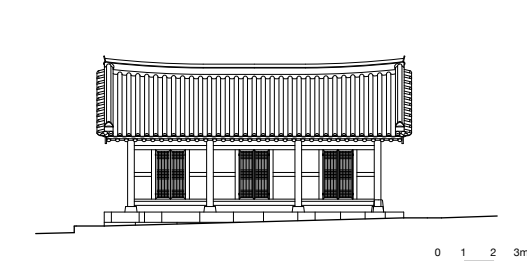


8 정의재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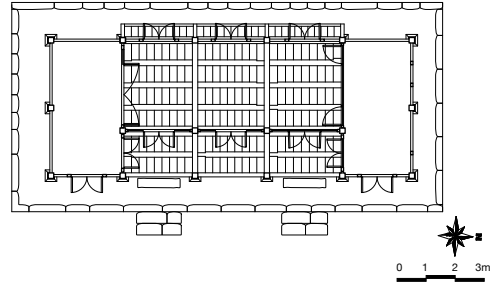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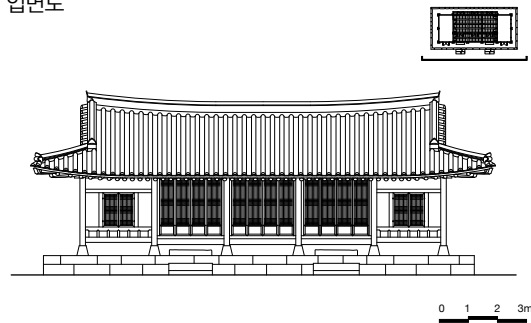
• 강학공간

9 양성당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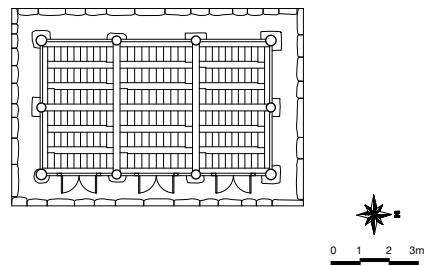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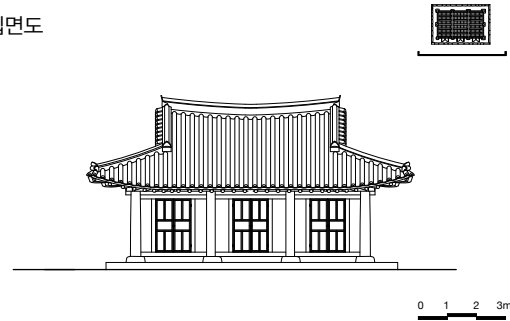


11 장판각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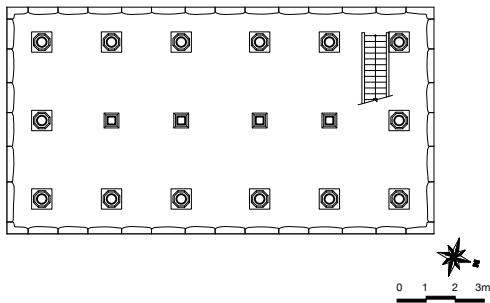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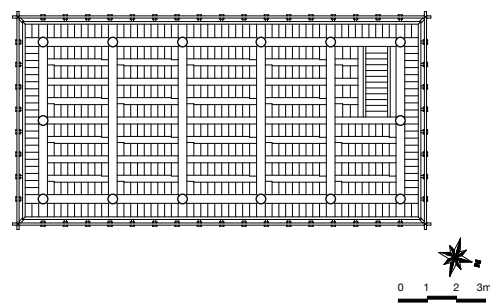
• 교류와 유식공간

12 산양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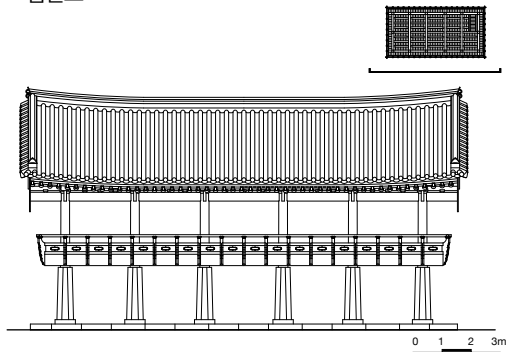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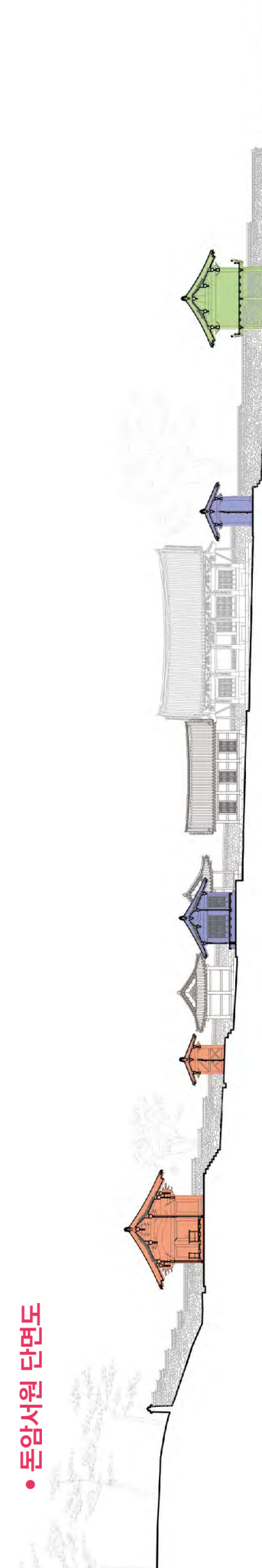
• 2층 평면도



• 입면도



• 토암서원 단면도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

SEOWON

한국의 서원

이코모스 추가질의 1차 보완자료

2018. 11.

대한민국

한국의 서원

이코모스 추가질의 1차 보완자료

대한민국

1. 설명(매핑 요소)	05
1.a 소수서원	
1.b 남계서원	
1.c 옥산서원	
1.d 도산서원	
1.e 필암서원	
1.f 도동서원	
1.g 병산서원	
1.h 무성서원	
1.i 돈암서원	
2. 비교연구	42
2.a 병산서원	
3. 진정성 및 완전성	46
3.a 도동서원	
3.b 돈암서원	

4. 관리	50
4.a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4.b 신청유산의 통합보존관리 문서와 체계	
4.c 신청유산의 현존계획	
4.d 신청유산의 자원 조달	
4.e 신청유산에 대한 통합해설 및 제시	

1. 설명(매핑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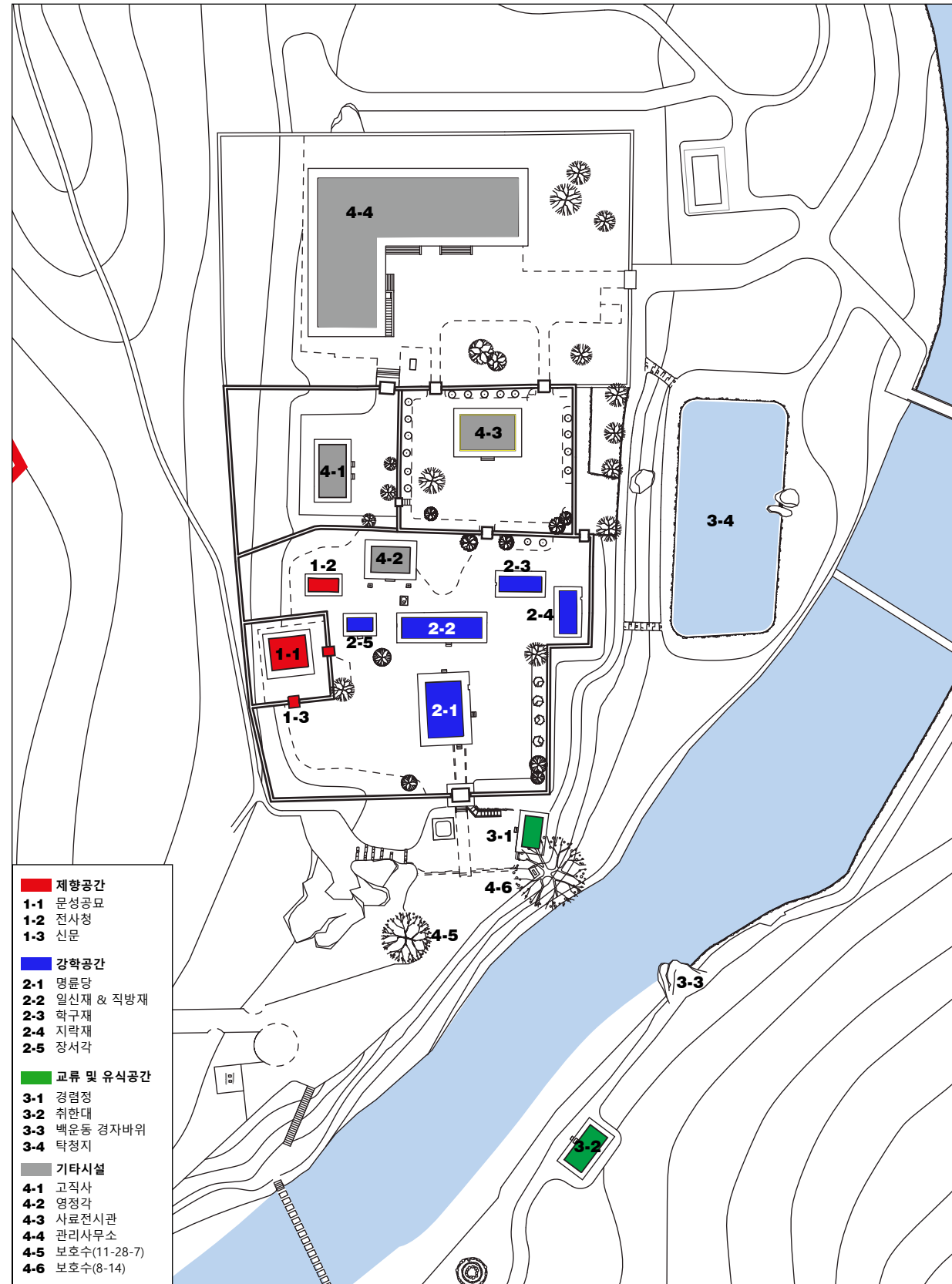
각 개별 유산에 포함된 여러 속성을 매핑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유산에 대한 매핑 자료는 후면 참조.

- 이 자료는 이코모스가 2018년 10월 10일에 송부했던 서신(Ref. GB/AS/1498-Add.Inf_1)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이다. 각 문항은 청색으로 표시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1.a 소수서원 (1543년 건립)

주향인물: 안향



도면 1-1. 소수서원 배치도



1-1 문성공묘: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1-2 전사청: 제향에 사용되는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1-3 신문: 사우의 진입문이다.



2-1 명륜당: 서원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원장과 원임의 집무실과 원생의 강학을 위한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일신재 및 직방재: 원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2-3 학구재: 원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2-4 지락재: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2-5 장서각: 서원 강학과 관련된 교재와 목판 등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장서는 현재 소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3-1 경렴정: 서원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정자이다. 유림들이 교류하며 작성한 시문(詩文) 현판들이 경렴정 내부에 걸려있다.



3-2 취한대: 서원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정자이다.



3-3 백운동 경자바위: 경렴정 맞은편에 위치하며, 성리학적 의미를 깨닫도록 성리학 개념 중 하나인 '경'자를 석각하였다.



3-4 탁청지: 유식을 위해 조성된 연못이다.



4-1 고직사: 서원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4-2 영정각: 서원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물이다.



4-3 사료전시관: 서원의 역사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물이다.



4-4 관리사무소: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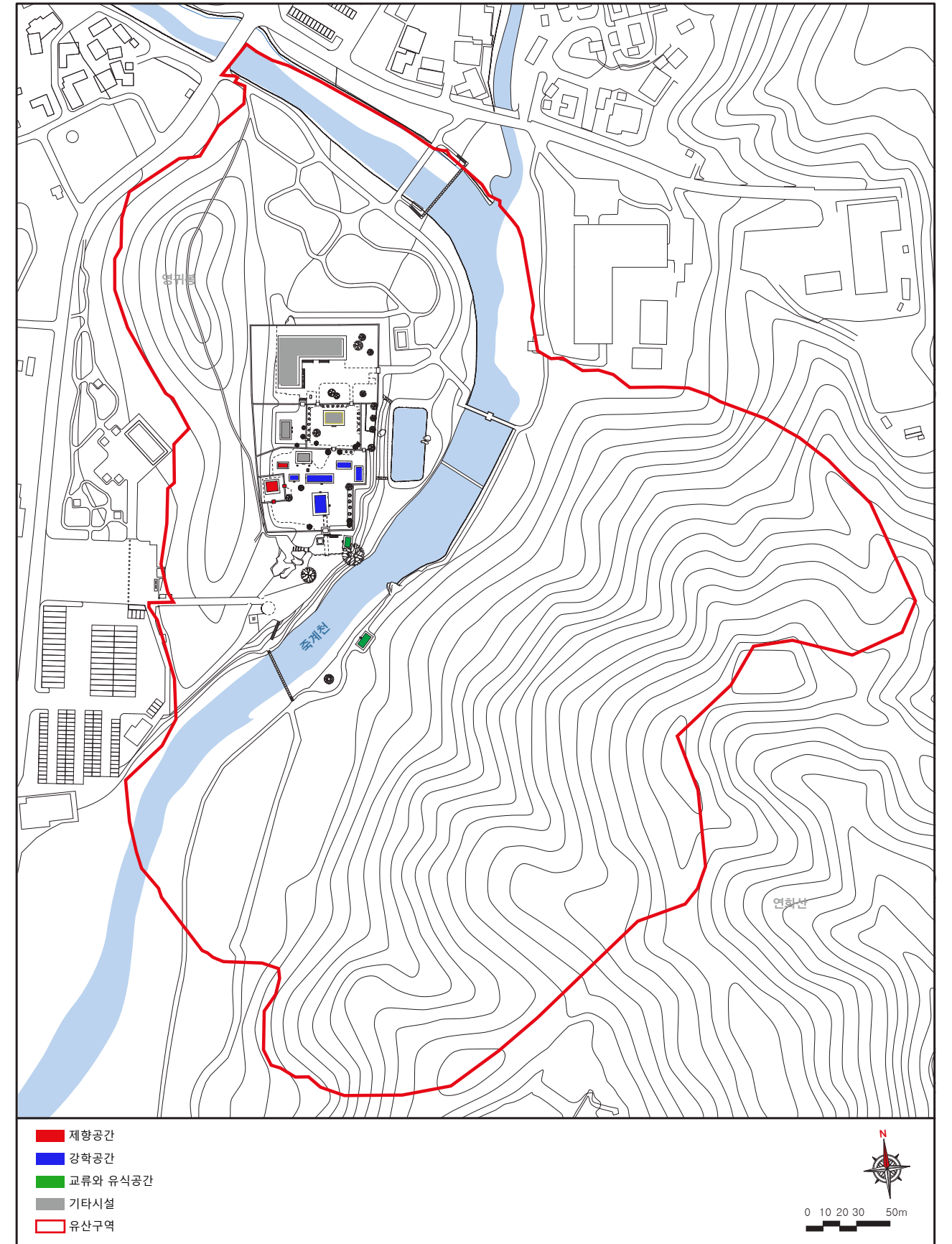
4-5 보호수(11-28-7): 약 500년된 은행나무(학자수)이다.



4-6 보호수(8-14): 약 500년된 은행나무(학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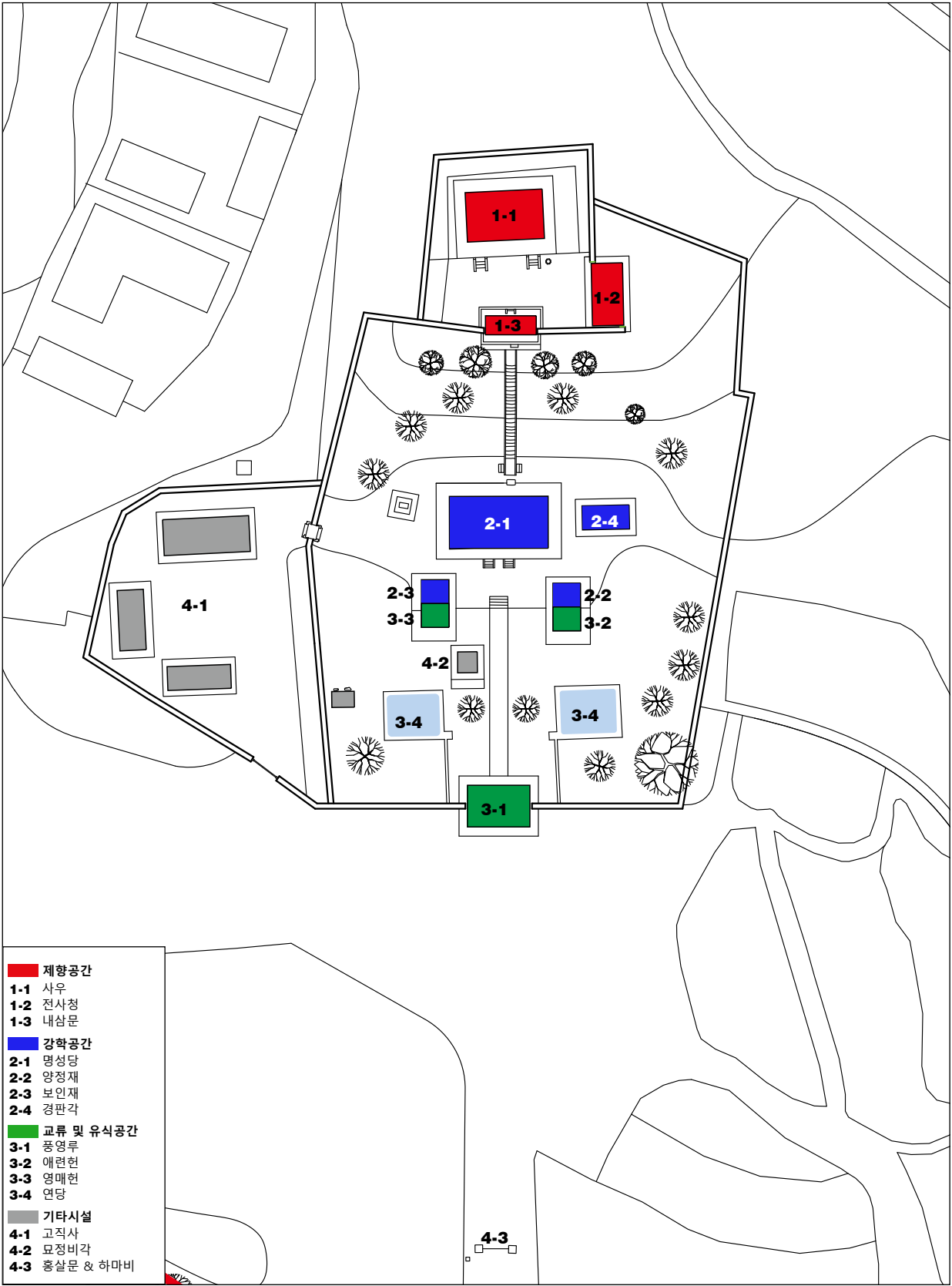
소수서원 전경



도면 1-2. 소수서원 유산구역 지도

1.b 남계서원 (1552년 건립)

주향인물: 정여창



도면 1-3. 남계서원 배치도



1-1 사우: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1-2 전사청: 제향에 사용되는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1-3 내삼문: 사우의 진입문이다.



2-1 명성당: 서원의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양 측면은 원장과 원임의 집무실인 협실로, 가운데는 원생의 강학을 위한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2-2 양정재: 이 건물에서 원생들은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한국의 서원에서 최초로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재사가 배치되었다.



2-3 보인재: 이 건물에서 원생들은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2-4 장판각: 서원의 강학과 관련된 서적과 목판 등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되었던 장서와 목판은 현재 함양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3-1 동영루: 서원의 회합과 유식을 목적으로 건립된 누마루이다. 창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서원 건축에서 누각이 보편화되는 경향에 따라 19세기에 이르러 건립되었다.



3-2 애련헌: 서원의 재사의 앞 부분에 조성되어 있으며, 원생들의 유식을 목적으로 한다.



3-3 영매헌: 서원의 재사의 앞 부분에 조성되어 있으며, 원생들의 유식을 목적으로 한다.



3-4 연당: 애련헌과 영매헌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바로 앞에 위치하여 원생들의 유식의 기능을 목적으로 조성된 연못이다.



4-1 고직사: 서원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했던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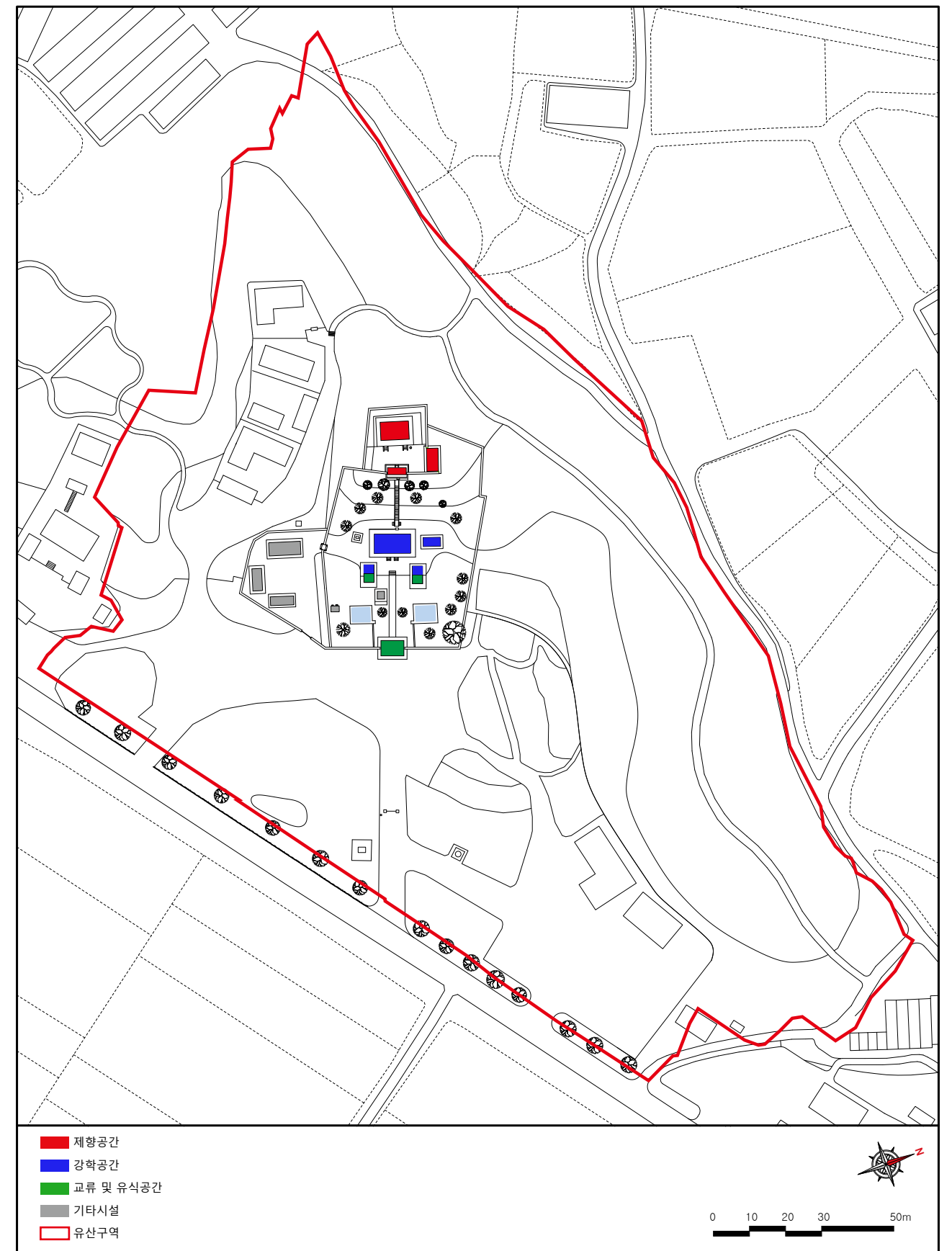
4-2 묘정비각: 정여창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비석이다.



4-3 홍살문 & 하마비: 서원의 입구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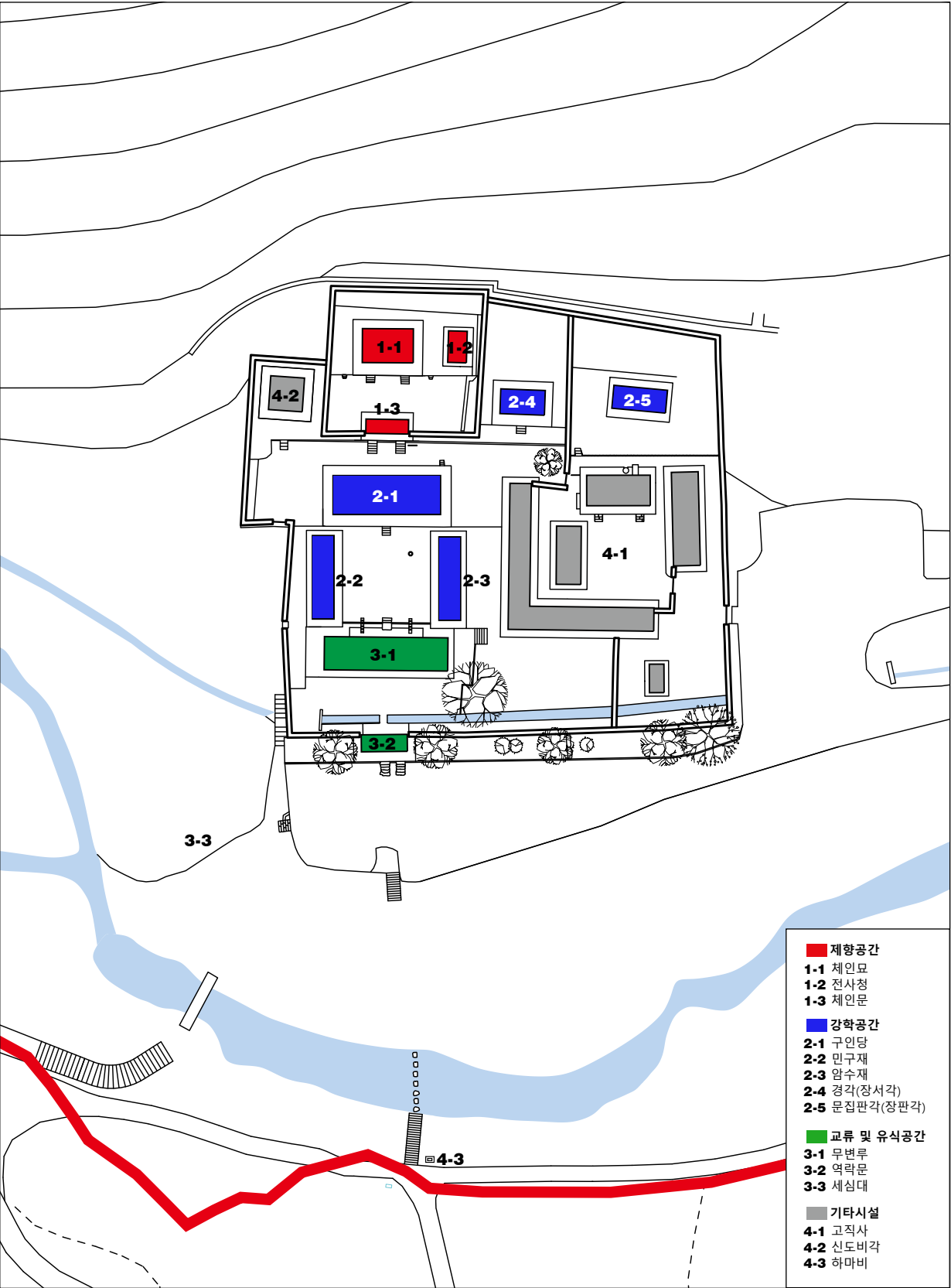
남계서원 전경



도면 1-4. 남계서원 유산구역 배치도

1.c 옥산서원 (1572년 건립)

주향인물: 이언적



도면 1-5. 옥산서원 배치도



1-1 체인묘: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1-2 전사청: 제향에 사용되는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1-3 체인문: 사우의 진입문이다.



2-1 구인당: 서원의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남계서원의 서원건물 배치형식을 계승하여 좌우로 원장과 원임의 집무실과 가운데 누마루로 구성된 학생의 강학을 위한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명필가들이 남긴 현판이 걸려있다.



2-2 민구재: 이 건물에서 원생들은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옥산서원의 재사들은 남계서원의 배치방식을 계승하여 강당의 좌우에 위치하고 있다.



2-3 암수재: 이 건물에서 원생들은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2-4 경각: 서원의 강학활동과 관련된 교재 등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장서는 현재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2-5 문집판각: 서원에서 만든 목판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목판은 현재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3-1 무변루: 서원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목적에서 건립된 누마루 형식의 건물이다. 한국 서원 중 최초로 건립된 누마루 형식의 건물이다.



3-2 역락문: 서원 건물들의 진입문이다.



3-3 세심대: 서원 주요 건축물의 남서부에서 계곡을 바라보는 곳에 있는 석각이 새겨진 암석이다. '마음을 씻는다(洗心)'라는 성리학적 개념이 석각되어 있다.



4-1 고직사: 조선시대 서원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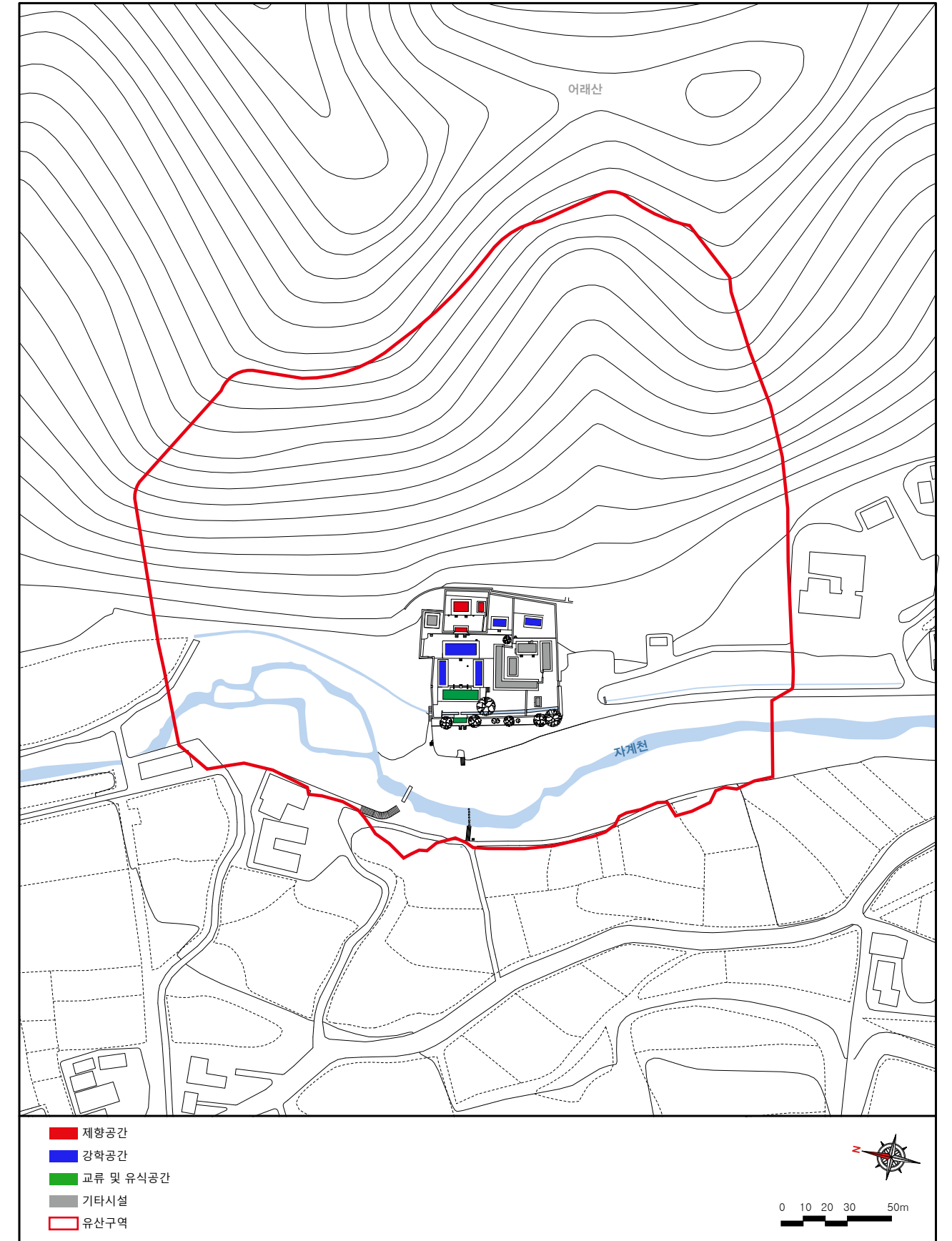
4-2 신도비각: 이언적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비각이다.



4-3 하마비: 서원의 입구에 세워져 있다. 이 구역부터 방문자들은 말이나 가마에 내려 서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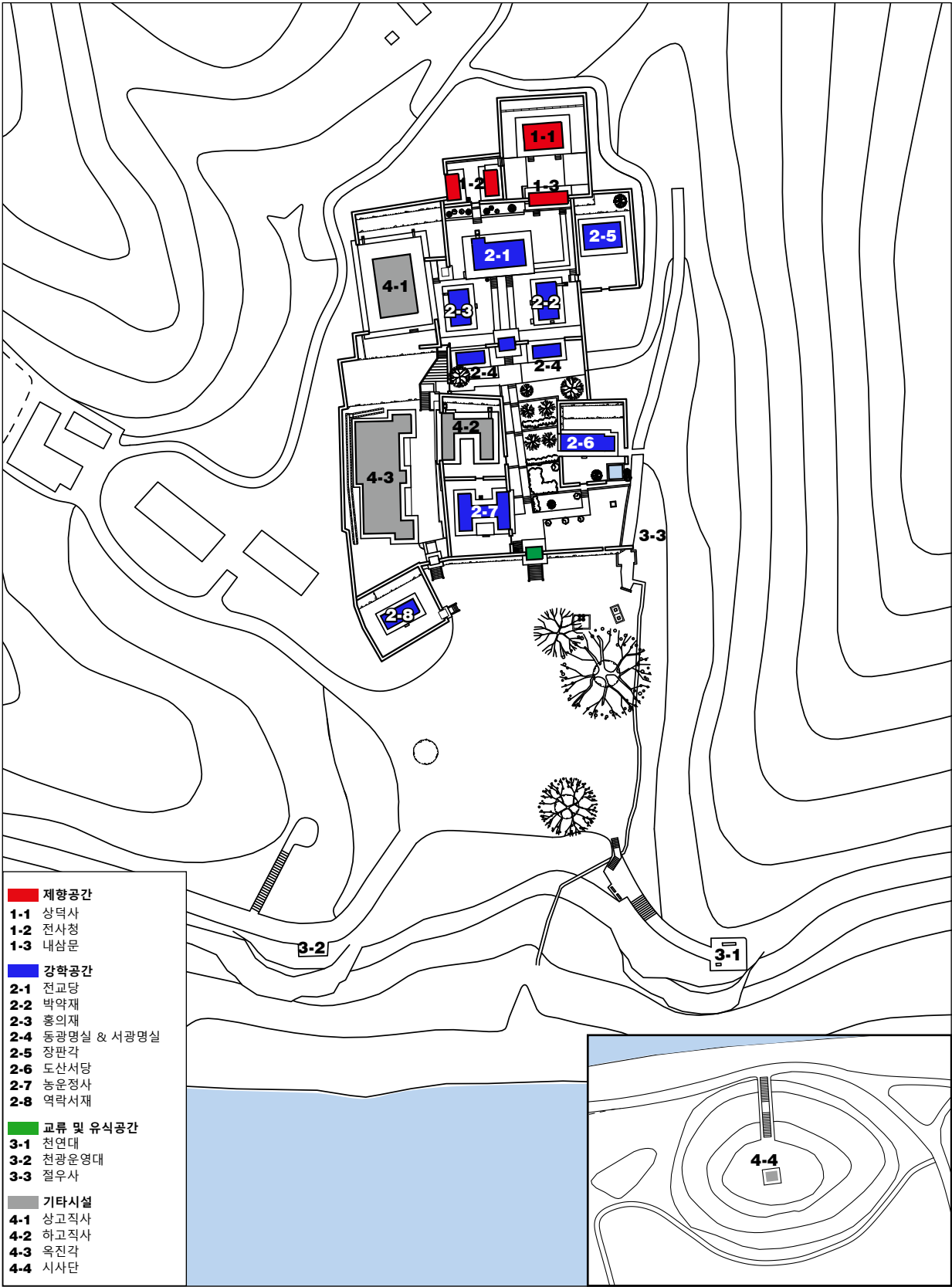
옥산서원 전경



도면 1-6. 옥산서원 유산구역 지도

1.d 도산서원 (1574년 건립)

주향인물: 이황



도면 1-7. 도산서원 배치도



1-1 상덕사: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1-2 전사청: 제향에 사용되는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1-3 내삼문: 사우의 진입문이다.



2-1 전교당: 서원의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원장과 원임의 집무실과 학생의 강학을 위한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2-2 박약재: 원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2-3 홍의재: 원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2-4 동광명실 & 서광명실: 서원의 강학 활동과 관련된 교재 등이 보관되었던 건물들이다. 이곳에 보관되었던 장서는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다.



2-5 장판각: 서원에서 제작된 목판 등이 보관된 건물이다. 이곳에 보관되었던 목판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다.



2-6 도산서당: 이황이 거처하며 성리학을 연구했던 건물이다.



2-7 농운정사: 이황의 제자들이 공부했던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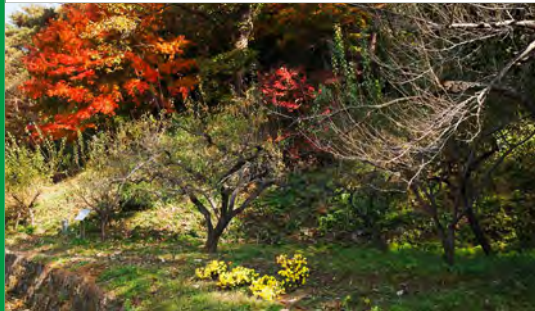
2-8 역락서재: 이황의 제자들이 공부했던 건물이다.



3-1 천연대: 서원 전면의 낙동강을 조망하는 곳에 조성된 교류와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3-2 천광운영대: 서원 전면의 낙동강을 조망하는 곳에 조성된 곳으로 교류와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3-3 절우사: 이항이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를 심고 감상하며 성리학의 원리를 터득하던 곳이다.



4-1 상고직사: 서원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4-2 하고직사: 서원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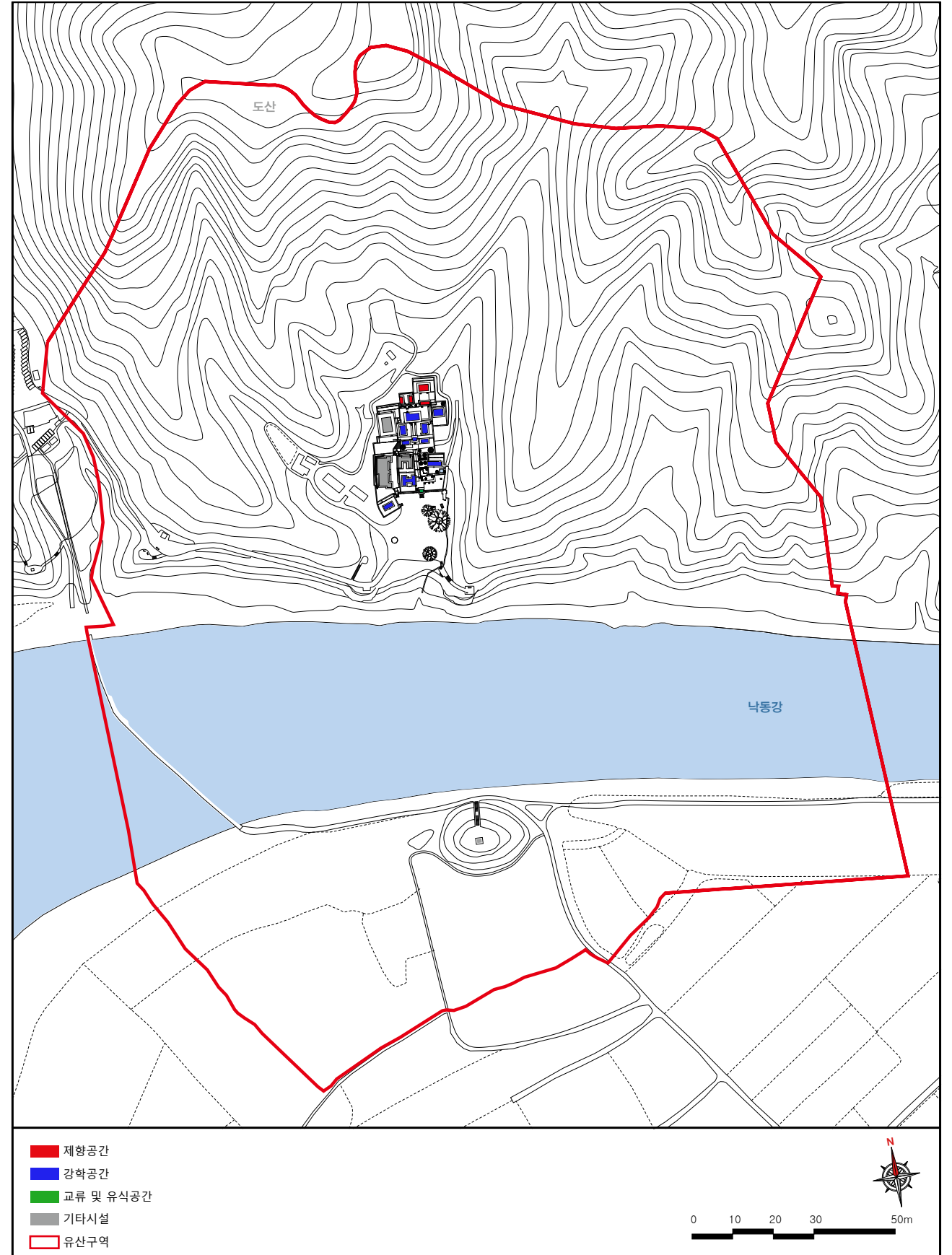
4-3 옥진각: 서원 및 서원과 관련된 인물과 관련한 유물 전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건물이다.



4-4 시사단: 정조대 도산서원에서 시행된 과거시험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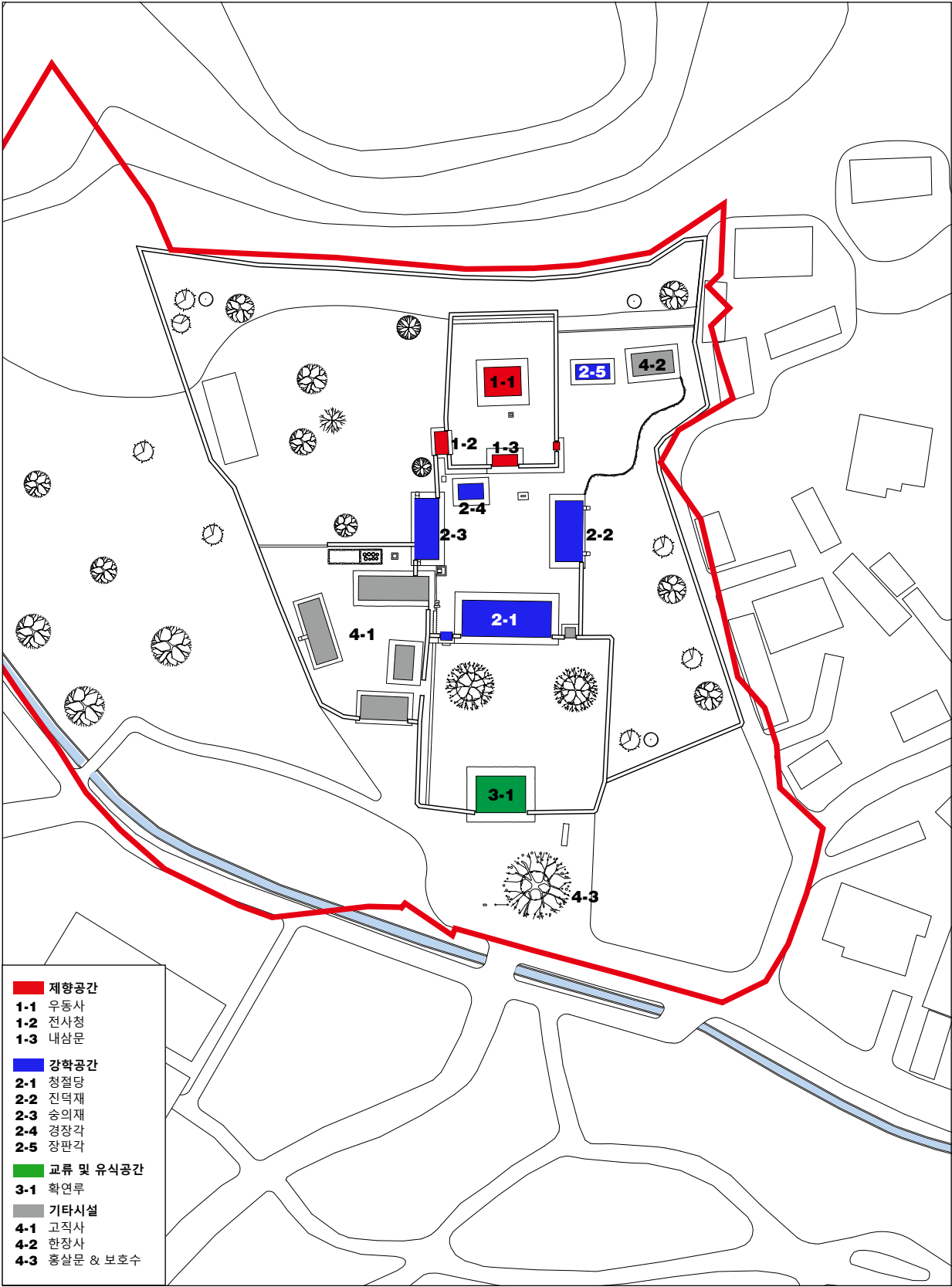
도산서원 전경



도면 1-8. 도산서원 유산구역 지도

1.e 필암서원 (1590년 건립)

주향인물: 김인후



도면 1-9. 필암서원 배치도



1-1 우동사: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1-2 전사청: 제향에 사용되는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1-3 내삼문: 사우의 진입문이다.



2-1 청절당: 서원의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원장과 원임의 집무실과 원생의 강학을 위한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2-2 진덕재: 원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다른 서원과 달리 강당과 사우의 사이에 재사가 배치되어 있다.



2-3 송의재: 원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2-4 경장각: 필암서원의 내사본과 서원의 강학활동과 관련된 교재 등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장서는 현재 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2-5 장판각: 서원에서 만들어진 목판 등이 보관된 곳이다. 현재까지 이 건물에서 목판이 보관되고 있다.



3-1 학연루: 서원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목적에서 건립된 누각이다.



4-1 고직사: 서원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현재에도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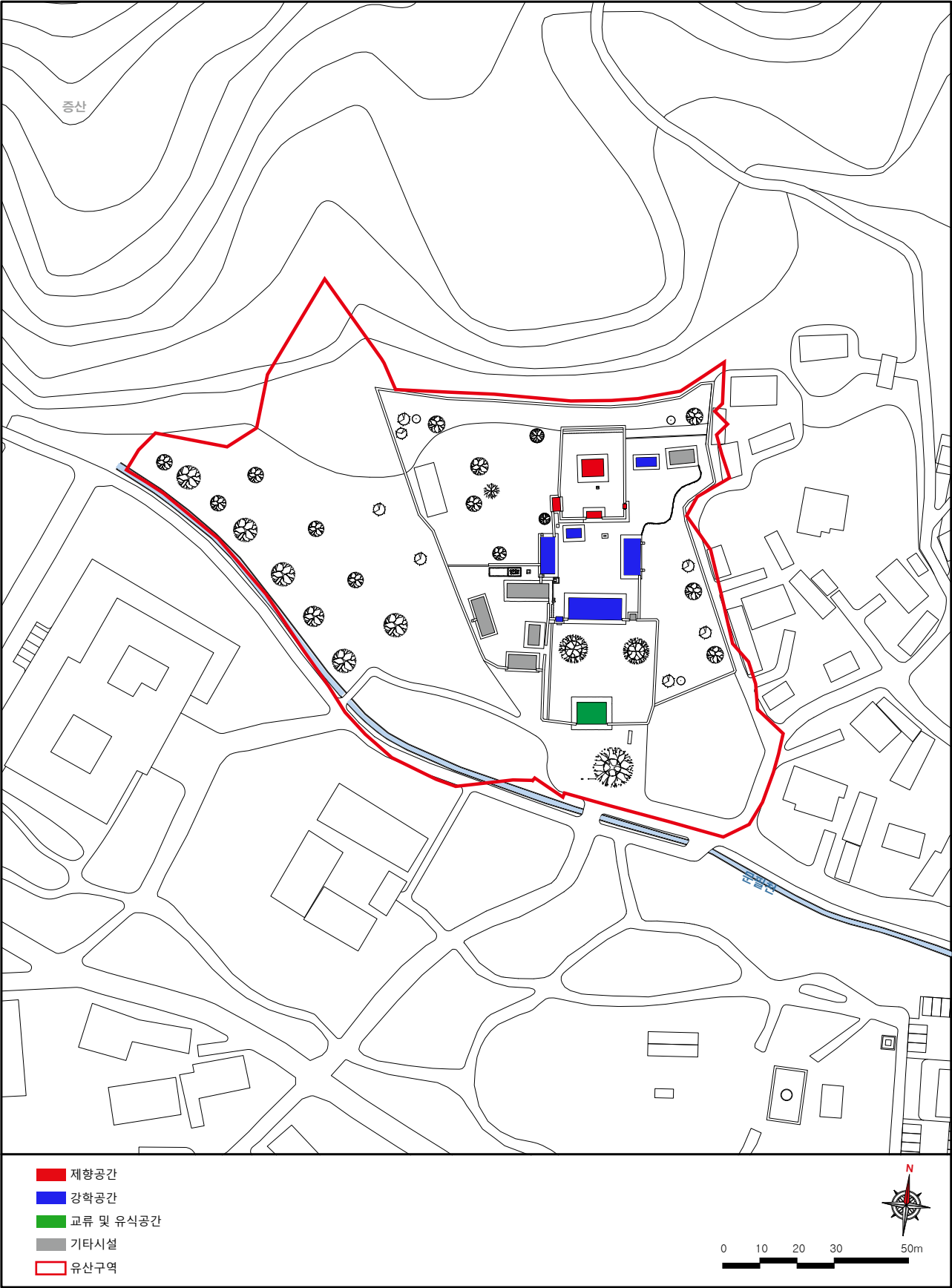
4-2 한장사: 제향에 사용되는 도구 일부를 보관하는 곳이다.



4-3 홍살문 & 보호수(704): 약 200년된 은행나무(학자수)이다. 홍살문은 은행나무 옆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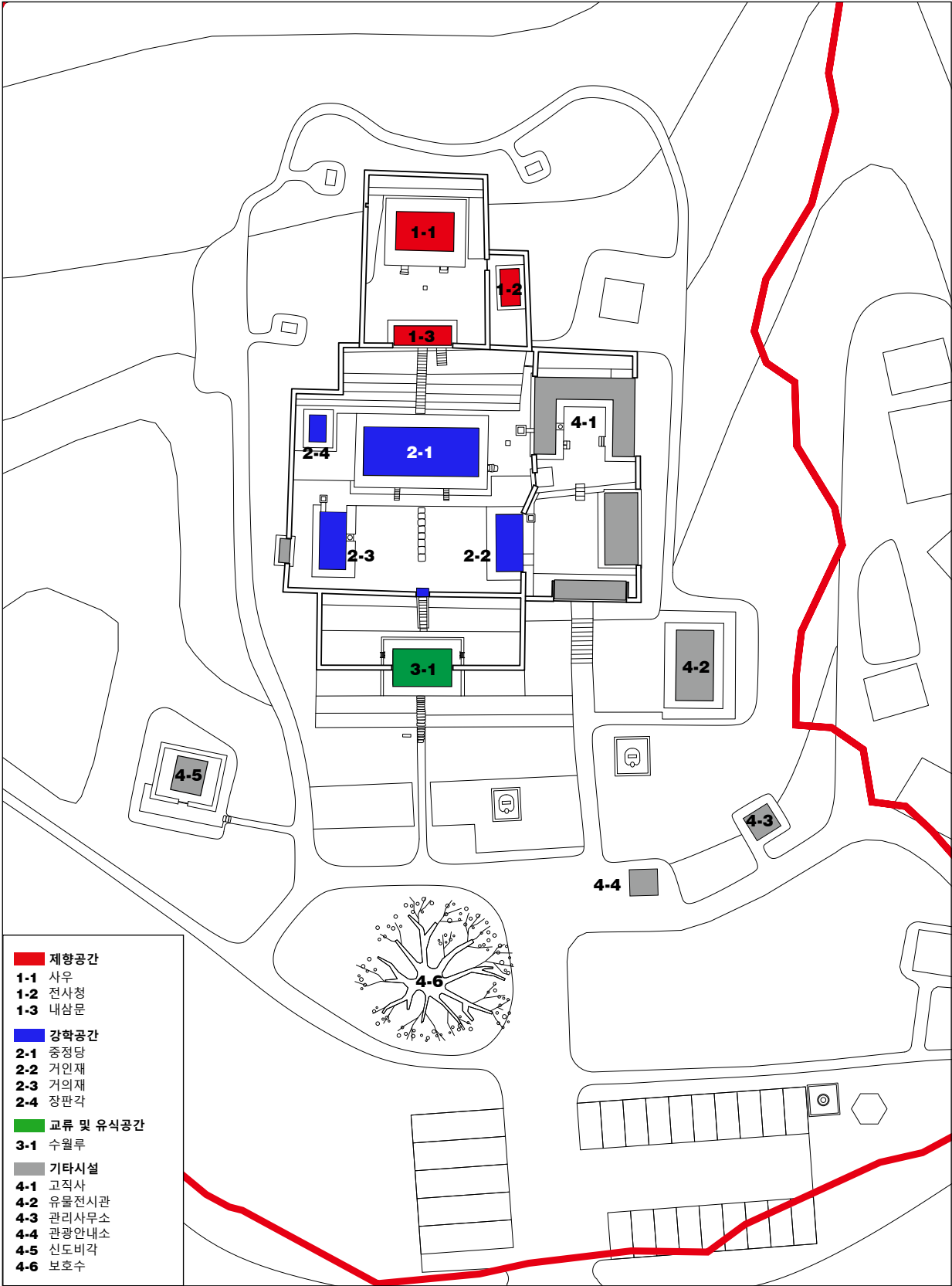
필암서원 전경



도면 1-10. 필암서원 유산구역 지도

1.f 도동서원 (1605년 건립)

주향인물: 김광필



도면 1-11. 도동서원 배치도



1-1 사우: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제향인물과 관련된 벽화가 좌우벽 상부에 그려져 있다.



1-2 전사청: 제향에 사용되는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1-3 내삼문: 사우의 진입문이다.



2-1 중정당: 서원의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원장과 원임의 집무실과 원생의 강학을 위한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2-2 거인재: 원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2-3 거의재: 원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2-4 장판각: 서원에서 만들어진 목판 등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장서는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다.



3-1 수월루: 서원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목적에서 건립된 누각이다.



4-1 고직사: 서원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현재에도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



4-2 유물전시관: 서원 및 서원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3 관리사무소: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건물이다.



4-4 관광안내소: 서원의 관광안내를 위해 관광해설사가 상주하며 브로슈어 등이 비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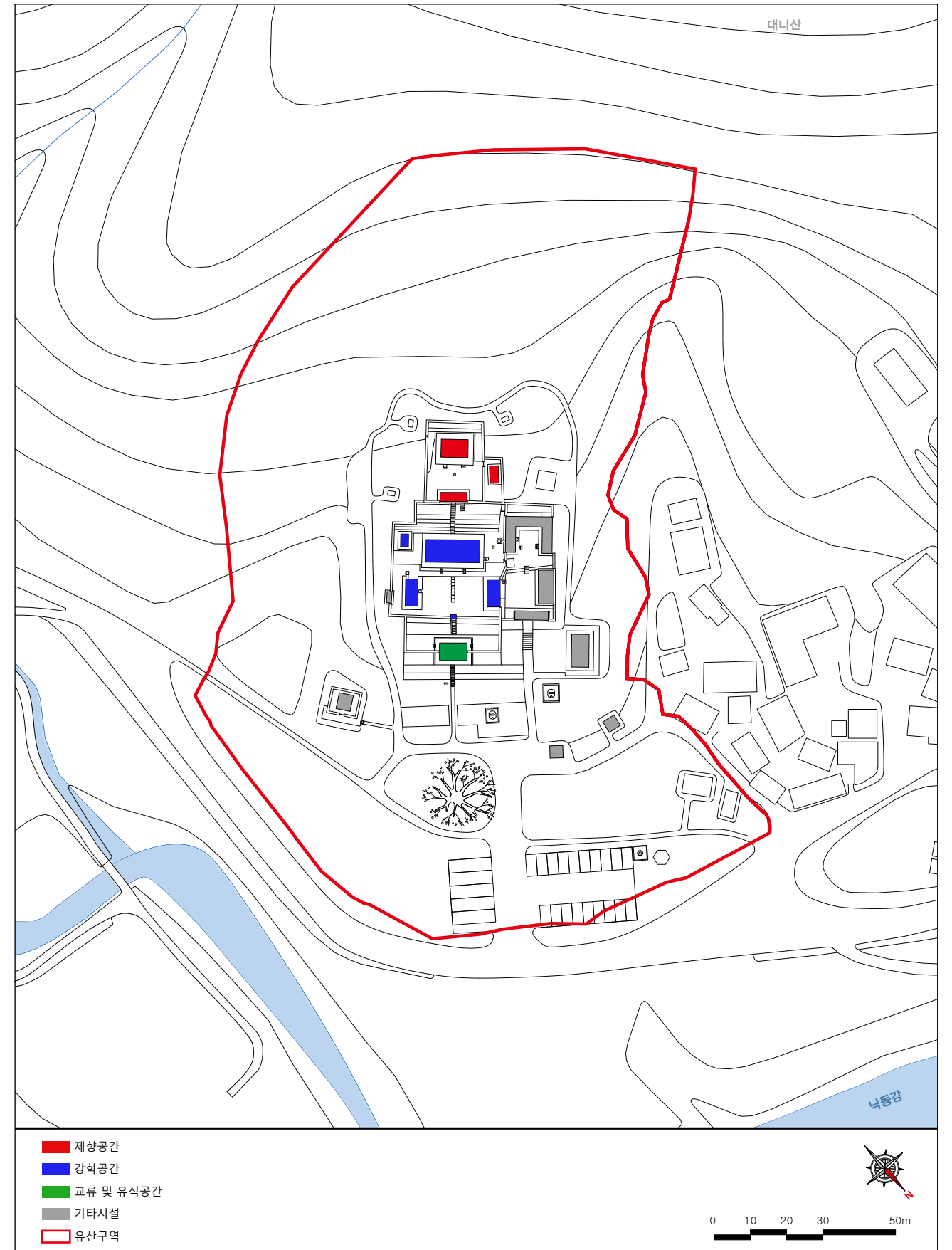
4-5 신도비각: 김광필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기념비이다.



4-6 보호수(3-9): 약 400년된 은행나무(학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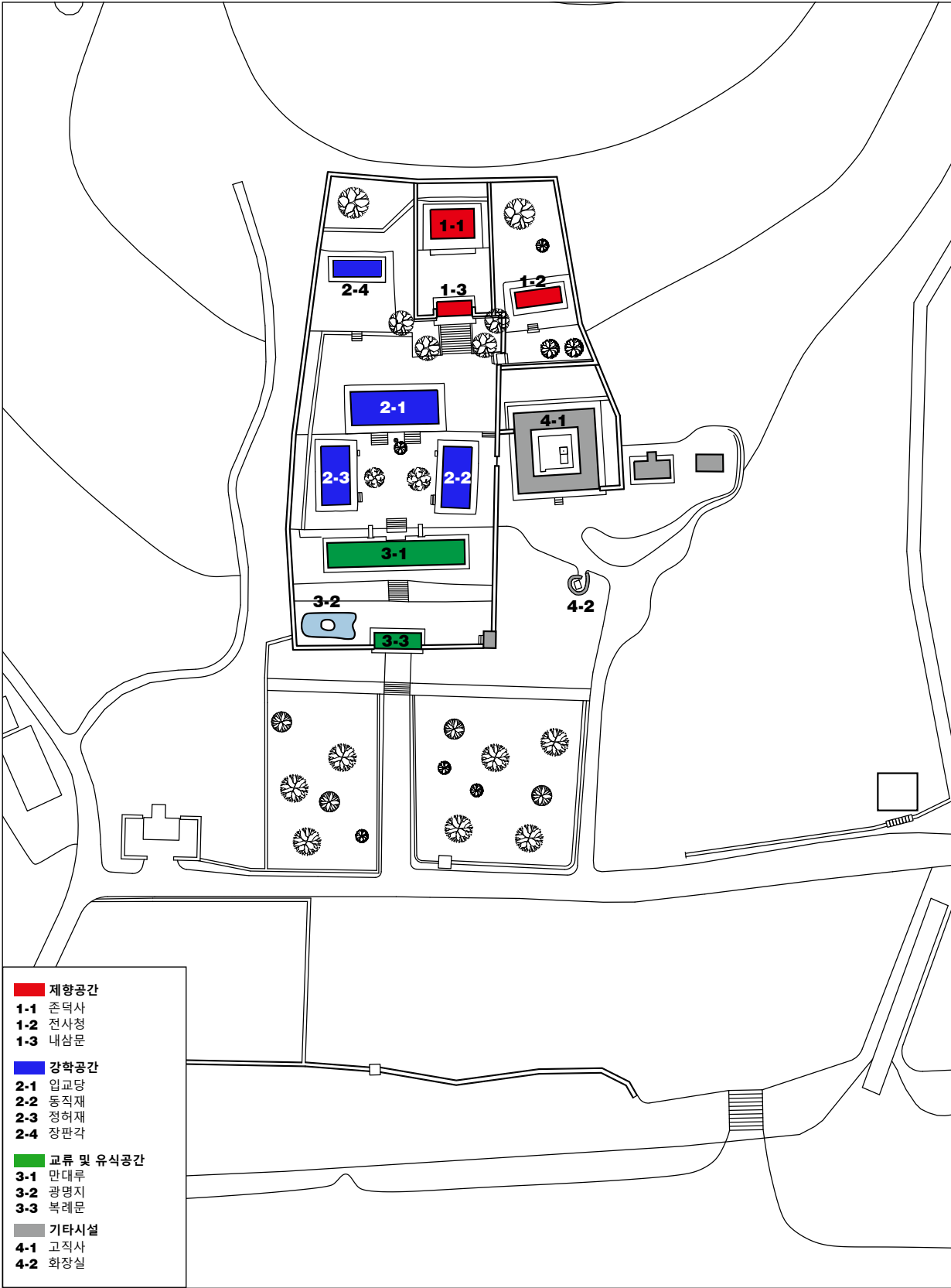
도동서원 전경



도면 1-12. 도동서원 유산구역 지도

1.9 병산서원 (1613년 건립)

주향인물: 류성룡



도면 1-13. 병산서원 배치도



1-1 존덕사: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1-2 전사청: 제향에 사용되는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1-3 내삼문: 사우의 진입문이다.



2-1 입교당: 서원의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원장과 원임의 집무실과 원생의 강학을 위한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2-2 동직재: 원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2-3 정허재: 원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2-4 장판각: 서원에서 만들어진 목판 및 고문서 등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자료들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다.



3-1 만대루: 서원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누각이다. 만대루는 국내 서원 중 가장 큰 규모의 누마루 건축 형식이다. 교류 및 유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 있다.



3-2 광명지: 서원 원생들의 유식을 위해 조성된 연못이다.



3-3 복례문: 서원의 주요 건물과 외부를 구획하는 진입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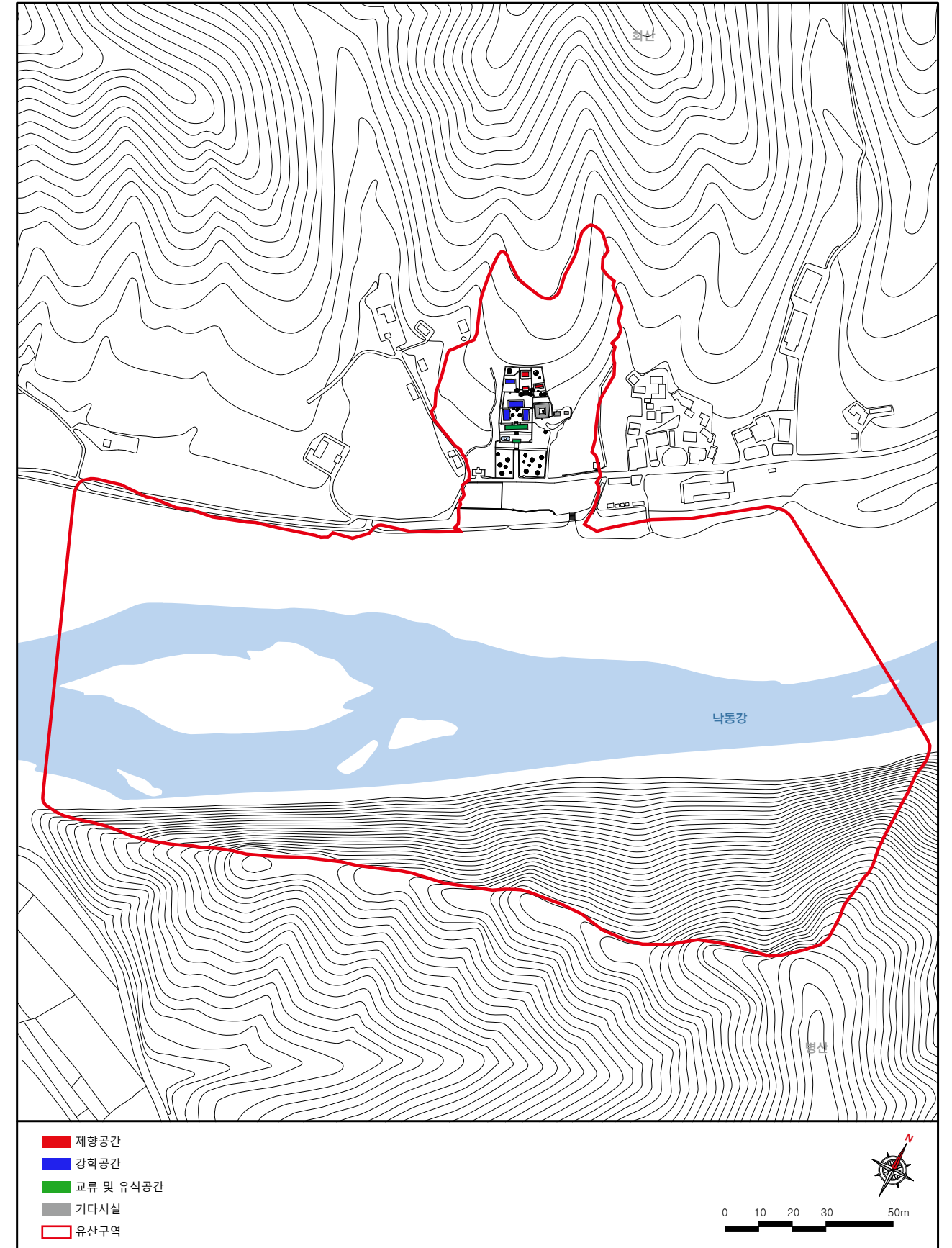
4-1 고직사: 서원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현재는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한다.



4-2 화장실: 근대 화장실이 건립되기 이전에 사용된 재래식 화장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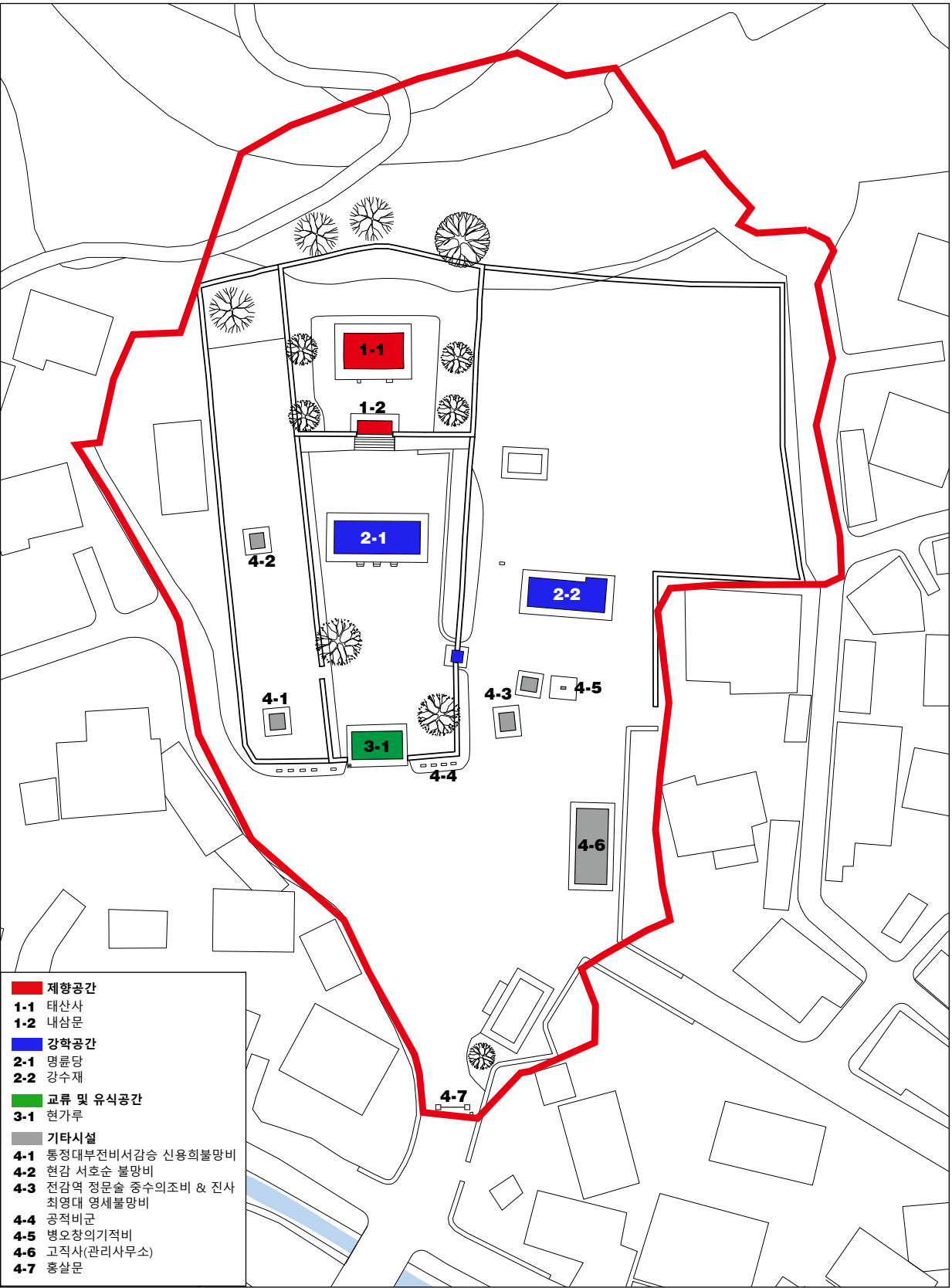
병산서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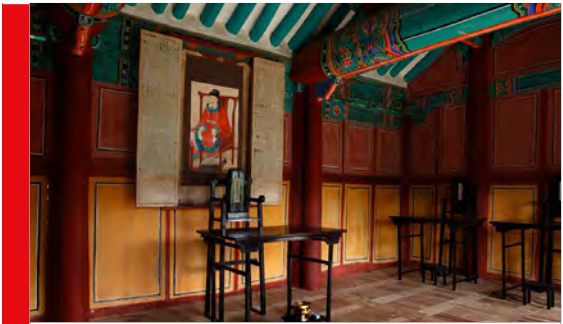
도면 1-14. 병산서원 유산구역 지도

1.h 무성서원 (1615년 건립)

주향인물: 최치원



도면 1-15. 무성서원 배치도



1-1 태산사: 제향인물의 영정 및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1-2 내삼문: 사우의 진입문이다.



2-1 명륜당: 서원의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원장과 원임의 집무실과 원생의 강학을 위한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2-2 강수재: 원생들의 개인 학습을 위한 건물이다. 다른 서원과 달리 강당과 구분되어 1동으로 건립되어 있다.



3-1 현가루: 서원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누각이다.



4-1 통정대부전비서감승 신유희 불망비: 서원의 건립 이후 서원과 관련된 인물의 공적 등을 기록한 기념비이다.



4-2 현감 서호순 불망비: 서원의 건립 이후 서원과 관련된 인물의 공적 등을 기록한 기념비이다.



4-3 진사 최영대 영세불망비 & 전감역 정문술 중수의조비: 서원의 건립 이후 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의 공적 등을 기록한 기념비들이다.



4-4 공적비군: 서원의 건립 이후 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의 공적 등을 기록한 기념비들이다.



4-5 병오창의기적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것에 반발하여 1906년 의병활동을 발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비이다.



4-6 고직사(관리사무소): 서원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현재는 관리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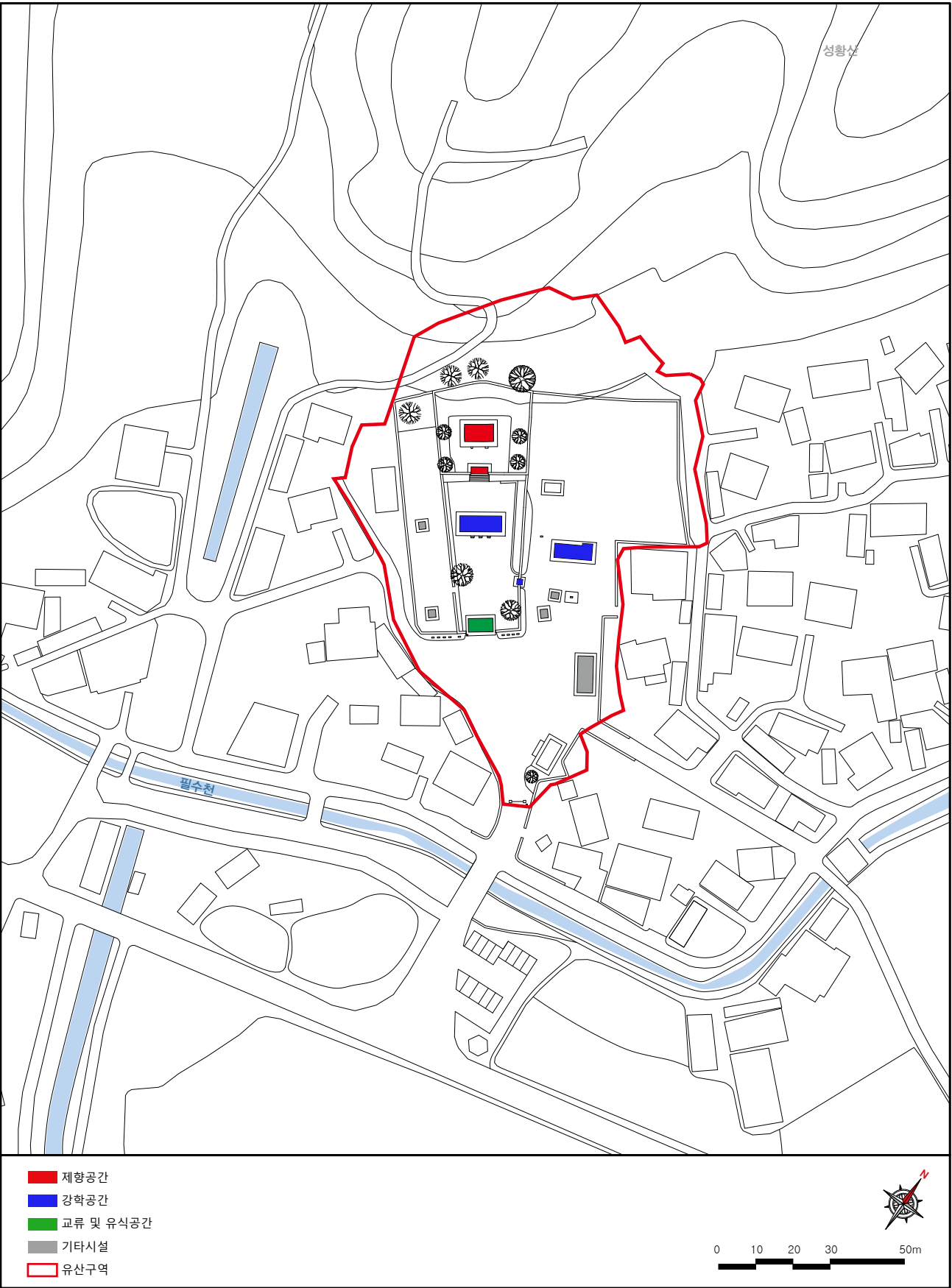
4-7 홍살문: 서원의 입구를 알려준다.



무성서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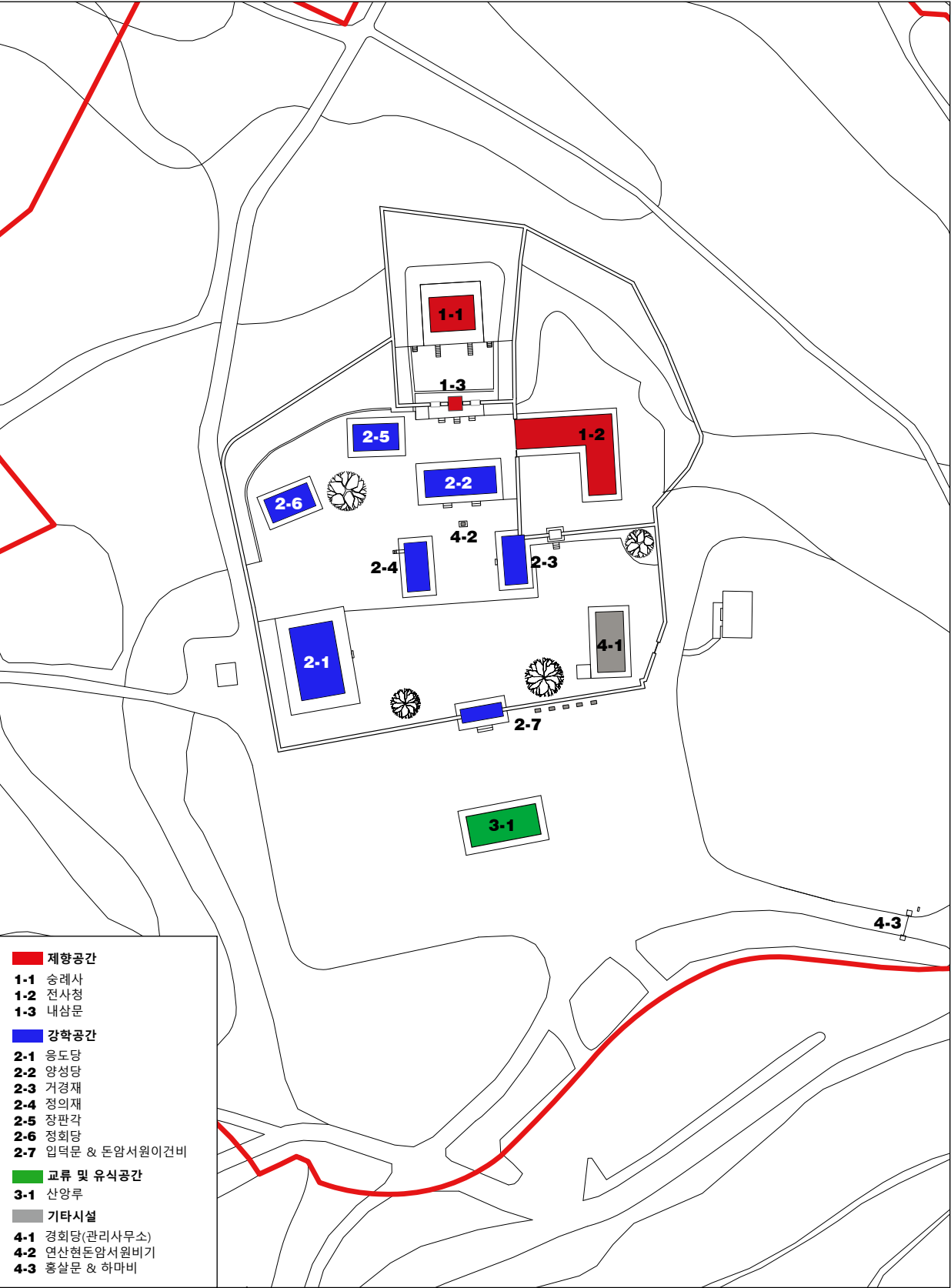
무성서원 전경



도면 1-16. 무성서원 유산구역 지도

1.i 돈암서원 (1634년 건립)

주향인물: 김장생



도면 1-17. 돈암서원 배치도



1-1 송례사: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1-2 전사청: 제향에 사용되는 제기가 보관된 곳이다.



1-3 내삼문: 사우의 진입문이다.



2-1 응도당: 서원의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한국 서원 중에서 가장 큰 강당 규모이며, 동아시아 전통 건축기법인 하옥제도를 서원의 특성에 맞게 배향자가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향자의 사후 건립된 건축물이다.



2-2 양성당: 김장생이 생전에 강학활동을 했던 건축물이자 배향자 사후 강학을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건축물이다.



2-3 거경재: 원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던 건축물이다.



2-4 정의재: 원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던 건축물이다.



2-5 장판각: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등이 보관된 곳이다. 현재까지 이 건물에서 목판이 보관되고 있다.



2-6 정회당: 김장생의 개인 연구 공간이었던 건축물이다.



2-7 입덕문 & 돈암서원이건비: 강학공간의 진입문이다. 진입문 옆에 19세기 후반 돈암서원 이건 사유와 과정에 대해 작성되어 있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3-1 산양루: 서원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누각이다.



4-1 경회당(관리사무소):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상주하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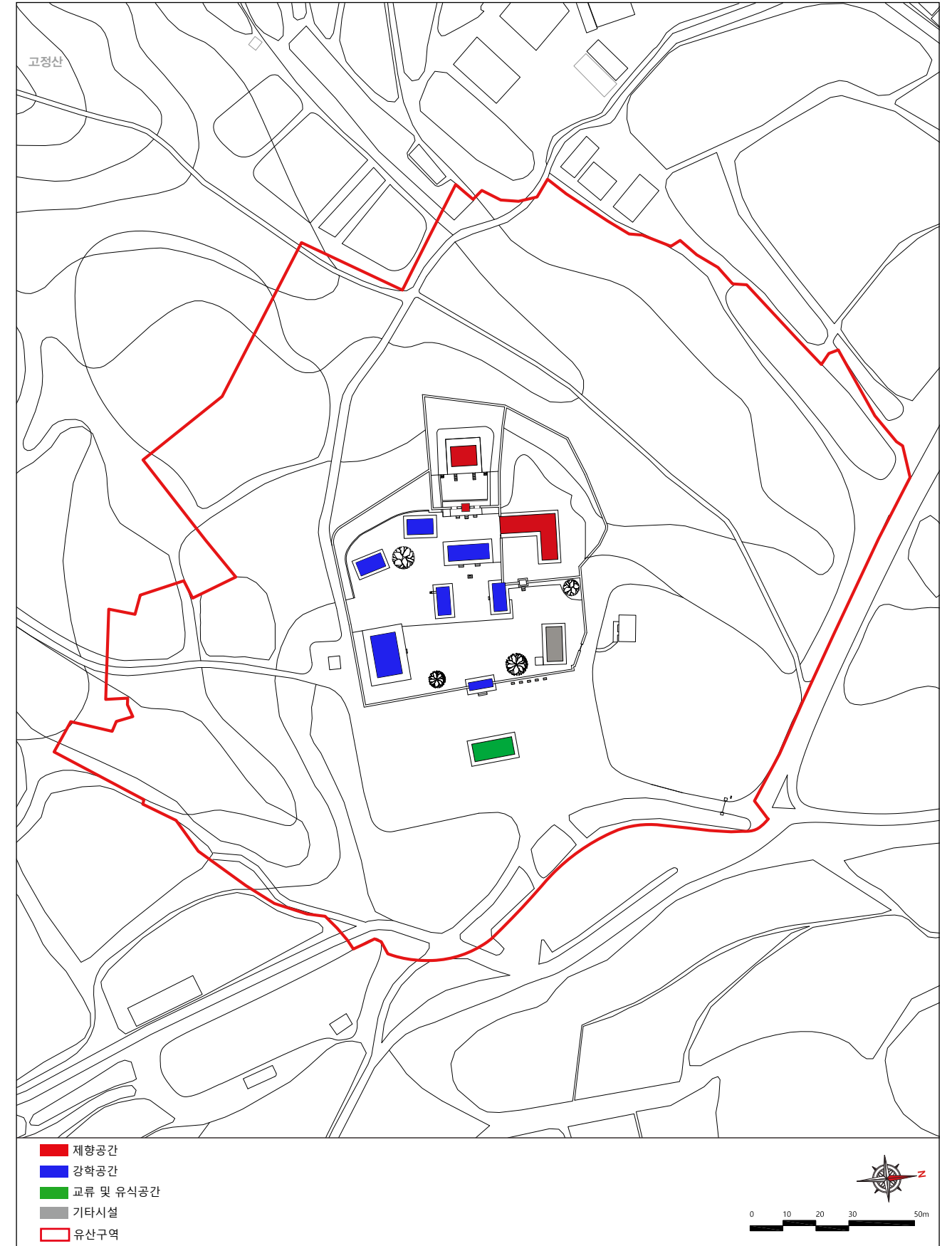
4-2 연산현돈암서원비기: 서원의 건립 경위 및 배향자의 업적에 대해 작성되어 있는 비석이다.



4-3 홍살문 & 하마비: 서원의 입구를 알려준다.



돈암서원 전경



도면 1-18. 돈암서원 유산구역 지도

2. 비교연구

2.a 병산서원

병산서원의 경우, 해당 서원이 ‘그 지역의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 지역 사대부들의 광범위한 역할을 잘 보여준다’고 기술한 부분과 관련해 그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보다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 혹은 ‘보여지는’ 것 외에 해당 유산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산서원은 서원이 인근 지역의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 지역 사대부들의 광범위한 역할을 잘 보여준다. 서원에 모인 학자들은 학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 정계에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모임의 장소가 되었던 건축물인 만대루와 병산서원과 관련된 고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토론과 회합의 장소 : 만대루, 여론의 공간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서원 구성원들의 회합과 유식을 위해 건립된 누마루 건축물이다.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현존하는 서원 누마루 건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림 2-1, 그림 2-2) 이를 통해 병산서원이 영남 공론의 중심지로서 유림들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사안에 따라 조정에 제출할 상소문을 작성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병산서원 전경



그림 2-2. 병산서원 누마루

－ 관련 고문서 1 : 통문, 소통의 문서

통문은 개인 혹은 다수의 지식인들이 특정 주제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소통하던 조선시대의 문서이다. 논의되었던 주제는 정치적 문제, 학문적 토론, 제향, 건축이나 서적간행에 필요한 자금 모금 등 다양하였다.

병산서원은 발송·수신된 통문뿐만 아니라 통문 발송 기록까지 잘 보존하고 있어 지역 공론 수렴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3은 1851년 병산서원에서 옥산서원으로 보낸 통문이다. 이 통문은 사도세자 신원회복과 관련한 도회(道會) 개최 목적,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는 문서이다. 여기에는 논의 안건, 수신처, 발송처, 발송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병산서원 통문은 49건(발송 32, 수신 17)이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 관련 고문서 2 : 만인소(萬人疏), 만명의 연명 청원서

통문을 통해 지역의 정치적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식인들은 연명 상소문

을 조정에 제출하였다. 병산서원은 영남지방 상소문의 발의, 논의, 작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병산서원에서 조정에 제출한 상소문에는 상소의 내용과 서원 구성원을 소두(疏頭)로 한 1,000여명에서 10,000여명의 명단이 함께 적혀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이 판단되면, 병산서원에서는 인근 유림들에게 통문을 보내 안건을 제안한 뒤, 병산서원에서 모여 토론을 하였다. 토론 후에는 몇 명의 병산서원 대표들이 의견을 정리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명기하여 상소문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서, 17세기 중반 병산서원에서 작성한 상소문 작성의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한 「소청일기」가 남아있으며(그림 2-4), 병산서원 원생들이 포함된 1,000여명이 연명한 상소문이 조정에 제출되어 큰 영향을 끼쳤던 사실이 연대기 자료인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다(그림 2-5).

서원에서 작성한 청원서의 참여인원은 17세기 이래로 점차 증가하여 18세기 후반부터는 10,000여명까지 확대되었다. 한국 최초의 만인소는 1792년에 병산서원의 인물들이 주도하여 작성되었다. 『승정원일기』 및 연대가 자료에 의하면, 이 상소에는 10,057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 만인소는 조정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작성되는 모든 만인소의 기원이 되었다. 만인소는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총 7차례 작성되었으며, 현존하는 2건은 19세기에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서 작성된 것들이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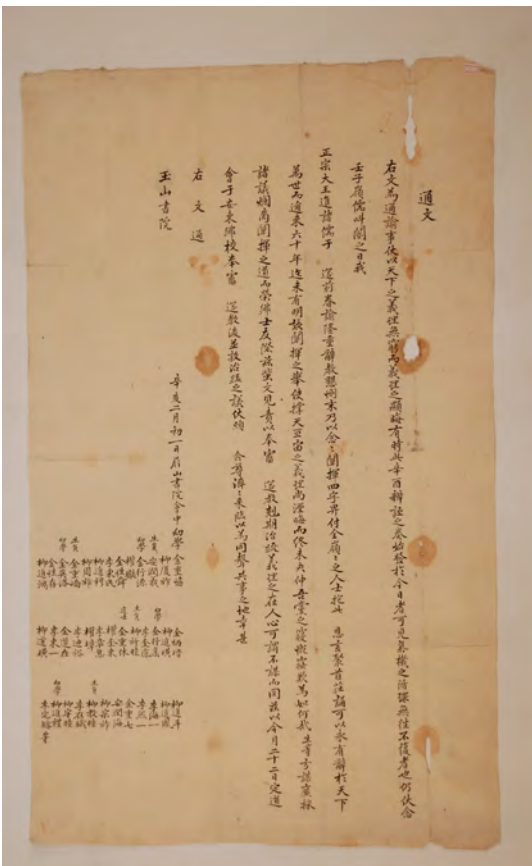


그림 2-3. 1851년 병산서원에서 옥산서원으로 발송된 통문



그림 2-4. 1665년~1666년 상소문 작성 과정을 담은 「소청일기(疏廳日記)」



그림 2-5. 1666년 병산서원에서 조정으로 올린 상소문의 내용이 수록된 『현종실록』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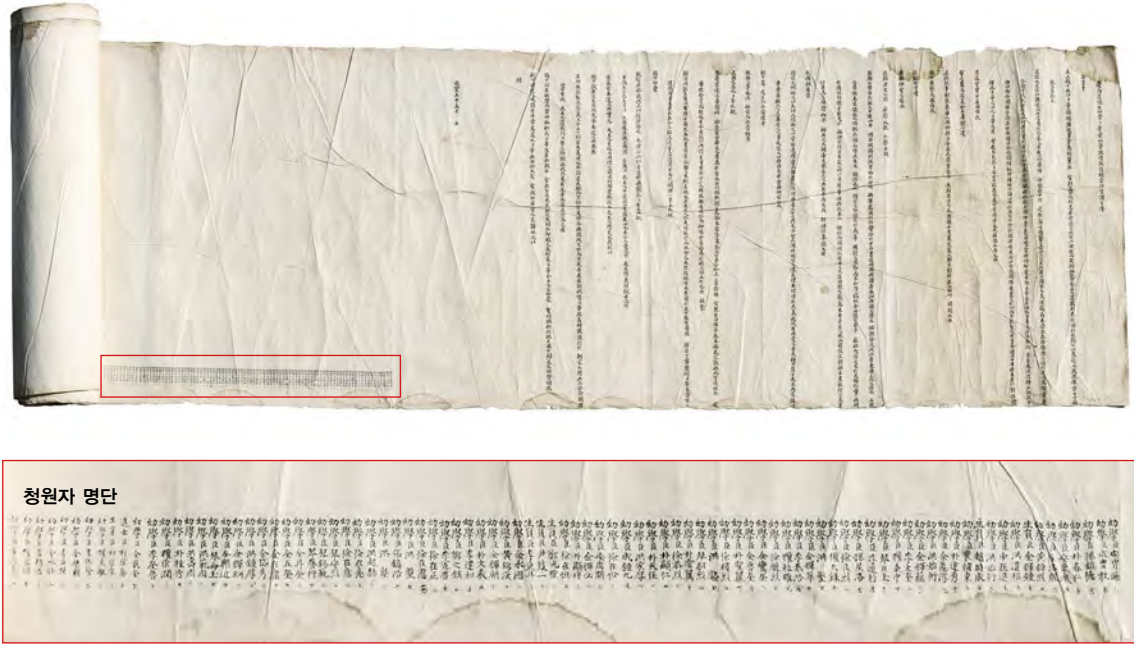


그림 2-6. 1855년 도산서원에서 작성된 만인소

3. 완전성 및 진정성

3.a 도동서원

도동서원과 관련해 신청서에는 신규 도로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변경된 도로에 대한 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공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동서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달성군에서는 신규 도로사업을 이행하기에 앞서 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14년에 자체적으로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유산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7가지 검토사항에서 경관이 저해되고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등 2가지 사항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표 3-1. 유산영향평가 결과 (2014)

No.	검토 사항	검토 내용 및 보전 방안
1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행위 여부	• 미관을 저해하는 교량 및 터널 입구에 주변 수림대와 조화로운 식재계획을 수립, 아치경문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자연경관에 순응하도록 계획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는 없음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여부	• 공사 중 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방음 및 방진망 설치 등을 통해 소음 및 먼지 유발 등을 최소화
4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여부	• 문화재와 이격거리(200m) 고려 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없을 것으로 판단
5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행위 여부	• 유역과 배수체계의 변화가 없도록 계획, 수량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
6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	• 해당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와 계획도로와의 이격거리는 약 200m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
7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행위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이에 따라 달성군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작성하여 12월에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원래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달성군은 2015년 1월에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와 터널 위치를 조정한 계획안에 대해 다시 심의 신청하였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다시 서류검토와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를 거쳤으며 변경된 사업계획안은 문화재위원회에서 2015년 3월 승인되었다. 문화재위원회는 변경 안에 대하여, 문화재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가 확보되어 터널의 입구가 서원 경내와 주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고, 신설 도로가 우회되는 등 문화재의 보존이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도로와 터널은 2019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 '한국의 서원(도동서원) 유산 경계구역 인근 개발계획'은 2018년 7월 17일에 이코모스 및 세계유산센터에 송부

3. 완전성 및 진정성

3.b 돈암서원

돈암서원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2006년 산양루 인근에 설치된 담장 제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담장이 제거 되었는지, 아직 그렇지 않다면 작업 예정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또 홍살문과 하마비는 이전이 완료 되었는지요?

돈암서원의 산양루 담장 철거와 홍살문 및 하마비의 이전은 2018년 9월에 완료되었다. 국내 전문가 및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에 앞서 진행된 이코모스 자문미션에서는 2006년에 건립된 산양루의 담장이 잘못된 복원이라고 평가하였다. 홍살문과 하마비는 원래의 위치로 복원하기 위하여 도로 옆에 옮겨져 있던 것을 이전하였다.



Donam Seowon's newly built walls that did not exist historically enclosing Saangnu pavillion

그림 3-1. 이코모스 자문미션에서 제기된 돈암서원 산양루 주변 담장 지적사항 (2017.3.15.)



그림 3-2. 산양루 주변담장 철거 이전 (2017년)



그림 3-3. 산양루 주변담장 철거 이후 (2018년)



그림 3-4. 홍살문, 하마비 이전 이전 (2017년)



그림 3-5. 홍살문, 하마비 이전 이후 (2018년)

4. 관리

4.a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신청서에는 서원관리단이 9개 서원에 대한 등재신청과 통합보존관리를 모두 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원관리단은 자문기구인가요, 아니면 의사결정기구인가요? 관리단의 인원이 언제쯤 확대 충원될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하 서원관리단)은 신청유산인 9개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행기구로서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운영자, 전문가와 협업하여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원관리단 사무국은 신청유산인 9개 서원이 위치한 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9개 서원 보존현황을 모니터링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비상근 인력으로는 이 사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이 있고, 상근 인력으로는 직원 5명이 있으며, 세계유산목록 등재 이전까지 인원 충원에 대한 예산과 계획은 없다.

등재 이후에는 9개 서원의 보존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통합 해설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국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서원관리단이 제안하는 사업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및 지원을 받아야 실행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서원 통합관리단 설치와 운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정관

2015. 05 .27. 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114조에 의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9개 서원(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정읍 무성서원, 안동 병산서원, 논산 돈암서원. 이하 “한국의 서원” 이라 한다)의 세계유산 등재업무 추진 및 지원과 세계유산 등재 이후 해당유산의 통합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행정, 관리, 홍보 및 교육 지원 사항
- 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의 통합 보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 관할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 그 밖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사항

제4장 통합관리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 재단의 이사는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재단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재단의 통합 보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이사회의 의결사항 집행
- 4. 재산·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분과위원회로 행정위원회, 전문위원회, 9개 서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및 함양군의 문화재 담당 과장, 재단 사무국장으로 구성

2. 역할 :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한국의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한국의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서원 및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2. 역할 : 재단의 사업계획, 통합 보존·관리계획,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의 학술적 자문

④ 9개 서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정읍 무성서원, 안동 병산서원, 논산 돈암서원의 운영자 각 서원당 2명 이내

2. 역할 : 한국의 서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 자문 및 제안

⑤ 이사회는 상기 3개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필요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이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사무집행 기관

제23조(사무국) ① 재단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기타 필요한 직책 및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운영, 분장 사무, 직원의 임면과 복무, 보수 및 수당의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무국의 역할) ① 재단 사무국은 한국의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

화유산의 보존·관리, 기획사업, 대외홍보·활용 등을 담당한다.

② 재단 사무국은 문화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맞게 한국의 서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재단 사무국은 1항과 관련하여 보존관리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통합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다.

④ 재단 사무국은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경비의 조달)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조달한다.

-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일반단체 또는 일반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 3.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수익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 5. 기타수입금

4. 관리

4.b 신청유산의 통합보존관리 문서와 체계

이코모스는 모든 서원이 개별 관리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이 서원 보존 매뉴얼과 경관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개별 유산요소 관리계획을 넘어 서원의 전반적인 통합관리를 다루는 상위 문서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현재 이를 계획 중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산관리에 대한 다수의 문서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종합정비계획)과 인근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담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각 서원 별로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상 여러 유산의 통합관리를 다루는 공식적인 상위문서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통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훈령으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정하여 종합정비계획 작성, 정기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업무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과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단행본을 발간하여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존전문가, 전문업체 등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과 예시를 담은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표 4-1. 서원의 보존관리 문서와 그 성격

문서명	성격
－ 각 서원별 종합정비계획	－ 각 서원별 보존 및 관리 계획
－ 각 서원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지정문화재 인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
－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훈령 제452호)	－ 문화재청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제정한 공식 업무 규정(훈령, 행정규칙)
－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2011) －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2012)	－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단행본)



그림 4-1.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2011)



그림 4-2.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2012)

4. 관리

4.c 신청유산의 현존계획

‘5.d 유산이 위치한 시도가 갖고 있는 기존 계획(227쪽)’ 향이 현재 공란인데, 이 부분 텍스트를 보내줄 수 있으신지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 기본계획’의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주로 그 해의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 사업의 내용과 예산을 포함한다. 서원이 소재한 6개 광역지자체(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올해 2018년 문화재 시행계획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사업을 포함하였다.

4. 관리

4.d 신청유산의 자원 조달

신청서 5.f.1항에서 지적된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해 당사국이 기존 자원이나 다른 방식 (예. 정부)을 통해 적절한 자원 조달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서에 기술된 서원 운영의 어려움은 보존관리나 활용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아닌 제향과 같은 무형적 활동에 대한 일부 서원들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신청유산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보수정비와 활용홍보에 대한 예산의 대부분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각 서원의 제향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예산 지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다. 각 서원의 운영비는 입장료를 받는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의 경우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6개 서원은 자체 비용으로 충당한다.

다음 표는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제향비와 운영비 내역이다.

표 4-2. 서원의 제향비와 운영비 지원내역 (2015–2017)

서원	예산 (천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용
	연도	금액		
소수서원	2015	1,400	영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향비
	2016	1,400		
	2017	1,400		
남계서원	2015	8,000	함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향비
	2016	8,000		
	2017	8,000		
옥산서원	2015	540	경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향비
	2016	540		
	2017	540		
도산서원	2015	11,000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 관람료 수익의 40% 이내 (36%)	서원운영비 (제향비 포함)
	2016	11,000		
	2017	11,000		
필암서원	2015	600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향비
	2016	600		
	2017	600		
도동서원	2015	1,000	달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향비
	2016	1,000		
	2017	1,000		
병산서원	2015	2,000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하회마을 관람료 수익의 일부	제향비
	2016	2,000		
	2017	4,000		
무성서원	2015	지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6	지원 없음		
	2017	1,500	정읍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향비
돈암서원	2015	5,400	논산시 (논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향비
	2016	5,400		
	2017	5,400		

4. 관리

4.e 신청유산에 대한 통합해설 및 제시

각 유산구역마다 전체 신청유산에 대한 유산해설 및 제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각 서원에서는 전체 신청유산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유산의 관리사무소와 매표소에는 9개 서원의 정보를 포함한 ‘한국의 서원’ 통합 브로셔가 비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누구나 손쉽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브로셔는 2016년에 제작되었고, 2018년에 개편되었다.

향후에는 서원관리단에서 전체 신청유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통합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문화유산 해설사를 정기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그림 4-3. 2016년 통합 브로셔



그림 4-4. 2018년 통합 브로셔

SEOWON

한국의 서원

이코모스 추가질의 2차 보완자료

2019. 02.

대한민국

한국의 서원

이코모스 추가질의 2차 보완자료

대한민국

1. 등재기준(iv)의 근거 강화	05
1.a 사우	
1.b 강당	
1.c 누마루	
1.d 기타	

2. 경관과 원거리 시야의 보호	25
2.a 소수서원	
2.b 남계서원	
2.c 옥산서원	
2.d 도산서원	
2.e 필암서원	
2.f 도동서원	
2.g 병산서원	
2.h 무성서원	
2.i 돈암서원	

3. 통합관리계획	46
3.a 통합관리계획의 이행	
3.b 역할 및 업무	

4. 통합해설	48
---------	----

- 이 자료는 이코모스가 2018년 12월 21일에 송부했던 서신(Ref. GB/AS/1498/IR)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이다. 각 문항은 청색으로 표시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등재기준(iv)의 근거 강화

신청서는 신청유산이 한국에서 성리학적 개념이 어떻게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리학 교육기관 건조물군의 탁월한 예로 신청유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코모스 패널은 한국의 서원이 다른 나라의 성리학 교육기관과 공간 배치 면에서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나, 해당 기준의 근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과 서원이 건물 건축의 측면에서 어떤 독특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패널은 특히 중국의 서원을 비롯해 여러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유산이 비교연구 부분에서 다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당사국이 훨씬 많은 수의 관련된 중국 서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비교연구를 한층 더 끌어 올리고, 이에 등재기준(iv)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서원과 비교해 이들에 대한 보다 탄탄하고 자세한 분석 내용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약문

신청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설립된 조선시대의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 그 건축군 배치와 개별 건축물 측면에서 독특한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배치 측면에서는 한국 서원의 기능을 각각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지형과 경관을 활용하여 배치하는 정형성을 갖게 되었다.

개별 건축물로는 사우, 강당, 누마루가 각각의 뚜렷한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건축물의 유형은 중국의 유학의례와 공간 개념을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한국적 언어로 재해석한 결과이다. 서원 건축물의 배치, 유학의 예를 거행하는 건축 공간으로서의 사우와 강당, 교류 및 유식의 행위와 관련되는 누마루의 전형적 구성은 약 1세기 동안 완성되어 이후 서원들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청유산의 사우는 단층이며, 전통적인 기와로 만들어진 맞배지붕으로 구성되었고, 정면 3칸의 형식을 갖는다. 실내는 마루나 전돌을 깔아 입식으로 조성되었고 신위를 놓아 제향하였다. 강당은 주로 단층 5칸의 건물로서, 중앙의 3칸은 마루이고, 양쪽 각 1칸은 온돌방으로 구성하였다. 중앙의 마루는 강당으로 사용하였고, 양쪽의 2칸은 교사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다.

사우와 강당의 평면은 중국 고대 “정침(正寢, 유학적 의례 공간)”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중국 문헌에 의해 알려진 정침을 서원의 각 전각에 접목시켜 독특한 건축 유형을 만들어 내었다. 건축물의 평면 구성, 중앙이 아닌 좌우로 배치된 계단과 건물의 출입방식은 모두 성리학 예법과 관계되어 있다. 누마루는 진입부에 위치한 한국의 서원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요소이다. 누마루는 서원 내에서 유일한 2층 건물로서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성리학자들의 공론 형성의 공간으로 활용된 한국 서원의 사회적 역할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중국의 서원은 8세기에 태동한 이후, 12세기에 활성화되었다. 13세기 이후에는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중국 서원은 그 역사가 길고 분포 지역이 넓은 만큼, 건축적으로도 다양한 면모를 보여왔다. 주요 건축물인 사우, 강당, 재사, 장서루 등이 중국의 모든 서원들에서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치나 건축양식 등은 입지조건이나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현존하는 중국의 서원은 대개 명청 시대 이후의 모습으로 개변된 것이 많다.

서원이 관학화되면서 국가 관리들의 배출이 중시되어 과거시험과 관련하여 행정 관리동인 감원과 시험 장소인 고봉이 설치되었다. 초기 서원이 공자 및 유학자들을 제향하던 것에서 이후 도교, 토속신 등 민간신앙을 제향하는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건립되기도 하였다. 시기별로 유행했던 조경기법이나 건축기술을 도입하여 서원 내에 원림이 조성되고 건축의 양식도 변화하였다.

현존하는 중국 서원은 건축물의 규모, 사우의 수, 실내공간의 이용방식, 건물 출입방식, 신위 뿐만 아니라 조상, 화상을 사용하는 제향 방식 등에서 한국 서원과 차별점이 있다. 진입 공간의 측면에서 중국 서원은 반수와 패방을 두는 반면, 한국 서원은 누마루를 설치하여 교류와 유식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청유산은 동아시아에 건립되었던 유학 교육기관이라는 뚜렷한 사례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한국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재해석된 독자적 유형이다. 한국 서원의 뚜렷한 건축적 정형성은 짧은 기간 내에 넓지 않은 국토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문헌을 통해 도입된 정침 이론은 조선시대의 교육과 의례를 수행하기에 이상적인 건축물로 재탄생되었다. 한국의 성리학자들은 서원을 건립할 당시에 동시기의 중국 서원을 모델로 하기보다는, 성리

학의 교육 이상에 적합하다고 본 12세기 서원 모델을 도입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건축형식으로 지형과 주변의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소규모의 자본으로 사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건립된 특성과 연관되며, 민간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이 급속하게 보급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신청 유산은 배치로부터 각 전각의 건축적 형식에 이르기까지 성리학 적 사고와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뚜렷한 유형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서원과 비교하여도 분명한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등재기준 (iv)를 충족한다.

신창유산이 건립된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은 한국에서 서원의 건축형식을 모색하는 서원 건립의 초기 시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성리학 경전에 나타난 예법을 해석하고 그 실현방법을 탐구하는 등 학문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대 중국의 유학적 건축 개념인 정침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높아지던 때였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고대 문헌의 정침을 조선의 건축 기술로 구현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였고, 이를 서원 건축물에 대입하였다.

특히 한국 서원의 사우와 강당은 정침을 모델로 하였다. 정침은 성리학적 의식 예법에 적합하게 구성된 이상적 건축물이다. 정침은 정면 5칸인데, 중앙에 위치한 3칸 너비의 의례 공간(堂)과, 그 좌우와 뒤쪽의 여러 부속실로 구성된다. 당을 포함한 정침의 각 부분은 의례와 연관되어 있다.

※ 칸'이란 건축물의 전통적인 공간 단위로서,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정침은 문헌으로만 알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문의 대상이었다가 점차 실제로 지어보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정침을 지어 엄밀한 의식을 실행해보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이미 생활 관습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정침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으로서 서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서원의 사우와 강당이 뚜렷한 전형을 구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림 1-1 참조)

사우와 강당과 달리, 누마루는 의식 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유식 뿐만 아니라 성리학자들의 회합, 교류, 공론활동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다. 누마루는 한국의 서원이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건축 요소였다.

서원은 중국에서 8세기에 태동한 이후, 12세기에 활성화되었다. 13세기 이후에는 과거와 관련된 관학의 보조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서원은 그 역사가 길고 지역이 넓어서 존재했던 수가 매우 많고 그 성격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사우, 강당, 재사, 장서각 등은 중국 서원의 공통적인 구성요소이지만, 한국 서원과 달리 명확한 정형성은 확인할 수 없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백록동서원이나 승양서원, 악록서원 등의 장기간의 역사를 가진 서원의 경우는 시대에 따라 증축과 개축을 반복하며 건축적으로 변화하였다. 입지 선택에서도 초기에는 배향자와 연고가 있는 경관이 수려한 곳에 입지하였지만 이후에는 점차 교사와 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심이나 도심인근에 건립된 서원들도 증가하였다. 관학화 경향에 따라 과거시험장과 같이 한국의 서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도 있다. 20세기 이후 서원들은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현대식 건물들로 변모한 경우도 있다. 현존하는 중국의 서원들은 대체로 명청대의 변화를 겪은 상태로 남아 있다.

한국의 서원이 뚜렷한 정형성을 갖게 된 것은 중국에 비해 좁은 국토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이며 중국 서원의 실물에 대한 참조 없이 전래된 문헌의 해석을 통해 근본적인 성리학 건축 유형을 탐구하였기 때문이다. 성리학자들은 서원 건립 당시 동시기의 중국 서원을 모델로 하기 보다는, 성리학의 교육적 이상에 적합하다고 본 12세기 서원 모델을 문헌을 통해 도입하여 한국 건축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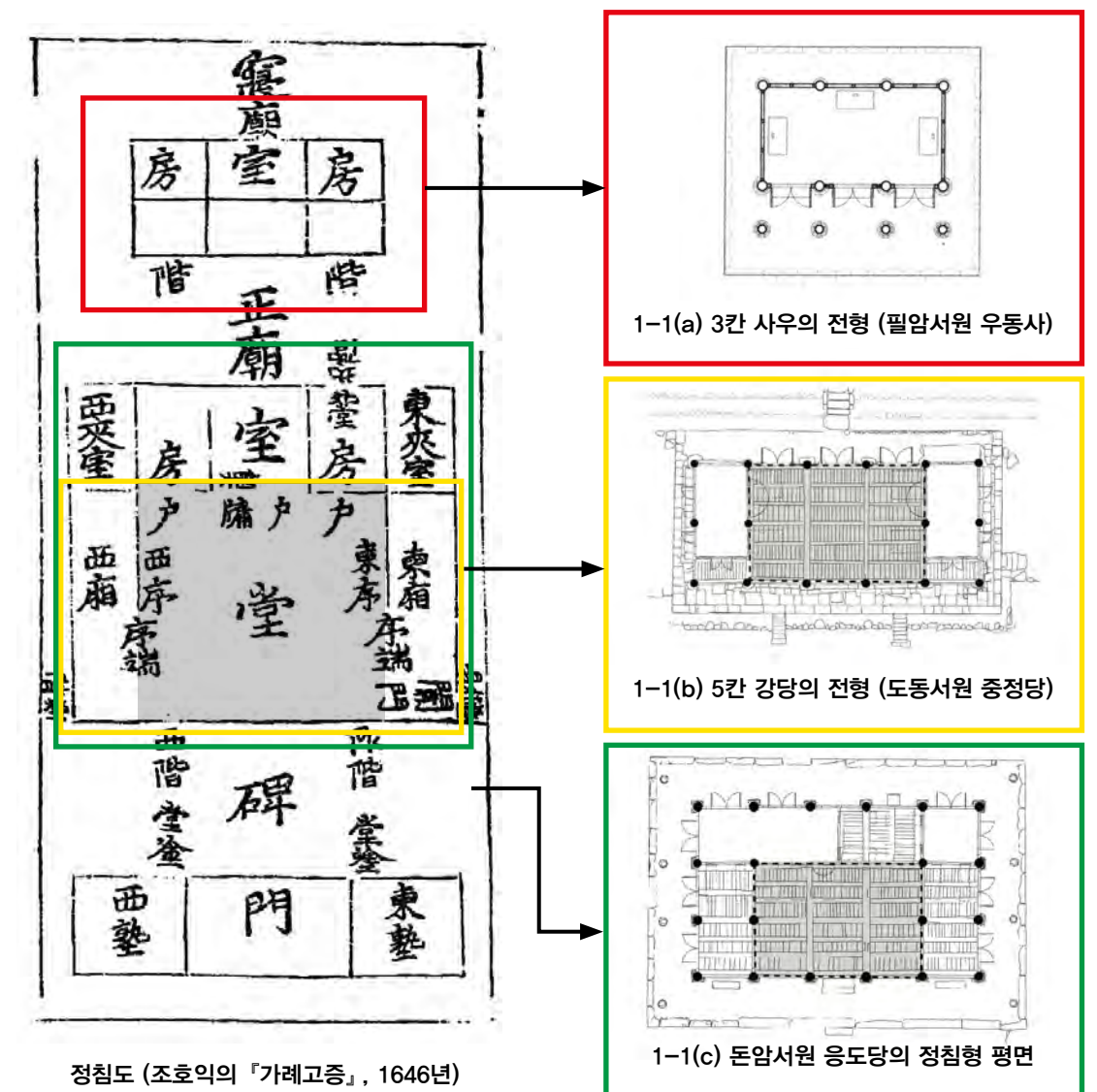


그림 1-1. 정침이론과 한국 서원의 전각형식의 관련성

한국의 서원과 중국의 서원에 대한 비교 분석은 주요 건축물인 사우, 강당, 누마루 등 유형별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중국 서원의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참조) 이들은 모두 중국에 현존하는 서원들이며, 신청유산과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 A. 유학 교육기관의 기원으로 알려진 소위 ‘4대 서원’으로 불리는 송대에 건립된 서원들이다. 이들은 중국 유학사에서 교육과 건축 요소를 정형화시키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을 기초로 중국 전역에 서원들이 보급되었으며, 전통과 역사성으로 인하여 19세기까지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후원 하에 운영되었다. 이들은 동아시아 유학 교육사에 지대하게 공헌하였으며, 이 중에서 백록동서원은 ‘루산 국립공원’, 송양서원은 ‘하늘과 땅의 중심의 허난성 덩펑 일대 유적지’의 구성요소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 B. 서원이 중국 전역에 확산되어 지방교육기관으로 보편화되었던 명청 시대에 건립되거나 활성화된 서원들이다. 중국의 서원은 장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건축양식과 서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명청시기에는 관학화의 영향으로 과거시험장(고봉)이 서원 내에 건립되거나 원림과 같이 당시 유행하던 조경수법을 적용하는 등 이전 시기의 서원과는 다른 건축요소와 건축수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남호서원은 마을 내에 입지한 19세기 서원의 입지와 건축 양식의 측면을 보여주며, ‘안휘성 시다춘과 홍춘 전통마을’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 C. 중국의 서원 중에서도 독특한 건축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서원들이 있다. 건물들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설계한 오봉서원이나 여타 서원과 달리 화려한 장식기법을 사용한 독봉서원과 진씨서원이 대표적이다. 이들 서원은 중국 서원 건축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지역적 특색을 보여준다.

표 1-1. 비교대상 중국의 주요 서원 목록(건립연도순)

연번	서원명	위치	설립연도	선택기준	주요 특징
1	석고	호남성	810	A	- 중국 '4대 서원' 의 하나 - 강을 바라보는 곳에 입지(송대 서원의 입지특성의 하나) - 2동의 사우, 강당, 재사 등의 건축물로 구성
2	백록동	강서성	940	A	- 중국 '4대 서원' 의 하나 - 동아시아 유학 교육기관의 전범 - 사우, 강당, 어서루 등으로 구성 - 황촉으로 구성된 배치 · 세계유산
3	악록	호남성	976	A	- 중국 '4대 서원' 의 하나 - 호남성 서원 규정 및 건축의 모델 - 중국 서원 중 최다수의 배향자 - 건축물 구성, 규모가 중국서원 중 완전하면서도 큰 편 - 근대 이후인 1926년 호남대학으로 발전함
4	송양	하남성	997	A	- 중국 '4대 서원' 의 하나 - 도교 사원에서 유학 교육기관으로 변모된 사례 - 지속적인 국가 후원을 기반으로 한 서원 운영 - 사마광 등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학습 - 종축으로 구성된 배치 · 세계유산
5	동림	강소성	1111	B	- 17세기 초 정치 운동으로 유명(동림당) - 17세기 중반 재건, 운영 - 원래는 성곽 외부였으나 도시 팽창으로 도심입지 - 서원 내부에 연못을 포함한 원림을 조성
6	오봉	절강성	1173	C	- 배치, 건축물 등 유형적으로 예외적인 사례 - 주회, 여조겸, 진량 등 송대 학자들의 강학처 - 웅장한 절벽 지형 - 강당, 재사, 사우 등의 주요 건물 분산 배치
7	녹강	호남성	1175	B	- 송대에 건립되었으나 청대에 건축적으로 크게 변모 - 대규모 원림 조성 - 중국의 대표 시인인 소식이 머문 곳에 기원
8	대정	하남성	1075	B	- 송대에 건립되었으나 청대에 건축적으로 크게 변모 - 중국 서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원 (중국 고건축 중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큼) - 강당 앞쪽 좌우 건물은 과거시험장으로 사용
9	동파	해남성	1097	B	- 송대에 건립되었으나 청대에 건축적으로 크게 변모 - 대규모 원림 조성 - 중국의 대표 시인인 소동파가 머문 곳에 기원
10	독봉	절강성	1228	C	- 13세기 건립된 서원의 한 사례 - 3칸 강당 내부에 화려한 장식 - 송대 주회가 강학했던 장소에 건립.
11	아호	강서성	1250	B	- 13세기 건립된 서원의 한 사례 - 특히 진입공간, 강당과 어서각이 대표적 - 송대학자 주희, 육구연의 성리학 논쟁처 인근에 건립
12	경부	안휘성	1652	B	- 17세기 건립된 서원의 한 사례 - 현재까지 과거 시험장인 고봉을 유지 - 안휘성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은 서원 - 근대 이후인 1928년 안휘대학으로 발전함
13	죽산	안휘성	1759	B	- 18세기 건립된 서원의 한 사례. 지역 상인에 의해 건립 - 청나라 시기 유행했던 원림 조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 소위 '강남제일서원'
14	남호	안휘성	1814	B	- 19세기 건립된 서원의 한 사례. - 마을 내 문중서원으로 운영 - 유학, 민간신앙이 결합된 배향형태 및 사우 · 세계유산
15	진씨	광둥성	1893	C	- 19세기 건립된 서원의 한 사례. - 서양 건축의 영향을 받은 서원 - 화려한 장식 - 도심 입지

1.a 사우

사우는 선현(先賢)에 대한 제향을 지내는 신성한 장소로서, 서원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이다. 한국 서원에서 사우는 서원의 가장 안쪽에 배치되며, 경사지인 경우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다. 사우는 서원의 다른 영역과 달리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되고 내삼문이라는 신성한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한국 서원의 사우는 단층의 맞배 기와지붕을 가진 정면 3칸의 일관된 형식을 갖고 있다. 대개 앞쪽에는 기둥으로만 구획된 처마 아래의 공간을 구성하고 그 안쪽으로 3칸 각각의 면에 문을 설치하며 실내의 공간에 신위를 놓아둔다. 이러한 전형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 문성공묘부터 적용되었다. 이후의 모든 서원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사우를 조성하였는데, 이는 사우의 형식이 초기 단계부터 강고한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사우의 구체적인 건축 형식은 근본적으로 중국 고대의 정침 이론과 행례, 즉 예법에 따른 행위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 고대 중국의 이론적 건축유형인 정침은 정면 3칸 규모의 당(堂)을 행례의 중심 공간으로 하고, 이 좌우에 보조공간인 협실(夾室)이 붙어있는 유형과 보조공간이 부재인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그림 1-1(a) 참조) 한국 서원의 사우는 좌우의 보조공간인 협실 없이 당 만으로 구성된 기본형에 충실한 건축유형이다.

고대 유학 예법에 대한 지향은 사우 전면부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부분의 서원 사우는 3칸 중 가운데 칸이 아닌 양쪽 칸 앞으로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고대 정침의 출입을 위해 양쪽의 계단을 대면하여 사용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한국 서원의 사우에서는 좌우로 분화된 계단의 사용방식에 대해 엄격한 규정



그림 1-2. 한국 남계서원 사우 외부. 남계서원은 사우의 좌우계단, 평면구성 등에 정침이론을 적용했다.



그림 1-3. 한국 필암서원 사우 내부. 바닥은 마루로 구성되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며, 사우 내부에는 위패만을 놓아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출입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그림 1-2 참조)

실내의 바닥은 마루, 전돌타일 등으로 마감되었고 사우에 내부로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신성한 공간에 대한 겸양의 태도를 보여준다. 사우는 서원 내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로서,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식 이 가미되어 공포, 단청, 벽화 등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건축물에 비하면 매우 단순하고 차분하다. (그림 1-3 참조)

현존하는 중국 서원의 사우는 한국의 경우에 비해 매우 다변화되어 있고 복잡하다. 단일 사우가 아닌 여러 동의 사우를 분산하여 배치하였고, 한국 서원의 사우에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과 달리 중국 서원 사우에서는 신발을 신고 입식으로 사용하였다. 실내 공간의 주요 요소 등에서 형식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출입문과 계단의 사용법 등 예법 해석과 적용의 방식도 다르다.

중국 서원의 사우는 규모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3칸 혹은 5칸의 홀수칸을 많이 사용하였다. 제사 대상은 공자와 그의 제자, 유학자를 비롯하여 서원의 창건자, 해당 서원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 등이다. 중국 서원은 한국 서원과 달리 여러 동의 사우를 두고 다수의 인물을 배향한다. 중국 서원의 사우는 한국 서원의 사우와 같이 단일 건물로 담장과 내삼문 등으로 특별히 구획되지는 않으나, 가장 높은 위계의 지붕인 팔작지붕으로 건물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또 후대에는 도교, 민간신앙 등 유학과 관련 없는 신을 배향하는 사우들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그림 1-4, 1-5 참조) 한국의 서원은 신위를 두고 제향을 지내는 반면 중국은 신위 뿐만 아니라 화상과 조상 또한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 서원에는 없는 중국 서원 사우의 독특성



그림 1-4. 중국 악록서원 문묘 외부.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를 배향하며, 5칸으로 구성된 중층 건축물이다. 서원 동편에 별도의 축에 조성되었다.



그림 1-5. 중국 악록서원 문창각. 1687년에 건립되어 도교의 문창제군을 배향하며 과거합격을 기원한다. 이것은 서원이 관학의 보조기관으로 발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양한 배향자에 대한 여러 동의 사우가 있는 만큼, 중국 서원의 사우는 통일된 건축 양식이나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공자를 배향하는 악록서원 문묘, 백록동서원 예성전 등은 규모가 크고 화려한 중층 누각으로 내부에 화상을 모셨으며, 악록서원의 기타 사우들과 백록동서원 주자사, 송양서원 도통사, 석고서원 무후사 등은 단층으로 화상, 조상을 모시는 등 제향의 형식과 공간이 일정하지 않다. 동림서원의 연거묘에서는 신위를 모셨는데 이는 한국의 서원과 유사한 점이지만, 신위의 감실 상부에 단집 형식의 장식을 달아 훨씬 화려하다. (그림 1-6, 그림 1-7 참조)

출입의 측면에서도, 두 국가의 사우는 구조상 다른 양식을 보여준다. 한국 서원이 좌우의 문으로 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존하는 중국의 서원 사우들은 대개 중앙의 문으로 출입한다. (그림 1-8, 1-9 참조) 이는 고대 정침의 규정보다는 중심을 강조하는 건축수법을 따랐던 것으로서, 명청대의 건축수법에 영향을 받은 것

중국 서원과 한국 서원 사우의 차이점(내부)



그림 1-6. 중국 동림서원 연거묘 내부. 사우 내부는 신발을 신고 입식으로 사용하며, 신위의 감실 상부에 단집 장식을 달아 화려하다.



그림 1-7. 한국 병산서원 존덕사 내부. 사우 내부는 신발을 벗고 사용하며, 스승의 신위를 두고 제향하였다.

중국 서원과 한국 서원 사우의 차이점(외부)



그림 1-8. 중국 백록동서원 주자사.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를 배향하며, 5칸으로 구성된 건축물이다. 중앙 문으로 출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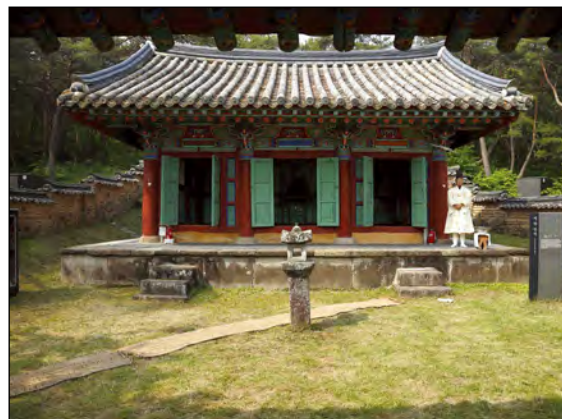


그림 1-9. 한국 도동서원 사우 외부. 김굉필을 배향하며, 3칸으로 구성된 건축물이다. 2개의 계단을 사용하며 사우의 좌우로 출입한다.

으로 보인다. 백록동서원과 같이 횡으로 여러 마당을 중첩한 서원에서는 정면에만 문을 두었지만, 종적으로 긴 배치를 한 송양서원의 사우는 뒷면에도 문을 두어 사우를 통과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서원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다.

1.b 강당

강당은 강학이 진행되는 장소이다. 강당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유학 경전을 읽고 토론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서원 강당인 강학 공간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두 건축물 모두 강당은 강학을 목적으로, 화려한 장식을 지향하였으며, 서원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중국의 서원은 그 시대적, 공간적 범위가 넓어서 일관된 형식으로 정리되기 어렵지만, 한국 서원의 강당은 정침모델과 강학의 예법에 근거하여 독특한 전형을 형성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좌식과 입식이라는 다른 문화적 조건에서 성리학적 예법을 건축물에 적용한 방식이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계단 등 공간을 진입하는 물리적 장치 등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즉, 한국 서원의 강당은 지역의 건축관습과 성리학적 예법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정착한 사례이다.

영역으로 보면, 중국의 서원은 강당, 재사, 교사의 집무실이 서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한국의 서원에서는 이 공간들이 마당을 공유하며 하나의 영역 속에 배치되어 있다. 재사 건물에서도 한국의 온돌, 마루를 활용하는 좌식 공간과 중국의 입식 공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강학이 이루어지는 강당과 거주공간인 산장(원장), 학생들의 기숙사를 모두 분리하는 중국 서원의 배치 방식과 달리 한국 서원은 강학공간 내에 원장이나 원임은 강당의 좌우로 방을 두어 기거하도록 구성하였고, 학생들의 기숙사(동서재)를 강당 앞 동서편에 건축하여 교사와 학생이 한 공간에서 학습과 거주를 동시에 하면서 사제간의 위계를 부여하는 것도 중국과는 크게 구별된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한국 서원에서 강학 공간은 서원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강당 외에도 학생들의 기숙사인 재사가 포함된다. 강당은 주로 정면 5칸으로 구성된다. 정면 5칸 중 가운데 3칸은 마루를 깔아 강학을 할 때에 이 공간을 교사와 학생이 좌식으로 사용되, 정면에 별도의 문을 설치하지 않아 외부에 개방적인 형태로 구성하였다. 나머지 좌우의 각 1칸은 온돌방으로, 교사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방과 중앙부의 마루는 문을 여닫아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강당의 형식이 처음부터 안착된 것은 아니었다. 소수서원 강학당의 경우, 정면 4칸

중 한쪽 끝에만 온돌방을 두고 나머지 3칸은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인 남계서원의 명성당은 정면 4칸에 중앙 2칸을 마루로, 좌우의 각 1칸을 온돌방으로 한 대칭적 구성인데, 이는 서로 대면하여 예를 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 구성이다.

사우와 마찬가지로 강당 역시 고대 정침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사우가 좌우의 보조공간, 즉 협실이 없이 당만을 가진 정침의 모델을 취하였다면, 강당은 3칸의 당으로 이해된 대청마루의 좌우에 보조공간인 협실을 붙인 경우로서 정침의 모델을 응용한 것이다. 사우가 서원 건립 초기 단계에서 정침을 채택한 것과 달리, 강당은 이후에 정침을 채택하였다. 사우와 마찬가지로 중앙 칸을 피해 좌우의 두 계단을 두었으며 강학을 할 때에는 선생이 동편 계단을 올라 당의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앉았으며, 학생들은 서편 계단을 올라 당의 서쪽에서 동향하여 자리하였다. 이는 모두 동편을 높은 위치로 설정하는 유학의 예학 이론에 맞추어 계획된 것이다. 평면상 건축물의 위계는 인간 관계의 위계에 따라 각각의 건축물에 적용되었다. (그림 1-10 참조)

한국 서원 강당은 마당, 기단, 마루 등 높이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높이의 차이는 손님의 사회적 지위, 직업, 친족 간의 위계에 따라 주인이 어느 위치에서 손님을 맞이하는지를 결정하기도 하는 등 의례의 세부적인 면이 가미되었다.

이러한 한국 서원 강당의 주류 모델은 고대의 정침이 갖고 있는 당 북편의 보조공간들은 갖고 있지 않았다. 돈암서원의 응도당은 완전한 정침을 완전하게 구현한 사례로 중앙부의 대청마루와 좌우의 온돌방 뿐만 아니라, ‘방(房)’, ‘실(室)’로 표기되는 추가적인 공간들을 북편에 마련하였다. (그림 1-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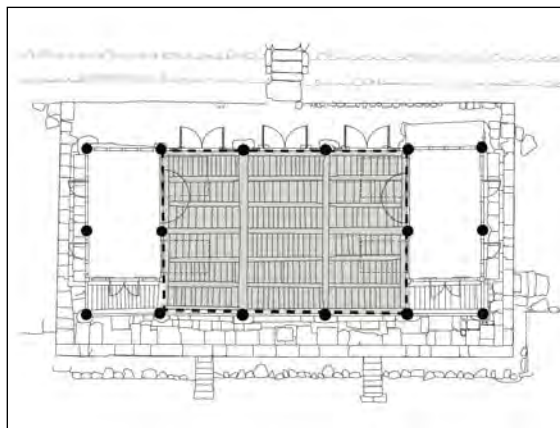


그림 1-10. 3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 1칸씩 방으로 구성된 한국 서원 강당의 전형적 구성을 보여주는 도동서원 중정당(그림 1-1(b)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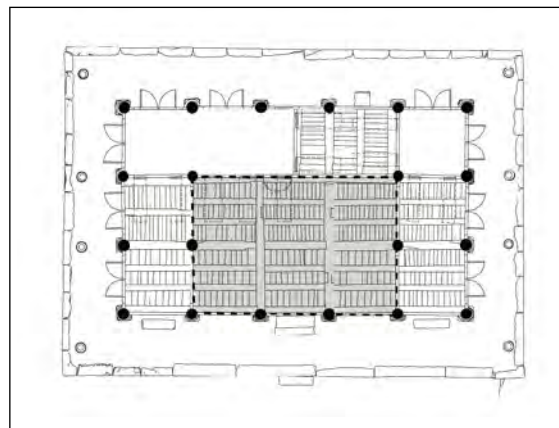


그림 1-11. 후면의 방, 실을 포함하여 정침이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돈암서원 응도당(그림 1-1(c) 참조)

중국 서원에서도 강학이 서원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강당은 서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건축물이다. 서원의 중심에 강당을 둔 것은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적이다. 규모상으로는 3칸에서 5칸이며 공간 구분 없이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 또한 몇몇 서원에서는 복수의 강당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악록서원과 아호서원, 백록동서원의 강당은 5칸, 송양서원, 대정서원, 독봉서원, 남호서원의 강당은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몇몇 서원의 강당은 건물을 관통하여 앞뒤의 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의 서원 강당이 전후면이 명확하여 전면으로만 출입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는 입식과 좌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아호서원 강당의 내부를 살펴보면 내부 중앙에 교사의 자리를 두고 학생들과 마주보도록 하였다. 입식으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였고 양 벽에는 유학 경전의 글귀를 새긴 비랑이 있다.

동림서원 강당은 2동으로 나뉘어 있다. 한 강당은 매년 큰 규모의 강학모임이 열릴 때 전국 각지의 학자들이 모여 의식과 강학을 행하던 곳이다. 초청받은 손님은 동쪽에, 서원의 주인은 서쪽에 서서 서로 읍배한 뒤 엄숙하게 의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공간이 넓고 트여있는 구조를 하였다. 또 다른 강당은 서원의 원생들과 교사들이 강학하던 곳으로 정치 및 학술적 토론을 한 곳이다. 강당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중국 서원에서도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지만 한국 서원이 단일한 전형을 강력하게 공유하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국 서원의 강의가 좌식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중국 서원의 강의는 책상과 의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법에 따른 명확한 건축형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편의에 따라 사용되어 왔다. (그림 1-12, 그림 1-13 참조) 또한 한국 서원은 교사의 집무실이 강당 좌우에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중국 서원은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서원은 강당과 생활공간인 학생의 재사와 교사의 집무 공간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한데 비하여, 대체로 중국 서원은 강당과 교사와 학생을 위한 생활공간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1-14, 그림 1-15 참조)

장식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서원은 일부 서원의 강당에 단청이나 공포를 사용한 예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장식을 배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서 재사는 장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림 1-16 참조)

중국 서원의 강당 건축 역시 장식을 배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대체로 검은색 기와를 사용하고, 기둥을 검은색 혹은 붉은색으로 채색하며, 유학적 내용과 관련된 시구



그림 1-12. 좌식으로 운영된 한국 강학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한국 옥산서원 구인당 내부



그림 1-13. 입식으로 운영된 중국 강학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동림서원 의용당 내부



그림 1-14. 원임의 집무실과 강의를 위한 대청마루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한국 도산서원 전교당. 강당 전면 좌우에는 학생들의 재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5. 강의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백록동서원 명륜당. 강당과 교사와 학생의 생활공간은 강당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등을 기둥에 새겼다. 일부 서원의 경우 강당의 가운데 안측 상단에는 황제가 하사한 편액이 걸려져 있기도 하다. 또한 벽면에는 유학경전과 관련된 구절 등을 새겨놓기도 한다.

일부 중국 서원은 지역적 혹은 시대적 유행을 반영하여 장식을 화려하게 구성하였다. 대정서원과 독봉서원, 진씨서원 등의 강당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다른 서원과 달리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식은 대체로 처마나 벽체, 그리고 서까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식에 대한 태도도 서원마다 다양하다. (그림 1-17 참조)



그림 1-16. 장식을 배제하고 목조 원형의 미를 구현한 한국 도동서원 중정당



그림 1-17. 지붕, 벽면 등 전체적으로 화려한 장식을 구현한 중국 진씨서원 강당

1.c 누마루

누마루는 중국의 서원과 달리 한국의 서원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요소이다. 누마루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유식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리학자들의 교류, 회합, 공론 형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활용되면서 한국 서원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서원의 누마루는 서원 내에서 유일하게 2층의 높이를 갖는 건물로서, 서원의 구성원 혹은 서원을 방문했던 성리학자들이 회합할 수 있는 공간이자, 외부의 경관을 서원의 구성요소로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건축 장치로 작용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대개 넓은 마루로 구성되며 서원에 진입하는 출입문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누마루는 유학적 예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다. 소수서원에서는 별도의 누마루를 두지 않고 단지 영역 바로 밖에 경림정이라는 작은 정자를 두었을 뿐이었다. 경림정에서 경자바위와 냇가, 주변의 산세를 흠상할 수 있었다. 남계서원은 창건당시에는 누마루가 존재하지 않다가 19세기에 이르러 풍영루가 건립되었다.

옥산서원 무변루는 교류와 유식을 위해 입구에 건립된 2층 누각으로 한국 서원 중에서 최초로 건립되었다. 7칸으로 구성되어 그 가운데 3칸은 마루, 좌우 각 1칸은 온돌방, 그리고 양 끝단은 다시 마루로 구성되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앙부 마루 3칸으로 보건대, 무변루의 구성은 강당의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8 참조)

무변루 이후의 서원 누마루는 방을 두지 않고 마루로만 된 형식으로 안착되었다. 마루 주변으로 벽이나 창문 등을 두지 않는 완전한 개방공간으로 구성되며, 규모는 정면 3칸이 일반적이다.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7칸 규모를 모두 마루로 구성한 최대 규모의 누마루인데, 이는 이곳이 ‘만인소’ 등 유학자들의 집단적인 정치 행위 등 회합 활동이 크게 있었던 사실과 관련된다. (그림 1-19 참조)

진입부에 누마루를 사용하는 방식은 한국의 거의 모든 서원에 적용되었다. 비단 서원 뿐만 아니라, 이후 소규모로 새로 만들어지는 향교, 산간에 조성된 소규모 사찰 등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말하자면 서원의 누마루는 한국 건축의 건물군 배치 면에서 특별한 독창성을 갖는다. (그림 1-20, 그림 1-21 참조)

한국의 누마루는 그 존재가 독특한 것으로, 중국 서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 서원의 누마루 건축은 ① 진입부로서의 기능, ② 2층 누각으로서의 랜드마크적 특성, ③ 교류 및 유식공간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중국 서원의 건축과 대비를 이룬다.



그림 1-18. 한국 서원에서 최초로 누마루를 도입한 옥산서원의 무변루



그림 1-19. 한국 서원에서 교류와 회합을 특화하여 누마루 건축을 극대화한 병산서원의 만대루



그림 1-20. 한국 서원에서 누마루 건축이 정착된 단계를 보여주는 필암서원 환연루



그림 1-21. 한국 서원에서 누마루 건축이 정착된 단계를 보여주는 무성서원 현가루

한국 서원의 누마루는 서원 진입로에 위치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진입부에 누마루가 없으며, 대신 학궁(學宮)을 상징하는 반수가 있다. 반수는 유학의 교육시설임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요소이다. (그림 1-22, 그림 1-23 참조) 이는 정원의 요소라기보다는 진입부에 해당한다. 송대 건립된 서원인 백록동서원, 송양서원 뿐만 아니라, 13세기 이후에 건립된 아호서원과 동림서원 등도 반수가 존재한다. 더하여, 한국 서원에서는 누마루와 함께 홍살문을 서원 진입의 요소로 배치하였는데, 중국에서는 패방과 문으로 구성하는 점이 다르다. (그림 1-24, 그림 1-25 참조)

한국서원의 누마루는 서원 전면의 경관과 연계하여 교류 및 유식의 역할을 한다면, 중국서원의 원림은 서원 내부에 자연 경관을 조성하였다. 원림의 조성은 17세기 이후 중국에서 유행한 조경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죽산서원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 건립된 서원들은 대부분 서원 외부에 대규모 원림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나 악록서원, 동림서원, 동파서원과 같이 인공 호수와 함께 정자를 배치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1-26, 1-27 참조)



그림 1-22. 진입부, 랜드마크, 교류 및 유식공간으로서의 복합적 속성을 보여주는 무성서원 현가루



그림 1-23. 진입부에 반수를 두는 중국 서원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동림서원



그림 1-24. 누마루와 함께 서원의 진입부임을 알려주는 한국 남계서원 홍살문



그림 1-25. 서원의 진입부임을 알려주는 중국 아호서원 패방



그림 1-26. 서원 내부에 조성되어 있는 중국 동림서원 원림. 서원 구성원들의 휴식을 위한 기능을 하였다.



그림 1-27. 서원 내부에 조성되어 있는 중국 악록서원 원림. 서원 구성원들의 휴식을 위한 기능을 하였다.

1.d 기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건축물은 사우, 강당, 누마루이다. 그 밖의 요소로는 책이나 책판을 보관하는 장서각이나 장판각, 제향 준비와 관련된 전사청, 관리인이 기거하는 고직사 등이 있다.

그 중 한국의 서원을 구성하는 장서각 혹은 장판각은 중국의 서원의 장서루와 잘 비교될만한 요소이다. 한국의 서원과 중국의 서원은 출판 및 장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한자문화권의 인쇄술은 문자의 특성상 산업화되기에 한계가 있어서 한정된 계층, 기관에 국한된 기술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활발하게 출판 활동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지금도 각 서원에는 조선시대의 책판과 책을 잘 보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서원과 책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황제가 하사한 책을 보관하는 건물을 특별히 존중하여 ‘장서루’ 대신 ‘어서루’, ‘어서각’ 등의 이름을 붙였다. 악록서원, 백록동서원, 송양서원, 아호서원 등에서 이러한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건물도 2층 누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장서각은 서원에서 높은 위계를 차지하였고, 위치 상으로도 다른 건물들에 비해 중축선의 끝이나 중심부에 있는 등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28 참조)

하지만 한국 서원의 장서각과 장판각은 서원의 주요 건축물의 기능을 돕기 위해 건립되었다. 한국 서원은 소수 인원을 입학 정원으로 하였고 때문에 서원 건축도 크지 않았다. 또한 장식보다는 서책 보관의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한편, 중국 서원 건축 중에서 한국 서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소들도 있다. 예를 들어, 고봉은 과거 시험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중국 서원에만 존재한다. 비록 모든 서원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고봉은 중국 서원이 관학화된 현상을 증명해준다. 또한 고봉이 현존하는 녹강서원과 경부서원 이외에도 다양한 역사적 기록들이 고봉의 존재를 입증해준다. (그림 1-29 참조) 행정관리가 파견되어 사용하는 공간인 감원 역시 관학으로서의 중국 서원의 특징을 드러낸다. 두 건축물은 얼마나 서원이 정부와 연계되어 있었는지 잘 증명해준다.

입지에서 초기에는 명현과 관련된 곳을 선택하던 것이 점차 관학화되면서 도시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우 서원보다는 관립학교인 향교에 가까운 특성이다. 송양서원이나 악록서원과 같이 송대에 건립된 서원들은 불교나 도교 사원에 영향을 받아 경관이 수려한 곳에 입지하였다.

장식에서 중국의 서원은 한국의 서원과 마찬가지로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를 취한다. 대체로 장식과 관련한 기법은 유학과 관련된 석각이나 주련에 유학 격언이나 시구를 새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지역과 시대별 장식문화의 영향으로 화려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진씨서원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그림 1-30, 1-31 참조)



그림 1-28. 2층 누각으로 구성되어 랜드마크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중국 악록서원의 어서각. 서원 내의 다른 건축과 달리 화려한 장식이 특징적이다.



그림 1-29. 과거시험장인 고봉이 존재하는 중국 녹강서원 고봉. 고봉은 원생의 기숙사로도 함께 쓰였다.



그림 1-30. 『주역』의 괘사(卦辭)를 새긴 한국 병산서원 존덕사 입구



그림 1-31. 서양식 부조로 화려하게 벽면을 장식한 중국 진씨서원

정리하자면, 한국 서원을 구성하는 전각들의 건축 형식은 제사, 강학, 교류 및 유식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예법과 연관된 이론적인 건축유형이다. 중국의 서원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서원은 원칙과 이론에 입각하여 전형 모델을 공유하는 독특한 한국의 지역성을 갖고 있다. 서원의 사우와 강당은 성리학적 이상과 예법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중요한 유형적 사례이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원과 중국의 서원은 온돌과 마루의 양식을 적용하는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서원은 점차 관학화되었고, 세속화,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한국 서원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19세기 후반 이래로, 중국의 서원은 근대 건축과 결합하여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원래의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신청유산은 배치에서부터 각 전각의 건축 형식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적 사고에 기반한 뚜렷한 유형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서원과 같은 유사한 유산과 비교하여도 분명한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등재기준(iv)를 충족한다.

2. 경관과 원거리 시야의 보호

신청서는 성리학의 가르침과 관습의 일부로 서원의 주변경관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과 가까운 경관적 요소와 함께 산처럼 보다 먼 거리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항상 포함되기보다 유산의 보다 넓은 주변환경에 포함되기는 하나, 완충구역 바깥을 기준으로 얼마나 먼 거리의 경관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이들이 서원과 갖는 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이코모스 패널은 당사국이 원거리의 경관적 요소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공식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연결 부분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유산의 경관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우주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리학적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원들이 산, 강,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한다. 이를 통해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속세에서 벗어나 성리학적 세계관을 습득하고 심신을 수양하였다. 이에 따라 주변 경관을 감상하도록 건립된 누마루가 서원 건축에서 특히 더 강조되었다.

한편, 무성서원과 같이 일부 서원은, 마을 안에 입지하여 지역 주민의 교화라는 성리학의 지향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경우 주변의 주택, 담장 등 마을 경관이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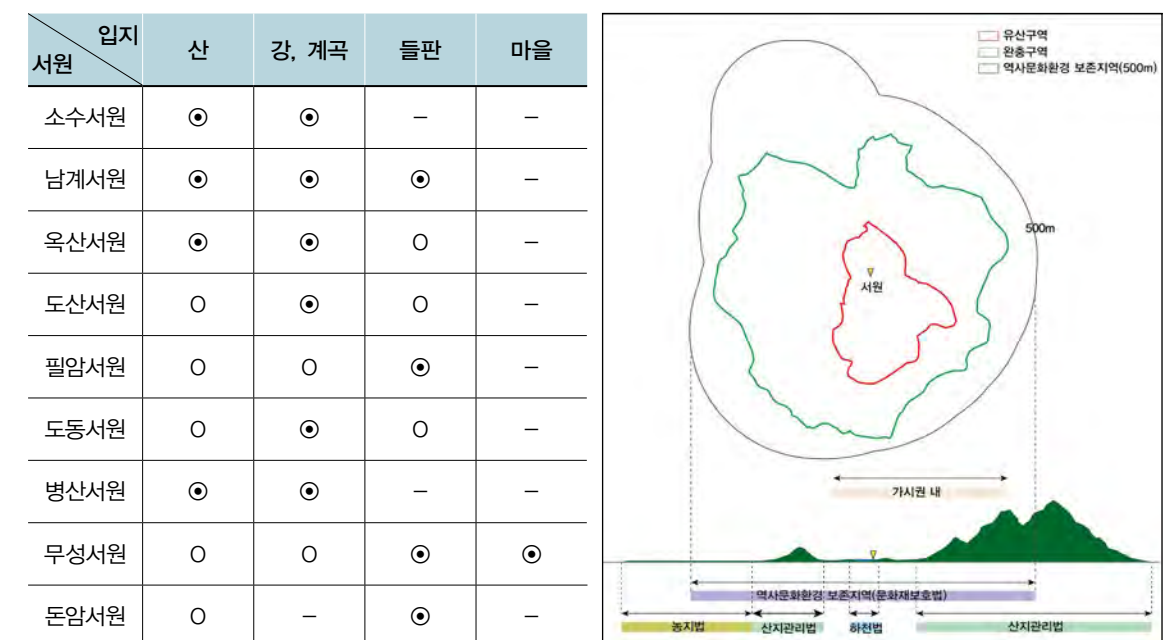


표 2-1. 신청유산의 입지별 주요 경관요소(◎: 주요경관, ○: 주변경관)

그림 2-1. 구역 경계, 경관요소, 법적 보호 제도의 관계 모식도

에서 보이는 주요 경관이 된다. 신청서에 기술된 신청유산의 입지별 경관요소는 표 2-1의 내용과 같다.

한국 정부는 신청유산의 완충구역 밖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이외에도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하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같은 법령들로 보호하고 있다. 신청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완충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완충구역은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경계로부터 500m)을 바탕으로 신청한 각 서원의 지형조건에 따라 신청유산에서 보이는 원거리의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되었다. 완충구역에서 벗어나는 주변경관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해당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는 완충구역 바깥에 위치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건축행위를 단계별로 규제받고 있으며, 이 범위 내의 자연요소는 산지관리법과 하천법, 농지법, 이외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추가적인 보호관리를 받는다. 이러한 법적 보호 제도는 완충구역 바깥의 산, 강, 계곡, 들판에도 적용된다. 법적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는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완충구역이 설정된 이유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 경관요소의 법적 보호 제도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1 참고) 각 서원별 주요 경관요소와 보호 제도는 표 2-2의 내용과 같다. 이상 설명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과 여타 법령들은 서원의 경관과 원거리 시야를 만족스럽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법령 내용은 해당 공무원, 관리자, 지역주민 모두가 잘 숙지하고 있다.

해당 경관요소에 적용되는 산지관리법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금지, 산지경관유지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하천법의 경우, 하천수 사용, 하천시설의 점용 등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해당 지자체 및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특히 도산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의 주요 경관요소에 해당하는 낙동강 주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해 개발행위 등 환경을 해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낙동강유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60,000㎡(6ha) 이상 규모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산지 개발 사업, 도로 건설 사업 진행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필히 진행한다. 농지법은 농지로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하고 있다.

표 2-2. 서원별 주요 경관요소와 법적 보호 제도

신청유산	구분	완충구역 내 자연환경 요소 (문화재보호법 및 환경 관련법)					완충구역 외 자연환경 요소 (지자체 관련법 및 환경 관련법)		
		경관 요소					경관 요소		
		산(가시권 내)		강/계곡	들판	마을	산 (산지관리법)	강/계곡 (하천법)	들판 (농지법)
		앞산	뒷산						
1	소수서원	연화산	영귀봉	죽계천	주변 농지	－	연화산 (가시권 외) －영주시－	죽계천 －영주시－	－
2	남계서원	－	승안산	남계천	주변 농지	－	당산(1.3km) －함양군－	남강 －함양군－	농지 －함양군－
3	옥산서원	자옥산	어래산	자계천	주변 농지	－	자옥산 (가시권 외) －경주시－	자계천 －경주시－	－
4	도산서원	－	도산	낙동강	주변 농지	－	삼각산(1.3km) －안동시－	낙동강 －안동시－	농지 －안동시－
5	필암서원	－	증산	운필천	주변 농지	－	삼봉(1.4km) －장성군－	－	농지 －장성군－
6	도동서원	개구리섬	대니산	낙동강	주변 농지	－	제석산(3.1km) －달성군－	낙동강 －달성군－	－
7	병산서원	병산	화산	낙동강	－	－	병산 (가시권 외) －안동시－	낙동강 －안동시－	－
8	무성서원	－	성황산	필수천	주변 농지	무성리	시산(1.1km)	칠보천 －정읍시－	농지 －정읍시－
9	돈암서원	－	고정산	－	주변 농지	－	주산(2.5km) －논산시－	연산천 －논산시－	농지 －논산시－

※ 파란색으로 기입된 경관 요소는 조망권 내에 위치하며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입지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된 경관요소는 아님.

※ 각 서원의 원경에 해당하는 주요 경관요소는 다음 페이지의 위성지도와 사진을 참고.

2.a 소수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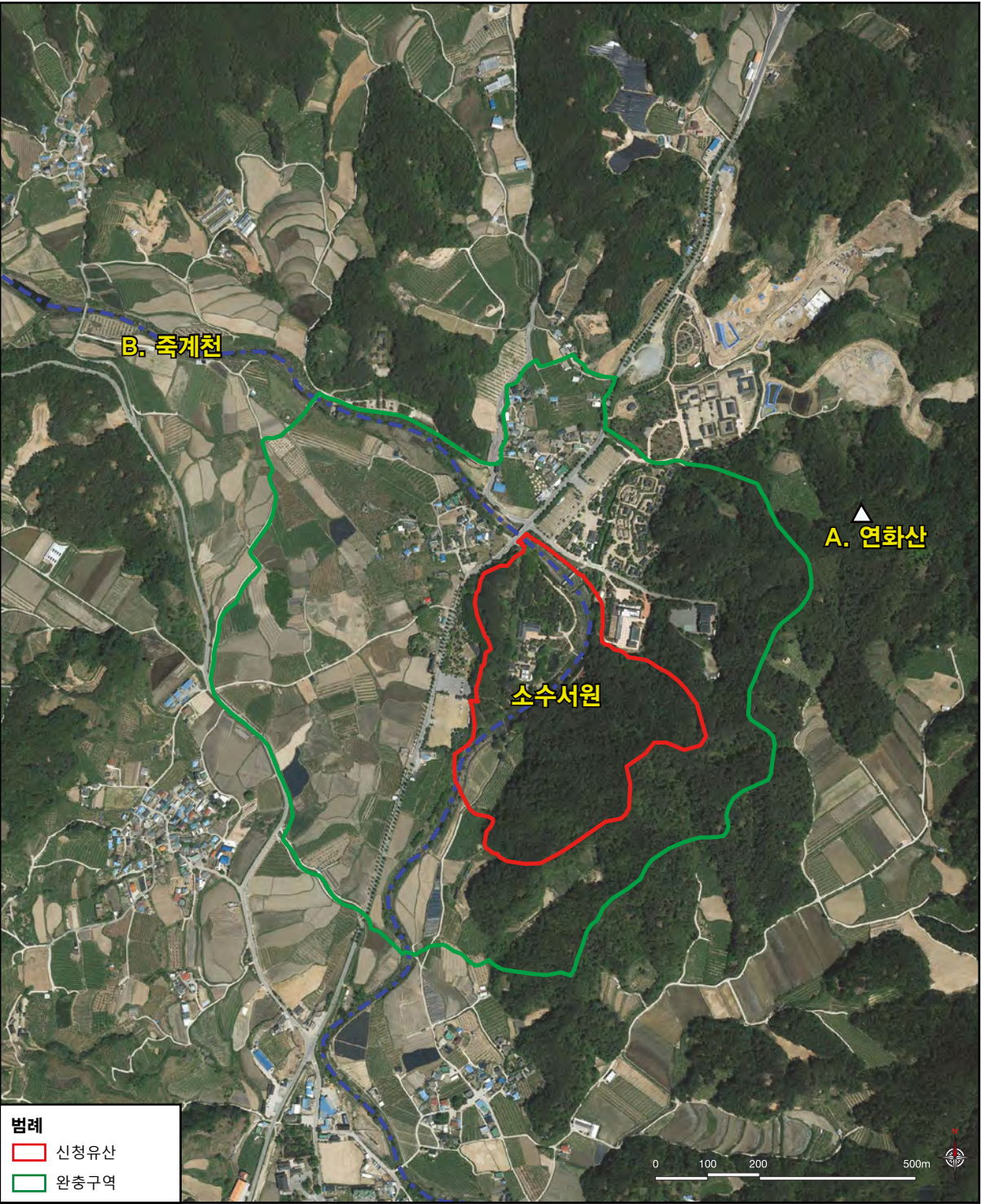


그림 2-2. 소수서원 위성사진

표식	환경요소	경관	보호체계		
			산지관리법	하천법	농지법
A	연화산	산경	O	—	—
B	죽계천	계경	—	O	—

소수서원은 계경이 강조되는 서원으로 죽계천 너머로 숲과 산을 바라보는 곳에 입지한다. 죽계천과 연화산의 일부 등 주요 경관요소는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포함되었다. 경협정에서 보이는 죽계천은 소수서원의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지며 하천법으로 보호된다. 경내에서 보이는 완충구역 동쪽의 봉우리들은 모두 연화산에 속하며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영주시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산림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서원의 서쪽 농지 및 산들은 술숲과 영귀봉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각각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림 2-3. 명륜당망 연화산



그림 2-4. 소수서원과 죽계천

2.b 남계서원



그림 2-5. 남계서원 위성사진

표식	환경요소	경관	보호체계		
			산지관리법	하천법	농지법
A	당산	산경	O	—	—
B	남계	계경	—	O	—
C	농지	야경	—	—	O

남계서원은 야경이 강조되는 서원으로 정면의 탁 트인 들판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 들판은 농경지로 농지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남계서원의 서쪽에 위치한 남계는 일부가 완충구역에 포함되었으며,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모두 하천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서원은 승안산 자락 아래 자리잡고 있으며, 서원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당산뿐만 아니라 그 너머로 보이는 산들 모두 산지관리법과 함양군 도시조례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함양군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산림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2-6. 남계서원 전경



그림 2-7. 사당망 남계서원 주변 경관요소

2.c 옥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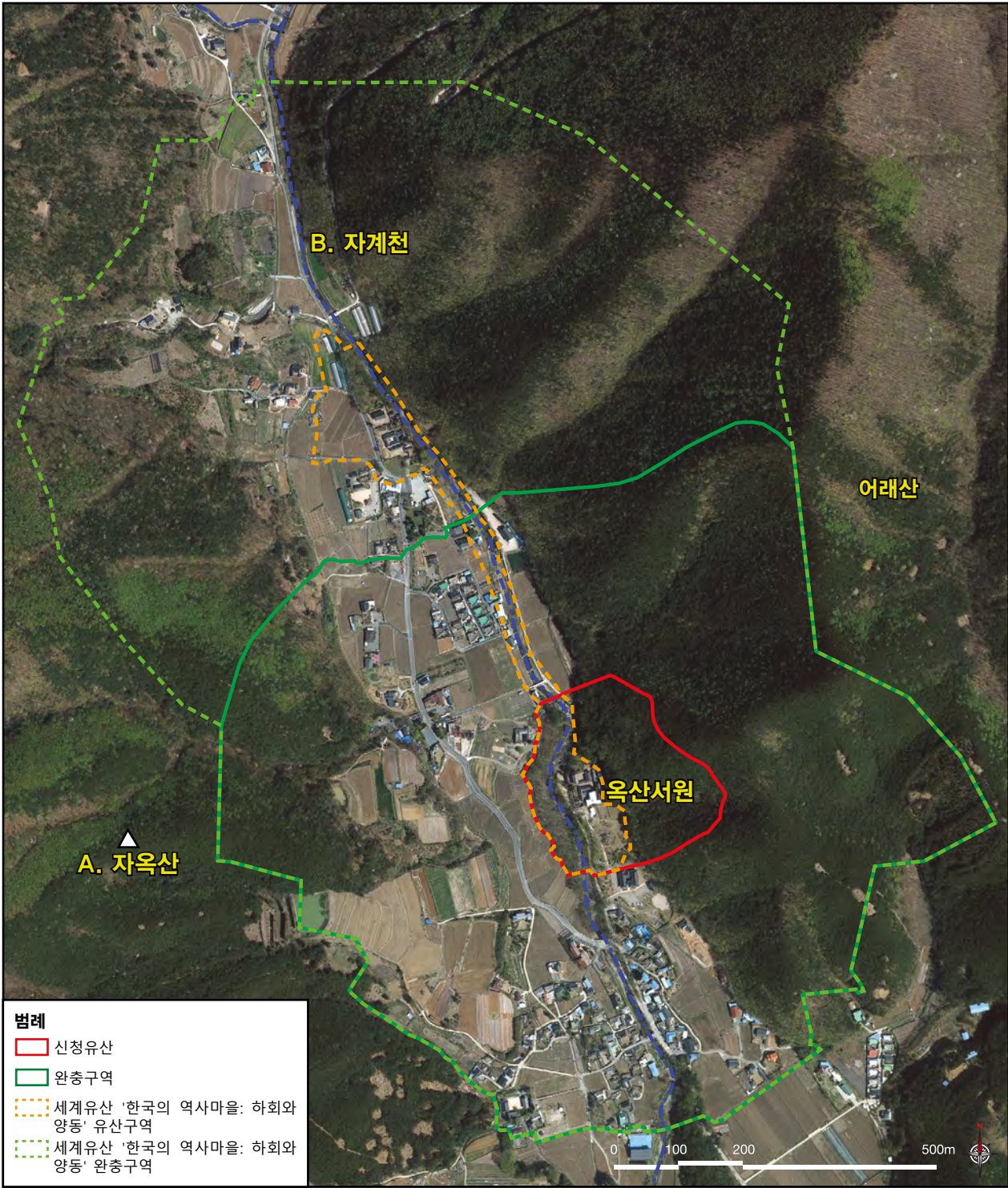


그림 2-8. 옥산서원 위성사진

표식	환경요소	경관	보호체계		
			산지관리법	하천법	농지법
A	자옥산	산경	O	—	—
B	자계천	계경	—	O	—

옥산서원은 계경이 강조되는 서원으로 서원 앞 자계천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산을 바라보는 경관을 이룬다. 자계천, 자옥산 등의 주요 경관요소는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서원 앞 자계천은 경내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서원의 진입로를 따라 흐르는 천으로 자계천의 연장구간은 모두 하천관리법에 의해 보호된다. 경주시에서도 정기적인 관리 및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자계천 너머 펼쳐진 농경지는 농지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서원에서 역락문 너머 서쪽으로 보이는 자옥산과 체인묘 뒷쪽으로 보이는 아래산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경주시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산림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산들은 201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에서 양동마을의 완충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림 2-9. 체인묘 담장망 자옥산



그림 2-10. 옥산서원과 자계천

2.d 도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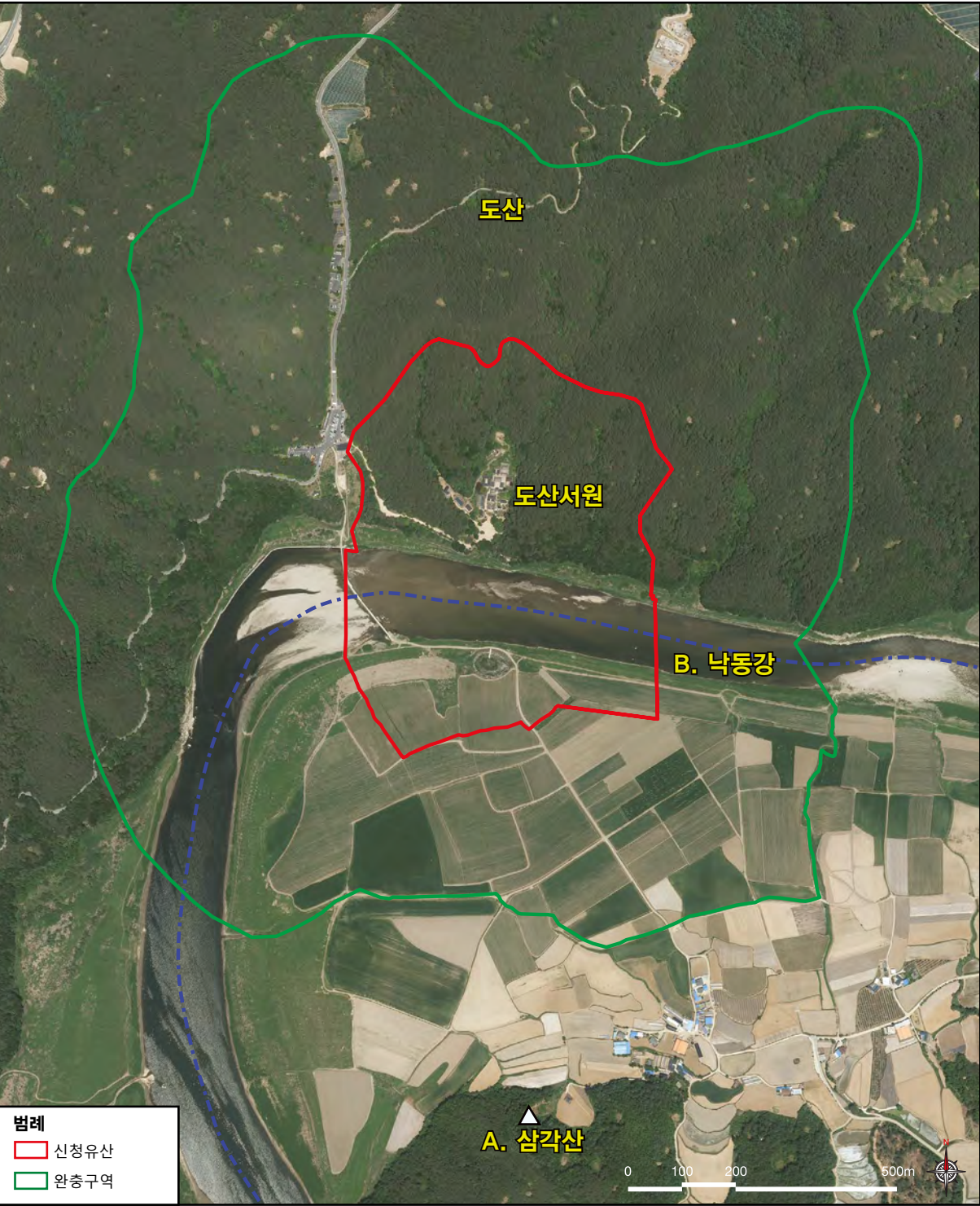


그림 2-11. 도산서원 위성사진

표식	환경요소	경관	보호체계		
			산지관리법	하천법	농지법
A	삼각산	산경	O	—	—
B	낙동강	강경	—	O	—

도산서원은 강경이 강조되는 서원으로 낙동강이 흐르는 경사지에 입지하며 낙동강 너머의 탁 트인 평야와 삼각산이 주요 경관요소이다. 낙동강은 하천법으로 보호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질개선뿐 아니라 낙동강유역의 생태우수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서원 건너편 시사단 부근의 농지는 농지법의 규제를 받으며, 대부분 국유지이다. 농지 뒤편으로 보이는 삼각산은 산지관리법과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안동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2-12. 도산서원망 삼각산



그림 2-13. 천광운영대망 낙동강

2.e 필암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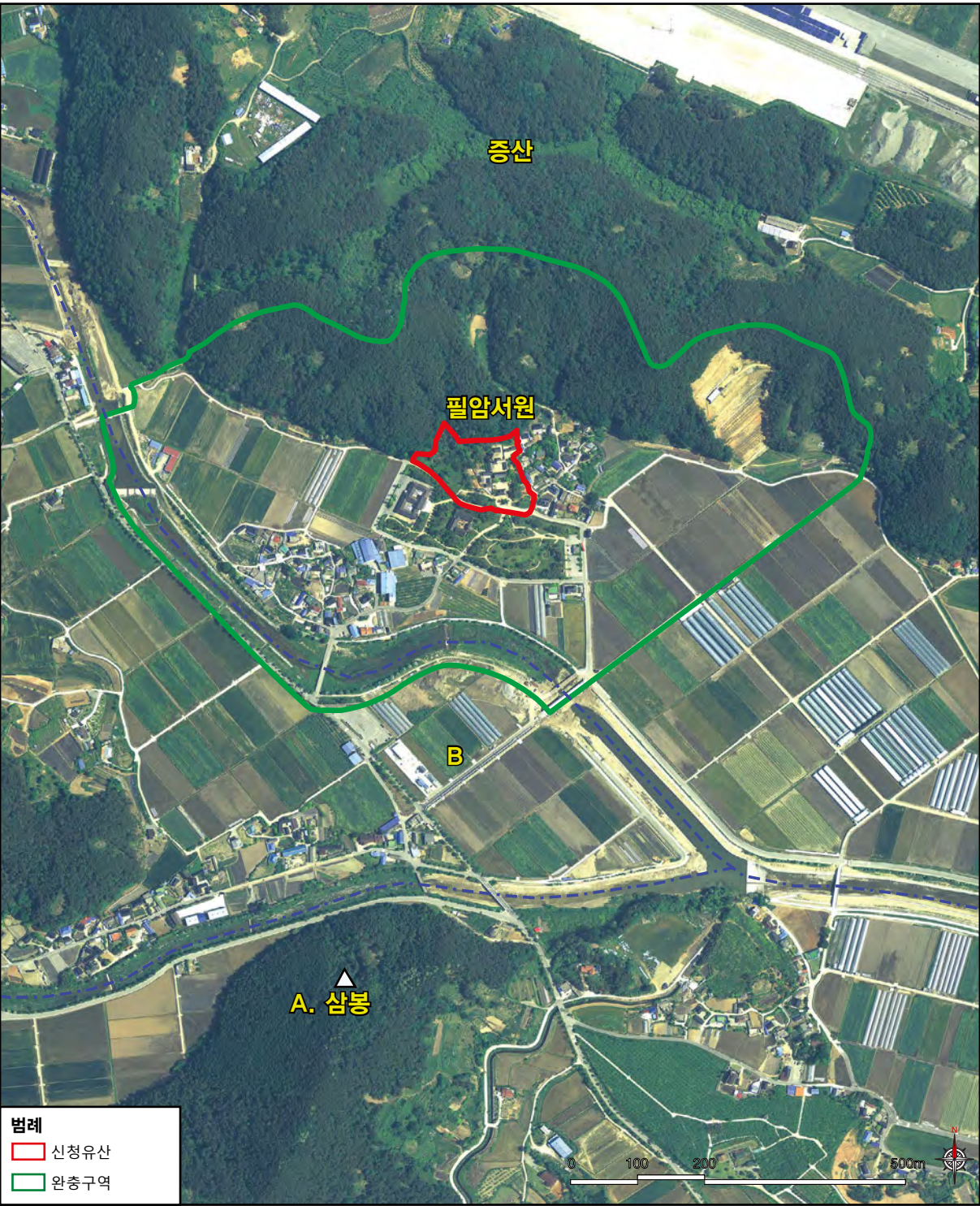


그림 2-14. 필암서원 위성사진

표식	환경요소	경관	보호체계		
			산지관리법	하천법	농지법
A	삼봉	산경	O	—	—
B	농지	야경	—	—	O

필암서원은 야경이 강조되는 서원으로 후면에 증산을 등지고 전면에 들판과 농지가 보이는 평지에 입지한다. 확연루에 올라서면 탁 트인 야경을 조망할 수 있다. 전면의 우측에 위치한 삼봉은 필암서원에서 약 1.4km 떨어져있다. 이 산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장성군에서 관리한다. 경내에서 보이는 농지는 일부가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완충구역 바깥의 경우에는 각각 도시계획조례와 농지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림 2-15. 필암서원과 주변경관



그림 2-16. 필암서원과 삼봉

2.f 도동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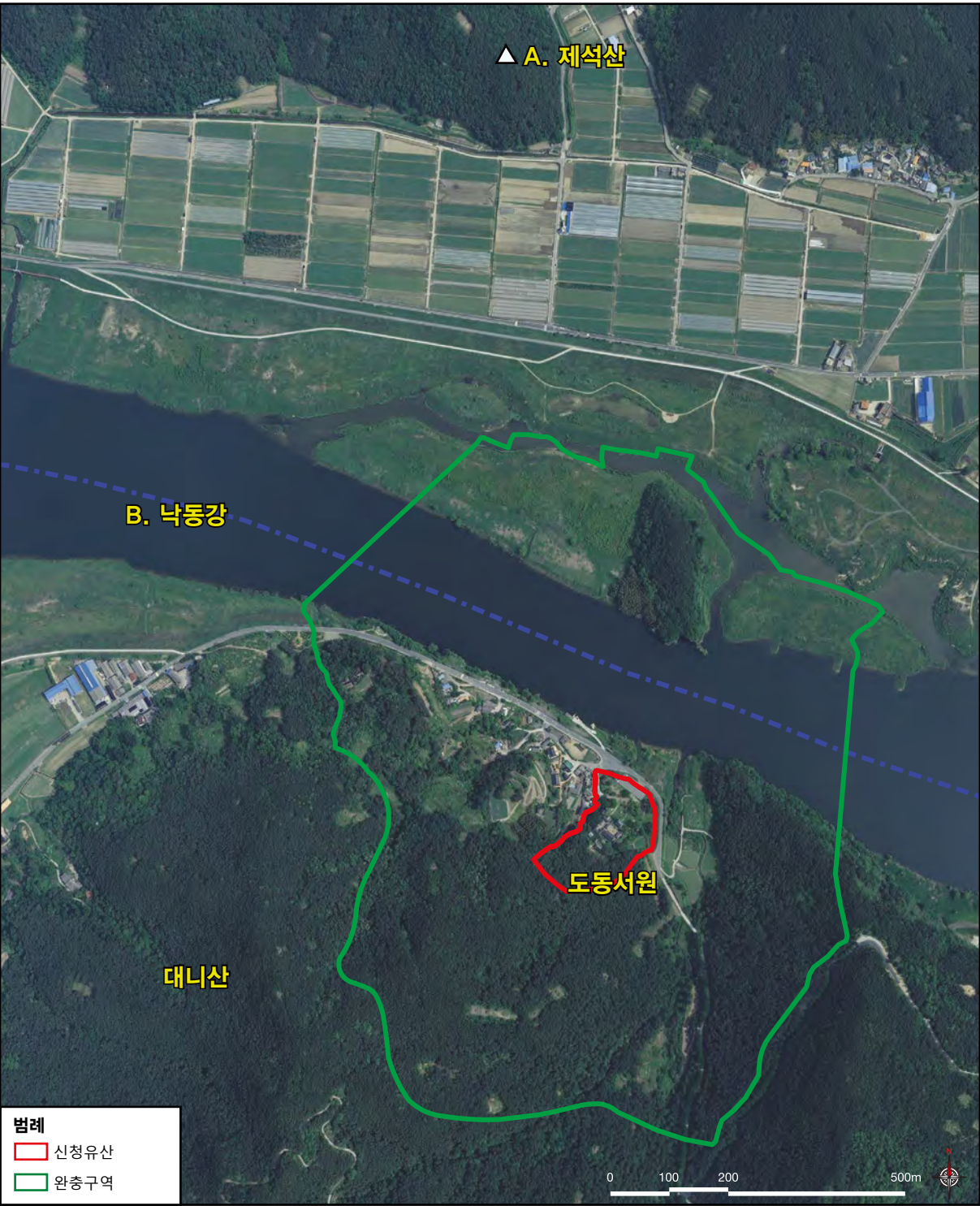


그림 2-17. 도동서원 위성사진

표식	환경요소	경관	보호체계		
			산지관리법	하천법	농지법
A	제석산	산경	O	—	—
B	낙동강	강경	—	O	—

도동서원은 강경이 강조되는 서원으로 대니산 기슭에 자리하여 북향으로 전면의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다. 경사지의 지형 조건을 최대한 살려 수월루뿐만 아니라 중정당, 사우에서까지 서원 전면의 뛰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완충구역을 가로지르는 낙동강은 도산서원과 마찬가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하천법으로 보호된다. 낙동강 너머의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보호되며, 서원 전면으로 보이는 제석산은 약 3km 떨어져 있으며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이러한 경관요소들은 달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2-18. 중정당망 제석산



그림 2-19. 도동서원과 낙동강

2.g 병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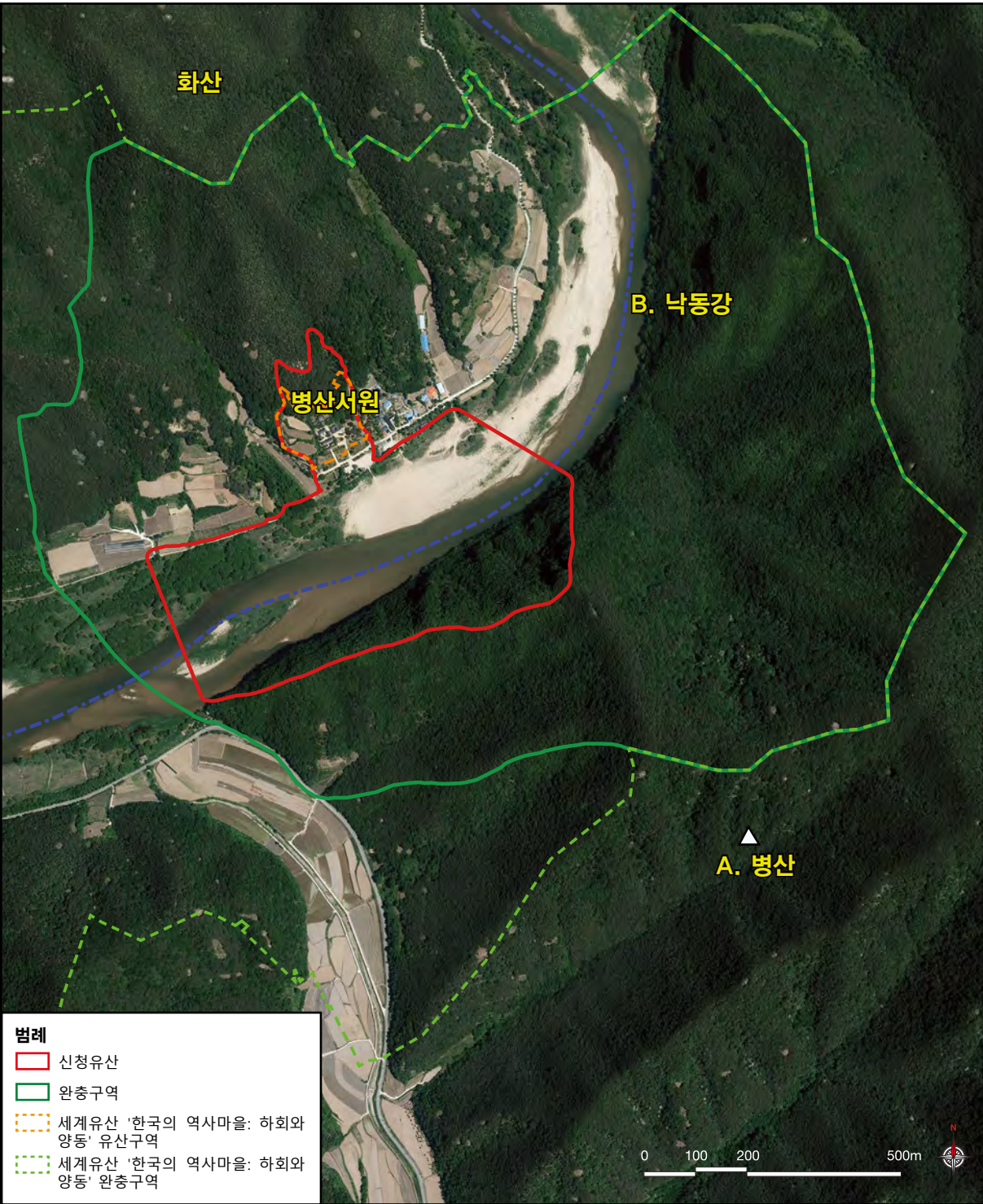


그림 2-20. 병산서원 위성사진

표식	환경요소	경관	보호체계		
			산지관리법	하천법	농지법
A	병산	산경	O	—	—
B	낙동강	강경	—	O	—

병산서원은 강경이 강조되는 서원으로 서원 앞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산을 바라보는 경관을 이룬다. 병산서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원 전면의 병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은 병산서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유산구역에 병산구역의 일부까지가 포함되었다. 병산과 서원 뒤쪽의 화산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이 산들은 201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에서 하회마을의 완충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보호되고 있다. 또한, 안동시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산림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낙동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하천법으로 보호된다.



그림 2-21. 병산서원과 낙동강



그림 2-22. 입교당망 병산

2.h 무성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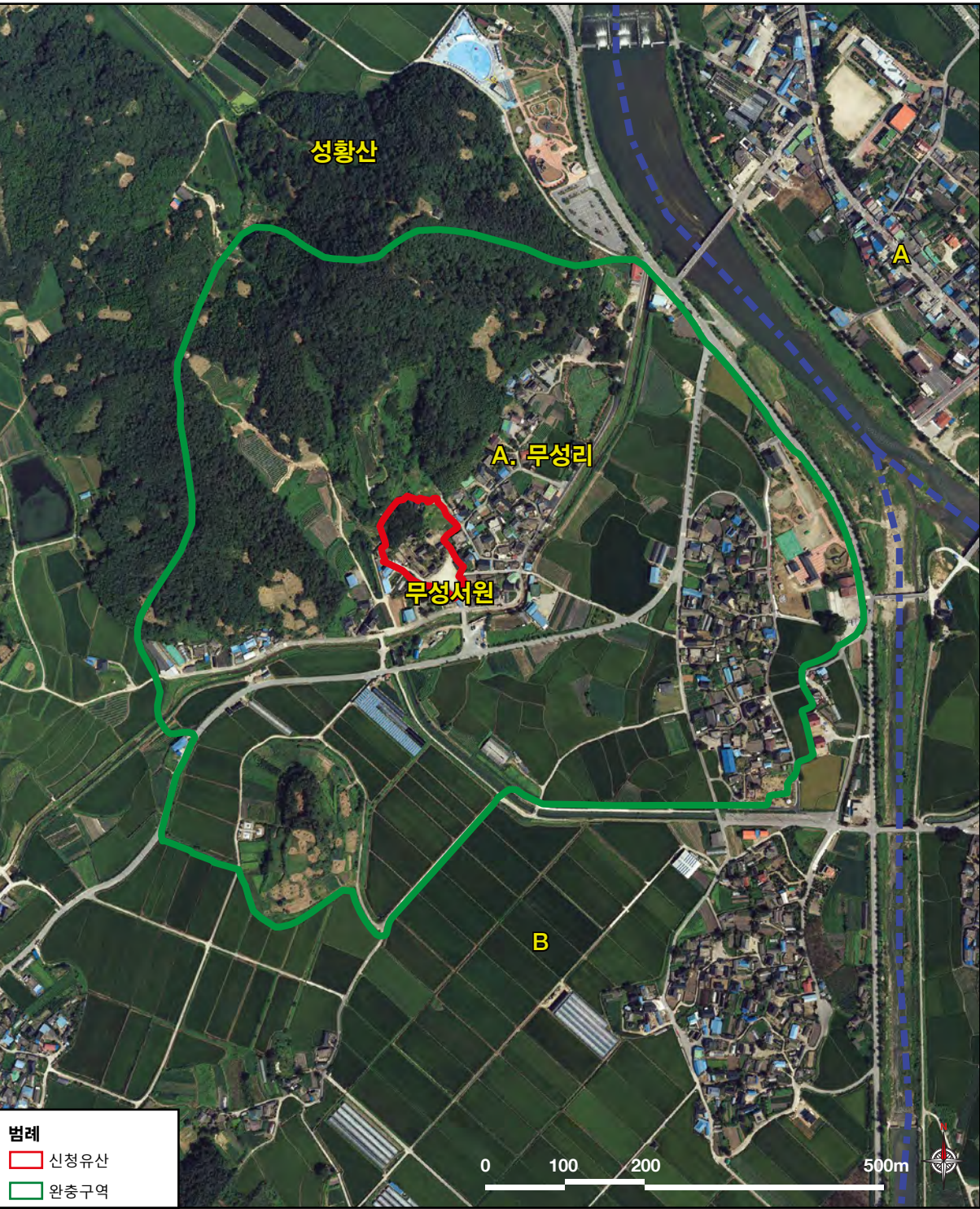


그림 2-23. 무성서원 위성사진

표식	환경요소	경관	보호체계		
			산지관리법	하천법	농지법
A	무성리	마을	환경법 해당없음. 문화재보호법 및 도시계획조례		
B	농지	야경	-	-	0

무성서원은 지역의 성리학 교육 및 교화를 주도한 인물들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서원 뒤 성황산 아래 입지하고 있다. 서원 전면경관은 자연경관이 아닌 마을들이 들어선 사회적 경관이 강조되는 서원이다. 이에 산수가 두드러진 다른 서원의 입지와 다르게 서원 건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활동지 인근에 건립되었다. 성리학의 사회 교화와 실천 또한 서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에 주요 경관은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포함시켰으며, 구역 밖 경관은 마을, 농지, 하천, 산들로 각각 건축법, 농지법, 하천법,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서원 앞 마을은 대부분 문화재보호법 안에서 개발규제를 받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을 벗어나는 지역에서도 정읍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받는다. 이외에도 정읍시에서는 마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한식지붕설치, 전통 담장 보수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그림 2-24. 무성서원과 무성리



그림 2-25. 무성서원 근처의 농지

2.i 돈암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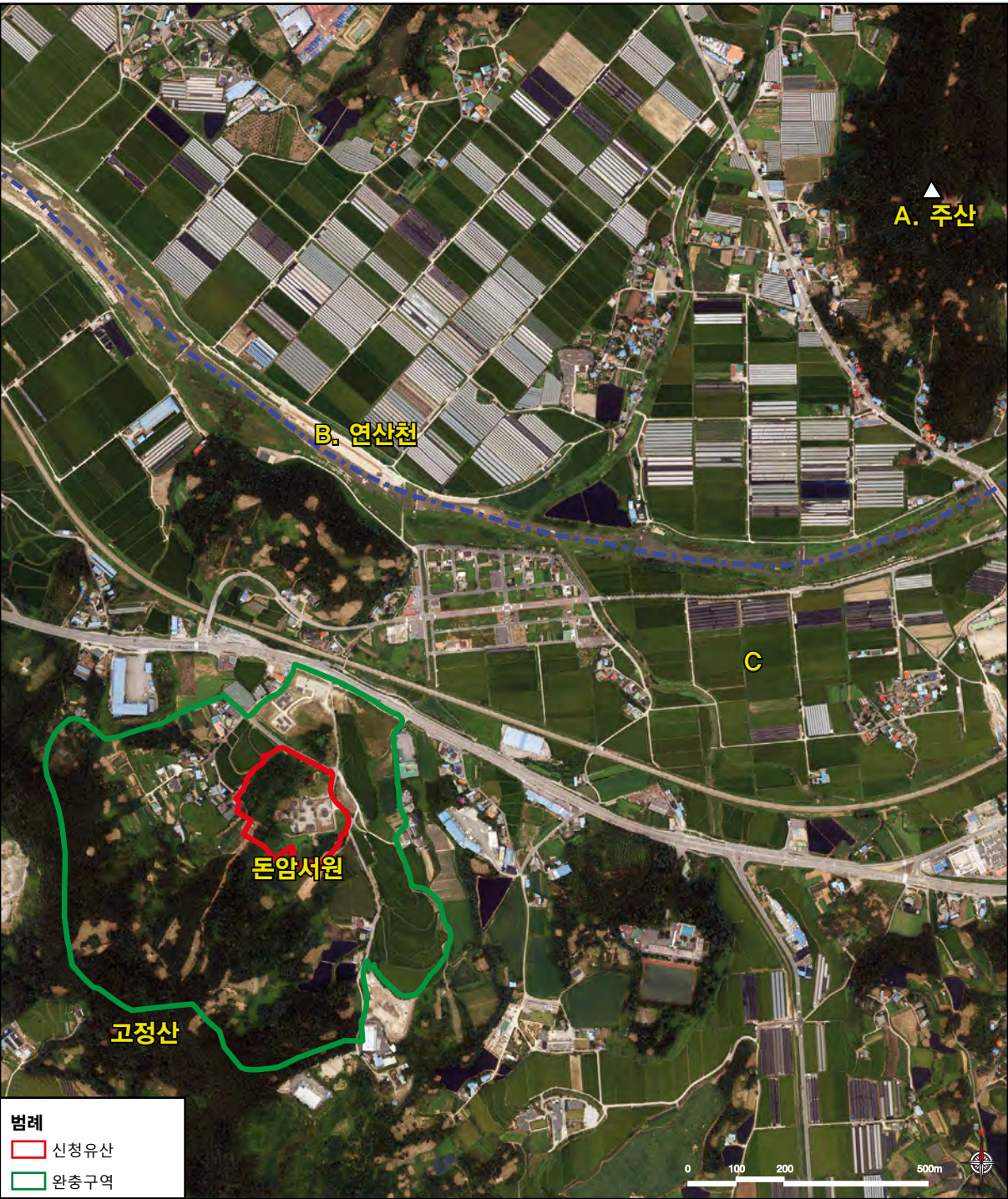


그림 2-26. 돈암서원 위성사진

표식	환경요소	경관	보호체계		
			산지관리법	하천법	농지법
A	주산	산경	O	—	—
B	연산천	계경	—	O	—
C	농지	야경	—	—	O

돈암서원은 야경이 강조되는 서원이다. 서원은 고정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양루에 올라서면 서원 앞 농지와 연산천을 지나 멀리 산들이 보인다. 이에 주요 경관은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포함시켰으며, 구역 밖 경관은 대부분 농지와 하천, 산들로 각각 농지법, 하천법,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서원 전면에 보이는 농지는 농지법, 좌측으로 보이는 연산천은 하천법, 전면의 주산은 산지관리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서원 인근의 평야는 대부분 농경지이며, 전면에 지어진 저층 건물들은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논산시에서는 이러한 건물들이 서원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림 2-27. 응도당망 주산



그림 2-28. 돈암서원과 농지

3. 통합관리계획

개별 유산요소마다 종합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서원관리단이 9개 유산요소를 단일 유산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유산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국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이를 준비할 것으로 압니다.
가능하다면 서원의 통합관리계획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3.a 통합관리계획의 이행

정부(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유산이 소재한 9개 서원에 대한 연속유산의 통합관리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9개 서원의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안)을 서원관리단을 통해 마련하였다. 추진계획은 서원관리단과 정부가 함께 협의하여 등재 이전의 준비단계인 1단계(통합관리 기능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와 등재 이후의 2단계(제도, 예산 및 통합관리 계획 마련)와 3단계(통합관리 시행)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통합관리는 3단계인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등재 이후 원활한 통합관리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연속유산으로 등재되는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관리계획 마련과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현재의 서원관리단 기능을 확대 및 개편하여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표 3-1. 통합관리체계 단계별 추진(안)

구분	단계 및 기관	주요 내용
등재 이전	1단계 2019년 6월 이전	통합관리 기능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 － 통합관리 지원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관계기관 업무조율 － 지방자치단체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표준 조례(안) 준비
등재 이후	2단계 2019년 7월 ~ 2020년 6월	제도 및 예산 수립 － 통합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 통합관리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 계획 마련 － 9개 서원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 보호관리 계획’ :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서원관리단 조직 개편
	3단계 2020년 7월 이후	통합관리 시행 － 서원 관계자 협업을 통한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계획 시행 : 개별 서원 현장관리 및 통합관리 시스템 이행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서원관리단은 신청유산의 통합관리 전반을 수행하며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서원운영자 간의 협업 체계를 총괄할 것이다.

3.b 역할 및 업무

‘한국의 서원’은 총 1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6개는 광역, 8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다. 서원은 현재 모두 국가 사적으로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 및 사업 수행 체계 안에서 개별 관리되고 있다. 또한 각 서원들의 상시관리는 일부 관리사무소들과 서원에 속한 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다.
등재 이후에는 서원관리단을 중심으로 9개 서원에 대한 통합모니터링과 연속유산에 대

표 3-2. 통합관리 역할 분담 및 구성

구분	이행 기관	역할	구성
총괄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세계유산 관리 총괄 －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세계유산팀, 보존정책과
통합관리	이사회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전반에 대한 의결 － 세계유산 권고사항 이행 － 통합관리계획 자문	광역, 기초, 서원, 학술전문가
	사무국 (서원관리단)	위원회 운영 및 통합관리 실무 주체 － 서원 OUV 보호 및 유산 모니터링 관리 － 유산 전시, 교육, 홍보	사무국
현장관리	광역자치단체	신청유산의 현장 관리 － 현장에서 서원관리 직접 수행 － 서원관리단 행정 및 재정 지원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관리단 포함)	서원 운영 － 서원 운영위원회 개최	달성군, 논산시, 정읍시, 장성군,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함양군
	서원 운영자	－ 제향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9개 서원

한 학술연구 및 통합보존관리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유산의 홍보 및 해설은 4장(통합해설)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 3-3. 분야별 통합관리계획(안)

분야	주요 내용
관리	－ 개별 서원에 기초한 9개 서원 통합관리계획 수립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관리 평가체계 구축 － 건물 복원, 수리 등 관리계획 정부(문화재청, 지자체)와 공유(건축물 보수이력 카드 통합 관리) － 지역공동체(소유자 및 관련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등
연구	－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및 세계유산 정기보고서 데이터 구축 － 서원 OUV 보호를 위한 분야별 학술연구 진행 등
홍보 및 해설	－ 연속유산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 지역 문화관광해설사 및 서원 운영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서원별 방문객 통계 자료 관리 및 적절한 관광계획 수립 등

4. 통합해설

현재 개별 유산요소마다 전체 신청유산에 대한 해석이 일정 부분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유산해석을 강화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코모스 패널은 신청유산 전반에 대한 강화된 유산 해석의 성격과 범위,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통합관리단은 브로슈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대한 유산 해설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신청유산이 소재한 지역의 서원 관리자, 학예사, 해설사들은 9개 서원의 연계성, 해당서원과의 관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세계유산으로서의 유산 소개, 통합 해설을 위한 교육 실시,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통합계획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유산해석과 관련한 대부분의 재원은 중앙정부인 문화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해 조달될 것이다.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의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성격, 범위, 기간으로 구분된다.

표 4-1.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해설 강화 계획

항목	주요 내용	
성격	연속유산으로서의 통합 해설 강화, 해당서원과 9개 서원과의 연관성	
범위	방문객, 해설자, 서원운영자, 자원봉사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	
기간	2019년 7월 - 2020년 6월	통합관리 계획 수립
	2020년 7월 이후	통합 업무 이행

연속유산에 대한 오프라인 해설

9개 서원마다 각 건축물 혹은 진입구 앞에 국문과 영문으로 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각 서원의 안내판은 해당 유산의 역사와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등재 이후에는 연속유산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9개 서원 전체에 대한 역사 및 건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통합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일부 서원에는 QR 코드를 결합한 안내판이 있어 방문객이 모바일을 통해 해당 서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들을 수 있으며, 통합 QR 코드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2020년 하반기에 9개 서원에 공통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9개 서원의 매표소, 방문객센터, 관리사무소에는 신청유산에 관한 국·영문 통

합 브로셔가 비치되어있어 누구나 무료로 연속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꼭 서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통합홈페이지(www.seowonheritage.org)를 통해 해당 브로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서원 간의 연계 프로그램 현황 및 방문 경로 등을 포함하여 연속유산에 부합한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며, 더 많은 언어로 제작할 계획이다.

9개 서원 현장에는 문화유산해설사 및 서원운영자들이 방문객에게 유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은 개별 혹은 소규모 단체를 상대로 진행되는 반면, 서원운영자들은 학교나 회사 등 큰 집단이 신청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해당 서원 운영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이들이 주체로 된 프로그램 시간을 확대하고 뚜렷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 서원운영자의 비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유산 지킴이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며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일반 대중을 위한 강의와 답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통합관리의 기본계획 안에 통합해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부터 모든 현장에 통합 해설에 대한 내용을 적용할 것이다.

연속유산에 대한 온라인 해설

9개 서원에 대한 통합홈페이지는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언어는 국·영문으로 제공된다. 또한 각 서원의 역사, 건축, 사진 및 동영상 등이 게재되어 있어 전체 유산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각 서원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점, 개별 서원의 독특성, 등재기준 등을 추가하여 유산을 소개하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한 총 4개국어로 통합홈페이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9개 서원에 대한 VR 영상이 완성되어 각 서원에 대한 내부 모습을 통합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등재 이후인 2019년 하반기에는 3D영상 업데이트 등 통합홈페이지 내용의 확장 및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0년에 통합 조직이 확대되면 더 많은 언어로 통합홈페이지를 제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간한 9개 서원 관련 도록 및 홍보물, 사진 등 모든 관련 자료에 관한 전자 아카이브를 만들 예정이며, 사용자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통합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2020년 초부터 관련 자료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 해설을 위한 교육 실시

서원운영자들은 자신이 속한 서원의 활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이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서원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해설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콘텐츠는 2020년 통합관리 조직이 개편되면 관련 부서에서 작성하여 문화재청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유산해설사는 각 서원의 역사, 인물, 건축물, 관련 유물뿐만 아니라, 여타 서원에 관한 정보를 반기마다 교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9개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방문객의 편의를 돕는 자원 봉사자들이 연속 유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소개 지침서’를 만들 예정이다. 이들은 방문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산을 해설하지는 않지만 전체 유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방문객들에게 알릴 수 있다. 2020년 하반기부터 통합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2019년 등재 이후 하반기부터 통합 해설에 대한 교육의 주체, 방법,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유산과 인근 지역 간의 연계 강화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단일 서원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주제나 지역별로 복수의 서원들을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당일 혹은 1박으로만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은 신청유산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방문객들이 다양한 서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서원운영자들의 연계를 강화하여 모든 서원운영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참가자들과 직접 교류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관련 부서에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테마를 구상하여 같은 해 말에는 연계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재결정문

2019. 07. 10.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결정문(영문)

Decision : 43 COM 8B.2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 1. Having examined** Documents WHC/19/43.COM/8B and WHC/19/43.COM/INF.8B1 ,
- 2. Inscribes**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Republic of Korea**,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 the basis of **criterion (iii)**;
- 3. Adopts the** following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rief synthesis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s a serial property which comprises nine seowon representing a type of Neo–Confucian academy of the Joseon Dynasty (from the mid–16th to mid–17th centuries CE). It is an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The components are Sosu–seowon, Namgye–seowon, Oksan–seowon, Dosan–seowon, Piram–seowon, Dodong–seowon, Byeongsan–seowon, Museong–seowon and Donam–seowon, and these are located across the central and southern p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perty exhibits an outstanding testimony to thriving Neo–Confucian academies that promoted learning of Neo–Confucianism, which was introduced from China and became fundamental to every aspect of Korea.

The local literati at seowon created educational system and tangible structures conducive to fully commit themselves to learning. Learning, veneration and interaction were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seowon which are closely reflected in their design. The seowon were led by sarim or the class of local intellectuals. The seowon developed and flourished as centres for the interests of the sarim.

The primary factor in siting the seowon was the association with venerated scholars. The second factor was the landscape, and seowon are located near mountains and water as part of appreciating nature and cultivating the mind and body. Pavilion style buildings in the seowon facilitated connections to the landscape.

The scholars studied Neo–Confucian classics and literary works and endeavoured in understanding the universe and becoming ideal person. They venerated late contemporary Neo–Confucian figures, and formed strong academic lineage spearheaded by venerated scholars. Furthermore, local literati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disseminating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through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based on the property.

Criterion (iii):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re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in the form of educational and social practices, many of which continue. The seowon illustrate an historical process in which Neo–Confucianism from China was tailored to Korean local conditions resulting in academies which are exceptional testimony of this transformative and localising process in terms of function, planning and architecture.

Integrity

The property retains all attributes that reflec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These are the buildings and constructions constituting the seowon, ancillary buildings, entrance gate, dismounting stele, commemorative stele, immediate environments including hills, streams, roads, plantings and visual catchments. The attributes of the property are generally in excellent condition.

The major pressures on the property, development, insect damage, fire, earthquakes and visitors, are being adequately managed. However, they should continue to be monitored.

Authenticity

The property meets the requirements of authenticity. The form and design, and materials and substance are basically intact. The use and function of the seowon, and their traditions, are largely as they were through history, although noting that the educational role has been largely diminished. The location and setting of the seowon have been generally retained, although it is noted that two components have been relocated in the historical past. The intangible heritage, and the spirit and feeling of the seowon have been generally retained.

Management and protection requirements

The primary protection of the property is provided b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ith additional protection offered by other heritage laws ena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These other laws are the Act on Cultural Heritage Maintenance, Etc. and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laws are supported by Presidential decrees and ministerial orders.

The nine components are all state–designated heritage.

These legal instruments play a major role in ensuring the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property in terms of carrying out repairs and safeguarding venerations. The relevant provinces have also prepared heritage protection ordinances 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se ordinances also offer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organisatio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e management system comprises the Seowon Foundation, seowon steering committees, and central and loc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requires the property to be manag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 seowon community. The Seowon Foundation is in charge of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e components are managed on a daily basis by government and seowon personnel, with the seowon steering committee responsible for operations and management.

The central governmen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vides support and supervision. Local governments also provide support to the Foundation. Conservation expertise is available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Each seowon has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which is equivalent to a management plan. In addition, there are a range of ke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anuals and guidelines. An integrated management document is being developed.

Some risk preparedness exists, and additional planning and systems are being developed.

Current visitor management arrangements are satisfactory although a better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is needed.

- 4.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ive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 a)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for the seowon Academies,
 - b) Further developing an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등재결정문(국문)

등재결정문 : 43 COM 8B.21

세계유산위원회는,

1. 의제문서 WHC/19/43.COM/8B 및 WHC/19/43.COM/INF.8B1를 검토한 결과,
2. 대한민국의 ‘한국의 서원’을 기준(iii)에 근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다.
3. 다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채택한다.

종합요약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탁월한 증거이다.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중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 걸쳐 위치한다. 서원은 중국에서 도입되어 한국의 모든 측면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리학을 널리 보급한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 탁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서원의 향촌 지식인들은 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유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학습과 제향, 교류는 서원의 핵심적인 기능이었으며, 이는 건물의 배치에 잘 드러나 있다. 서원은 그 지역 지식인들인 사림이 이끌었다. 서원은 사림의 이해관계에 따라 향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변성했다. 서원의 위치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선현과의 연관성이다. 두 번째 요소는 경관으로, 서원은 자연감상과 심신단련을 위해 산과 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서원에서도 사방이 뚫린 건물은 그러한 경관과의 연결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 학자들은 성리학 고전과 문학작품을 공부했으며,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고인이 된 동시대 성리학자들을 배향하고 그들이 개척한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했다. 나아가 서원에 근거한 다양한 사회정치적 활동을 통해 성리학의 원칙을 널리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기준(iii)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그 교육과 사회적 관습은 많은 부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인 증거이다.

완전성

서원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속성을 갖고 있다. 이는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도로, 수목과 시야 내 경관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를 의미한다. 해당 유산의 이들 속성은 전반적으로 그 상태가 우수하다. 유산에 압력을 끼치는 주요 요소인 개발과 총해, 화재, 지진과 방문객 문제 등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진정성

본 유산은 진정성 요건을 충족한다.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 활용과 기능, 전통은 대부분 그간 지속되어 온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축소된 면이 있다.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은 전반적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두 곳의 서원은 최초의 위치에서 옮겨진 바 있다. 무형유산과 서원의 영적 측면 또는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보호관리 요건

유산의 보호는 1차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며, 그 밖에 문화재청이 마련한 여타 유산 관련 법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령과 장관령도 이를 뒷받침한다. 9개 서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문화재 수리의 시행과 배향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유산의 체계적 보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방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유산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들 조례 또한 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단체의 설립과 운영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서원관리단과 추진위원회, 중앙 및 각 단위 지방정부가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관련 지자체나 개별 서원이 해당 유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서원관리단은 유산의 통합관리를 담당한다. 정부와 개별 서원이 각 서원의 상시 관리를 담당하며 추진위가 그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문화재청은 각종 지원을 담당하고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자체 또한 관리단을 지원한다. 보존과 관련된 전문지식은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함께 제공한다. 개별 서원에는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종합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핵심이 되는 보존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통합관리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다. 위험대비 대책 또한 일정 부분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과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다. 방문객 관리 내용 또한 만족스러운 상태이나 9개 서원을 단일 유산으로 보다 잘 통합해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당사국이 다음 사항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a) 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 완료
- b)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서 통합하기 위한 해설 개발

